

이 자료집은 속초시보조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2020 속초 도시변천사 기록사업 자료집

속초 도시변천사 I

영랑동 · 장사동





도시변천사 I

영랑동 · 장사동

발간사

‘도시변천사’를 기록하고 정리하는 작업은 속초문화원에서 관심과 열정을 다하는 주요 사업 중 하나입니다.

점차 변해가는 우리 지역의 모습과 이야기들을 수집하고, 시간 속에 묻혀있는 옛것들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문화의 단절성은 연속성으로 다시 우리 곁을 채워줍니다.

2020년 도시변천사 발간 사업은 <영랑동, 장사동>을 공간적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우리 속초지역에서 이 장소들은 중요한 상징성이 담겨있습니다.

삼국시대 화랑 이야기를 포함해 예로부터 많은 문객들의 사랑을 받아왔던 ‘영랑호’가 있으며, 한국전쟁 후 속초에서 가장 번영하였던 행정구역 상 1구 역시 이곳입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속초 도시변천사 I, 영랑동·장사동 편』은 향후 속초문화원에서 도시변천사 사업을 전개하는데 있어 방향성을 보여주는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이를 시작으로 매년 단계적으로 지역별 도시변천사 기록사업을 진행할 것입니다.

김정환, 한정규, 정종천 속초문화원 향토사연구위원들과 최영택 선생님, 그리고 보조연구원분들의 기획과 연구, 조사, 집필 전 과정들이 많은 땀과 열정으로 가득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분들의 노력이 우리 지역 도시변천사 연구의 체계를 세워나가고 발전을 위한 시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11월

속초문화원장 김계남

며 리 말

시간은 모든 것을 변하게 한다. 어릴 적에는 친구들과 영금정 오리바위에서 멱을 감았다. 수영을 잘하는 친구들은 오리바위까지 건너가 너는 왜 못건너오냐는 듯이 으스대곤 했다. 하지만 지금 아이들은 그런 추억을 만들 수 없다.

지금의 그 장소는 멱감는 아이들 대신, 속초를 추억하고 싶은 관광객들이 바다를 보며 사진을 찍고 회 한 절음 맛보는 곳으로 변하였다. 이곳을 찾는 관광객이 많아지면서 그들을 위한 시설이 만들어지고, 가게들마다 음식을 즐기면서 바다의 풍경을 눈에 담는 사람들로 넘쳐난다. 간혹 그곳을 추억하는 속초의 아빠들은 아들, 딸을 데리고 가서 “내가 어릴 적 이곳에서 멱을 감았어. 저 오리바위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은 나뿐이 없었어.”라고 하며 추억을 자랑하곤 한다. 그러나 그 추억마저도 시간이 흐르면서 왜곡되어 변형된 모습으로 기억되곤 한다.

‘도시변천사’ 정리 작업은 이런 상황을 고려하여 시작하였다. ‘도시변천사’라는 단어가 어느 누군가에겐 생소할 수도 있고, 그 일을 왜 하느냐고 물을 수 있지만 기억이 더 희미해지기 전에 우리 동네의 옛 모습을 기록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기록으로 남길 수 있는 자료가 많지는 않지만, 옛 문헌과 다른 연구자들의 연구물, 주민들의 증언을 토대로 가능한 한 옛 모습을 복원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렇게 시작한 변천사 정리 작업은 두 가지 목적이 있다. 하나는 조각 조각 나뉘어 있는 옛 기록을 한 곳에 모아 놓는 일이며, 두 번째는 이 기록을 근거로 하여 새로운 문화 자원을 창출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정리 작업은 영랑동부터 시작하였는데 그 이유는, 속초의 발전 과정에서 이곳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영랑동 새쪽마을(삽짜개)은 속초의 형성기부터 원주민이 살았고, 영랑호수는 화랑 영랑을 비롯한 많은 시인묵객들이 지나면서 노래를 남긴 곳이다. 한국전쟁 후에는 속초에서 가장 변화한 곳으로 속초의 주요한 건물들이 밀집해 있었고 상거래가 활발했던 곳이었다. 또한 속초읍 시절 1구였던 이곳부터 시작하여 속초시 전역의

역사를 되짚어 보겠다는 의도가 반영되었다.

변천사 정리 작업을 하면서 느낀 점은 영랑동이 속초의 역사를 담은 중요한 지역이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구석구석에는 아직도 옛 흔적이 남아있는 곳으로 보존 가치가 있으며, 새로운 문화 공간으로 만들어도 좋을 만한 콘텐츠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많은 것들이 편리함의 가치에 밀려 사라지기도 하고 변형되어 가고 있다. 2004년에 조사된『문화유적 분포지도』에는 근대문화 유산으로 조사된 사합촌, 해동약방, 계림관, 영랑시장 지붕 등이 보인다. 그런데 이번 작업을 하면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기존 건물들은 모두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현대식 건물들이 들어서 있다. 단지 해동약방 만이 외형이 변형되어 유지되고 있다.

근대 문화유산은 우리들이 지혜를 모으면 보존과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귀중한 자원이다. 아직도 골목 골목에는 1구시장의 추억을 간직한 건물들이 많이 남아있다. 그렇지만 이것들도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상황에 놓여 있다.

도시 변천사를 정리하는 작업은 여러 가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과거의 자료가 충분하지 않고, 당시 찍어놓은 사진도 많지 않으며, 기억하는 분들의 증언도 정확하지 않은 것이 많다. 그러나 최대한 조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기록하고 나름대로 대안을 제시하려고 노력하였다.

이 기록이 앞으로의 속초시 역사 연구와 지역 보존, 관광 콘텐츠 개발에 좋은 자료로 쓰여지기를 바란다. 아울러 도시 변천사의 중요성을 알고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김계남 속초문화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작업에 많은 도움을 주신 고성군향토사연구소 김광섭 선생님, 좋은 사진을 제공해 주신 전태극, 박경심 사진작가님, 그리고 기증받은 1구시장의 옛 사진을 흔쾌히 내어주신 속초시립박물관, 그 외 증언에 협조해 주신 주민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린다.

2020. 11. .

속초문화원 향토사연구소

목 차

발간사

머리말

I · 자연·인문 환경

13 / 자연 환경

32 / 인문 환경

II · 역사

51 / 전근대의 역사

63 / 근·현대 시대

98 / 기념물

101 / 근대건축물

106 / 주요 기관

135 / 지명

III · 산업

155 / 산업구조

157 / 영랑동 산업구조

IV · 문화예술

173 / 문화의 특징

174 / 예술 활동

175 / 영랑호의 문학

242 / 구비전승

V · 삶과 민속

- 255 / 세시풍속
- 258 / 민속신앙
- 261 / 민속놀이
- 266 / 의식주
- 279 / 구전민요

VII · 인물

- 287 / 인물

- 293 【부록1】 영랑동 연표
- 301 【부록2】 증언 기록
- 337 【부록3】 영랑동 사진 기록
- 364 【부록4】 추억을 간직한 거리

참고문헌

I . 자연·인문환경



1979년 영랑동 · 장사동 지역 항공사진

출처 : 국토지리정보원

1. 자연환경

가. 기후

1) 개요

영동 지방에 속한 속초는 겨울철에는 북서계절풍, 여름철에는 남동계절풍이 분다. 중위도에 속해 편서풍(偏西風)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해안 지역에 위치하여 해류풍의 영향도 자주 나타난다. 쾨펜의 기후 구분에 의해 온대 기후에 속하며 식생 분포에 의한 구분으로는 남부 동안형 기후로 강릉, 삼척, 포항과 비슷한 기후가 나타난다.

봄철에는 건조한 날씨와 양간지풍의 영향으로 산불 위험이 높으며, 잣은 강풍으로 농작물 피해 및 어로작업에도 지장을 초래한다. 편서풍대에 속해 황사와 미세먼지가 중국 대륙 및 서해안에서 유입되나 태백산맥에 의해 차단되어 농도가 수도권 및 영서 지방에 비해 낮다. 간혹 4월에서 5월 초 남서풍이 유입되어 태백산맥을 넘으면서 이상고온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늦봄에서 초여름에는 높새바람¹⁾에 의해 속초 지방에서는 저온 현상 및 냉해가 발생하고, 훈현상²⁾으로 영서지방에서는 고온 현상 및 가뭄이 발생하여 동위도의 낮 최고 기온 차이가 10°C 내외로 나타난다. 동풍에 의한 높새바람은 영동지역의 농작물 생육에 지장을 초래하나, 최근에는 황사 및 미세먼지를 서쪽으로 밀어내어 영동 지방의 오염농도를 낮추는데 일조한다.



<그림 1> 높새바람 모식도

- 1) 높바람(북풍)과 샛바람(동풍)에서 유래, 오�호츠크해에서 동해안으로 불어오는 북동풍
- 2) 온난다습한 성질의 바람이 산맥을 넘으면서 고온 건조한 바람으로 바뀌는 현상, 독일어:Föhn에서 유래함.

이러한 저온 현상은 대체로 6월 중순에 소멸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상대적으로 오후초크해 기단의 세력이 강하면 8월 말까지도 동해안에 영향을 미쳐 마른장마가 나타나고, 평년 기온보다 낮아 해수욕장을 비롯한 여름 장사에 피해를 주는 해도 있다.

장마철에는 장마전선이 제주도와 남해안으로부터 북상하면서 구름량이 많고 날씨가 궂으며 비가 자주 내린다. 이때 장마전선으로 다습한 남서풍이 유입되면서 남해안 및 영서 지방에 지형성 강우가 집중되나 속초 지방은 상대적으로 빈도가 적다. 하지만 기상이변이 증가하면서 국지성 강우³⁾의 빈도가 높아져 평년에 비해 여름 강수량이 많아지고 있다.

여름철은 대체로 북태평양 기단의 영향으로 고온다습(高溫多濕)한 기후가 나타나며, 기온은 동해의 영향으로 내륙보다 약간 낮다. 해안에 위치하여 맑고 기온이 높은 날의 낮에는 바다에서 육지로 해풍이 불고, 밤에는 육지에서 바다로 육풍이 분다.

가을철은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날씨가 맑고 온화하여 일조량이 풍부하다. 습도가 낮아서 농작물의 수확과 결실에 유리하며, 청명한 날씨 속에서 점차 기온이 하강하면서 설악산 대청봉에서부터 단풍이 시작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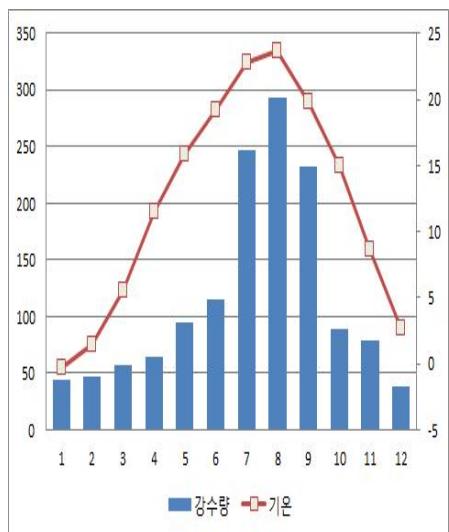
겨울철에는 대체로 한랭건조(寒冷乾燥)한 대륙기단의 영향을 받으며, 태백산맥이 북서계절풍을 차단한다. 수심이 깊은 동해는 수온 변화가 적어 상대적으로 서해에 비해 수온이 높으므로 동위도의 영서 지방보다 겨울철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많다. 속초를 비롯한 영동 지방은 일반적으로 1월 말에서 2월에 거쳐 대륙 기단에서 분리된 이동성 고기압이 오후초크해 부근에 위치하고, 우리나라 남서해안에 저기압에 위치하면 북동기류⁴⁾가 발생하여 대각선 방향으로 동해를 가로질러 태백산맥에 부딪히면서 대설이 자주 내린다. 그러나 최근 수년 동안 기상이변으로 겨울철 강설량이 급감하였다.

3) 특정 지역에만 내리는 비로 소나기 및 집중호우가 이에 해당함.

4) 우리나라 북동쪽에서 내려오는 습기가 많은 기류이다. 이 기류와 거의 직각 방향으로 태백산맥이 놓여있는 중부 동해안 지역은 여름철, 겨울철 각각 많은 양의 비와 눈이 내린다.

2) 속초 기후 그래프

<표 1> 속초 평균기온과 강수량(1981~2010)



<그림 2> 속초 기후 그래프
(1981 ~ 2010)

월	평균 기온 (° C)	평균 최고 기온 (° C)	평균 최저 기온 (° C)	강수량 (mm)
1	-0.3	3.8	-4.1	44.3
2	1.5	5.5	-2.4	46.9
3	5.5	9.6	1.5	56.9
4	11.5	16.0	7.1	64.3
5	15.9	20.4	11.8	95.5
6	19.2	22.7	16.0	115.7
7	22.8	26.0	20.1	246.9
8	23.7	27.0	20.9	293.0
9	19.8	23.6	16.3	232.9
10	15.0	19.4	10.8	88.7
11	8.6	12.8	4.5	78.8
12	2.7	6.9	-1.2	38.2
연평균기온 12.2°C				연강수량 1402.1mm

출처 : 기상청, 국내기후자료

나. 지형

1) 개요

영랑동의 자연환경은 석호인 영랑호와 장사동 횟집타운 북쪽의 갯바위와 영금정 암석해안 사이의 사빈해안, 그리고 영랑호 북서쪽에 완만하게 형성된 화강암 풍화⁵⁾로 형성된 구릉성산지⁶⁾로 이루어져 있으며 영랑호로 유입하는 소하천인 장천천이 유일한 하천이다.

1970년대 말까지 천혜의 자연환경을 유지하던 영랑호는 1980년대 초 동방원양(주)이 영랑호 유원지 개발을 통해 순환도로 개통, 리조트, 별장형 콘도를 건축하면서 천연호수의 원형이 많이 바뀌었다. 영랑동 해안은 장사항 방파제, 항만 건설과 해안 침식의 발생과 이에 따른 해드랜드⁷⁾ 건설로 인해 사빈

5) 암석이 제자리에서 부서지는 현상

6) 경사 15° 미만이고 해발고도 300m이하의 산지

7) 해안침식을 방지하기 위해 바다를 향해 튀어 나온 T자형 방파제

해안이 많이 유실되었다.

영랑호 주변 및 장사동의 구릉성 산지도 대기업의 리조트 및 골프장 조성과 전원주택지 형성, 공공건물의 신설로 원래의 모습이 많이 변하였다. 2002년 태풍 ‘루사’ 이후 장천천의 정비 사업으로 주변 경관이 달라졌고, 2019년 4월 고성·속초 산불이후 소나무 대체 산림으로 활엽수로 식재하여 식생분포에 큰 변화가 나타났다.



<그림 3> 1915년 일제 강점기의 영랑호 부근 지형도



<그림 4> 2020년 영랑호 부근 지형도

2) 해안 지형의 변화

해안이란 육지와 바다가 만나면서 서로 영향을 미치는 좁고 긴 지대를 말한다. 동해안은 한반도의 등줄 산맥인 함경산맥과 태백산맥에 인접하여 이들과 평행하게 발달하기 때문에 해안선의 출입이 단조롭고, 조류의 작용이 거

의 없이 활발한 파랑과 연안류의 작용에 의하여 해안 지형이 발달한다.

우리나라의 해안 지형은 지형 및 지질 등과 관련된 육지 조건과 그를 변화시키는 파랑⁸⁾, 연안류⁹⁾, 조류¹⁰⁾ 등과 관련된 바다의 조건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암석해안, 사빈해안, 갯벌해안, 인공해안으로 구분할 수 있다. 영랑동과 장사동의 해안은 장사동 횟집타운 북쪽의 갯바위와 영금정에 암석 해안이 위치하고 있으며 이곳에는 소규모의 파식대,¹¹⁾ 해식애,¹²⁾ 해식동¹³⁾이 발달하였다. 이와같이 지형 형성과 관련하여 암석해안에는 침식 지형이, 모래 해안에는 퇴적 지형이 발달한다.



<사진 1> 장사동 갯바위 해안의 해식동과 해식애

〈사진설명〉

해식동(海蝕洞)은 대부분 해안선 가까이에서 파도, 조류, 연안류 등의 작용을 받아 해안에 형성된 동굴이다.

해식애(海蝕崖)는 파도의 침식 작용과 풍화 작용에 의해 해안에 생긴 낭떠러지이며 해식애가 후퇴하면서 만들어진 파식대가 발달 한다.

두 암석해안 사이에는 길이 2km 내외, 폭 50m 내외의 전형적인 사빈해안이 발달하고 있었다. 하지만 1980년대 말 장사항 방파제 준설과 해안도로의 개설로 막대한 해안침식이 진행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두 곳에 헤드랜드

8) 바람에 의해 이동하는 바닷물의 흐름

9) 해안선을 따라 이동하는 바닷물의 흐름

10) 밀물과 썰물의 흐름

11) 암석해안에서 파랑에 의해 형성된 비교적 평평한 침식면

12) 암석해안에서 파랑의 침식에 의해 형성된 해안 절벽

13) 해안절벽에서 절리(암석의 갈라진 틈)에 형성되는 해안 절벽 동굴

를 건설하여 인공해안을 조성하였다. 이 과정에서 잠제¹⁴⁾가 추가되면서 사빈 해안의 폭이 30m 내외로 축소되고, 테트라포트¹⁵⁾가 축조되어 해안 지형의 원형이 크게 훼손되었다.

장사항은 항만기본건설계획에 따라 1998년에 길이 400m의 큰 방파제와 150m의 작은 방파제를 완공하였다. 방파제의 건립은 연안류의 흐름이 차단되는 역기능도 나타났으며, 사빈해안과 인접하여 개통된 해안도로와 함께 파랑의 원활한 유입과 후퇴를 방해하는 요인이 되었다. 이후 영랑동·장사동 해안에서는 해안침식, 가옥 붕괴, 도로 유실 등의 피해가 나타나 2000년에 재해위험지구와 연안정비 대상사업지로 선정하여 2001년부터 연안정비사업을 시작하였다.

속초시에서는 국비와 지방비 등 31억5,000만 원을 들여 영랑동 앞바다에 640m 길이의 헤드랜드 2기와 330m 규모의 잠제 3기를 각각 설치하였다. 헤드랜드 공법은 연안 모래 이동의 순환 체계를 안정화시켜 해안침식을 방지하고 태풍이나 풍랑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실제 연안정비 사업이 이뤄지면서 파도를 분산시키고, 해안 침식방지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깎여 나갔던 백사장에도 조금씩 모래가 쌓이고 있다.¹⁶⁾



<사진 2> 영랑동 해안의 헤드랜드와 잠제

〈사진설명〉

T형(버섯형) 헤드랜드 공법은 국내에서 처음 시공되었고, 연안 모래 이동의 순환 체계를 안정화시켜 영구적 해안침식을 방지하는 기능은 있으나 인공적인 해안을 조성하여 미관을 해친다.

잠제(潛堤)는 해안과 거의 수평으로 만 들어지는 높이가 낮은 수중 방파제로 파랑의 힘을 약화시켜 해안침식을 방지하는 기능이 있으며, 공사비는 절감되나 어선 항해에 방해가 될 수 있다.

14) 바닷물 속에 잠겨 있는 수중 방파제

15) 방파제 또는 방조제의 침식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다리 네 개 달린 콘크리트 덩어리

16) 「강원일보」, 2011. 5. 20일자.



〈사진 3〉 1980년대 초 넓은 모래사장이 인상적인 영랑동·장사동 해안

〈사진설명〉

속초등대 쪽에서 바라본 북쪽 해안으로 전형적인 모래 해안의 특성을 잘 나타내고 있다. 해수-사빈-해안사구가 순차적으로 나타나며 사구 너머로 영랑동 수산물 가공공장의 모습이 넓게 나타난다. 백사장이 넓은 곳은 60~70m로 현재에 비해 3배 이상 넓으며 해안침식에 의한 모래 유실은 찾아볼 수 없다.



〈사진 4〉 파랑이 들이치는 영랑동·장사동 해안도로

〈사진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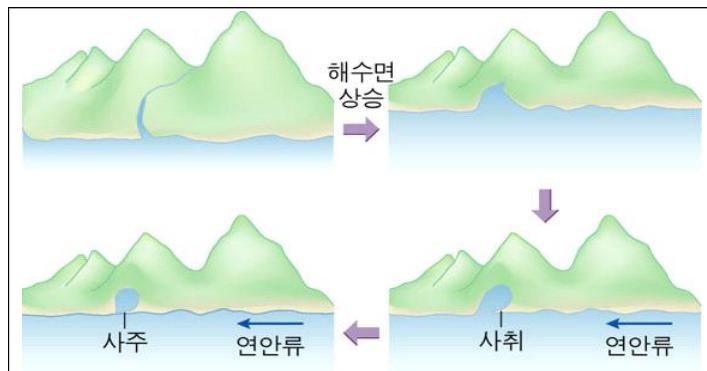
동해안 모래는 평소 파랑과 연안류를 따라 남·북으로 이동하며 해안에 방파제 같은 인공구조물이 들어서면 이런 모래의 흐름이 깨져 침식이 발생한다. 해안도로의 건설로 백사장이 좁아지면 파도의 충격을 흡수해주는 완충지대가 줄어든다. 해안도로 축대 벽에 큰 파랑이 부딪혀 반사파가 강하게 흐르며 이로 인해 침식이 가중된다. 방파제와 해안도로 준공 이전 60~70m의 넓은 백사장은 사라지고 아름답던 해변은 트라이포트와 보도블록과 아스팔트로 덮여 있다.

3) 영랑호의 변화

영랑호는 신생대 4기에 나타난 마지막 빙하기 최전성기인 약 18,000년 전부터 기온이 상승하면서 약 6,000년 전까지 급속도로 해수면이 상승하여 형성된 석호이다. 둘레 7.4km, 면적 0.95km², 수심 8.0m의 자연 호수로 최종 빙기에 장천천 하구의 하곡(河谷)이 형성되고, 해수면이 상승하여 만이 형성된 이후 만의 입구를 파랑과 연안류에 의해 형성된 사주가 가로막아 오늘날과 같은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호수는 영랑교 밑의 수로를 통해 동해와 연결되어 있으며, 유입수는 장천천이 유일한 하천으로 농경지를 관통하여 흘러 호수로 유입된다.

석호는 사주와 같은 작은 장애물에 의해 바다로부터 분리된 연안을 따라 나타나는 얇은 호수를 말한다. 이 호수는 해안에서 연안류의 작용으로 사주(沙柱)¹⁷⁾, 사취(砂嘴)¹⁸⁾ 등에 의하여 바다와 분리되어 형성되었다. 이는 하천 수의 유입으로 점차 염분이 적어지고, 주변의 식물에 의하여 소택지(沼澤地)¹⁹⁾화 되어 끝내는 육지화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 석호의 대부분은 위에 속하고, 강릉 이북의 해안에 많이 발달되어 있다. 경포, 향호, 매호, 청초호, 광포, 송지호, 화진포 등은 모두 이에 속한다. 석호는 수심이 얕고 바다와는 모래로 격리된 데 불과하므로, 지하를 통해서 해수가 섞여드는 일이 많아 담수호에 비해 염분이 높은 기수호²⁰⁾이다.



<그림 5> 석호의 형성 과정

17) 모래가 길게 늘어진 해안퇴적지형, 모래톱

18) 모래로 구성된 사주의 끝 부분

19) 높과 연못으로 둘러싸인 습한 땅

20) 염수(바닷물)와 담수(민물)가 섞여 있는 호수



<그림 6> 영랑호·청초호 형성과정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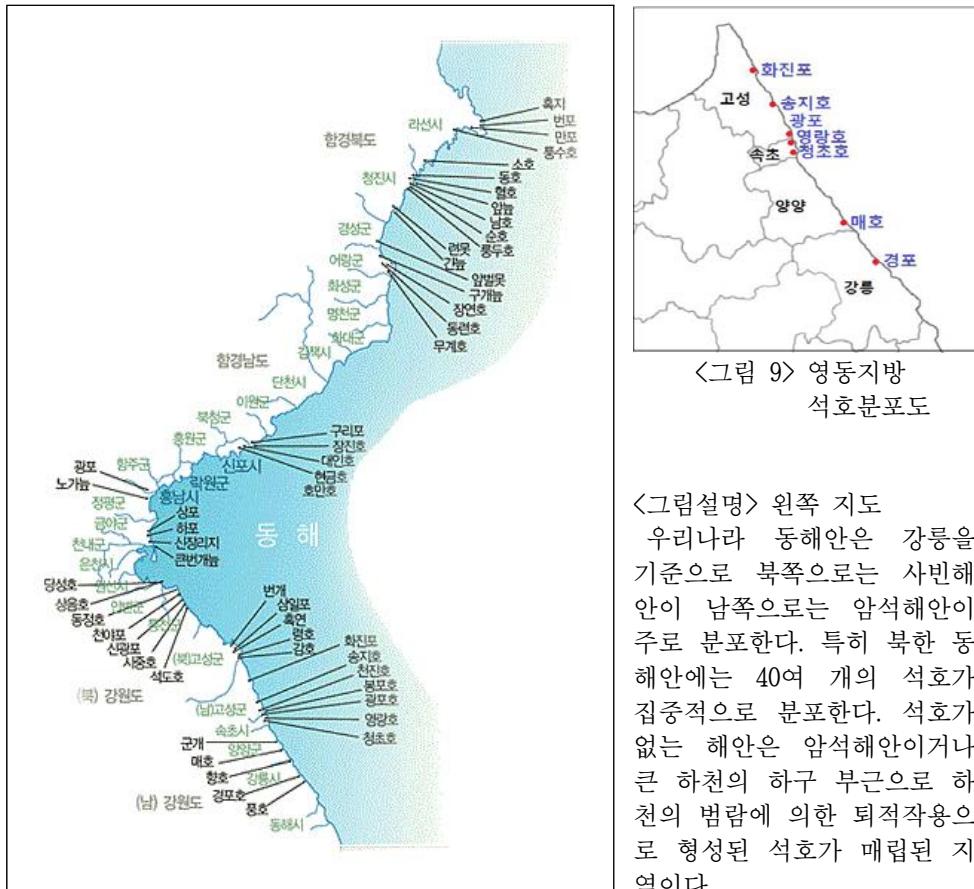
<그림 7> 영랑호·청초호 형성과정 2

<표 2> 동해안 주요 석호 현황

석호명	유역 면적(km ²)	석호면적(km ²)	석호둘레(km)	최대수심(m)	해수유통
화진포	20.527	2.031	12.299	3.6	○
송지호	3.286	0.536	5.955	3.8	○
광포	3.290	0.070	1.168	0.7	○
영랑호	9.182	0.950	7.379	8.0	○
청초호	27.203	0.829	4.390	7.0	○
매호	8.737	0.152	2.386	3.0	○
경포호	36.696	1.042	6.001	1.0	○

출처 : 『석호의 어류』

영랑호라는 이름은 『삼국유사』의 기록을 근거로 한다. 신라의 화랑 영랑(永郎)이 금강산에서 수련하고 금성(金城: 지금의 경주)으로 가는 도중 이 호수에 이르렀는데, 맑고 잔잔한 호수와 웅장한 울산바위, 범바위가 물속에 잠겨 있는 모습에 도취되어 무술대회에 나가는 것조차 잊고 오랫동안 이곳에 머물렀다고 한다. 그 이후 그의 이름을 따서 영랑호라 부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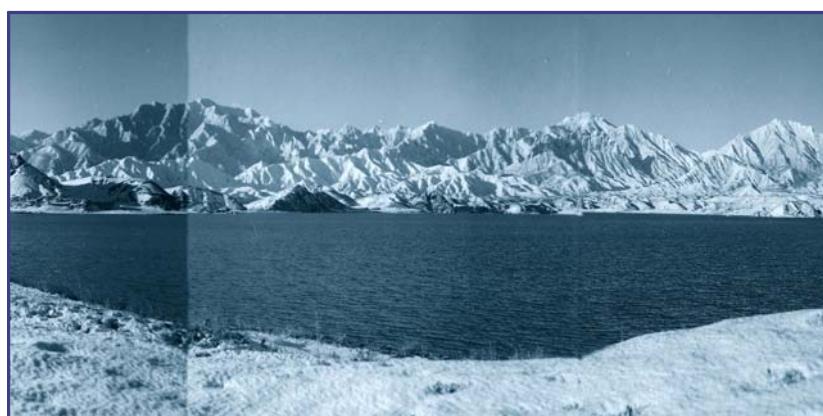


<그림 8> 우리나라 석호 분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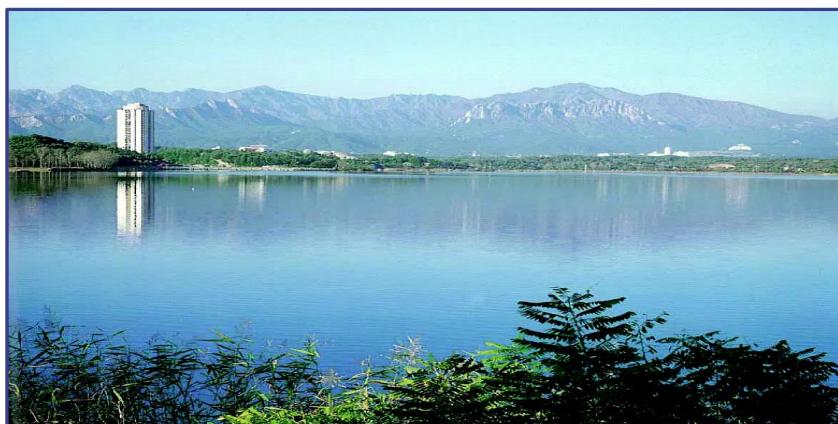
출처 : 『원주지방환경청』

<그림설명> 왼쪽 지도

우리나라 동해안은 강릉을 기준으로 북쪽으로는 사빈해안이 남쪽으로는 암석해안이 주로 분포한다. 특히 북한 동해안에는 40여 개의 석호가 집중적으로 분포한다. 석호가 없는 해안은 암석해안이거나 큰 하천의 하구 부근으로 하천의 범람에 의한 퇴적작용으로 형성된 석호가 매립된 지역이다.



<사진 5> 영랑호 전경과 눈 덮인 설악산(1950년대)



〈사진 6〉 영랑호 전경과 설악산(2010년대)

오랫동안 천연 호수로 명맥을 유지하던 영랑호는 1981년 동방원양의 자회 사인 동방호산개발(주)에 의해 호수공원으로 개발된다. 동방 측은 영랑호 주변에 해수풀, 골프장, 광장, 음식점, 리조트, 별장형 콘도, 양식장, 보트 선착장(뱃놀이) 등을 순차적으로 개장하였다. 주말이면 가족, 연인, 외지 관광객들이 이곳을 찾아 뱃놀이를 즐겼다. 특히 벚꽃이 피는 봄날에는 보광사 솔밭과 함께 상춘객들이 많이 찾는 명소였다. 하지만 이스라엘 잉어 가두리 양식 장의 사료 먹이, 장천천에서 유입된 농약과 비료 잔류성분, 인근 주택의 생활폐수, 영랑호CC, 플라자CC설악 농약 성분 유입 등으로 영랑호 수질 오염은 가속화되었고 심각한 부영양화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사진 7〉 영랑호안의 죽은 전어떼



〈사진 8〉 영랑호안의 녹조로 인한 거품

〈표 3〉 동해안 주요 석호 수질 현황

측정소명	측정년도	수소이온농도	용존산소(mg/L)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BOD(mg/L)	화학적 산소요구량 COD(mg/L)	부유 물질(mg/L)	총질소(T-N)(mg/L)	총인(T-P)(mg/L)	용존탄소량 TOC(mg/L)	수온(°C)
화진포호	2007	8.5	10.8	4.0	6.4	27.0	0.495	0.056		15.9
	2020	8.2	11.1	4.8	7.0	23.4	0.629	0.046	2.6	15.1
송지호	2007	8.3	9.8	2.3	5.6	10.9	0.506	0.032		15.8
	2020	8.3	11.5	4.9	7.0	13.5	0.695	0.073	2.6	15.9
광포호	2007	8.7	12.0	6.0	10.7	38.0	0.789	0.140		16.9
	2020	7.8	10.7	3.7	7.3	19.5	0.683	0.088	3.8	15.6
영랑호	2007	9.0	11.7	4.7	8.4	24.9	0.942	0.054		16.6
	2020	7.8	9.8	1.2	3.6	17.8	0.278	0.025	5.3	15.8
청초호	2007	8.3	10.5	2.1	5.0	13.3	0.747	0.040		16.4
	2020	7.9	8.5	1.7	2.9	17.2	0.223	0.035	5.6	14.6
매호	2007	8.7	10.7	1.8	5.0	18.4	0.584	0.052		16.4
	2020	8.1	11.3	2.7	5.7	21.8	0.875	0.050	2.8	16.1
경포호	2007	8.2	11.3	3.7	5.9	35.2	0.642	0.080		15.1
	2020	8.0	9.2	2.9	4.1	23.1	0.892	0.099	4.6	13.8

출처 : 물환경 정보 시스템

영랑호는 호수가 사주로 인해 바다와 거의 단절되어 있다. 청초호와는 달리 석호의 입구에 형성된 사주(沙柱)와 하천 구조물 및 인위적 시설로 인해 해수 유입이 원활하지 못하였다. 간혹 폭우나 거센 파도로 인해 사주가 허물어지면서 바닷물이 호수로 들어오는 것과 동시에 바다의 생명들도 함께 들어와 바다와 호수의 상호교류가 활발해지는 갯터짐 현상²¹⁾이 이루어지지 못하자 호수의 수질이 더욱 악화되어 물고기가 폐사되는 악순환이 계속되었다.

또한 2000년대 초반 해안침식 방지사업의 일환으로 영랑호 하구 부근에 건설된 헤드랜드로 인해 모래가 많이 퇴적되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모래 퇴적 방지와 담수와 해수의 원활한 흐름을 유

21) 홍수나 강한 파도로 모래톱이 무너져 해수와 담수가 교류하는 현상

도하는 도류제²²⁾를 건설하였다. 당시 속초 환경운동연합은 “헤드랜드가 현 위치에 건설되어 모래가 계속 퇴적되고 있는 한 영랑호 갯터짐 현상을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라고 주장하면서 두 개의 모순된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²³⁾ 현재 영랑호 입구에 도류제가 건설된 지 10여 년이 지났으나 호수물과 바닷물의 원활한 흐름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여전히 영랑교 아래의 기수구역²⁴⁾에서는 약간의 악취가 풍기고 있다.



〈사진 9〉 영랑호 하구(1970년대)

〈사진설명〉

1970년대에는 동해바다와 영랑호 사이에 사주(모래톱)가 형성되어 있으며 해수와 호수 사이에 인위적인 구조물이 없어 폭우나 큰 파도로 인해 갯터짐이 가능하였다.



〈사진 10〉 영랑호 하구(2020년)

〈사진설명〉

도류제 시공으로 사주가 양쪽으로 분리되어 갯터짐은 불가능하고, 도류제 앞쪽에 건설된 T자형의 헤드랜드는 해수와 담수의 원활한 교류를 방해하고 있다.

22) 하천이나 호수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제방형 구조물

23) 「강원일보」, 2010. 3. 11일자.

24) 담수(민물)와 염수(바닷물)가 섞여 있는 구간

속초시민과 외지관광객에게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던 영랑호는 2019년에 4월 4일 고성·속초산불로 전체 탐방로 7.3km 구간 중 86.3%에 해당하는 6.3km 구간의 갈대, 소나무, 갯버들 등과 생태 관찰 데크 3개소가 산불로 전부 소실되어 약 3억2,500여만 원의 재산 피해를 입었다. 또한 영랑호 산책로 주변의 별장형 콘도 61동 중 27동이 전소되었는데, 산불 발생 1년이 다 되도록 철거되지 않고 흉물스럽게 그대로 방치돼 있어 산책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콘도 측은 피해 보상과 관련한 법적 분쟁에 대비해 당장 철거가 어렵다는 입장을 보여 관광지 경관 훼손 장기화는 불가피할 전망이다.²⁵⁾



<사진 11> 산불로 전소된 영랑호
별장형 콘도



<사진 12> 복구된 영랑호 생태관찰데크

영랑호 유원지 개발 사업시행자는 동방원양에서 한일합섬, 동양리조트, 신세계 등으로 수차례에 걸쳐 변경되었다. 특히, 한일합섬(주) 영랑호리조트가 1993년부터 2005년까지를 사업 기간으로 추진하던 영랑호 유원지 조성사업도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채 흐지부지되었다. 이에 속초시는 민간제안이 아닌 시 주도 아래 사업 방향 및 조성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2019년 5월부터 ‘속초 도시관리계획(영랑호 유원지) 결정(변경)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속초시는 관광객 유입을 위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유입된 관광객의 체류 여건 확대, 산불 피해를 입은 영랑호의 생태관광을 위해 장사동 산 38-1 일원에 2021년까지 40억 원을 들여 생태탐방로, 인도교, 전망데크, 수변 및 생태공원, 등을 조성하는 방안²⁶⁾을 추진하고 있다.

25) 「설악신문」, 2020. 3. 30일자.

26) 「강원일보」, 2020. 7. 5일자.



<그림 10> 속초시의 영랑호 생태관광 개발 계획

3) 산지 지형과 식생의 변화

영랑동·장사동 일대는 남북 방향의 태백산맥 설악산과 연계된 동서 방향의 구릉성 산지가 대부분이다. 토양은 대부분 화강암 풍화토²⁷⁾이며 장천천과 주변 지류 주변에는 일부 충적토²⁸⁾가 소규모로 분포한다.

식생은 소나무가 주종인 침엽수와 참나무, 잡목으로 이루어진 낙엽활엽수가 섞여 혼합림²⁹⁾을 이룬다. 이곳의 산지는 일제 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크게 훼손되었으나, 1970년대 산림녹화 정책에 힘입어 산림 회복 상태가 어느 정도 정상화되었다. 그러나 1982년 명성콘도(설악한화리조트)가 장사동 산24-1번지에 착공되어 콘도, 놀이공원, 인공호수, 골프장, 워터 파크 등이 차례로 들어서면서 자연경관에 큰 변화를 초래하였다. 영랑호 부근 산지도 골프장, 별장형 콘도가 건설되어 크게 바뀌었다. 1990년대 중반에는 교동에서 토성면을 연결하는 새로운 7번 국도가 개통되어 도로주변에 주유소, 폐차장, 학교, 공공시설, 전원주택단지 등이 들어서면서 많은 나무가 벌채되고 산림 면적도 크게 줄어들었다.

27) 화강암이 풍화되어 생성된 흙으로 ‘마사토’라고 불린다.

28) 하천에 의해 운반되어 퇴적된 흙

29) 침엽수와 활엽수로 이루어진 숲

〈표 4〉 속초시, 영랑동·장사동 임야 면적 변화³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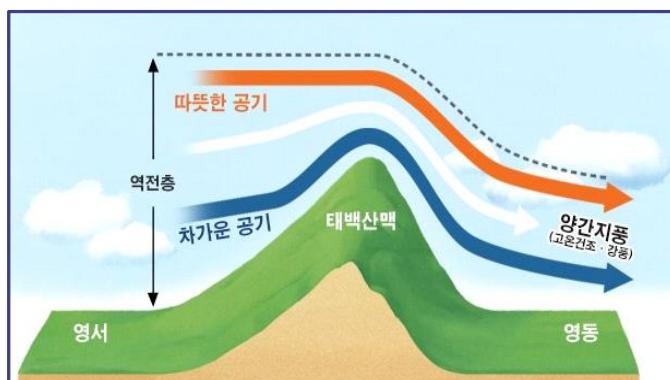
년도	전체 면적	임야 면적	영랑동	장사동
1963	66,000,000 (100.0)	64,095,868 (97.1)	-	-
1973	73,854,000 (100.0)	62,757,025 (84.9)	-	-
1983	104,450,000 (100.0)	82,704,737 (79.2)	17,508 (0.02)	4,064,634 (3.9)
1993	104,770,000 (100.0)	80,439,000 (76.8)	23,726 (0.02)	3,440,995 (3.3)
2003	105,127,000 (100.0)	79,591,340 (75.7)	23,016 (0.02)	3,401,992 (3.2)
2017	105,735,000 (100.0)	77,894,378 (73.7)	32,949 (0.03)	3,169,130 (3.0)

〈사진 13〉 영랑호 남쪽 구릉지
식목행사(1973)

출처 : 『속초통계연보』

한편, 2019년 4월 4일 토성면 원암리에서 발생한 고성·속초 산불은 양간지풍을 타고 장사동, 영랑호 일대의 산림과 건물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양간지풍이란 봄철 양양과 간성 사이에 부는 국지적인 고온건조풍을 말한다. 이 바람은 남서풍(서풍)이 태백산맥을 넘으면서 상층의 따뜻한 공기와 태백산맥 사이의 좁은 공간을 압축하여 지나면서 풍속이 빨라지고 내부의 기압과 기온이 높아지고 습도가 낮아지는 특성을 지닌다.



〈그림 11〉 양간지풍 모식도

30) 1963년, 1973년 임야면적은 표면적, 1983년 이후는 단면적임.

1996년, 2000년 고성 산불, 2004년 속초 청대산 산불, 2005년 양양 낙산사 산불, 2018년 고성 가진 산불, 2019년 고성·속초 산불, 2020년 고성 도원리 산불 등 봄철 영동 지방에서 발생한 산불은 모두 양간지풍이 진화를 어렵게 하면서 대형 산불로 확산된 대표적인 예이다.

2019년 고성·속초 산불의 주요 피해 사례는 장천마을 24가구 전소, 영랑호 별장형 콘도 27동 전소, 장사동 진성폐차장 전소, 한화리조트 설악 씨네 라마 전소, 영동극동방송 1, 2층 전소, 영랑호 산책로 6.3km 구간 및 데크 3 개소 소실 등이며, 고성군과 합친 피해 면적은 산림 250㏊(250만m²)와 주택 125채, 창고 6채, 비닐하우스 5개 동이 불에 타고, 1명 사망 11명이 부상 당한 것으로 파악되었다.³¹⁾



<그림 12> 2019 고성·속초 산불 피해 범위



<사진 14> 속초고 인근 주택 전소



<사진 15> 장사항 부근 건물 전소

31) 나무위키 참조.



<사진 16> 장사동 진성폐차장 차량 전소

<사진 17> 장사동 설악 씨네라마
(대조영 세트장) 건물 전소

4) 장천천의 변화

장천천은 한화프라자 골프장 인근 산지에서 발원하여 영랑호로 유입하는 길이 약 4.2km의 작은 하천이다. 이 하천은 장천리 일대 작은 규모의 골짜기 논에 용수를 공급하는 절줄이며, 하천을 따라 도로가 개설되어 있다.

자연 하천인 이 하천은 영랑호에서 잉어, 붕어, 가물치, 빙어, 향어 등 각종 민물고기가 물을 따라 거슬러 올라오기도 하는 일급수였다. 그러나 골프장 건설과 인근 농경지에서 농약과 화학비료의 잔유물이 유입되면서 수질이 점차 악화되었다. 최근에는 저농약 및 유기농법의 확산으로 오염원이 차단되어 수질이 다소 개선됨으로써 하구에 물고기 떼가 가끔 몰려들기도 한다.

장천천의 하구에는 석호인 영랑호가 있다. 영랑호와 같은 석호는 작은 규모의 하천이 유입되는 경우가 많다. 그 예로 영랑호와 장천천, 청초호와 청초천, 경포호와 경포천 등이 있다. 만약 하천의 규모가 크면 석호는 운반 물질이 많이 퇴적하여 매립되기 때문에 오래 유지될 수 없다. 고성 북천 하구, 양양 남대천 하구, 강릉 남대천 하구에 석호가 없는 이유는 위와 같은 원인에 의해서 후빙기 해수면 상승 이후 존재하였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매립되었기 때문이다.

장천천은 비록 소규모 하천이지만 영랑호의 수위 변화와 수질 유지에 큰 영향을 주며,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소규모 퇴적물과 하류 부근의 농경지 개간으로 영랑호 면적은 과거에 비해 많이 축소되었다.

영랑호로 유입하는 장천천은 2002년 8월 태풍 루사로 인해 인근 산지에

산사태가 발생하고 크게 범람하여 마을의 일부 가옥이 침수, 하천 부근 농경지가 토사에 매몰되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이후 보수 공사를 시행하여 하천 양쪽에 인공 제방을 축조함으로써 또 다른 피해를 예방하고 있다.



〈사진 18〉 영랑호와 장천천



〈사진 19〉 장천천 하구



〈사진 20〉 장천천 하구 부근의 갈대 습지와 철새



〈사진 21〉 장천천 하구의 물고기떼

2. 인문 환경

가. 인구 분포

1) 개요

속초의 지형적 특성은 태백산지와 연계된 구릉지가 해안 근처까지 다다르고, 영랑호와 청초호로 유입하는 하천 부근에 소규모의 충적지가 분포한다. 장사동 갯바위, 동명동 영금정, 대포 외옹치에는 암석해안이 나타나고, 암석 해안 사이에는 2개의 사빈해안(등대해수욕장, 속초해수욕장)이 전개된다. 이러한 지형적 특징은 동해안의 취락 형성 및 인구 분포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여 농업·어업 활동에 유리한 충적지나 해안에 취락이 발생한 후 구릉지로 확장되어 가는 과정을 겪게 된다.³²⁾

영랑동·장사동 지역의 인구 분포를 살펴보면 해안에 위치한 모래기마을(사진리)에 취락이 형성되어 해안선을 따라 남으로 확장하고, 속초등대 아래 암석 해안에 인접한 새쪽마을(샵짜개, 이하 새쪽마을로 통일함)이 북으로 확장하면서, 구 7번 도로를 중심으로 연결축이 형성되었다. 장천천 충적지 배후의 구릉성 산지에 장천마을이 위치하여 오늘날까지 인구가 꾸준하게 분포하고 있다.

또한 한국전쟁 중 월남 피란민과, 1950년대~60년대 연안 어장의 풍어로 각 도에서 몰려든 유입민들과 원주민이 함께 거주하면서 현재와 같은 시가지에 인구가 분포하게 되었고, 1991년 두 개동(영랑동, 장사동)을 합친 인구가 9,256명으로 정점에 이른다.

하지만 흉어로 인한 어업 인구의 감소와 이에 따른 수산물 제조 공장의 도산과 이전, 이촌 향도 현상, 1990년대 이후 교동, 조양동으로 인구 유출로 인해 영랑동 인구는 2019년 4,758명으로 급감하였고 속초 북부 상권은 큰 위기에 직면해있다.

32) 장정룡 외, 『강원도민 이북도민 정착사』, 속초시립박물관, 2009, 76쪽 참조.

2) 영랑동 인구 통계 분석1(시 승격 이전)

속초시 장사동과 영랑동 지역의 구체적인 인구 통계에 관한 최초의 기록은 18세기 후반 간행된 『여지도서』³³⁾에 장천리 15호 59명, 사진리 18호 70명으로 기록되어 있다. 일제 강점기인 1925년 발간된 『면세일반』에는 속초리와 속진리를 합쳐 189호 1,058명으로 기록되어 있어 구체적인 동별 인구를 산출할 수 없다.

〈표 5〉 18세기와 20세기 초의 리별 인구(단위 : 명)

연도/리별		장향리	상도문	중도문	하도문	내물치	대포	외옹치	부월	논산	노리	속초리 속진리	장천리	사진리	합계
1765	호수	20	20	-	35	18	34	78	18	20	-	144	15	18	420
	인구수	49	66	-	126	52	104	107	86	97	-	447	59	70	1,263
1925	호수	50	129	92	27	86	155	93	84	95	119	189	-	-	1,119
	인구수	214	741	541	174	468	777	463	476	572	735	1,058	-	-	6,219

출처 : 『여지도서』, 『면세일반』

1942년 10월 1일 속초면에서 속초읍으로 승격되면서 1구에서 4구까지 분리되었다가 1954년 11월 17일 ‘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에 5구와 6구가 신설 분리, 속초읍은 6구로 나누어지며 노리에서 도리원리, 이목리, 척산리가 분리되어 모두 14개리가 되었다. 속초읍이 6구로 분화된 것은 속초항 건설과 청호동의 영향이 컸는데 1962년 속초 1구에서 6구까지의 인구가 평균 5천명 이상이 되어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된다. 당시 속초읍의 인구는 총 50,703명이었고, 속초 1구(영랑동)의 인구는 5,082명으로 전체 인구의 10.0%를 차지하였다.

〈표 6〉 1962년 속초 리별 인구(단위 : 명)

리별	속초 1구	속초 2구	속초 3구	속초 4구	속초 5구	속초 6구	도리원 부근	청대 부근	부월 부근	대포 부근	중도문 부근	합계
인구	5,082	5,570	6,255	7,044	6,852	5,043	2,531	2,095	5,927	2,450	1,854	50,703
비율	10.0	11.0	12.4	13.9	13.6	9.9	5.0	4.1	11.7	4.8	3.6	100.0

출처 : 『1963 속초시 통계연보』

33) 『여지도서』 양양 방리조. 『여지도서』는 영조 때인 1757년~1765년 각 읍에서 편찬한 읍지를 모아 성책한 전국 지방지이다.

2000년 속초시 자치행정과에서 조사한 피란민 1세대의 동별·직업의 분포를 보면 조사대상 1,654명 중 영랑동 거주민은 127명으로 전체의 7.7%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다른 둘에 비하여 비율이 그다지 높지 않다.

피란민들은 청호동을 중심으로 살아가다가 대부분 속초항 부근의 1구(영랑동), 2구(동명동), 3구(중앙동), 4구(금호동), 6구(청학동과 교동) 방면으로 이주하였다. 이곳은 아직 개척할 땅이 많았고, 원주민도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이 살고 있지 않았다. 이들이 이주한 속초리에서 청초호에 이르는 속초항 부근의 좁은 해안평야와 그 뒤쪽의 낮은 구릉지는 이후의 도시 개척에도 알맞은 지역이었다.

피란민들이 이곳을 선택한 이유는 원주민이 이미 집단으로 마을을 형성한 해발 고도가 완만한 지역보다 면적이 넓으며, 원주민이 거주하나 개척되지 않은 영랑호 남·북 지역의 구릉지를 개척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쉽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이주민들은 기존의 마을보다 원주민이 상대적으로 적은 속초항 부근의 구릉지를 선택하였다.

〈표 7〉 피란민 1세대의 분포(2000년 9월 현재)

동별	영랑동	동명동	금호동	교동	노학동	조양동	청호동	대포동	합계
인구수	127	164	322	269	257	196	245	74	1,654
비율(%)	7.7	9.9	19.4	16.3	15.5	11.9	14.8	4.5	100.0

출처 : 속초시, 자치행정과

2) 영랑동 인구 통계 분석2(시 승격 이후)

한국전쟁 시기인 1951년 속초가 수복되고 전선이 교착화되면서 속초는 최전방 병참 보급기지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1952년 국군 1군단과 미군 10군단이 영랑동에 주둔하면서 자연스럽게 부대 근처로 북한 피란민이 유입되어 원주민과 함께 거주함으로써 영랑동 지역의 인구가 5,000명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1954년 국군 1군단과 미군 일부가 이동하면서 잠시 시장 경기가 위축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연안 어장의 황금기를 맞아 각지에서 인구가 다시 유입되면서 7번 국도를 축으로 동명동과 연계된 시가지가 형성되

었으며 1968년 6,809명으로 1960년대의 정점에 이르렀다. 그 후 1970년대에서 80년대 중반까지 5,500명 내외로 정체되었으나, 수산업 가공업체의 잇단 입주와 1990년 양우아파트의 준공으로 1991년에는 다시 6,054명으로 증가하였지만 이후 소폭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

한편 장사동 지역은 1968년 동해안 해일로 큰 피해를 당한 고성군 현내면 마차진 주민 140세대가 당시 토성면 사진리(현 장사동)에 집단 정착하여 인근의 사진마을 원주민들과 함께 거주하게 되었다.

1973년 속초에 편입 당시 2,227명이던 장사동 인구는 이후 계속 소폭 증가하다가 1988년 속초고 이전(현 장사동 교정), 90년대 초반 장사동 횟집타운 개장 등의 영향으로 1991년 3,202명으로 정점을 찍었다. 인구의 증가에 따라 남북으로는 7번 국도를 중심으로 영랑교에서 시내버스 터미널까지, 동서로는 영랑호안 인근 새마을에서 장사동 횟집타운까지 연속된 시가지가 형성되었다.

〈표 8〉 속초시 영랑동 인구추이(1962~2019)

년도	속초시			영랑동				비고
	계	남	여	비율	계	남	여	
1962	50,703	25,586	25,117	10.0%	5,082	2,513	2,569	
1963	55,619	28,149	27,470	9.3%	5,175	2,592	2,583	
1964	58,508	29,680	28,828	10.1%	5,920	3,002	2,918	
1965	60,316	30,357	29,959	9.3%	5,601	2,809	2,792	
1966	63,200	31,849	31,351	10.0%	6,290	3,166	3,124	
1967	67,079	33,704	33,375	9.7%	6,481	3,266	3,215	
1968	71,033	35,741	35,292	9.6%	6,809	3,438	3,371	
1969	73,023	36,911	36,112	8.5%	6,204	3,146	3,058	
1970	73,096	37,097	35,999	8.4%	6,156	3,165	2,991	
1971	72,694	36,845	35,849	8.3%	6,009	3,046	2,963	
1972	74,485	37,631	36,854	8.1%	6,041	3,018	3,023	
1973	75,968	38,450	37,518	7.5%	5,733	2,895	2,838	하단 장사동
				2.9%	2,227	1,146	1,081	
1974	75,492	38,146	37,346	7.0%	5,312	2,708	2,604	〃
				3.0%	2,301	1,186	1,115	
1975	71,475	36,489	34,986	7.4%	5,320	2,719	2,601	〃
				3.1%	2,181	1,181	1,000	
1976	72,042	36,493	35,549	7.2%	5,219	2,707	2,512	〃
				3.0%	2,184	1,118	1,066	
1977	72,771	36,628	36,143	7.2%	5,168	2,569	2,599	〃
				3.0%	2,190	1,134	1,056	
1978	71,737	36,209	35,528	7.3%	5,243	2,607	2,636	〃
				3.1%	2,201	1,149	1,052	

1979	71,940	36,117	35,823	7.6%	5,452	2,666	2,786	〃
				3.1%	2,207	1,154	1,053	
1980	65,798	33,230	32,568	7.8%	5,148	2,572	2,576	〃
				3.0%	1,978	1,024	954	
1981	68,523	34,597	33,926	8.1%	5,552	2,762	2,790	〃
				3.1%	2,117	1,128	989	
1982	69,248	34,845	34,403	8.0%	5,559	2,803	2,756	〃
				3.3%	2,256	1,177	1,079	
1983	72,324	36,279	36,045	7.8%	5,606	2,848	2,758	〃
				3.3%	2,351	1,194	1,157	
1984	73,002	36,685	36,317	7.8%	5,686	2,888	2,798	〃
				3.3%	2,420	1,229	1,191	
1985	69,595	34,737	34,858	7.9%	5,528	2,775	2,753	〃
				3.5%	2,458	1,229	1,229	
1986	71,211	35,451	35,760	7.8%	5,526	2,792	2,734	〃
				3.7%	2,614	1,319	1,295	
1987	71,913	35,537	36,376	7.5%	5,376	2,677	2,699	〃
				3.8%	2,762	1,369	1,393	
1988	72,006	35,795	36,211	7.6%	5,453	2,747	2,706	〃
				4.0%	2,855	1,442	1,413	
1989	73,424	36,612	36,812	7.7%	5,623	2,853	2,770	〃
				4.1%	3,016	1,567	1,449	
1990	73,805	36,849	36,956	7.5%	5,566	2,818	2,748	〃
				4.2%	3,105	1,635	1,470	
1991	74,905	37,095	37,810	8.1%	6,054	3,023	3,031	〃
				4.3%	3,202	1,677	1,525	
1992	74,798	37,231	37,567	8.0%	5,992	3,015	2,977	〃
				3.9%	2,890	1,486	1,404	
1993	76,646	38,140	38,506	7.7%	5,874	2,945	2,929	하단 장사동
				3.7%	2,811	1,476	1,335	
1994	78,622	39,107	39,515	7.4%	5,806	2,870	2,936	〃
				3.5%	2,786	1,439	1,347	
1995	80,709	40,076	40,633	6.9%	5,593	2,769	2,824	〃
				3.3%	2,656	1,343	1,313	
1996	82,568	40,845	41,723	6.8%	5,593	2,769	2,824	〃
				3.2%	2,656	1,343	1,313	
1997	85,427	42,338	43,089	6.3%	5,408	2,657	2,751	〃
				3.1%	2,646	1,339	1,307	
1998	87,070	43,234	43,836	8.8%	7,656	3,868	3,788	
1999	88,914	44,160	44,754	8.6%	7,683	3,891	3,792	
2000	90,201	44,717	45,484	8.2%	7,386	3,713	3,673	
2001	90,543	44,786	45,757	7.8%	7,020	3,543	3,477	
2002	90,447	44,765	45,682	7.6%	6,880	3,474	3,406	
2003	89,458	44,242	45,216	7.7%	6,844	3,438	3,406	
2004	88,386	43,664	44,722	7.8%	6,878	3,440	3,438	
2005	87,583	43,258	44,325	7.9%	6,912	3,436	3,476	
2006	86,684	42,799	43,885	7.8%	6,793	3,410	3,383	
2007	86,104	42,446	43,658	7.5%	6,427	3,224	3,203	
2008	85,349	42,075	43,274	7.3%	6,271	3,179	3,092	

2009	84,568	41,680	42,888	7.0%	5,892	3,013	2,879	
2010	85,034	41,958	43,076	6.8%	5,773	2,985	2,788	
2011	84,489	41,706	42,783	6.7%	5,690	2,948	2,742	
2012	84,279	41,578	42,701	6.6%	5,527	2,874	2,653	
2013	83,803	41,342	42,461	6.5%	5,437	2,830	2,607	
2014	83,194	41,059	42,135	6.5%	5,374	2,782	2,592	
2015	82,978	40,950	42,028	6.4%	5,328	2,769	2,559	
2016	82,670	40,831	41,839	6.3%	5,222	2,714	2,508	
2017	83,213	41,089	42,124	6.2%	5,137	2,685	2,452	
2018	81,682	40,248	41,434	6.1%	4,968	2,598	2,370	
2019	81,786	40,420	41,366	5.8%	4,758	2,482	2,276	

*비율=속초시 전체인구에 대한 동인구 비율. 출처 :『1963~2019 속초시 통계연보』

3) 영랑동 인구 통계 분석3(인구증감 비교)

한편 영랑동 인구는 속초시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962년 10.0%, 1973년 10.4%(이후 장사동 합산), 1983년 11.1%로 꾸준히 증가하였고 1991년에는 최고조에 이르러 12.4%를 차지하였다. 증가 요인은 인구 성장에 따른 자연적 증가와, 속초 연안의 풍어에 따른 인구 전입으로 사회적 증가가 함께 이루어진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속초시 전체 인구는 1991년 74,095명에서 2001년 90,543명으로 6,881명 증가하였다가 2019년 81,786명으로 감소하였다.

이 기간 동안 영랑동 인구는 1991년 9,256명으로 속초시 전체 인구의 12.4%를 차지하여 정점을 이루었으나 2001년 7,020명/7.8%, 2011년 5,690명 /6.7%, 2019년 4,758명/5.8%로 무려 4,498명 감소하였고 인구 비율도 6.6% 급감하였다.

1991년과 2019년을 대비하면 속초시가 6,881명/9.2% 증가하였으나, 영랑동은 -4,498명으로 -51.4%로 급감하였다.

2001년과 2019년을 대비하면 속초시가 -8,757명/-9.7%로 감소하였으나, 영랑동은 -2,262명으로 -32.3%로 급감하였다.

〈표 9〉 속초시와 영랑동 인구 증감 비교

년도	속초시			영랑동			비고
	계	남	여	계	남	여	
1991	74,905	37,095	37,810	9,256	4,700	4,556	장사동 포함, 영랑동 최대인구
2001	90,543	44,786	45,757	7,020	3,543	3,477	장사동 포함, 속초시 최대인구
2019	81,786	40,420	41,366	4,758	2,482	2,276	장사동 포함, 영랑동 최소인구
증감 인원 (비율)	6,881 (9.2)	3,325 (8.9)	3,556 (9.4)	-4,498 (-51.4)	-2,218 (-52.8)	-2,280 (-49.9)	1991년 · 2019년 대비
	-8,757 (-9.7)	-4,366 (-9.8)	-4,391 (-9.6)	-2,262 (-32.3)	-1,061 (-30.0)	-1,201 (-34.6)	2001년 · 2019년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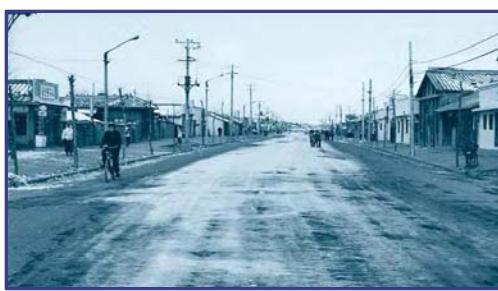
출처 : 『1963~2019 속초시 통계연보』



〈사진 22〉 1960년대 영랑동



〈사진 23〉 2000년대 영랑동

〈사진 24〉 1970년대 중반 영랑동 7번
국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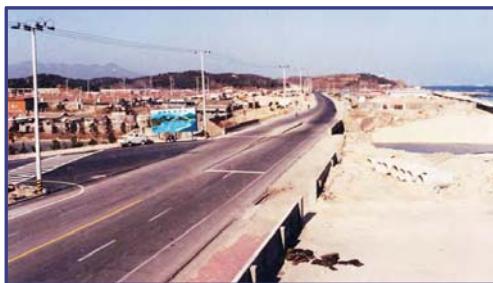
〈사진 25〉 2000년대 영랑동 중앙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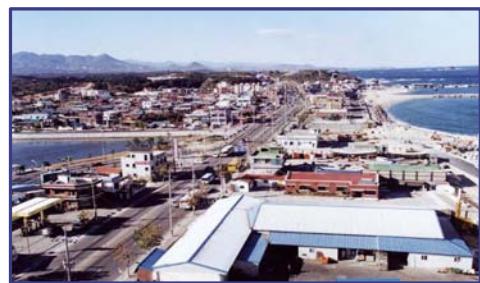
〈사진 26〉 1980년대초 영랑초등학교 뒤



〈사진 27〉 2000년대 영랑초등학교 뒤



〈사진 28〉 1980년대 초 장사동 7번국도



〈사진 29〉 2000년대 장사동 도로

인구의 감소 요인은 연안 어장의 황폐화에 따른 어업 인구의 감소와 이에 따른 수산물 제조 공장의 도산과 이전, 이촌향도에 의한 농촌 인구의 감소, 수도권 지역으로 전출 등을 꼽을 수 있다. 무엇보다도 1990년대 이후 교동, 조양동 일대의 대형 아파트 건설로 인한 역내 이동이 가장 큰 요인이라 볼 수 있는데, 이는 속초 북부권 인구 및 상권의 몰락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나. 자연취락의 변화

1) 개요

속초시 장사동과 영랑동에서 500여 년의 역사를 지닌 장천마을은 가장 대표적인 자연취락의 하나이다. 이촌향도로 인구가 다소 감소하기도 하였으나 2000년대 이후 귀촌 봄을 타고 마을 주변에 전원주택들이 입지하고 있으며,

2019년 4월 산불 이후 새롭게 신축된 집들이 들어서면서 순수농촌 마을의 외관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모래톱에 생성된 마을에서 유래한 사진마을은 장천마을과 함께 1973년 속초시 장사동으로 편입되었으며 반농반어촌에서 순수어촌을 거쳐 횟집타운 개장과 오징어 맨손잡기 축제를 개최하면서 관광 어촌으로 변모하였다.

바닷가 사람들 말로 동쪽을 의미하는 새쪽마을은 영랑동의 바닷가 마을로 일제 강점기 말부터 인구가 증가하여 이후 속초1구에 속하다가 영랑동의 대표 마을로 근근이 명맥을 이어오고 있으며 1960년대~1980년대 순수어촌을 거쳐 2000년대 이후 속초의 관광붐을 타고 해산물 음식점이 알려지면서 속초의 새로운 먹거리 타운으로 각광받고 있다.

작은 호수를 뜻하는 ‘개’에서 유래한 개인골은 속초문화원에서 속초의료원 사이에 위치하였으며 오래된 가옥이 사라져 마을의 원형을 짐작하기 어렵고, 위의 마을들에 비해 공동체 행사 및 마을 역사에 관한 자료도 거의 남아 있지 않다.



<그림 13> 1915년 장사동·영랑동의 전통 취락

〈사진 설명〉

1915년 조선총독부가 발행한 1:50,000 지형도로 영랑호를 중심으로 동북쪽 모래사장에 사진리(모래기마을), 서쪽에 장천리, 동쪽에 속초리(당시 속초리는 청초호 북쪽 연안의 마을), 동쪽과 남쪽에는 속초리(구 속진리)의 마쪽마을(마짜개), 새쪽마을(삽짜개), 개안골이 위치하며 논<고> 표시로 보아 벼농사 지역임을 알 수 있음.

2) 장천마을

장천마을은 상도문마을과 함께 속초에서 가장 오랜 500여 년³⁴⁾의 역사를 지닌 자연 취락으로 임진왜란 이후에 형성된 함종 어(魚)씨 집성촌에서 기원을 찾을 수 있다. 현재는 영월 엄(嚴)씨, 강릉 죄(崔)씨도 함께 거주한다. 속초시청에서 미시령 방향으로 65번 지방도를 따라가다가 동북쪽 간선도로로 빠지면 영랑호로 유입되는 장천천을 앞에 두고 남향 경사면에 입지한 전형적인 배산임수의 농촌마을이다.

마을 지명의 유래는 고성군 원암리로 넘어가는 노루목 고개에 위치한다고 해 노루장(獐), 마을 앞 넷가가 노루목 고개에서 발원해 노루내라고 하던 것을 한자로 표기해 장천(獐川)이라고 부르다가 120여 년 전 엄씨 가문에서 진사를 배출하자 마을 이름의 ‘노루장(獐)’ 자를 ‘글장(章)’ 자로 바꿔 장천(章川)이라 부르게 되었다.

장천마을은 일제 강점기에 대장간, 가마터가 있었고 이북에 속하였을 때는 인민학교가 잠시 설립³⁵⁾되었을 정도로 취락의 규모가 컸으며 수복 후 고성군 토성면에 속하다가 1973년 사진리와 함께 속초시 장사동으로 편입되었다. 1998년 동제 개편으로 영랑동으로 통합되어 현재는 범정동 마을로 존재한다.

장천마을은 7번 국도와 지방도로에서 다소 떨어진 고립적 농촌 마을로 1980년대까지 사진리, 동명동 부녀자들이 생선과 해조류를 머리에 이고 와서 이곳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과 물물교환을 하였다.³⁶⁾ 속초시 편입 당시 국민학생들은 왕복 3시간이 넘는 노학동 온정국민학교로 통학하였을 정도로 교통이 불편하고 정체되었으나 오히려 이것이 마을 주민들 간의 정을 돈독히 하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원천이 되었다.³⁷⁾ 2005년 새농어촌 건설운동 우수마을, 2006년 농촌건강 장수마을로 각각 선정되었으며. 2003년 재배하기 시작한 친환경 목초액·키토산쌀, 질 좋은 100% 국산콩 만을 사용해 전통

34) 어재동의 증언. 어재동 씨는 현재 79세로 2020년 7월 30일 장천 마을회관 증언을 청취하였다. 증언에 따르면 청해학교 인근에 묻힌 선대의 묘소가 족보상 돌아가신지 462년 전에 조성되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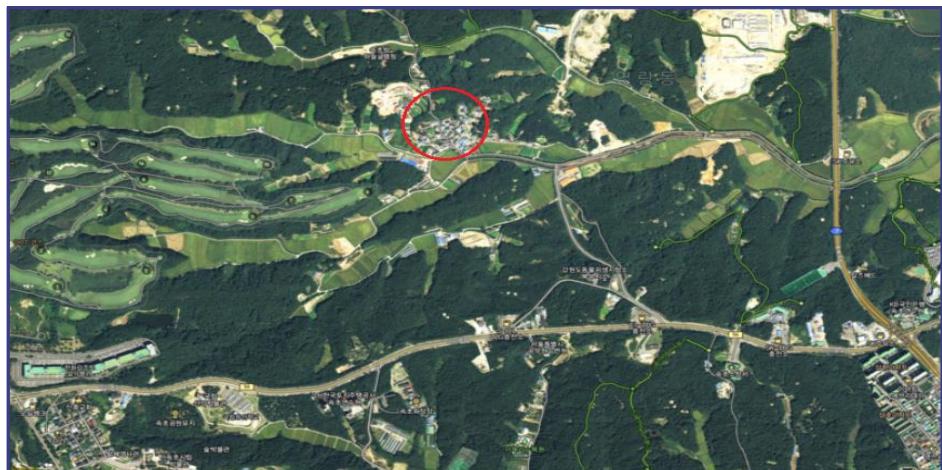
35) 어재동의 증언.

36) 박동열의 증언. 박동열 씨는 현재 81세로 2020년 7월 7일 영랑동 노인회관에서 증언을 청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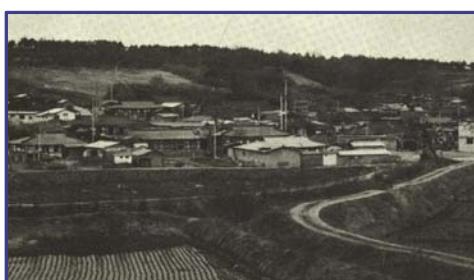
37) 어두훈의 증언. 어두훈 씨는 현재 63세로 2020년 7월 30일 장천 마을회관에서 증언을 청취하였다.

방법 그대로 생산되는 옛날장과 메주는 장천마을의 명성을 드높이고 있다.

하지만 장천마을은 2002년 태풍 루사로 인해 장천천과 지류인 방축골천이 범람하면서 하천 부근의 가옥이 침수되고 주변 농경지가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매몰되는 큰 피해를 입었다. 또한 2019년 4월 발생한 고성·속초 산불로 인해 전체 46호 중 24호가 전소되는 큰 아픔을 당하여 현재 복구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복구된 주택들과 마을 인근에 조성된 전원주택 단지는 농촌 마을의 경관을 크게 변화시켰다. 하지만 외지인의 유입으로 마을 정체성 유지라는 새로운 과제도 고심하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 30> 2019 산불 이전의 장천마을(원안) 주변 경관



<사진 31> 산불이전의 장천마을



<사진 32> 폐허로 변한 장천마을



〈사진 33〉 산불피해를 딛고 복구된 장천마을(2020년)

3) 사진마을

사진마을의 유래는 오랫동안 파랑에 의해 모래가 쌓여 호수(영랑호)와 사주(모래톱)가 분리되어 형성되었는데 모래톱에 생성된 마을이라 모래기, 나룻모래기라 불리다가 조선 후기에 사진리(沙津里)로 불리기 시작했다.

동해안은 해안선이 단순하여 예로부터 개(포구-수심이 깊어 배가 정박하는 항구)와 날바리 땅(항구가 없는 곳)을 주축으로 어로작업을 하였다. 속초를 중심으로 남쪽으로는 오산, 수산, 인구, 북쪽으로는 봉포, 문암, 공현진, 가진 등은 날바리 땅으로 이루어진 어촌으로, 속초 지방에서는 유일하게 사진리가 날바리 땅이다. 이 마을에서는 든대질로 배를 진수하고 폭풍과 해일을 대비하여 끌어 올리면서 불렀던 <든대질 놀이>라는 민속놀이가 지금도 계승되고 있다.³⁸⁾

이곳은 고성군 토성면에 속하다가 1973년 속초시에 편입되면서 장천리와 사진리를 통합하여 장사동으로 25년 동안 존속하다가, 1998년 동제 개편으로 영랑동으로 통합되었다. 속초시와 고성군의 경계이며 7번 국도가 통과하지만 변두리였던 이곳은 1980년대부터 속초시가 관광 레저산업 블루 조성되면서 인근에 장사동 횟집타운이 조성되면서 발전의 계기를 맞게 되었다. 하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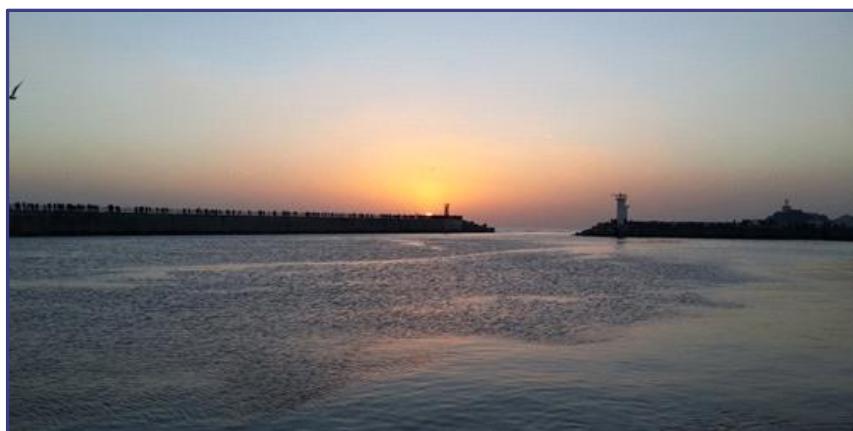
38) 속초시, 『속초시지』, 1991, 1124쪽 참조.

1990년대 중반 7번 국도의 외곽 이전으로 상권이 위축되고 원주민과 이주민의 갈등으로 마을이 분열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주민들은 마을 조직을 재정비하고, 구성원간 소통을 통해 갈등 요소를 해소하였다. 한편, 전문가의 컨설팅을 적극 수용하여 오늘의 체험마을을 일구어 지금은 전국 어촌마을 중 모범 어촌 마을로 인정받고 있다.

특히 이 마을은 2000년부터 매년 오징어 맨손잡기 축제를 개최해 유명세를 타기 시작하여 매년 4월부터 12월까지 오징어 테마 체험 행사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행사는 맨손잡기와 오징어 해부, 요리 등과 게 잡이 체험, 해조류 표본 만들기 등 가족단위 프로그램을 시행해 많은 관광객이 찾는 어촌 마을로 변모하고 있다.

또한 장사어촌마을은 영랑호와 인접하고 항구 앞바다에는 두 개의 작은 바위 형제암이 위치하며 해안에는 전복과 가리비 등 수산물이 서식하고 있어 이를 활용하여 수시로 체험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어촌계 펜션 운영으로 관광객의 숙박 편의를 돋고 있으며 샤워장 및 탈의실, 오징어공원 및 해안산책로 등이 조성돼 작지만 아름다운 포구마을로 거듭나고 있다.³⁹⁾

한편 1968년 동해안 해일로 고성군 현내면 마차진리 주민 140세대가 영랑호 입구 북쪽과 7번 국도 사이에 집단 정착하여 사진리 주민들과 더불어 장사동의 핵심적인 구성원이 되었다.



<사진 34> 동트는 장사항

39) 한기홍의 증언. 한기홍 씨는 현재 66세로 2020년 7월 7일 장사동 어촌계 사무실에서 증언을 청취하였다.



〈사진 35〉 1990년대 후반의 장사항과 장사횟집타운



〈사진 36〉 1970년대 초반 장사동
새마을(원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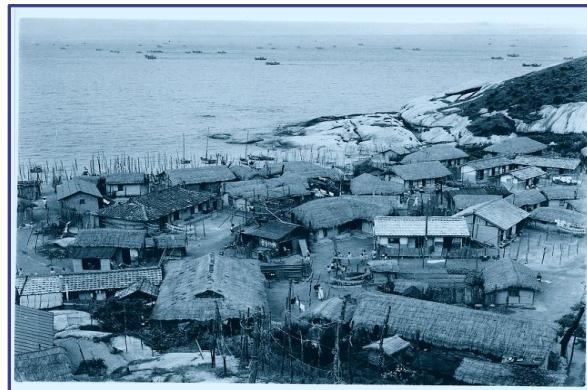
〈사진 37〉 2020년 장사동 새마을

4) 새쪽마을(삽짜개)

새쪽마을은 영랑동(永郎洞)의 등대 바로 아래 북쪽 해안에 위치한 마을로 장사동의 모래기마을, 청호동의 아바이마을, 대포동의 대포마을, 외옹치마을, 설악동의 내물치마을과 더불어 속초의 대표적인 바닷가 마을이다.

등대 인근의 성황봉(城隍峰) 산등성이를 경계로 동명동(東明洞) 마짜개마을과 인접해 있다. 바다 사람들의 말로 새쪽은 동쪽, 샛바람은 동풍, 마쪽은 남쪽, 마파람은 남풍을 뜻하는데, 이 고장 방언으로 새쪽을 새쪽, 마쪽을 마쪽이라고 한다. 새쪽마을은 속초 연안어업의 황금기인 일제 강점기 말부터 인구가 증가하여 이후 속초1구에 속하다가 영랑동의 대표 마을로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1960년대~1980년대의 순수어촌을 거쳐 2000년대 이후 속초의 관

광 블을 타고 물곰탕, 생선찜, 물회, 대구탕, 도치알탕 등 해산물 음식점이 알려지고 영랑동과 장사동을 잇는 해안도로에 간이 횟집과 카페가 입주하면서 속초의 새로운 먹거리타운으로 각광받고 있다.



<사진 38> 1960년대 새쪽마을



<사진 39> 새쪽마을 안내판



<사진 40> 현재 새쪽마을

5) 개안골

‘개’ 40)는 작은 호수나 늑을 뜻하는 우리말로 영랑호 남쪽의 작은 개의 안쪽에서 유래한 개안골은 지금의 속초문화원 - 검찰청 속초지청 - 대명드림 빌 아파트 - 속초의료원 - 조은팰리스 아파트를 잇는 둥근 원형의 옛 논밭 자리였던 곳이다. 취락은 지금의 번영로 105번 길을 따라 보광사 반대편 산지를 등지고 남향 또는 남동향으로 자리를 잡았다.

영랑동에서 드물게 논농사를 지었으며 지대가 영랑호보다 낮아 가뭄이 심 할 때는 영랑호 물을 끌어들여 농사를 지었고, 반대로 장마가 쳐서 개안 논

40) 지명에서 우리말 ‘개’는 포구를 뜻하지만, 육지에서는 규모가 작은 호수, 늑의 이름으로 쓰였다. 영랑호 주변에는 작은 호수들이 1970년대 까지도 있었다.

물이 호수보다 높으면 호수 쪽으로 빼내곤 하였다. 1977년 일복문화관(속초문화회관) 개관과 1983년 의료원 이전 이후 점차 일대가 시가지로 변화하였다.



<사진 41> 개안골(1960년대)

<사진설명>

왼쪽 상단이 영랑호이며 오른쪽으로 돌출된 곳이 영금정이다. 영랑호 남쪽에 물고기 모양의 작은 호수가 ‘개’이며 개의 앞쪽은 1970년대까지 논농사 지대였다. 수심이 낮은 개는 겨울에 인근 아이들의 전용 놀이터로 스케이트와 빙구(얼름썰매)를 즐겼다.⁴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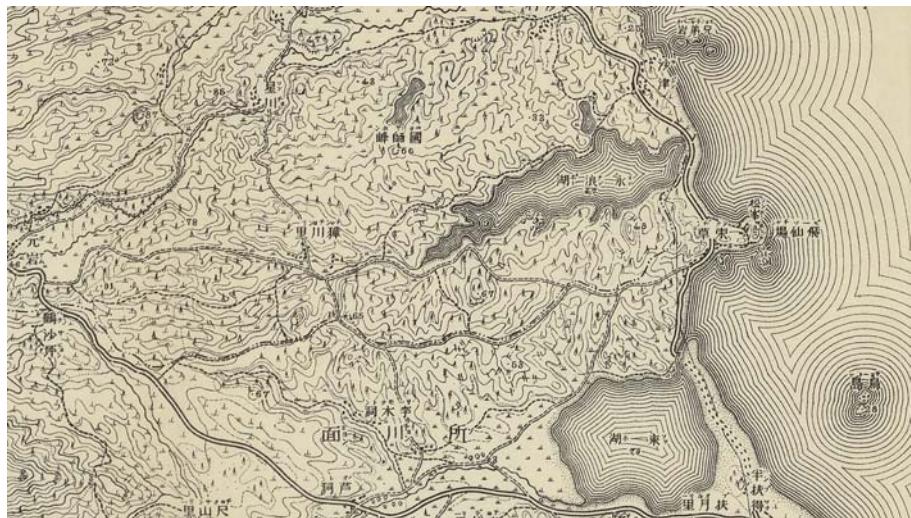
<그림 14> 개안골 부근 지형도(2020년)

<사진설명>

개안골은 1980년대 이후 논농사가 사라졌으며 속초문화회관, 속초의료원, 동진리조텔 등이 차례로 건축되면서 시가지가 되었고 공사 당시 높지대로 많은 양의 토사를 매립하여 건물을 완공하였다.

41) 고정기의 증언. 고정기 씨는 현재 63세로 2020년 10월 13일 전화로 증언을 청취하였다.

Ⅱ. 역사



1911년 측량, 1913년 제판한 2차지형도, 5만분의 1 지도

출처 :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조선총독부박물관 문서

1. 전근대의 역사

가. 선사시대(先史時代)

영랑동과 장사동 지역은 동해안 석호를 대표하는 영랑호(永郎湖)를 끼고 나지막한 야산을 이루고 있으며, 동해바다와 가까이 있어 선사인들이 정착하여 생활을 하는데 좋은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

영랑동 지역에서 사람들이 처음으로 살기 시작한 시기는 청동기 시대이다. 1960년 12월 16일 당시 장사동에 살고 있던 라기봉 씨가 속초시 장사동 산 268-2번지에서 발견한 청동기 시대 유물 간돌검(마제석검) 1점과 돌화살촉 6점을 신고하면서 청동기 시대부터 사람이 정착하였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발견 신고된 장사동 유적은 영랑호의 북쪽인 속초고등학교 앞의 야산에 있다. 야산의 오른쪽에는 속초고등학교가 자리하고 있고, 맞은편의 왼쪽에 해발 약 27m 높이의 낮은 구릉지대가 있는데 이곳에 위치하여 있다. 유물이 발견된 정확한 지점은 당시의 라기봉 씨가 현재 거주하지 않는 관계로 알 수 없으나, 이곳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이 언덕의 남쪽 경사면으로 추정된다. 이 언덕의 남쪽 끝은 영랑호와 맞닿아 있는데, 영동 지방의 선사유적지 거의 대부분은 이러한 지형 조건 하에서 발견되고 있다.

장사동 유적에서 발견된 유물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⁴²⁾



<사진 42> 유물 현황

42) 문화공보부·문화재관리국, 『중요발견매장문화재도록』 제2집, 1989. 127쪽, 387~388쪽 참조.

1) 간돌검(磨製石劍)

간돌검은 장석반암(長石斑岩)⁴³⁾으로 만든 흄자루 석검(칼자루에 가로 흄이 있는 돌칼)으로 완전한 형태를 갖추고 있다. 칼날(검신, 劍身)은 자루에 비해 길고 넓으며, 양날은 예리한 편이고 칼날의 단면은 편릉형(扁菱形, 칼날의 잘린 면이 한쪽으로 집중된 마름모 형태)인데, 룽각(菱角, 마름모 형태의 각도)은 봉부(鋒部, 칼날과 자루의 시작 부분)에서만 약간 보이다가 희미해지면서 없어진다. 자루와 칼날(검신) 쪽으로는 단(段)을 두어 구분하였으며, 자루의 단면은 렌즈형이다.

2) 화살촉(石鏃)

간돌검과 같이 출토된 돌화살촉은 모두 6점이다. 그중 벼들잎 모양이 5점이고 습베⁴⁴⁾달린 화살촉이 1점이다. 벼들잎 모양 돌화살촉(석촉, 石鏃) 5점은 모두 녹색의 혈암(頁岩)⁴⁵⁾으로 만들었다. 모양을 보면 첫 번째는, 길고 좁은 이등변 삼각형으로 만입(彎入, 안쪽으로 들어간 모양) 되었고, 두 번째는 밑변(저변, 底邊)의 중앙이 돌출되어 2개의 부채꼴모양(호형, 弧形)을 이루고 화살촉의 몸(축신, 鏃身) 양면에는 흄이 있으며, 세 번째는 사다리꼴로 만입(彎入)되어 날카로운 미늘⁴⁶⁾을 가졌고, 네 번째도 같은 형식이나 밑변(底邊) 중앙의 들어간 부분 양 끝에 두 군데의 흄이 있다. 다섯 번째는 호형(弧形)으로 만입되었으나 중앙이 약간 돌출한 형식이며 오른쪽 미늘이 부러졌다.



〈사진 43〉 장사동 유적 위치도(장사동 산 268-2)

43) 화성암의 일종으로 장석과 석영의 결정이 고루 섞여 생성된 원석.

44) 칼, 괭이, 호미 따위의 자루 속에 들어박히는 뾰족하고 긴 부분.

45) 이판암(泥板巖) 점토(粘土)가 굳어져 이루어진 수성암(水成巖). 회색이나 검은 갈색을 띠며, 흔히 얇은 층(層)으로 되어 잘 벗겨지는 성질이 있다.

46) 낚시 끝의 안쪽에 있는 거스러미처럼 되어 고기가 물면 빠지지 않게 만든 작은 갈고리.

슴베 달린 화살촉 1점도 녹색의 혈암(頁岩)으로 만든 것인데, 꼬리 부분에 슴베가 달린 것을 제외하면 벼들잎 모양 화살촉과 같은 형식이다. 간돌검과 돌화살촉(石鏃) 이외에 철기 1점과 토기편 3점이 같이 출토되었다.

나. 삼국시대(三國時代)

영랑호는 속초시 북쪽에 위치한 큰 석호로 주위가 약 8km이고 영랑동, 동명동, 금호동, 장사동으로 둘러싸여 있다. 신라시대 화랑인 영랑이 이 호수에서 풍류를 즐긴 까닭으로 영랑호라고 이름 지어졌다고 한다.

『삼국사기(三國史記)』 권 4 신라본기 진홍왕 37년 기록과 권 47 열전 김흠운(金歎運) 전에 신라시대 화랑도들의 수행 방법을 소개하고 있는데,

“산수를 찾아다니며 유람하였는데, 먼 곳이라도 다니지 않은 데가 없었다.
(遊娛山水 無遠不至)”

라고 기록되어 있고, 금강산과 동해안은 그들이 가장 즐겨 찾은 곳이었다. 그리고 현재까지 아름이 전해지는 몇 안 되는 화랑 중 영랑(永郎)이라는 화랑이 『삼국유사(三國遺事)』 권 3 백률사(栢栗寺) 조(條)에 아래와 같이 기록되어 있다.

“세상에서는 안상(安常)을 준영랑(俊永郎)의 낭도(郎徒)라고 하나 확실치는 않다. 영랑(永郎)의 낭도(郎徒)에는 오직 진재(眞才), 번완(繁完) 만이 이름이 알려져 있으나 그 역시 내력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이다.

(世謂 安常爲俊永郎徒 不之番也 永郎徒 唯眞才繁完 等知名 皆亦不測人也)”

여기서 말하는 영랑이 영랑호에서 풍류를 즐겼다는 영랑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

다. 고려시대(高麗時代)

현재 확인할 수 있는 영랑호에 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은 고려 충숙왕 1년 (1349년) 이곡(李穀)이 쓴 「동유기(東遊記)」에서 찾을 수 있다. 이곳에 ‘영랑호’라는 명칭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를 보면 적어도 고려시대 이전부터 영랑호라 불렸고 신라 화랑 영랑의 이름에서 유래되었다고 할 수 있다.

“초 여드렛 날에 영랑호(永郎湖)에 배를 띄웠다. 날이 기울어서 끝까지 돌 아보지 못하고, 낙산사(洛山寺)에 가서 백의대사(白衣大士 관세음보살)를 참 알(參謁)하였다. (初八日. 泛舟永郎湖. 日晚不得窮源. 到洛山寺謁白衣大士.)”

위와 같은 화랑들의 풍류를 즐겼다는 기록뿐만 아니라 많은 문인들이 시문을 남기기도 했다. 가장 오랜 것으로 고려후기(高麗後期) 안축(安軸)의 시(詩)가 전한다.⁴⁷⁾ 이에 순흥 안씨 종친회(順興安氏宗親會)와 속초의 문화연구회 ‘풀묶음’에서는 영랑호와 관련된 아름다운 시를 선양하고자 안축시비(安軸詩碑)를 1999년 7월 10일에 영랑호변(永郎湖邊)에 건립하였다. 시비(詩碑)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진 44> 안축시비

47) 안축(安軸), 『근재집(謹齋集)』 제1권 시(詩), 「永郎浦泛舟」, 1330.

永郎浦泛舟 영랑호에 배 띄우고

安軸 作 안축

譯 문화연구회 풀묶음

平湖鏡面澄 잔잔한 호수는 거울같이 맑고
 蒼波疑不流 푸른 물결은 엉기어 흐르지 않네
 蘭舟縱所如 놀잇배를 가는 대로 놓아두니
 泛泛隨輕鷗 갈매기도 배를 따라 등실 떠 날아오네
 浩然發清興 마음 가득 흥취 일어나기에
 沅洄入深幽 물결 거슬러 깊은 골로 들어서네
 丹崖抱蒼石 붉은 벼랑이 푸른 바위를 안고 있어
 玉洞藏瓊洲 아름다운 골이 고운 섬을 품은 것 같네
 循山泊松下 산을 돌아 소나무 아래 배를 대니
 空翠涼生秋 울창한 숲 그늘이 가을인 양 서늘하네
 荷葉淨如洗 연잎은 씻은 듯 깨끗하고
 尊絲骨且柔 순채줄기는 매끄럽고도 부드럽네
 向晚欲回棹 해 저물어 뱃머리 돌리려 하니
 風煙千古愁 흐릿한 기운 오랜 시름 자아내네
 古仙若可作 그 옛날 신선 다시 올 수 있다면
 於此從之遊 그를 따라 여기서 놀련마는

라. 조선시대(朝鮮時代)

1) 속진(束津)의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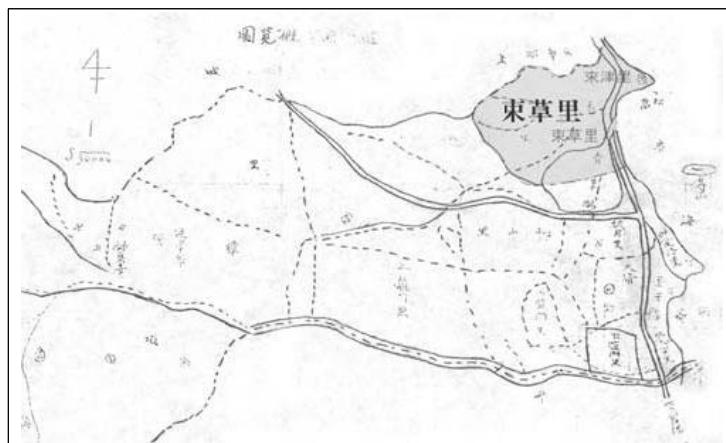
조선시대의 속초에는 소천면(所川面)과 도문면(道門面)이 있었다. 그 중 소천면에는 속초리와 속진리가 있었다. <그림 15>에서 보듯이 조선시대의 영랑동(법정동)은 소천면 속진리(束津里)에 속했다.

지금까지 발간된 일부 책자에서는 조선시대 문헌에 등장하는 속진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속초리에 편입시켜 불러왔다. 그러나 2002년

속초문화원에서 발간된 『속초의 옛 땅이름』에서 언급하였듯이, 일제 강점기인 1918년에 쓰여진 『최신조선지리』에서 속진리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책에서 속진리에 대해 언급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⁴⁸⁾

“속진은 강원도 양양군(襄陽郡) 도천면(道川面)에 속한다. 남북에 작은 돌출이 있고, 만형(灣形)을 이룬다. 만의 깊은 곳의 서쪽에서 북방에 있는 돌각(突角), 즉 비선장이라는 좋은 곳이 있는데 약간 높은 언덕이 둘러싸고 있으며, 수심이 깊어 기선이 정박하는데 적합하다. 군내 유일한 기박(汽舶-큰배)의 기항지이다. 간성군(杆城郡) 사진(沙津)에서 남쪽으로 10정⁴⁹⁾ 떨어져 있고, 양양으로 4리라서 교통이 편리하다.”

여기서는 속진(束津)이 지금의 영금정(靈琴亭) 일대라는 사실을 말해 준다. 다시 말해 수복탑(收復塔)에서부터 지금의 영금정 솔섬⁵⁰⁾ 일대로 이어지는 해안은 천연의 항구로 적합하였고 이와 함께 마을이 형성되었다. 즉, 속진리는 지금 수복탑 부근에서부터 안쪽 지역을 부르던 이름이었다. 따라서 지금의 동명동 일부와 영랑동 지역은 속진리에 속하였다.



<그림 15> 『면세일반』의 속초(束草) 옛지도(1925년) 재구성

48) 藤戸計太, 『최신 조선지리』, 경성일보사대리부, 1918, 203쪽.

49) 10정은 1,090m이고, 4리는 15.6km이다.

50) 솔섬은 지금 동명항의 정자가 있는 곳으로, 예전에는 이곳이 섬이었다. 소나무가 많아 솔섬이라고 했다.

한편, 장사동(법정동) 지역의 장천리(章川里)와 사진리(沙津里)는 조선시대에는 고성군에 속해 있었다. 경계는 현재 영랑호 하구인 영랑교까지가 속진리의 영역이었으며, 영랑호수는 고성군 지역이었다.

2) 속진의 규모

속진리의 범위는 속초리에 비해 상당히 작은 규모이다. 청초천을 경계로 현재 시내 쪽이 속초리라고 봤을 때, 수복탑 인근에서 시작하는 속진리 지역은 상대적으로 면적이 좁다. 하지만 인구수를 보면 결코 작은 규모가 아니었다.

속진리의 인구를 속초의 다른 마을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10〉 18세기 후반 소천면 마을별 인구현황

면(面)이름	마을이름	편호	인구수
소천면(所川面)	논산리	20	97
	부월포리	18	86
	속초리	86	272
	속진리	58	175

출처 : 『여지도서』

〈표 10〉에서 보면 속진리의 인구는 총 175명으로, 논산리나 부월포리 보다 상당히 큰 마을이었다. 속초리와는 인구수가 약 100명 정도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당시로서는 작은 규모가 아니었다. 그러나 속진리와 속초리의 마을 면적은 큰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이유는 각 지역의 생업과 관련이 있다. 속초리 지역은 농업이 주산업이었으므로 농토가 많았고, 속진리 지역은 어업이 주산업이었다.

3) 영랑호 기록물

영랑호의 빼어난 경관과 화랑 영랑 전설은 영랑호를 유람(遊覽)한 시인묵객(詩人墨客)의 시문(詩文) 소재(素材)가 되어 영랑호를 읊은 시문을 많이 남겼다. 조선시대 개인 문집 등에 기록된 영랑호 관련 시문은 다음과 같다.

〈표 11〉 영랑호를 주제로 한 시문

서명	권차	기사	저자/필자	생몰연대
급암시집(及菴詩集) (1370년)	급암시집 제2권	寄東界存撫使	민사평(閔思平)	1295~1359
기언(記言)	기언 제13권 중편	竹西樓記	허목(許穆)	1595~1682
	기언 제24권 중편	임인년(1662, 현종3) 정월 기행문		
동명집(東溟集)	동명집 제2권	영랑호〔永郎湖〕	정두경(鄭斗卿)	1597~1673
	동명집 제7권	간성의 수령으로 있는 정양에게 부치다 〔寄鷺杆城 漢〕		
동문선(東文選)	속동문선 제3권	차 고성 삼일포운(次高城三日浦韻)	홍귀달(洪貴達)	1438~1504
백호전서(白湖全書)	백호전서 제34권	풍악록(楓岳錄)	윤휴(尹鏞)	1617~1680
번암집(樊巖集)	번암집 제5권	영랑호〔永郎湖〕	채제공(蔡濟恭)	1720~1799
사가집(四佳集)	사가시집 제46권	관동행(關東行). 강원 유도사(柳都事)를 보내면서 겸하여 성감사(成監司)에게 부치다	서거정(徐居正)	1420~1488
서계집(西溪集)	서계집 제4권	이생(李生) 정신(正臣) 의 〈재를 넘다 [過韻]〉 시에 차운하다	박세당(朴世堂)	1629~1703
성소부부고(惺所覆瓿藁)	성소부부고 제2권	무산(巫山)의 장옥랑(張玉娘)과 작별하며 지어주다	허균(許筠)	1569~1618
택당집(澤堂集)	택당선생집 제5권	양양(襄陽)의 이 사군(李使君)	이식(李植)	1584~1647
	택당선생 속집 제4권	근체시(近體詩) 네 수를 지어		
	택당선생 속집 제4권	영랑호(永郎湖)에서		
한수재집(寒水齋集)	한수재선생문집 제1권	경호(鏡湖)의 배 안에서 좌상(座上)의 운(韻)에 차하다	권상하(權尙夏)	1641~1721
		강릉(江陵) 이사군(李使君) 단석(端錫)을 작별하다. 정미년		
해동잡록(海東雜錄)	해동잡록 1 본조(本朝)	홍귀달(洪貴達)	권별(權鼇)	미상(未詳)
허백당집(虛白堂集)	허백당시집 제10권	영랑호〔永郎湖〕	성현(成僕)	1439~1504
낙전당집(樂全堂集)	낙전당집 제1권	간성으로 부임하는 유 사군 영 을 전송하다 〔送柳使君 頽 趟杆城〕	신의성(申翊聖)	1588~1644
	낙전당집 제4권	산해 유람 중 마음에 드는 곳을 읊다. 절구 열수 〔賦得山海遊歷會心處十絕〕		
동주집(東州集)	동주집 전집 제7권	영랑호에서〔永郎湖〕	이민구(李敏求)	1589~1670
		도사가 뒤따라 낙산에 도착하였기에 농담 삼아 써서 시를 제축하다 〔都事追到洛山戲筆督詩〕		
목재집(木齋集)	목재집 제6권	삼일포 유람기〔遊三日浦記〕	홍여하(洪汝河)	1620~1674
서하집(西河集)	서하집 제2권	양양 부사 최성백 상의에게 부치다 〔寄襄陽守崔成伯 商翼〕	이민서(李敏敘)	1633~1688

어우집(於于集)	어우집 제3권	양양 사군 권운경 친을 전송하는 서 〔送襄陽使君權雲卿 緯序〕	유몽인(柳夢寅) 1559-1623
	어우집 제4권	삼장암 상인 자계에게 준 서 〔贈三藏菴上人慈泊序〕	
	어우집 후집 제1권	관동기행 2백 운 〈관동록〉 ○경인년(1590, 선조 23) 〔關東紀行二百韻 關東錄○庚寅〕	
		연경으로 가는 정랑 두봉 이양오 지완을 전송하다. 130운 〔送李正郎斗峰養吾 志完 赴京一百 三十韻〕	

※ 한국고전종합DB(<http://db.itkc.or.kr/>)에서 고전번역서 중 “영랑호 시문”을 검색한 결과임.

4) 영랑호(永朗湖) 각자

2016년 영랑교 다리에서 영랑호 카누 경기장 방면으로 첫 모퉁이 들어선 SAN(요가 스튜디오)과 영랑호 호안도로 사이 바위의 동쪽 면(속초시 장사동 647-49)에 ‘영랑호(永朗湖)’ 세 자가 새겨져 있는 것이 발견되었으며, 3글자 크기는 폭 45cm, 높이 142cm로 확인되었다.

이 글씨를 쓴 사람은 우암(尤菴) 송시열(宋時烈)이라고 하는데, 조선시대 문인 김유(金柔, 1653년~1719)의 『검재집(儉齋集)』과 이해조(李海朝)의 『명암집(鳴巖集)』에 “영랑호변 바위에 ‘영랑호’ 3자가 새겨져 있는데 우암의 글씨”라는 기록이 있다.

“설악의 높은 봉우리들은 청록색 호수에 잠기고, 바위 위에 ‘永朗湖’ 세 자를 새겼는데, 우암 선생이 쓴 것이라 한다. 郎(사내 랑)이 朗(밝을 랑)으로 바뀌었는데, 어찌 이런 뜻이 있겠는가? (雪嶽諸峯巍呀縕. 蒼翠蘸湖. 巍上刻永朗湖三字. 云是尤菴先生筆 而易郎以朗. 豈有其意歟)”

[김유(金柔), 검재집(儉齋集) 권 20, 유풍악기(游楓嶽記)]

“호수 변 돌 위에 永朗湖 세 자를 새겼는데 尤翁(우암 송시열)이 쓴 것이다. 설악산 봉우리들 그림자가 물 한가운데 비친다. (湖邊石上. 刻永朗湖三字. 尤翁筆也. 雪嶽羣峯. 倒影波心)”

[이해조(李海朝) 명암집(鳴巖集) 권4, 영랑호(永朗湖)]

위 김유의 기록에는 영랑호의 한자(漢字) “사내 랑(郎)” 을 “밝을 랑(朗)” 으로 “바꿔 쓴 뜻이 있다.(豈有其意歟)” 라며 한탄하는 기록이 있는데, 이것은 우암이 현재 처한 신세가 보잘 것 없이 변했지만 내일에 대한 자신의 희망을 나타내고자 “밝을 랑(朗)” 으로 쓴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⁵¹⁾



<사진 45> 영랑호 각자가 있는 바위



<사진 46> 각자(刻字)



<사진 47> 탁본

51) 정상철, 『속초의 역사와 이해』, 속초문화원, 2018, 91~98쪽 참조.

영랑호 각자(刻字)에 대해서는 『조선지지자료(朝鮮地誌資料)』 간성군(杆城郡) 고적명소(古蹟名所) 영랑호(永郎湖)에 또 다른 설명이 있다.

“옛날에 영랑이란 신선이 이 호수에서 놀았다하여 영랑호라 이름지었다
하고, 양사언의 글씨가 돌 벽면에 있음.(사진리에 있다)
(古昔에 永郎仙이 此湖에 游한 故로 名하고 楊逢萊⁵²⁾의 題名이 石面에 有
함(在沙津里)”

라는 기록과 간성지역의 선비 어제창(魚濟昌)이 우암 송시열이 금강산에
오신다는 말을 듣고 직접 금강산에 가서 청간정(淸澗亭), 선유담(仙遊潭), 영랑
호(永郎湖) 글씨를 받아가지고 바위에 새긴 것으로,⁵³⁾ 김유의 한탄하는 기록
“사내 랑(郎)”을 “밝을 랑(朗)”으로 “바꿔 쓴 뜻이 있다.(豈有其意歟)” 는
내용과 차이가 있으므로, 향후 깊이 있는 조사와 연구가 요구된다.

5) 영랑호 그림

단원(檀園) 김홍도(金弘道, 1745~1806?)가 그렸다는 영랑호 그림 1점이 전한다. 1788년 가을 정조의 어명으로 금강산을 비롯한 관동팔경의 사생여행길에 오른 김홍도는 원주의 청허루(淸虛樓)를 시작으로 평창 청심대(淸心臺) 그리고 오대산, 대관령, 경포대를 거쳐 동해안을 따라 울진으로 내려갔다가 방향을 돌려 낙산사를 거쳐 설악산으로 들어서는데, 설악산 토왕폭(土王瀑), 와선대(臥仙臺), 계조굴(繼祖窟)을 지금의 풍경과 꼭 빼닮아 그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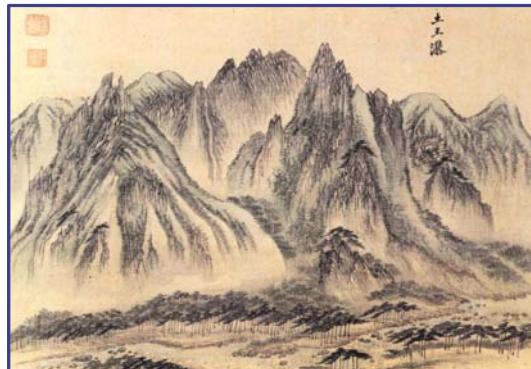


<그림 16> 영랑호(永郎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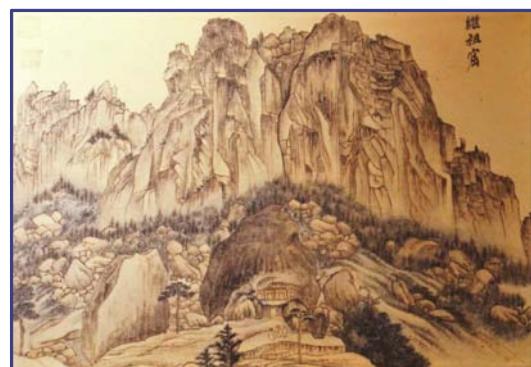
52) 양사언(楊士彦, 1517~1584)을 말한다.

53) 김광섭, 『청간정』, 2012, 149~150쪽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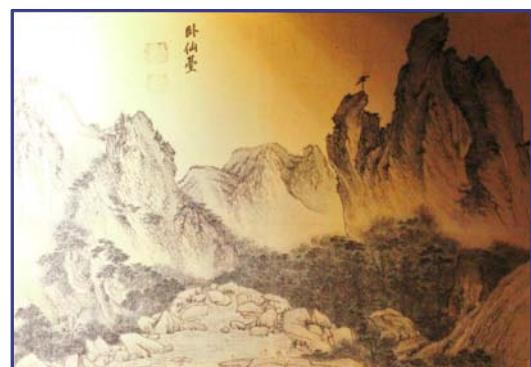
영랑호 또한 지금의 울산바위, 달마봉, 범바위 등을 그려 넣어 현재 영랑호와 주변 설악산(울산바위)이 어우러진 진경(眞景)을 선보이고 있다.



<그림 17> 토왕폭(土王瀑)



<그림 18> 계조굴(繼祖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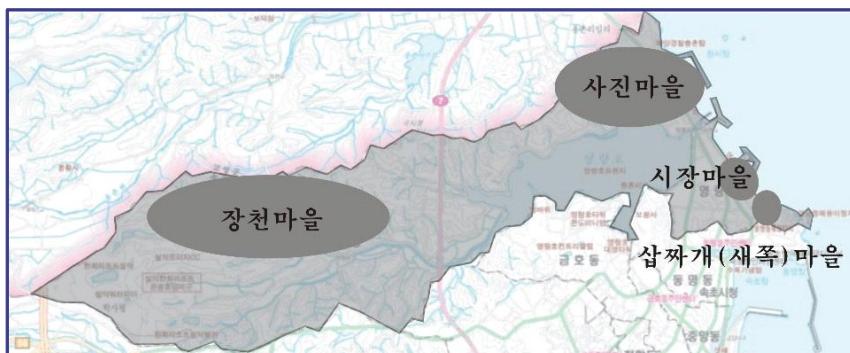


<그림 19> 와선대(臥仙臺)

2. 근 · 현대 시대(近 · 現代時代)

가. 마을의 형성

영랑동의 대표적인 마을로는 영랑동의 새쪽마을, 영랑시장마을, 개안골이 있고, 장사동에는 사진마을, 장천마을이 있다. 이 마을 중에는 속초의 도시변천 과정을 잘 설명해 주는 새쪽마을이 있고, 조선시대에 이미 형성된 장천마을, 사진마을이 있다. 영랑시장마을과 개안골은 1950년대 이후 인구의 증가와 함께 비교적 늦은 시기에 형성되었다.



<그림 20> 영랑동의 마을 분포도

나. 영랑동 · 장사동 마을 이름의 변천

영랑동(행정동)은 기존의 영랑동(법정동)과 장사동을 합쳐 부르는 말이다. 법정동의 영랑동은 1963년 속초시가 만들어지기 전까지 양양군에 속한 지역이었고, 장사동은 고성군에 속해 있던 것을 1973년 대통령령 제6542호로 속초시에 편입시켜 장천리(章川里)와 사진리(沙津里)의 앞글자를 따서 장사동(章沙洞)이라고 하였다.

이와 같은 변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2〉 영랑동 · 장사동 마을 이름 변천표

연도 동이름		조선 시대		1914		1919		1937		1942		19 45 ~ 19 51	19 51 ~ 19 54	1953		1963 (1966 동제 실시)	1973	
영랑동		소 천 면	속 진 리	도 천 면	속 초 리	도 천 면	속 초 리	속 초 면	속 초 리	속 초 읍	속 초 리 1 구	이 북 소 속	군 정 기	속 초 읍	속 초 리 1 구	속 초 시	영 랑 동	속초시 영랑동
장 사 동	장 천 리	토 성 면	장 천 리	토 성 면	장 천 리 (양 양)	토 성 면	장 천 리 (양 양)	토 성 면	장 천 리 (양 양)	토 성 면	이 북 소 속	군 정 기	토 성 면	장 천 리 (양 양)	토 성 면	장 천 리 (고 성)	속초시 장사동	
	사 진 리	토 성 면	사 진 리	토 성 면	사 진 리 (양 양)	토 성 면	사 진 리 (양 양)	토 성 면	사 진 리 (양 양)	토 성 면	이 북 소 속	군 정 기	토 성 면	장 천 리 (양 양)	토 성 면	장 천 리 (고 성)		

위의 〈표 12〉에서 보면 속진리(東津里)라는 지명이 갑자기 사라진다. 이 마을은 조선 후기까지 존재하였던 마을이다. 그러면 속진리라는 마을 이름은 언제쯤 사라졌을까? 문헌을 보면 조선후기에 만들어진 『여지도서』나 1899년에 제작된 『양양군읍지』에는 속진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기록이 사라진 것은 1911년에 조사된 『조선지지자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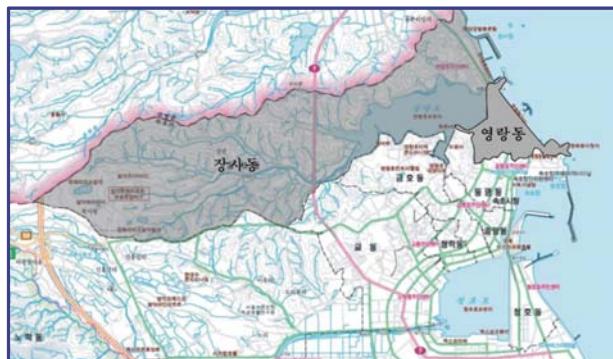
〈그림 21〉 『조선지지자료』의 양양군 마을 이름 기록 내용

일제는 1910년부터 1918년까지 지세의 공정한 부과와 근대적 토지 소유권을 확립한다는 명분으로 토지 조사 사업을 실시하였다. 1910년 초에 대한제국에 설치된 토지조사국을 조선총독부에서 임시토지조사국으로 개칭하여 토지 조사 사업을 주도했는데 『조선지지자료』는 이 사업의 목적으로 선행 조사한 것이다. 하지만 이 조사는 마을 통폐합 작업이 아니었는데 속진리가 왜 빠졌는지 모르겠다. 분명한 것은 1914년 3월 1일 조선총독부가 시행한 조선총독부령 제111호에 의거한 부군면 통폐합(府郡面 統廢合)에 의해 대대적인 행정구역 개편이 이루어졌는데, 속초리와 속진리의 경우도 여기에 해당되어 1915년 개편내용을 기록한 「지지조서」에는 통합된 마을로 표기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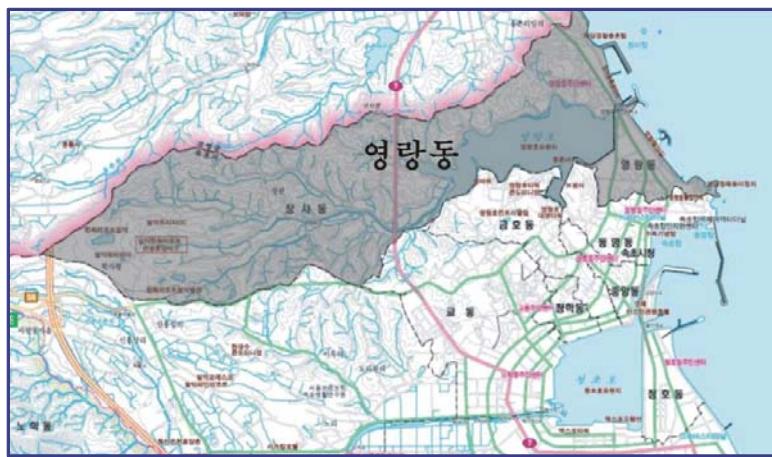
속진리는 속초리와 통합되어, 영랑동 지역은 1942년 속초읍 속초리 1구로 되었다가 1945년에 이북 소속을 거쳐 한국전쟁으로 수복이 되었다. 1966년 동(洞)제 실시로 영랑동이 되고 현재는 장사동과 합치는 과정을 겪었다. 이 내용을 지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22> 1953~1972년 영랑동의 범위



<그림 23> 1973년 장사동 속초시 편입



<그림 24> 1998년 동 통폐합 후 영랑동

다. 8·15해방(解放) 이전

1) 일제 강점기 속초리의 분화

1925년경에 이르면 18세기와 비교하여 속초 지역 전체의 인구 증가가 뚜렷하다. 동별로 보면 내물치 468명, 대포리 777명, 속초리 1,058명으로서 속초면은 어항 또는 기선의 기항지로서의 어항 기능이 점점 강해지는 면모를 엿 볼 수 있다. 속초리는 비록 조선시대의 지역 중심지는 아니었지만 속초리 및 속진리가 가지고 있던 인구 집중지로서의 지위가 그대로 유지되었고, 일제 강점기에 들어와 속초리가 기항지로서 각광을 받게 되면서 속초면의 중심지가 되었다.

특이하게도 일제 강점기가 시작되면서 속진리라는 지명이 없어지게 된다. (앞의 내용 참고) 이는 속초리와 속진리가 인접한 동리(洞里)였기 때문에 합쳐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조선시대 읍지(邑誌)에 두 동리 모두 양양으로부터 거리가 35리로 같게 기록되어 있고, 속진은 나룻가를 뜻하는 ‘진(津)’자가 들어간 것으로 등대 부근의 마쪽, 새쪽마을임을 알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속초의 옛 이름을 ‘속진’으로 기억하는 것으로 볼 때 이 시기 속초리에 합쳐지면서 지명이 없어진 것이다.

1930년대에 이르러 청초호가 항구로 개발되고, 속초리가 점점 커지게 되면

서 1942년 10월 1일 부령(府令) 제104호로 속초면에서 속초읍으로 승격되는 동시에 속초시는 1구에서 4구까지로 분리된다. 이렇게 속초의 발전은 속초항 개발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중 1구(지금의 영랑동)는 속초에서 처음 장이 서기 시작한 가장 변화한 마을이었다. 영랑시장 주변 장거리에는 동일냉면과 제일냉면 등의 냉면집과, 국밥집 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었다고 한다.⁵⁴⁾

2) 해방 전의 영랑동 교육

속초에서의 최초 공교육기관은 일제 강점기 1면 1교 정책에 의해 1919년 설립된 대포공립학교가 그 효시이다. 그 후 도천면 소재지가 속초리로 옮겨지고 속초면으로 승격되는 등 속초항을 중심으로 한 인구 집중이 되자 1937년 영랑공립심상소학교(지금의 영랑초교)가 두 번째로 설립되었다. 그 외에 일본인 자녀들이 다니는 설악심상소학교가 명신학교 자리에 있었다.

〈표 13〉 일제강점기 영랑동 지역 초등교육기관⁵⁵⁾

학교명	수업연한	학급수	학생수	재학생 국적
영랑심상소학교	6년	7	약500명	한국인
설악심상소학교	6년	3	50~60명	일본인

출처 : 『속초의 근현대사』

소학교 교육은 표면상으로 심상소학교라 하는 등 교명을 일본과 같게 하는 것이 골자였다. 하지만 일본어·일본사·수신·체육을 강화하며 수업을 일본어로 할 것을 강요하고, 한국어를 필수과목에서 선택 과목으로 바꿔 사실상 폐지하는 등의 후속 조치로 철저한 황국신민교육을 지향했다.

이러한 교육 내용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장, 교감을 비롯한 교사의 대부분은 일본인으로 채워졌으며, 조선인 교사는 소수에 불과했다. 한국어를 말살하기 위한 정책도 철저하게 시행하였다. 학생들에게 표를 10장씩 나눠준 후 한국어를 사용할 때마다 상대 학생에게 표를 한 장씩 뺏았는 제도를 시행하

54) 「설악신문」, 2020. 8. 31일자, 「설악신문 30년, 다시 보는 그 시절<20> / 30년 전 어르신들의 마을 이야기(상)」, 속초 영랑동 김창원옹(1994. 1. 17) 구술 참조.

55) 속초문화원, 『속초의 근현대사』, 2004, 84쪽에서 인용.

여 서로를 감시하도록 하였다. 나중에 표 10장을 다 빼앗기면 벌을 받게 하는 벌칙으로 한국어 사용을 철저히 막았다.

“국어, 산수, 지리, 그런걸 배웠죠, 일본인들이 우리나라 말을 말살시키기 위해 요만한 표 쪼가리를 만들었어요. 그걸 학생들에게 전부 줘요. 학생들에게 10장씩. 한국말을 하면 “후다 다세(표를 내놔)” 하거던. 그게 다세하면 쪼가리를 줘야해. 이게 다 없어지면 벌받아야 해. 우리나라 말을 말살시키는 제도를 학교에서 그렇게 했거든. 수업 시간에는 다 일본어로 수업 받았어요.”⁵⁶⁾

이에 더하여 1941년 일제칙령 제148호 '국민학교령'에 의해 소학교를 국민학교로 명칭을 변경하였는데, 이는 '황국신민(皇國臣民)'의 약자로 황국신민을 양성한다는 일제 강점기의 초등교육정책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영랑심상소학교는 영랑국민학교로 이름을 바꾸었다.

3) 속초읍의 중심 1구

가) 공설운동장의 설치

1937년 도천면이 속초면으로 바뀌고, 면사무소도 영랑동으로 이전하였다. 면사무소는 지금의 영랑동 작은 도서관 자리로 1942년 속초면이 속초읍으로 승격된 후에도 임시사무실로 이용되었다. 따라서 속초에서 개최되는 대부분의 행사가 영랑동에서 이루어지면서 군중이 함께 모일 장소가 필요했다. 이에 따라 영랑동에 운동장도 설치하였는데, 「매일신보(毎日新報)」 1941년 11월 1일자에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束草面에서는 面民의 體位向上을 씨하야 市場뒤에 七千餘坪되는 公設運動場을 設置하기로 되였다 한다.

56) 김종규의 증언. 김종규 씨는 현재 83세로 2020년 10월 7일 속초문화재단 사무실에서 증언을 청취하였다.

속초면에서는 면민의 체위향상을 꾀하여, 시장 뒤에 칠천여 평 되는 공설 운동장을 설치하기로 되었다 한다.”

여기서 말하는 시장은 영랑시장이며, 영랑시장 주변 장거리 북쪽으로는 넓은 공터가 있었다는 것으로 보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이곳에서는 속초의 각종 행사가 개최되었으며, 이후 8·15해방 경축식과 기념 체육대회도 이곳에서 개최되었다.

나) 정어리기름 공장

일제는 1937년 중일 전쟁을 일으켜 중국을 침략하였으며, 1941년에는 아시아·태평양 전쟁을 일으켰다. 일제는 전쟁을 수행하기 위하여 인력과 물자와의 수탈을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중요 산업 통제법을 바탕으로 지하자원 개발, 가공 공업, 인조 석유 공업 등 주요 업종에 대한 통제 경제를 실시하였다.

속초에도 정어리 공장, 소고기 통조림 공장 등이 있었는데 영랑동에 정어리기름을 생산하는 작은 공장이 많이 있었다. 중언에 의하면 일제 강점기에 는 정어리가 상당히 많이 잡혔다고 한다. 1923년에는 정어리가 얼마나 많았던지 바닷가에 밀려온 정어리를 주워 모은 것만 집집마다 몇 가마씩 되어 이를 절여두기 위한 소금이 품귀현상을 빚었다고 한다. 1939년에만 120만 톤의 어획고를 올려 단일 어종으로는 세계적인 기록을 세우는 등 절정기를 맞았었다. 정어리기름은 정제 가공하여 공업용 유지와 선박용 연료, 화약, 화장품, 의약품 제조에 사용되었는데 일제가 태평양 전쟁을 준비하면서 우리 연안에 대규모로 몰려드는 정어리 뼈에 고무되었다가 1939년을 정점으로 회유량이 줄어들자 연료난으로 타격을 받았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⁵⁷⁾

정어리는 기름을 짜고 난 찌꺼기도 사용하였다. 정어리 찌꺼기는 온박이라 고 하여 농업용 비료나 사료로 쓰였다. 이것을 생산하는 공장을 온유비공장 이라고 했는데, 노다지 산업으로 알려지는 바람에 돈푼깨나 있다는 사람들은 너나없이 사업에 뛰어들었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앉아서 두 배의 이윤을 남

57) 네이버 백과사전 참조.

겼다고 한다.⁵⁸⁾

1940년 초까지 정어리 공장들은 영랑동 바닷가 쪽으로 쭉 늘어서 있었다. 속초면에서 제일 먼저 정어리 공장이 설립된 곳은 영금정 진입로 길가에 있던 공장으로 김복수(金福壽) 씨가 설립하였다. 영랑동에는 두 번째로 공장이 설립되었는데 새쪽마을 안쪽에 위치하고 있었다.⁵⁹⁾ 이 공장이 들어선 후에는 우후죽순으로 공장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청호동 같은 곳에는 일본인이 운영하는 큰 공장이 있었지만, 영랑동의 정어리 공장은 대부분 지역 주민들이 생산하는 소규모의 자가 공장이었다.

공장에서는 기름을 만들기 위해 몇 가지 단계의 작업을 했다. 먼저 커다란 쇠가마에 정어리를 넣고 장작불로 물이 끓을 때까지 고기를 삶았다. 푹 삶은 정어리는 기계틀에 넣고 작기로 다져 기름을 뺐다. 기계로 짜낸 정어리 기름은 커다란 탱크에 담았다가 한두 개씩 걸러 1등품, 2등품, 3등품 등의 물건으로 구분하여 양철 초롱에 담았다. 검사관의 검사를 마친 후 초롱 구멍을 납땜하고 새끼줄로 초롱을 엮어 맨 다음 등급별로 매겨 일본으로 수출하였다. 등급상표를 붙인 상품은 운송 차량이 없을 때라 우차(牛車)를 동원하여 영랑동 공장에서 동명동 항으로 운반하였다. 이때가 되면 우차 주인들은 온종일 운반할 정도로 일이 많아 짭짤한 돈벌이가 되었다.⁶⁰⁾

동명동 항구로 옮겨진 정어리기름은 작은 선박(종선)에 옮겨 실었다. 작은 선박에 옮겨진 기름은 조도 부근에 정박해 있는 화물선으로 옮겨졌다. 이 화물선은 모두 일본배였는데, 기선(굴뚝에서 연기가 나는 큰 배)으로 2,3만 톤급의 큰 배였다. 이 배는 동명동 항구의 수심이 낮아 바다에 정박하였는데, 주민들은 작은 쪽배를 타고 기선 구경을 가곤 했다.

“정어리가 어로 작업을 많이 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우후죽순 식으로 자가 공장을 만든거예요. 그러니까 기름을 짜기 위해서. 어데 파냐. 지금 해수욕장 있잖아. 그 일대에 큰 일본배가 와서 정박을 해갖고 있다가 여기서

58) 엄경선, 『시간여행 속초음식생활사』, 속초문화원·강원도문화원연합회, 2018, 150쪽.

59) 김정우, 『내 고향』, 강원일보사, 142쪽. 현재 영랑동 보건탕 건너편 마을 골목길 30미터 지점에 있었다고 하며, 오형집(吳衡集) 씨가 공장주였다.

60) 김정우, 앞의 책, 142쪽 참조.

쪼그만 배들로 날라서 기름을 거기다 파는 거예요. 영랑동 거긴 전부다 정어리 공장 이었대요. 자가 공장이지.”⁶¹⁾

다) 개안골의 농업

개안골은 현 속초지방법원 쪽에서 뻗어 내린 산맥이 서북쪽을 둘러싸고 있으며, 서쪽으로는 보광사 뒷산이 감싸고 있는 분지 모양의 골짜기였다. 이 곳에는 논밭이 있었는데 개안논, 개안밭이라고 불렸다. 개안논은 지대가 영랑호수보다 낮아 가뭄이 심할 때는 영랑호수의 물을 끌어다가 농사를 지었고, 반대로 장마가 져서 개안논물이 호수보다 높으면 개안논 물을 호수 쪽으로 빼내곤 했다. 장마가 질 때는 영랑호 물을 먼저 빼내야 하기 때문에 가래질과 삽질을 하여 영랑교 해변 쪽의 모래를 치웠다. 수로를 만든 후에는 호수물을 바다로 흘려보내고, 개안논의 물은 호수로 빼내었다.

개안논에서 영랑호로 물을 내보내는 수로는 당시 설악심상소학교(일본인 자녀들 학교) 앞 길목에 있었는데, 폭이 2~3m 정도로 제법 길게 만들어진 물길이었다. 장마 때 물을 내보내면 영랑호 물고기들이 수로를 타고 논에 들어와 동네 사람들은 족대와 나무때기로 잉어와 붕어를 때려잡거나 족대로 고기를 잡기도 했다.⁶²⁾

라. 8·15해방(解放) 이후

해방과 함께 미국과 소련이 38선을 기준으로 양분(兩分)하여 점령하면서 조선 태종 13년(1413년)에 전국의 행정구역을 8도제로 실시한 이후 처음으로 ‘두 개의 강원도’ 시대가 개막되었다. 강원도는 11개 군(郡)과 82개 읍(邑)·면(面)을 가진 38선 이북(以北)과 10개 군과 91개 읍·면을 가진 38선 이남(以南)으로 나누어지게 되었다. 영북(嶺北)의 경우에는 1945년 8월 말경 양양군(襄陽郡) 현북면(縣北面)에 소련군이 도착하였고, 주문진을 거쳐 강릉까지 남

61) 김종규의 증언.

62) 김정우, 앞의 책, 52쪽 참조.

하(南下)하여 무력(武力)을 과시하기도 했다.⁶³⁾

1942년 10월 1일 부령(府令) 제104호에 의해 속초면에서 속초읍으로 승격되었으나, 8·15해방과 동시에 북한치하(北韓治下)에서는 속초면으로 강등하여 불렸던 속초는 38이북 지역에 있었다. 하지만 이 시기의 기록들은 한국전쟁으로 대부분이 사라져 당시의 상황을 잘 알 수가 없다. 단지 몇몇 어르신들의 구전에 의하면, 1937년 건립된 속초역(束草驛)은 양양부터 시작해 함경남도 안변(安邊)으로 연결되는 동해북부선의 정차역이었고, 따발총을 맨 인민군과 봉고말을 탄 소련군이 주둔하여 지역의 치안을 맡고 있었다. 현재 동명동 속초감리교회 언덕 위에는 인민군 포부대가 주야(晝夜)로 진지를 구축하고 있었다고 한다.⁶⁴⁾ 소련군은 속초지역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을 설악심상소학교(일본인 자녀들 학교)에 집단 수용하기도 하였다.

당시 마을의 모습은 새쪽마을 북쪽 해안가로는 건물이 없었고 울창한 솔밭이 펼쳐져 있었다. 바닷가 쪽에는 모래사장이 이어져 있었으며, 해당화가 만발하는 곳이었다.

“지금 현재 봉포 머구리 횟집 그 뒤로 인공 때는 그게 솔밭이었어, 그 사이로 숨바꼭질 하고 숨으면 모를 정도로 소나무가 울창했는데 6·25전쟁 때 그걸 다 밀고 미군이 주둔하고 있었어, 그리고 폭탄이 막 여기저기 떨어지니까 폐허가 됐지.”⁶⁵⁾

마. 한국전쟁(韓國戰爭) 이후 영랑(永郎) · 장사지역(章沙地域)의 변천

1) 전쟁 후 영랑시장(1구시장)의 상황

한국전쟁으로 수복된 속초는 전쟁을 피해 피난 온 실향민들이 고향에 가겠다는 일념으로 모여들었고, 경제적 기반이 없었던 그들이 정착생활을 하기

63) 양재인, 『강원도비사』, 강원일보사, 1974, 29~32쪽.

64) 노광복, 「전쟁의 상흔과 새로운 희망의 공존 - 1950년대 속초리의 풍경-」, 『1950년대 속초리 속으로』, 속초시박물관, 2011, 188쪽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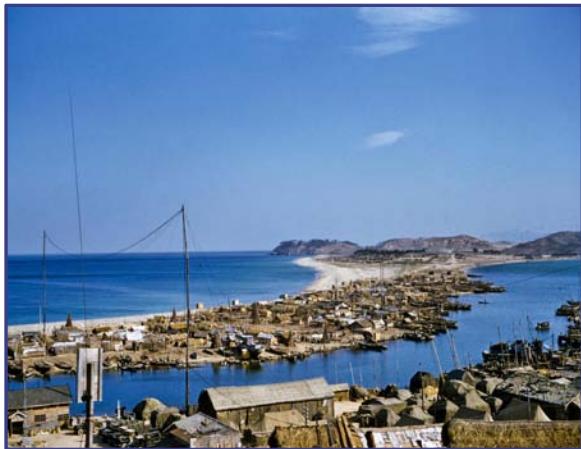
65) 박동열의 증언.

위해서 고깃배를 타거나 어업과 관계된 노동일에 종사하면서 속초의 인구는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었다.

청호동의 주인 없는 모래땅에 하나 둘 정착하면서 형성된 아바이마을은 피란민의 정착 마을이 되었다. 청호동에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생활기반도 점차 형성되어 갔다.

당시 속초항을 중심으로 주둔한 미군은 속초항을 기반으로 병참기지를 형성하고 있었기에 속초항과 항만 주변 곳곳에는 많은 군수물자들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러한 이유에서 영랑동 지역도 한국전쟁 이전부터 마을이 형성되어 있어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었고, 경제활동이 비교적 자유로워 피란민들의 정착생활과 어업활동이 타 지역에 비해 활발하였다. 수복 당시 중심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던 영랑동 지역에 5일장이 서게 되고, 국군과 미군부대가 계속 주둔하면서 급속도로 늘어난 일상경제 생활의 수요를 5일장으로 충족할 수 없게 되자 영랑동 5일장터는 상설시장으로 변하였다.

초창기 영랑시장은 말이 상설시장이지 반듯한 점포 하나 없는 초라한 시장에 불과 하였다. 피란민들 중에도 장사에 뜻을 둔 사람들이 하나 둘 나타나기 시작하였지만, 큰 자본 없이 시작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노점상을 하는 일이 고작이었다.



〈사진 48〉 중앙동 언덕 정상에서 바라본 속초 남쪽⁶⁶⁾



〈사진 49〉 한국전쟁 후 시장풍경⁶⁷⁾

66) 이 사진은 1953~1954년 속초 주둔 미군 폴 뷔포드 팬처가 촬영한 속초 남쪽(청호동과 중앙동 지역)으로 현 중앙동 지역에는 군수물자 창고와 야적한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다.(속초시박물관, 『1950년대 속초리 속으로』, 2011, 8쪽 참조.)

상인들은 길모퉁이의 판잣집이나 초가집 추녀 밑에 좌판을 설치하고 주로 미군부대에서 흘러나오는 PX 물품(양담배, 양주, 껌, 과자류 등)들을 진열하는 것이 고작이었다.

이렇게라도 장사를 할 수 없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쉽게 구할 수 있고, 자신의 노동력으로 상품 확보가 가능한 나무(땔감)를 판매하여 생계를 유지하였다.



<사진 50> 1954년 시장풍경(땔감판매)⁶⁸⁾

“국사봉이라는 산으로 나무를 하러 다녔는데, 지게에 나무를 가득 실으면 영랑호가 얼어있는 위로 땔감을 끌고서 지금 영랑학교 뒤쪽으로 왔지, 거기서부터는 다시 집까지 지게를 지고 가곤 했어”⁶⁹⁾

위와 같이 당시 영랑동 사람들에게는 시장에 나아가 팔거나 겨울을 날기 위한 유일한 연료인 나무를 구하기 위해 영랑동에서 장천마을 국사봉(國師峰)까지 지게를 이용해 땔감을 해오는 전쟁 후의 고단한 삶을 살아 왔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한국전쟁 후에는 피란민의 귀향과 이북에 고향을 둔 실향민들이 대거 몰려들면서 생활용품의 수요가 급증하게 되어, 좌판이 20~30개 쪽으로 늘어나고 쌀, 부식 등 생필품 거래도 시작되었다. 이에 따라 미곡상, 잡화상, 의류상, 부식가게 등이 들어서게 되고 시장은 점점 변창해 갔으며, PX물품은 미군부대 종업원 또는 양공주들이 시장에 공급하였다.⁷⁰⁾

67) 1954년 촬영 시장(속초시립박물관 소장, 랙웰 기증 사진 No. H-300-4)

68) 1954년 촬영 시장(속초시립박물관 소장, 랙웰 기증 사진 No. H-300-15)

69) 박동열의 증언.

70) 속초문화원, 『속초시 거주 피난민 정착사』, 2000, 177쪽 참조.



〈사진 51〉 영랑동 시장의 송도식당과 중석상회⁷¹⁾

제1군단과 미군 그리고 일반인(주로 피란민)들이 속초의 좁은 공간에 운집한 상경기(商景氣)는 자연적으로 호황을 이루었다. 수복 직후 만들어진 ‘밀림극장’은 당시 영랑동에 살고 있던 가수 고복수, 황금심 부부의 공연이 자주 열렸는데 공연할 때마다 관객으로 봄볐으며, 아울러 장거리도 인파로 봄볐다고 한다.⁷²⁾ 극장은 물론 부유층을 위한 요식업소와 문화, 보건, 숙박시설이 우후죽순(雨後竹筍)으로 생겨났는데 영랑시장을 중심으로 한 장거리는 과거 문화의 거리라 할 수 있었다.⁷³⁾

71) 옛날 속초시장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예전 속초의 중심이었던 속초리1구(영랑동)시장으로 사진에 보이는 송도식당은 지금 이모네식당 인근으로 추정하고 있다.(속초시박물관, 『1950년대 속초리 속으로』, 2011, 78쪽 참조.)

중석상회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북고성 출신인 이관희 응(78, 속초고 1회)은 “부친인 이상원 응과 이창섭 응이 동업으로 영랑동시장에서 ‘중석상회’란 간판을 걸고 술, 냄비, 수저, 철물 등 생필품을 팔면서 차츰 생활의 안정을 가져왔다. 얼마 후 중석상회는 지금의 갯배가는 입구인 소담쌈밥 건물에 자리를 잡고 주로 건축자재 등을 취급했다.” 하였다.(이수영, 「사진으로 바라 본 1950년대 속초의 모습」, 『속초문화』 26, 2010, 132쪽 참조.)

72) 「설악신문」, 2020년 8월 31일자, 「설악신문 30년, 다시 보는 그 시절<20>/30년 전 어르신들의 마을 이야기(상)」, 속초 영랑동 김창원옹(1994. 1. 17) 구술 참조.

73) “미군이 있다보니 연예인들이 와서 공연도 하고 갔고, 영랑시장에 과거에 다방이 2~3개 있었지, 영랑시장은 과거 문화의 거리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고,” (김학철의 증언, 김학철 씨는 현재 66세로 2020년 8월 6일 영랑동 경로당에서 증언을 청취하였다.)

2) 영랑시장의 호황

한국전쟁 이후 영랑시장은 당시 도로를 중심으로 좁은 반경 안에 밀집되어 있었다. 처음에는 시장 안에 쌀집, 어물전, 잡화점, 천집, 나무판매상, 좌판 등이 다닥다닥 모여서 장사를 했다. 그러다가 1953년 사합춘(이후 영랑상회)이 건물을 지어 영업을 시작하면서 주변에 새로운 건물들이 들어서고, 상권이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시장 뒤편의 도로를 중심으로 좌우에 상점들이 들어서기 시작했다. 상점들은 간판을 달고 영업을 한집도 많지만, 대부분은 간판을 달지 않고 장사를 했다.

“당시 기억나는 가게가 있나요?

삼영공사 자리가 이모네식당 건너편에 마트 같은게 있어요. 식자재 팔았어요. 삼영공사 없어지고 대진연탄 공장을 했었죠. 삼영공사는 수복당시 있었어요. 당시는 가게 이름이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었어요. 해동약방만 알고, 광산철물자는 예전에 모란이발관이 있었어요. 이것도 50년대 있었어요. 그담에 광산철물 건너편 그 집에 철물점이 있었는데 여승인 씨가 철물점을 오래했어요. 50년대는 철물점이 그 집뿐이었어요. 그리고 저 아래 은행자리가 박태희 씨가 하던 철물점이었고요.”⁷⁴⁾

영랑동은 속초의 명동답게 요식업소가 많았다. 양양군에서 발간한 1955년 『군세일람』에 의하면 당시 속초지역의 요식업소는 카바레 1, 한식당 9, 중식당 1, 다방 5, 병과점 1, 중국빵 2, 주점 10곳이 있었다.⁷⁵⁾ 이는 양양읍보다도 상당히 많은 숫자로 속초읍의 발전상을 보여준다. 아래의 <표 14>에서 보듯이 요식업소의 대부분은 영랑동에 자리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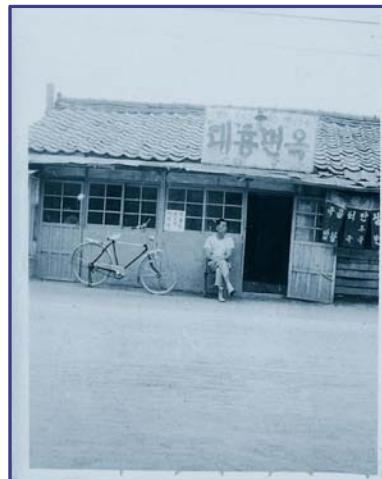
당시 성황을 이룬 업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74) 서형원의 증언. 서형원 씨는 85세로 2020년 10월 10일 영랑동 자택에서 증언을 청취하였다.

75) 엄경선, 앞의 책, 95쪽.

<표 14> 한국전쟁 직후 영랑동 소재 업소 현황76)

다 방	칼멘, 방가로, 망향, 미완성, 희망	악극단 (상주연예인)	고복수, 황금심, 황해, 백설희, 김승호, 김희갑, 허장강
카바레	비비, 신고아라, 동해	극 장	밀림, 속초, 중앙
요 정	계림관, 국일관	인쇄소	중앙, 속초
음식점	사합춘, 사육관, 원산식당, 동일면옥, 대명춘, 대홍면옥, 풍악관	의 원	협인, 백, 오, 대동, 김성우, 구호, 구세군, 강원도립 속초,
목욕탕	보건, 청호, 정일, 은하, 낙천	약 방	해동, 강원, 원산
사진관	백마, 평화, 승리, 남바완	신 문	동해일보
포목점	함녕상회	쌀가게	럭키상회, 늑거리쌀집
여 관	속초, 향도	그릇집	삼영공사
이발관	모란이발관		

<사진 52> 백마사장(영랑동 소재, 1950년대)⁷⁷⁾<사진 53> 대홍면옥(영랑동내)⁷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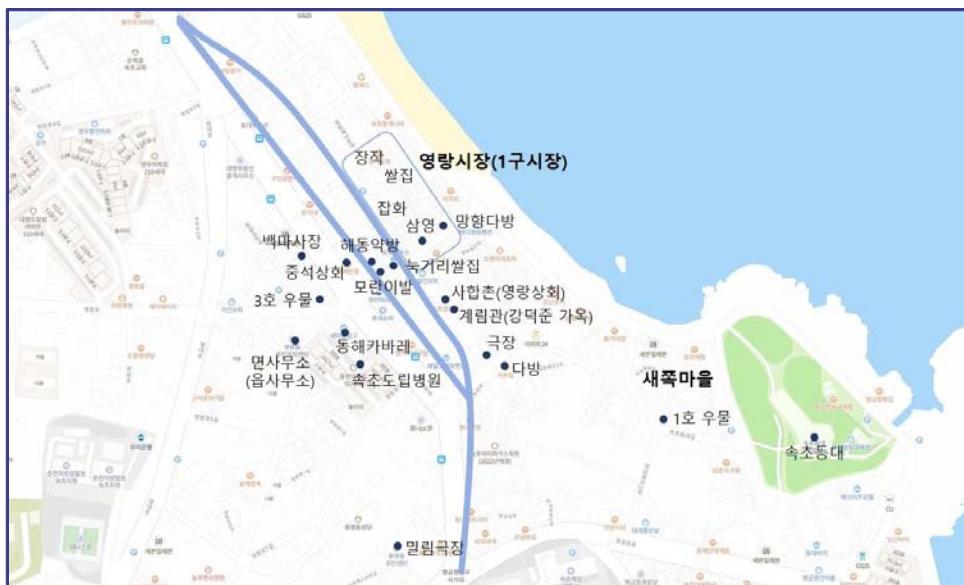
76) “그리고 가게들 간판 다 있었어요. 함녕상회(함씨네), 럭키상회(쌀가게)가 기억나네 --(중략)-- 그럼 여기(영랑동)가 1등 시장이었고, 제일 번화했었지, 길모퉁이에 동해 카바레가 있었지, 그 전에 늑거리 집 오빠가 했지” (구 영랑시장 인터뷰, 2020년 9월 11일)
속초문화원(2000), 앞의 책, 178~179쪽 참조.
노광복, 앞의 책, 190쪽 참조.

77) 속초시·속초문화원, 『옛 사진으로 엮은 속초의 발자취』, 78쪽.

78) 속초시·속초문화원, 위의 책, 79쪽.

3) 영랑동 소재 업소의 위치

조사를 하면서 동네 주민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당시 영랑동 지역의 주요 상점이 위치한 지점을 표시하여 당시 시장의 상황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그림 25> 1953년 이후 영랑동 상가 위치도

가) 카바레

동해카바레는 전쟁 후 민정 이양이 되고 생겼다.⁷⁹⁾ 1955년 『군세일람』의 요식업 통계에 있는 것을 보면 1955년에 영업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위치는 현재 동현아파트 자리로 영랑동에서는 비교적 큰 건물이었다. 이곳은 영업시간을 피하여 결혼식장으로도 사용되었다.

나) 다방

수복지역 속초에는 1953년부터 다방들이 많이 들어섰다. 대표적인 다방이 망향다방이다. 망향다방은 고복수, 황금심 부부가 운영하던 다방이었는데, 손님들이 끊이지 않았다. 이 다방 외에도 시장 안에 칼펜다방이 있었고, 현재

79) 서형원의 증언. 증언에 의하면 미군들이 이동한 후에 뉘거리 쌀집의 신현철 씨가 카바레를 만들었다고 한다.

의 사돈집 자리에도 다방이 있었다.

최전방 수복지구의 다방은 전쟁으로 피폐해진 주민들과 군인들에게 큰 위안의 공간이 되었던 것만은 틀림없다. 미완성다방에서는 휴전협정 1년도 안 된 시절, 최전방 수복지구에서 생소할 수밖에 없는 쿠바음악을 들려주는 음악다방을 운영하였다.⁸⁰⁾

“고복수, 황금심 씨가 커피를 팔았다고 하던데 그 기간이 어느 정도였나요?

한 3년 됐지. 왜냐면(다방을 한 이유는) 장교들이 전부 나오니까요. 이 분들도 고향이 이북이거던, 고복수도 죽다 살아났어요. 피난 오다가 밤에 기나 오다가 보초병이 암호하니까 암호를 알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나 고복수요, 고복수요.” 그 놈(보초병)이 음악을 했던 모양이야. 그래서 끌어 들여 가지고 살아 나온 거예요. 자기가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고복수라고 해서 살았다고 말하더라고요. 북한에서 내려올 때요.”⁸¹⁾

□ “다방/일체식사 ‘칼멘’ /속초1구”

“다방 미완성(未完成)/쿠바의 정서에 잠길 수도 있고, 흑인들의 오열(嗚咽)도 들을 수 있습니다.”

-동해일보 1954년 7월 8일자 2면 하단 광고-

다방 미완성 신문광고 문구⁸²⁾



<사진 54> 동해일보 1954년 7월 8일자 2면광고. 속초의 식당 군인회관과
다방 칼멘, 미완성 광고가 실렸다.⁸³⁾

80) 엄경선, 앞의 책, 94~95쪽 참조.

81) 서형원의 증언.

82) 엄경선, 앞의 책, 94쪽에서 재인용.

83) 엄경선, 앞의 책, 94쪽에서 재인용.

다) 극장

영랑동의 대표 극장은 밀림극장이다. 밀림극장은 일정 때부터 있었다고 하는데, 동명동사무소 옆의 건물자리에 있었다고 한다. 전쟁 후 이곳에서는 영화를 상영했고 가수 고복수, 황금심이 공연을 자주 하였다. 또한 1953년에는 제1차 권투시합이 열리기도 했다. 후에 현 사돈집 앞에도 극장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름은 알지 못한다.

라) 우물

1960년대 물펌프가 등장하기 전까지 우물은 마을 형성의 중요한 요소였다. 영랑동의 1호 우물은 새쪽마을 안에 있다. 이 우물은 예전 새쪽마을과 마쪽마을을 연결하는 고개 아래에 있는데 우물 옆으로 길이 있었다. 지금은 우물 자리 위에 맨홀뚜껑이 있는데 2001년도 도로 포장을 하면서 설치되었다. 그 아래 아직도 우물 흔적이 남아 있다고 한다.



<사진 55> 속초면 1호 우물(새쪽마을 내)



<사진 56> 3호 우물(읍사무소 앞 공동우물)

2호 우물은 마쪽마을에 있었다. 3호 우물의 위치는 영랑동 작은 도서관 옆인데, 현 늑거리철물 뒷마당에 있었다. 지금은 흔적을 찾을 수 없다.

마) 약방

조사된 약방으로는 해동약방, 원산약방, 강원약방 등 3개 정도이다. 이 약방들은 피란민들이 정착하여 약방을 개업한 것으로 보인다. 그 중 확인한 것은 해동약방이다. 해동약방은 1955년에 지어져 약 10년 간 영업을 하다가 서울로 이사를 갔다고 한다. 당시 의료기관이 부족하던 시절이라 주민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다고 한다.

바) 도로

1950년대에는 동명동에서 영랑동으로 들어서면서 길이 두 갈래로 나뉘어 져 있었다. 이 길이 신작로인데 일제 강점기 때 만들었다. 현 동현아파트 앞의 도로가 1960년대 개설되기 전까지 신작로를 사용하였는데, 길이 두 갈래로 난 이유는 이미 집들이 터를 잡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위치는 현 사용도로에서 새쪽마을 쪽으로 첫 번째, 두 번째 골목길이다. 지금은 골목길처럼 보이지만 예전에는 2차선이었다고 하며, 큰 도로를 개설하면서 시에서 도로의 일부를 주민들에게 불하를 해주었다. 현재 집들의 대부분은 예전 도로 위에 집을 짓고 살고 있다.

사) 신문

지역신문으로 동해일보가 있었다. 동해일보는 속초지역 최초의 지역신문으로 알려져 있다. 1952년 4월 17일 창간하여 1955년 3월까지 3년 가까이 발간된 일간지이다.

아) 읍사무소

속초항이 개발되고 항구 주변의 인구가 증가하면서 1937년 도천면이 속초면으로 바뀌고, 면사무소도 대포에서 영랑동으로 이전하였다. 면사무소는 지금의 영랑동 작은 도서관 자리로 1942년 속초면이 속초읍으로 승격된 후에도 임시사무실로 이용되었다.

자) 음식점

당시 속초의 최대 변화가였던 1구에 사합촌이라는 유명한 중화요리집이 있었다. 이 건물은 1953년에 지어져 영업을 하였다. 1955년 경에 지어진 계림관은 유흥주점 건물이었다. 당시 바로 앞에 위치한 사합촌과 더불어 시찰나온 장성급들과 고위급 공무원들의 접대 장소로 유명한 곳이었다.

3) 시장의 이동

활기를 떠던 시장은 1953년 휴전에 이어 다음해 국군(제1군단)과 미군부대

의 일부가 이동하면서 영랑동의 상경기(商景氣)는 예전만큼 호황을 누리지는 못했다.

“53년 4월 속초에 왔다. 영랑시장에 좌판을 차리고 곶감, 군계급장, 모자, 만년필, 화장품 등 피난살이 첫 장사를 시작했다. 휴전이 되어 군인들이 떠나면서 영랑시장은 사양길에 접어들었다.”⁸⁴⁾

미군정이 민정으로 이양(1954년 11월 17일) 되면서 수복탑에서 시청 앞 부근에 주둔해있던 미군부대가 이동을 하게 되었다. 미군부대의 이동으로 항만(港灣)을 어업 종사자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 상인들도 어협 위판장이 있는 중앙동으로 이동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맞춰 중앙시장이 만들어졌다. 전쟁 후에는 실향민들이 경제활동에 적극성을 보였는데, 당시 갯배를 주된 교통수단으로 이용한 아바이마을 주민들이 어판장을 중심으로 경제활동을 하기 시작하였다.

이런 현상을 종합해 보면 영랑시장의 경기가 갑자기 나빠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영랑동의 인구 추이를 살펴보면 꼭 그렇지도 않다. 앞의 <1장 자연 · 인문환경> 편에서 언급하였듯이 1960년대까지 영랑동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매년 늘어나던 인구는 1968년도에 60년대의 정점인 6,809명(당시 속초인구 71,033명)으로 속초시 인구의 9.6%가 영랑동에 거주하였다. 또한, 해동약방, 계림관을 비롯한 주요 상점들이 1960년대 중반까지 전성기를 보내고 이동하거나 폐점한 것을 보면 1950년대 후반은 완전한 상권 이동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적어도 1960년대 중반까지는 상권이 유지되었다고 할 수 있다.

4) 행정권의 이동

한국전쟁 이후 가장 변화한 지역답게 속초읍에서 개최 되는 큰 행사도 속초1구(영랑동)에서 개최 되었는데, 별다른 건축물 없이 명태와 오징어를 말리던 덕장만이 있던 넓은 모래사장인 영랑동 바닷가를 행사장으로 이용하였다. 이 당시 가장 큰 체육행사인 8·15해방 기념 체육대회도 이곳에서 개최되었

84) 이원익 구술자료(속초문화원, 『속초시 거주 피난민 정착사』, 2000, 178쪽 참조).

는데, 경기종목으로 마라톤, 배구, 씨름, 수영, 그네, 자전거 등이 읍·면 대항전으로 개최되었다. 영랑국민학교 앞 공장지대에서 2일간 거행하였던 이 체육행사에는 덕목을 이용한 관람석을 만들어 엄청난 주민들이 구경을 했고, 매년 기다리는 축제 중의 축제였다.⁸⁵⁾



<사진 57> 8·15해방 기념 체육대회(1954년)⁸⁶⁾

이렇듯 영랑동은 행정의 중심지일 뿐만 아니라, 속초의 모든 행사를 개최하는 중요한 지역이었다. 그러나 임시로 역할을 수행하던 영랑동 읍사무소는 1953년 8월에 동명동에 새로운 읍사무소가 신축되면서 그 기능을 이전하게 된다.⁸⁷⁾ 이로써 속초 행정의 중심이 영랑동에서 동명동으로 넘어가, 그 이후 속초시청도 동명동에 세워졌다.

하지만 여전히 영랑동은 인구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많은 공공기관이 설립하게 된다. 1955년에는 속초고등학교의 이전과 영랑국민학교가 개교를 하게 되어 명실상부한 속초교육의 중심지로 떠오르게 된다. 또한 1956년에 강원도 속초병원이 설립되었고, 1957년에는 속초 등대가 점등하게 된다.

85) 노광복, 「전쟁의 상흔과 새로운 희망의 공존 - 1950년대 속초리의 풍경-」, 『1950년대 속초리 속으로』, 속초시박물관. 2011, 193쪽 참조.

86) 속초시립박물관 소장, 쇠구현 기증사진 No.B 6×6-242.

87) 이전된 읍사무소는 현재 동명동 원불교자리이다. 자세한 내용은 동명동 편에서 서술하겠다.

비. 1960년대의 영랑동

1) 경제 상황

1952년 영랑동 인근에 설치된 군단본부는 영랑동의 경제에 큰 역할을 하였다. 주변에 큰 놀거리가 없던 터에 영랑동의 가게들은 이들의 덕을 많이 보았다. 그러나 1954년 1군단 본부가 이전을 하고, 1953년 중앙시장이 개장을 하였다. 중앙시장의 개장과 함께 영랑동의 상권은 크게 위축되었다. 그러나 중앙시장이 아직 완전히 자리 잡지 못한 터라 영랑시장은 그럭저럭 유지가 되었다. 하지만 1950년대 후반부터 신축 건물의 수는 눈에 띄게 감소하였고, 시장도 점차 규모가 줄어 들고 있었다. 이에 속초시에서는 1967년 7월 수복지구 특별재정보조금 700만 원을 들여 영랑동 공동시장을 개축하여 시장을 현대식으로 바꾸고자 노력하였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영랑시장은 점점 쇠락하여 1977년도에는 완전히 폐장하게 된다.

당시 속초읍의 직업별 인구 분포를 보면 속초의 경제 중심이 1구에서 남쪽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영랑동의 산업 형태를 확인할 수 있다.

〈표 15〉 속초읍의 직업별 인구(1962)

(단위:명)

구분 구	총수	농업	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공의 사업	상업	운수업	서비스업	기타
속초1구	2,320	58	292	2	76	91	33	394	28	121	1,225
속초2구	1,799	70	647	1	62	84	35	340	141	135	284
속초3구	2,035	9	524	11	73	268	15	778	33	239	85
속초4구	2,515	30	996	9	89	83	15	626	188	333	146
속초5구	4,272	91	1,347	38	130	167	26	925	48	339	1,161
속초6구	2,385	130	1,098	8	151	30	27	193	56	163	529

출처 : 『1963년 속초시 통계연보』

〈표 15〉의 어업 인구와 상업 인구를 통해 당시의 상황을 살펴볼 수 있다. 어업은 전통적인 영랑동의 산업으로 새쪽마을, 사진마을의 주요 생계 수단이었다. 그러나 1960년대 들어와 속초의 어업 중심은 수협 위판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므로 4구, 5구, 6구에 어민이 집중되어 있어 영랑동에서 잡은 물고기도 어판장에 가서 판매를 하는 상황이었다.

“고기 잡으면 어디에다 파셨나요?

시내에다 팔았지, 뱃머리, 갯배 건너가는 데에 가서 팔았어요. 바로 가기도 하고, 리어카 끌고 가서 팔았지, 일구시장에서도 팔기도 했어요.”⁸⁸⁾

한국전쟁 이후 영랑동의 주산업은 상업이었다. 그러나 중앙시장이 활성화되고 물고기의 거래가 수협 위판장을 중심으로 전개되면서 영랑동의 상권도 서서히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영랑동에 있던 가게들이 문을 닫거나 이전을 하게 된다. 대표적인 것이 동해카바레로 영랑동에서 동명동으로 이전하게 되고, 해동약방과 다방 들도 문을 닫게 된다. 이런 상황은 경제활동 인구의 감소로 나타나는데 1구보다 인구가 배나 되는 5구를 제외한 다른 지역과 비교해 볼 때 직업이 일정하지 않은 일용직 등에 종사하는 인구가 상당히 많았음을 알 수 있다.

2) 영랑동(永郎洞)의 탄생

피란민의 대거 유입과 어업인구의 증가로 인해 급속하게 발전한 속초는 1963년 속초시로 승격하였다. 시의 승격과 함께 1966년 1월 1일 동(洞)제가 실시되어 속초리 1구를 영랑호에 인접하였다고 하여 영랑동(永郎洞)으로 명명(命名)하였다. 이에 따라 현 영랑동 작은도서관 자리에 영랑동사무소를 개소하고 영랑동의 사무를 처리하게 되었다.

1960년대는 학교에도 변화가 있었다. 1961년에 동명동 철도 역사를 사용하던 명신고등공민학교가 현재의 원각사 자리로 이전하였다. 속초고등학교는 1965년에 도교육청으로부터 낡은 교실 사용 중지명령을 받았다. 그리하여 1965년에 현 설악중학교 자리로 교사(校舍)를 이전하였다.

한편 문화면에서는 커다란 발전을 가져왔다. 속초문화원이 1965년에 설립을 하게 되었는데, 속초문화원이 영랑동에 자리를 잡으면서 많은 문화단체들이 등지를 틀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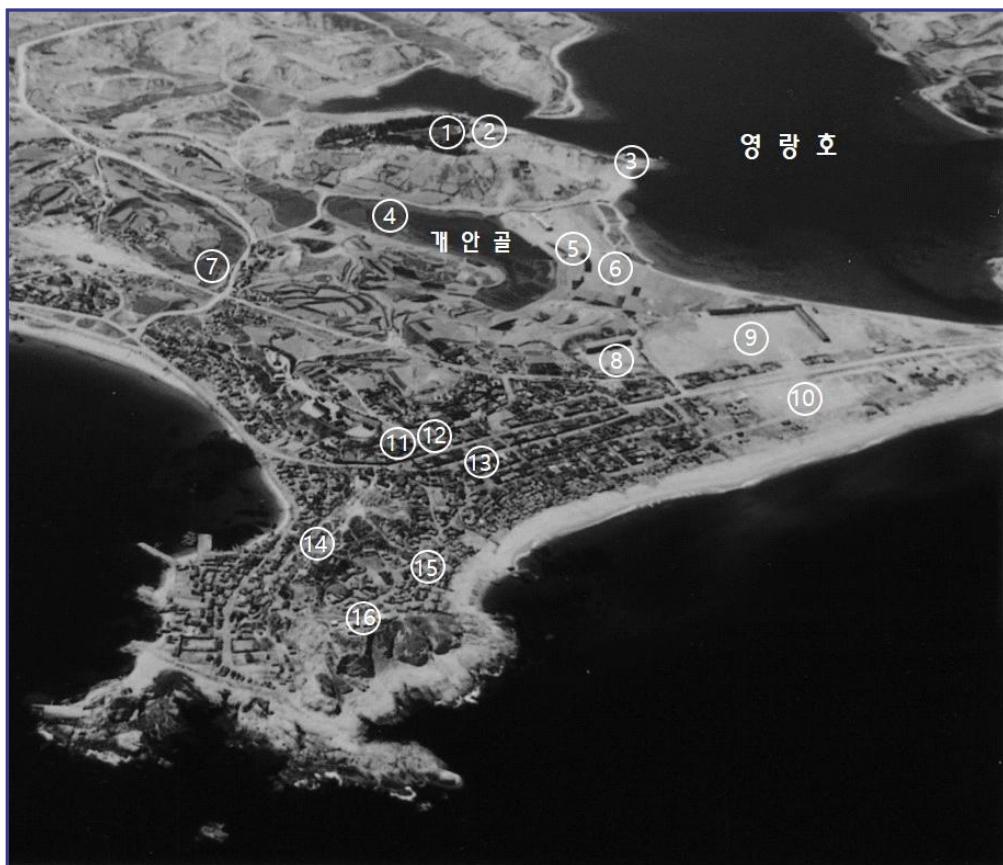
정비사업도 이루어졌다. 1966년과 1968년에 2차에 걸쳐 7번 국도로 쓰이던

88) 최춘애의 증언. 최춘애 씨는 82세의 사진리 주민으로 2020년 9월 11일 자택에서 증언을 청취하였다. 증언자는 1960년대 시집을 와서 이곳에서 계속 살아오신 분이다.

도로를 개설하여 확장공사를 시행하였으며, 1967년에는 영랑교를 건설하였다. 또한 영랑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1967년 영랑동 공설시장 개축공사를 실시하여 건물 4동에 점포 25칸, 어시장 1칸을 마련하였다.

3) 1960년대 영랑동의 모습

1960년대에 영랑동의 모습을 남긴 사진은 많지 않다. 하지만 속초시의 노력으로 당시 촬영한 항공사진이 남아 있다. 이 사진을 통해 당시 영랑동의 모습을 부분적으로나마 살펴보자 한다.



〈사진 58〉 1960년대의 영랑동 항공지도

① 보광사

② 1950년대 후반부터 70년대까지 보광사 앞은 유원지 역할을 하였다.(보트장, 미니골프장)

③ 통천군 순국동지 충흔비로 1969년 10월 15일에 건립, 1990년 5월 30일 충수되었다.

- ④ **속초문화예술회관**이 있는 자리로 이곳 개안골은 동진리조텔 앞쪽 일대와 주택들이 들어선 둑근 원형의 옛 논밭 자리였던 곳이다. 지대가 영랑 호수보다 낮아 가뭄이 심할 때는 영랑 호수를 끌어 들여 농사를 지었고, 장마가 들어 개안 논물이 호수보다 높으면 호수 쪽으로 빼내곤 하였다.
- ⑤ **명신고등공민학교**는 1956년 4월에는 옛 속초역사(東草驛舍)에 있었다. 1961년 영랑호변으로 이전하여 교사를 사용하다가 1979년 2월 28일자로 폐교하였다.
- ⑥ **속초의료원**은 1956년 12월 ⑫번 위치에 설립, 1983년 7월 1일 현 위치로 이전하였다.
- ⑦ **시외버스터미널 부지**
- ⑧ **속초고등학교** 교사는 1955년 6월 양우아파트 터에 신축, 1965년 12월 설악중학교 교사로 이전하였다.
- ⑨ **영랑초등학교**는 현 위치에 1955년 11월 3일 23학급으로 편성된 영랑국민학교로 설립인가
- ⑩ **속초공설운동장**은 1941년 11월 1일 영랑시장 뒤에 설치되었다.
- ⑪ **면(읍)사무소**는 현 영랑동 작은도서관 자리로 1937년 7월 속초면사무소 이후 50년대 초까지 읍사무소로 사용되다가 1953년 8월 현 속초시청 옆 원불교자리로 이전하였다.
- ⑫ **동현아파트** 자리는 예전에 동해카바레, 속초의료원, 그 이후 동현아파트가 건축되었다.
- ⑬ **해동약방**(김석주 가옥)은 1955년 지어져 10여 년간 사용하다가 80년대 링키오락실로 사용
- ⑭ **동명동성황당**은 영금정 산 위에 있었으나 항구개발에 의해 현재 자리로 옮겨지게 되었다.
- ⑮ **새쪽마을(삼짜개)**
- ⑯ **속초등대**

사. 속초시 승격 이후 영랑동의 변화

1930년대 속초항의 개발과 함께 한국전쟁 후 속초3구(중앙동 지역)와 5구(청호동 지역), 6구(청학동 지역)의 시장이 발전하기까지 속초의 경제를 선도하였던 시장은 영랑시장(1구시장)이었다. 그러나 1953년 중앙시장이 개장되고 1954년 주둔하였던 미군부대의 일부와 국군 부대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영랑동의 상경기는 전쟁 직후의 상황과는 사뭇 달랐다. 1960년대에 들어 서면서 이전하거나 폐점하는 업소들이 늘면서 영랑시장은 점점 축소되어 갔다. 이에 시에서는 1967년 영랑시장을 개축하여 시장을 살리고자 노력하였다.

1963년 중앙동에 속초공설운동장이 준공되었다. 공설운동장의 준공은 영랑동의 경기를 다시 살리는 호재가 되었다. 1960년대가 되면서 공터였던 영랑동 해변 쪽으로 오징어와 노가리의 활복, 건조 위주의 1차 가공 소규모 수산물 가공업체들이 들어섰다. 공장에서 생산되는 건조 어물은 시장으로도 공급되었지만, 지역 주민들도 이 상품을 이용하여 장사에 나서기도 했다.

“나는 20대에 횡성에서 시집을 왔어요. 시집와서 먹고 살기 힘들어 장사를 했어요. 여기서 명태(건조 명태)를 사서 횡성에 가져다가 팔고 거기서 쌀을 사가지고 왔어요. 새벽에 나가고 한밤중에 들어와서 아이들 크는 것도 잘 몰랐어요. 이 동네는 다 그렇게 살았어요. 해변가에는 덕장들이 쪽 있었고. 명태 때기고, 리어카에 싣고 끌고 다니고, 그거해서 돈벌어서 쌀집에서 쌀을 사서 먹고 살았어요.”⁸⁹⁾

이 공장들은 1970년~80년대를 거치면서 규모를 확장시키는 등 점차 활성화되어 갔다. 1980년대 말, 1990년대 초에는 공장이 대형화되면서 수산물 제조업의 전성기를 맞이하였고 명란, 게맛살, 오징어채 등을 일본에 수출하기도 하였다.⁹⁰⁾

“옛날에 영랑동에 공장도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공장이었는지 기억나시나요? 71~74년도 경에 맛나과자, 라면땅 같은 걸 만드는 공장, 노가리 건조장 등이 있었어. 80년도 초부터 점차적으로 없어졌지. 옛날에는 여기가(영랑동/장사동) 이 속초 1번지(중심지)였어. 68-72년도까지도 중앙시장 쪽은 전부 논밭이었고, 영랑동에 시장이 있었지.”⁹¹⁾

그러나 1990년대 들어서 노가리 어획이 금지되고 명태와 오징어의 생산량이 급감하면서 수산물 제조업이 어려움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후 물류비의 증가, 인건비 상승, 해수오염 방지를 위한 대포농공단지 이전 유도 등으로 인해 현재는 2개 업체만이 남아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⁹²⁾

한편 1980년대에는 영랑동의 서비스 산업이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였다. 1980년대 초부터 한화프라자와 영랑호리조트 등 관광휴양업이 활성화되고, 1990년 전후 장사동 횟집 타운의 발전을 기반으로 관광산업이 크게 성장하면서 기존의 제조업을 대체하기 시작하였다. 서비스 산업은 2010년 정도까지

89) 윤채복의 증언, 윤채복 씨는 현재 84세로 2020년 9월 19일 영랑시장에서 증언을 청취하였다.

90) 문은희의 증언. 문은희 씨는 현재 60세로 2020년 9월 23일 전화로 인터뷰를 하였다.

91) 손대성의 증언. 손대성 씨는 현재 65세로 2020년 8월 22일 영랑동의 식당에서 증언을 청취하였다.

92) 문은희의 증언.

는 전반적으로 활기를 띠면서 지역의 경기를 살리는 듯하였다. 그러나 쇠락한 상권의 회복은 더디고, 대체 산업 또한 새로운 상권이 생기면서 속초시의 남부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된 현상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1993년부터 장사항을 중심으로 시작한 연안 목장화 사업이 조금씩 효과를 내어, 어촌소득이 꾸준하게 향상되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또한 새로운 사업 발굴 노력으로 1997년 영랑호 카누경기장의 조성과 아시아 카누 선수권 대회 개최로 영랑호가 카누선수들의 요람이 되고 있으며, 2000년부터 장사 어촌체험마을에서 매년 개최되는 오징어맨손잡기축제는 여름철 피서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또한 화랑 영랑의 전설에 기반을 두고 영랑호 인근에 2004년 개장한 영랑호 화랑도 체험관광지는 청소년들의 호연지기를 기르는 교육의 장을 넘어 세계기사대회를 꾸준하게 개최하면서 체험관광지로 각광을 받고 있다. 이와 같은 노력은 점차 영랑동이 속초 관광의 일번지로의 역할을 기대하게 만들며, 잊어버렸던 속초 1구의 자존심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아. 영랑동 행정 조직의 정비

1) 통반제(統班制) 실시

속초시에서는 1975년 7월 5일 행정조직의 원활한 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통반 설치에 관한 조례’를 공포하였다. 내용은 동에 통을 두고 통에는 반을 두는 것으로, 조례의 공포와 함께 시행되었고 이의 실시로 그동안 설치되었던 새마을반을 폐지하였다.

획정 기준을 보면 반은 20내지 30 가구를 기준으로 구성하는데, 50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연 마을 취락 형태 등을 고려하여 구성하였다. 통은 4내지 6개 반으로 구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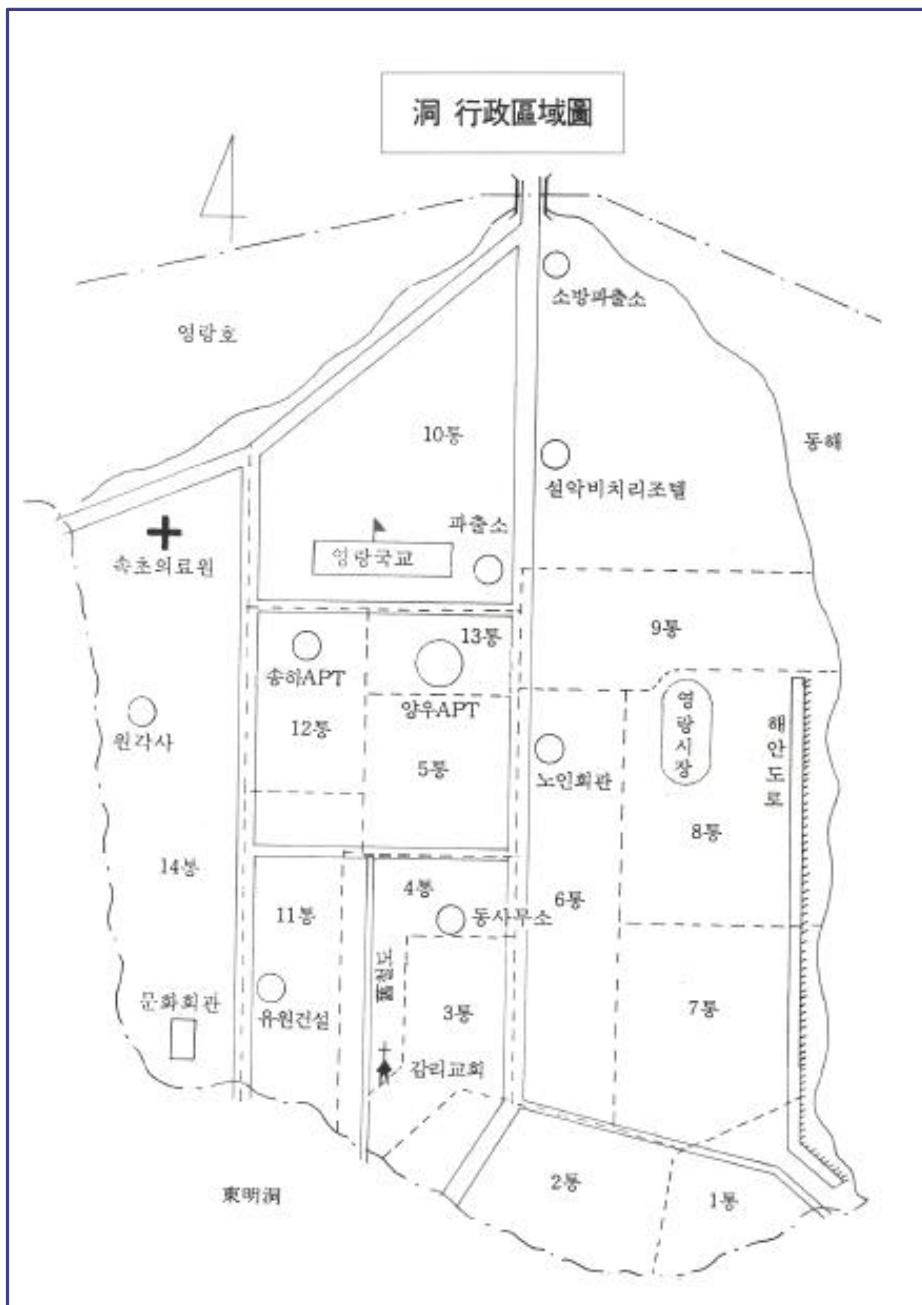
가) 영랑동의 통반 설치 내용

영랑동은 52개 새마을반을 11통 50반으로 조정하였다.

〈표 16〉 영랑동의 통반 설치

명칭		이전 구역	명칭		이전 구역
1통	1반	1 새마을반 일원	7통	1반	37 새마을반 일원, 38 새마을반 일원
	2반	2 새마을반 일부		2반	39 새마을반 일원, 40 새마을반 일부
	3반	2 새마을반 일부, 3 새마을반 일부		3반	40 새마을반 일부
	4반	3 새마을반 일부, 4 새마을반 일원		4반	41 새마을반 일원, 42 새마을반 일부
2통	1반	5 새마을반 일원	8통	5반	42 새마을반 일부, 43 새마을반 일부
	2반	6 새마을반 일원, 7 새마을반 일원		1반	35 새마을반 일원
	3반	8 새마을반 일원, 9 새마을반 일원		2반	43 새마을반 일부, 44 새마을반 일부
	4반	10 새마을반 일원		3반	36 새마을반 일원
3통	1반	11 새마을반 일원, 12 새마을반 일부	9통	4반	44 새마을반 일부, 45 새마을반 일원
	2반	12 새마을반 일부, 16 새마을반 일부		5반	34 새마을반 일원
	3반	13 새마을반 일원		1반	30 새마을반 일원
	4반	14 새마을반 일원		2반	31 새마을반 일원, 32 새마을반 일부
4통	1반	17 새마을반 일원	10통	3반	32 새마을반 일부
	2반	18 새마을반 일원		4반	33 새마을반 일원
	3반	15 새마을반 일원		1반	46 새마을반 일부, 47 새마을반 일원
	4반	16 새마을반 일부		2반	52 새마을반 일원
5통	1반	23 새마을반 일원	11통	3반	51 새마을반 일원
	2반	21 새마을반 일원		4반	50 새마을반 일원
	3반	22 새마을반 일원		5반	46 새마을반 일부
	4반	20 새마을반 일원		1반	19 새마을반 일원
	5반	24 새마을반 일원		2반	48 새마을반 일원
	6반	25 새마을반 일원		3반	49 새마을반 일부
6통	1반	26 새마을반 일원		4반	49 새마을반 일부
	2반	27 새마을반 일원			
	3반	28 새마을반 일부			
	4반	28 새마을반 일부			
	5반	29 새마을반 일원			

출처 : 국가기록원 「속초시 통반 설치 조례(1975)」



<그림 26> 영랑동 행정구역도(통반)

출처: 『시정 30년사』

* <그림 26> 통반은 인구 증감에 따라 조례 개정으로 조정하였으며, 자료는 1993년 현재로 11통에서 14통으로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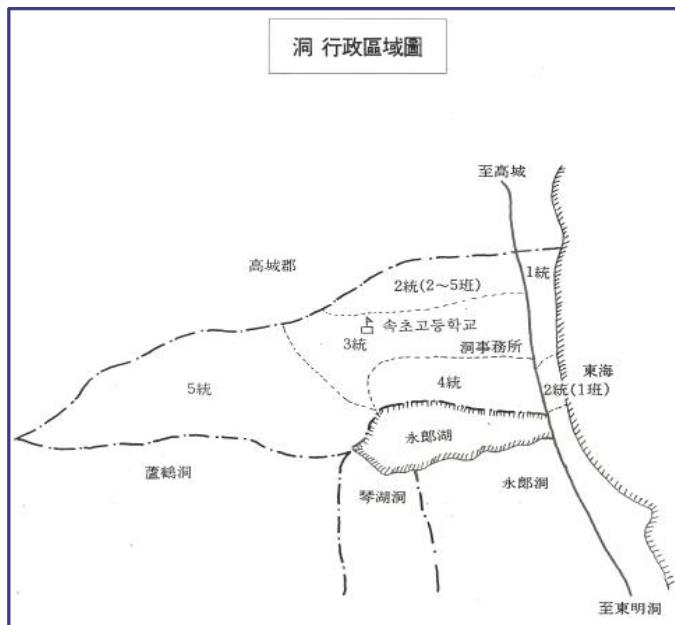
나) 장사동의 통반 설치 내용

장사동은 23개 새마을반을 4통 23반으로 조정하였다.

〈표 17〉 장사동의 통반 설치

명칭		이전 구역		명칭		이전 구역	
1통	1반	1 새마을반 일원	3통	1반	14 새마을반 일원	4통	1반
	2반	2 새마을반 일원		2반	15 새마을반 일부		2반
	3반	3 새마을반 일원		3반	16 새마을반 일원		3반
	4반	4 새마을반 일원		4반	17 새마을반 일원		4반
	5반	5 새마을반 일원		5반	18 새마을반 일원		5반
	6반	6 새마을반 일원		6반	7 새마을반 일원		6반
2통	1반	8 새마을반 일원	4통	1반	19 새마을반 일원	4통	1반
	2반	9 새마을반 일원		2반	20 새마을반 일원		2반
	3반	10 새마을반 일원		3반	21 새마을반 일원		3반
	4반	11 새마을반 일원		4반	22 새마을반 일원		4반
	5반	12 새마을반 일원		5반	23 새마을반 일원		5반
	6반	13 새마을반 일원		6반	7 새마을반 일원		6반

출처 : 국가기록원 「속초시 통반 설치 조례(19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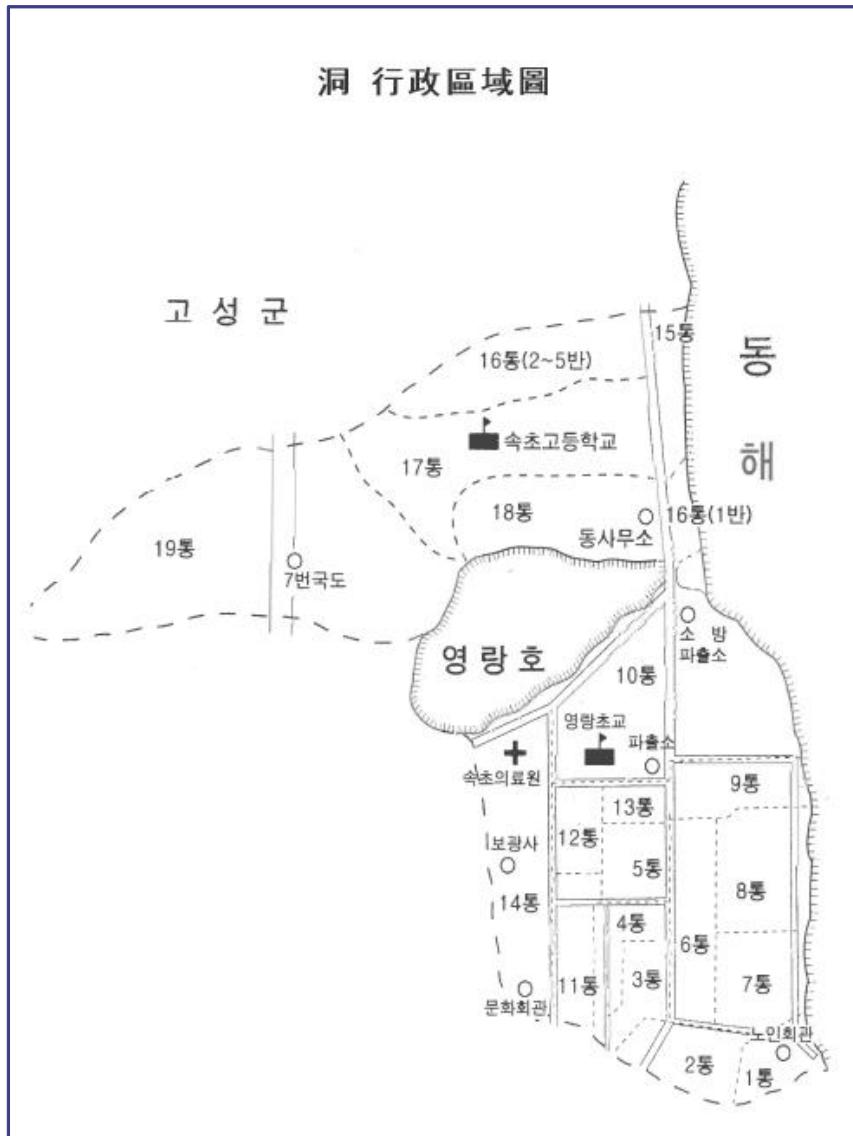
〈그림 27〉 장사동 행정구역도(통반)

출처: 『시정 30년사』

※ 〈그림 27〉 통반은 인구 증감에 따라 조례 개정으로 조정하였으며, 자료는 1993년 현재로 4통에서 5통으로 증가함.

다) 영랑동(행정동) 통반구역도

지방행정 운영의 효율성과 주민 편의를 위하여 행정 운영상의 동을 설치하는데 이를 행정동(行政洞)이라 한다. 속초시는 1998년 10월 17일 <속초시 조례 제1657호>로 영랑동·장사동 2개의 법정동을 통합하여 영랑동의 행정동으로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림 28> 영랑동(행정동) 통반구역도

출처: 『시정 40년사』

2) 영랑동 도로명주소법 시행

도로명주소법은 2007년 4월 5일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로 처음 제정되어, 2009년 4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법>으로 변경하였다.

도로명 주소란 부여된 도로명, 기초번호, 건물번호, 상세주소에 의하여 건물의 주소를 표기하는 방식으로 이전의 지번주소를 대신하여 새로 나왔다는 의미에서 새주소라고도 불린다. 도로명의 기준은 ‘대로’는 폭이 40m 이상 이거나 8차선 이상일 경우, ‘로’는 12m 이상이거나 왕복 2차선 이상, ‘길’은 12m 미만이거나 2차로 미만으로 기준 하였다.

도로명 주소에 의해 이름을 부여한 영랑동의 도로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18> 장사동 도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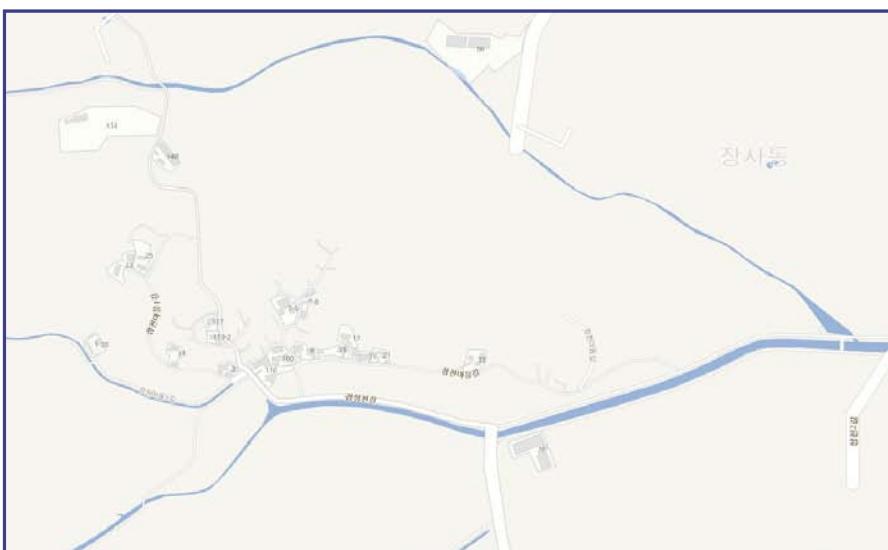
도로명번호	도로명	로마자표기
2000023	동해대로	Donghae-daero
3223023	미시령로	Misiryeong-ro
3223025	중앙로	Jungang-ro
4013016	사진용춘길	Sajin-yongchon-gil
4013017	장성천길	Jangseongcheon-gil
4469037	동해대로4511번길	Donghae-daero 4511beon-gil
4469063	미시령로2983번길	Misiryeong-ro 2983beon-gil
4469102	사진1길	Sajin 1-gil
4469103	사진2길	Sajin 2-gil
4469104	사진3길	Sajin 3-gil
4469105	사진4길	Sajin 4-gil
4469106	사진길	Sajin-gil
4469180	영랑호반길	Yeongnanghoban-gil
4469192	장사항해안길	Jangsahanghaean-gil
4469202	장천마을1길	Jangcheonmaeul 1-gil
4469203	장천마을길	Jangcheonmaeul-gil
4469230	중앙로416번길	Jungang-ro 416beon-gil
4469231	중앙로419번길	Jungang-ro 419beon-gil
4469232	중앙로422번길	Jungang-ro 422beon-gil
4469233	중앙로428번길	Jungang-ro 428beon-gil
4855703	장천길	Jangcheon-gil
4856477	장천2길	Jangcheon 2-gil

출처 : 행정안정부 도로명주소



<그림 29> 장사동(사진리 구역) 도로별 구분

출처 : 행정안전부 도로명주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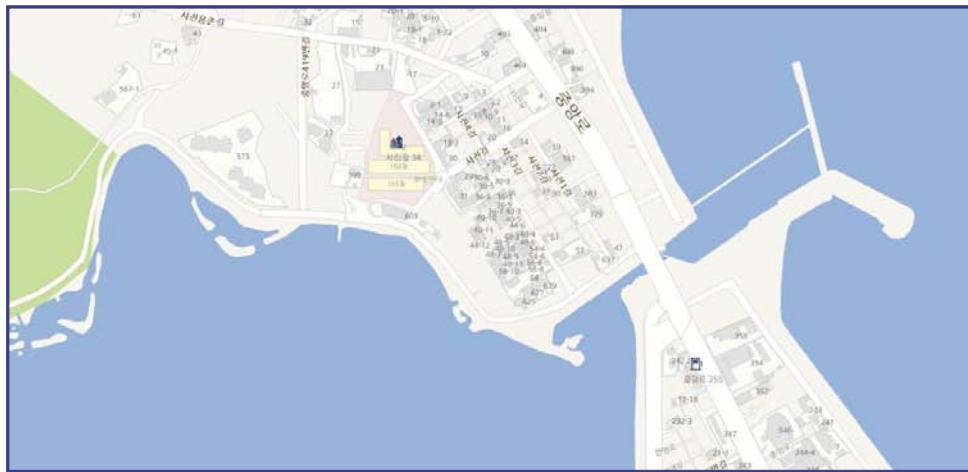
<그림 30> 장사동(장천리 구역) 도로별 구분

출처 : 행정안전부 도로명주소

〈표 19〉 영랑동 도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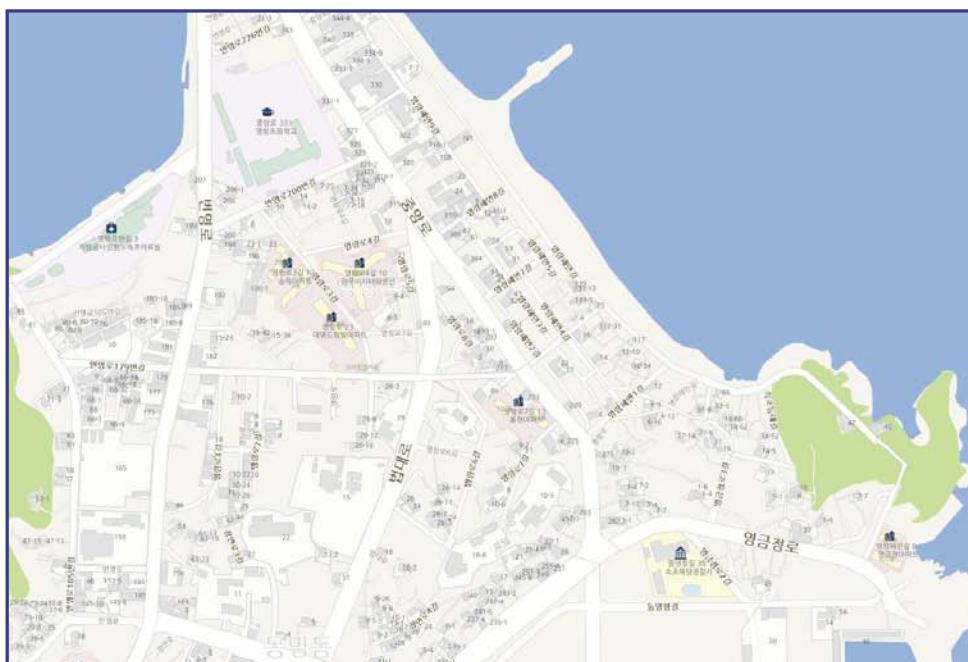
도로명번호	도로명	로마자표기
2223001	법대로	Beopdae-ro
3223010	영랑로	Yeongnang-ro
3223024	번영로	Beonyeong-ro
3223025	중앙로	Jungang-ro
4469083	번영로105번길	Beonyeong-ro 105beon-gil
4469085	번영로179번길	Beonyeong-ro 179beon-gil
4469086	번영로200번길	Beonyeong-ro 200beon-gil
4469087	번영로226번길	Beonyeong-ro 226beon-gil
4469137	속초등대길	Sokchodeungdae-gil
4469155	영금정로1길	Yeonggeumjeong-ro 1-gil
4469157	영금정로3길	Yeonggeumjeong-ro 3-gil
4469159	영금정로5길	Yeonggeumjeong-ro 5-gil
4469160	영금정로6길	Yeonggeumjeong-ro 6-gil
4469161	영랑로1길	Yeongnang-ro 1-gil
4469162	영랑로2길	Yeongnang-ro 2-gil
4469163	영랑로3길	Yeongnang-ro 3-gil
4469164	영랑로4길	Yeongnang-ro 4-gil
4469165	영랑로5길	Yeongnang-ro 5-gil
4469166	영랑로6길	Yeongnang-ro 6-gil
4469167	영랑로7길	Yeongnang-ro 7-gil
4469168	영랑로8길	Yeongnang-ro 8-gil
4469169	영랑해안1길	Yeongnanghaean 1-gil
4469170	영랑해안2길	Yeongnanghaean 2-gil
4469171	영랑해안3길	Yeongnanghaean 3-gil
4469172	영랑해안4길	Yeongnanghaean 4-gil
4469173	영랑해안5길	Yeongnanghaean 5-gil
4469174	영랑해안6길	Yeongnanghaean 6-gil
4469175	영랑해안7길	Yeongnanghaean 7-gil
4469176	영랑해안8길	Yeongnanghaean 8-gil
4469177	영랑해안9길	Yeongnanghaean 9-gil
4469178	영랑해안길	Yeongnanghaean-gil
4469180	영랑호반길	Yeongnanghoban-gil
4469196	장안로3길	Jangan-ro 3-gil

출처 : 행정안전부 도로명주소



<그림 31> 영랑동(영랑교 주변) 도로별 구분

출처 : 행정안전부 도로명주소



<그림 32> 영랑동(중심부) 도로별 구분

출처 : 행정안전부 도로명주소

3. 기념물

1) 이형근 장군 덕정비(李亨根 將軍 德政碑)⁹³⁾



<사진 59> 이형근 장군 덕정비⁹⁴⁾

속초시 장사동 산313-1번지 뚝적바위 옆에 있다. 속초지역이 38선 이북지역 공산치하에 있다가 한국전쟁 당시 수복되어 군정이 실시되었고, 당시 제1군단장 이형근 장군이 이 지방 재건에 공이 많았으므로 1952년 8월 15일 제1군단 전투지구 민중대표 박종승(朴鍾勝, 당시 양양군 민정관)외 13명의 발기로 이 비를 세워 이형근 장군의 업적을 기리고 있다.

현재 비신은 없어졌으며, 비를 세웠던 기초만 남아있다.



<사진 60> 영랑호반 기념사진 속 비⁹⁵⁾

93) 속초문화 편집부, 「영산도지 영랑호」, 『속초문화』 4, 20쪽 참조, 속초문화원, 1988.

94) 속초시(1991), 앞의 책, 1211쪽.



〈사진 61〉 이형근 장군 덕정비를 세웠던 기초

2) 해경충혼탑(海警忠魂塔)

속초시 장사동 482-6번지 사진리(沙津里) 흰고개 동편 서낭산에 위치하고 있다. 우리나라 동·서·남해에서 해상치안 질서 유지와 어로 보호 및 대간첩 작전 임무를 수행하다가 꽂다운 젊음을 나라 위해 바친 해양경찰 대원들의 넋을 위로하고 이들의 숭고한 정신을 영원히 기념하기 위하여 해양경찰대에서 건립하였다. 기단부(基壇部)는 해경 함정 형태로 조각되었고, 그 위에 높은 탑이 세워졌다. 충혼탑 뒤 벽에는 비문과 순직자 명단이 새겨져 있다.

< 비문 >

이 나라의 동서남해(東西南海)에서
조국과 겨레의 방파제가 되어
고귀한 생명을 불사른 호국영령들이
여기 太白山북쪽 기슭에 고이 잠드시도다
꽃다운 젊음을 바다 지키시다가
승고한 희생으로 영원(永遠)하시니
세월이 훌러가도 해경인(海警人)의 가슴마다
빛나는 별들이 되어 계시리도다.
저마다 주어진 거룩한 사명을 다하시고

95) 멀리 원 안에 보이는 것이 이형근 장군 덕정비이다.(2010 장릉사진공모전, 속초문화원, 2010.)

민족청사(民族青史)에 충혼(忠魂)들이 되셨으니
우리는 이 분들을 잊을 길 없어
뜻과 정성을 모아
여기 해양경찰대 충혼탑을 세워
이들 충령(忠靈) 한자리에 모시여
호국 불멸의 꽃으로 영원히 기억하며
해경 역사에 귀감(龜鑑)을 삼고자 하노라.

서기 一九八六年十二月三十日

해양경찰대장

치안정감 권복경



〈사진 62〉 해경충혼탑

4. 근대건축물

2004년 강원도·속초시에서 시군의 근현대 문화재를 전수 조사하여 『문화유적분포지도(속초시)』를 발간하였다. 영랑동에도 당시 조사되어 등재된 건축물 4점이 있다. 하지만 조사 후에 보존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3점은 사라져 버리고, 1점은 모습이 완전히 변형되었다. 현재 조사 등재된 건물들은 사라졌지만, 한국전쟁 이후 영랑동의 가옥 형태를 연구하는데 귀중한 자료이기에 소개하고자 한다.

가. 해동약방(조사 당시 김동석 가옥)⁹⁶⁾

강원도 속초시 영랑동 131-96번지에 있는 1955년에 지어진 건물로 영랑동에 해동약방 건물로 10여 년간 이용되었다. 그 후 80년대에는 2층을 링키오락실로 사용하였고, 그 후 학원 건물로 사용되었다. 조사 당시 2층은 구조상의 문제로 비워두고 10여 년간 1층만을 주거를 위한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목조와 조적조의 혼용한 2층 건축물이며 외벽은 거친 시멘트 마감으로 2층 3개방에 각각 1개의 창호가 패사드의 통일감을 부여한다. 슬레이트 모임지붕은 원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전면 1층 상부에 홀처마가 가설되어 있고 측면에는 창호가 없다. 외관의 형태상 더 이상의 증축과 보수의 흔적은 찾아 볼 수 없다. 2층으로 올라가는 입구가 따로 분리되어 있어 상업적인 용도로 쓰였던 곳임을 짐작케 해준다. 특별한 수리기록은 남아 있지 않으나 오락실로 사용한 시기에 2층의 바닥과 벽을 시멘트로 덧바르고 보수를 한 결과 하중의 초과로 1층의 지지 기반이 약해져 지금의 보조 철제기둥을 받쳐둔 상태이다. 벽지의 보수를 제외하고 대부분 원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2020년 현재 상태는 <사진 64> 같이 보수하여 민박집으로 사용하고 있다.

96) 강원문화재연구소, 『문화유적분포지도(속초시)』, 2004. 78쪽.



<사진 63> 해동약방 (2004 조사당시)



<사진 64> 현재 모습(2020)

나. 사합촌(조사 당시 영랑상회⁹⁷⁾)

강원도 속초시 영랑동 131-20번지에 있었던 시멘트 슬레이트 박공지붕의 2층 목조 및 조적조 건축물이다. 정면과 배면에만 창호가 가설되어 있으며 측면은 창호가 없고 조적조 벽면은 시멘트 마감위에 적색 도료로 덧칠했다. ‘一’字形 건물로 주방과 홀을 거쳐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실로 내부구성이 단순하다. 지붕은 원래 아연의 합석판으로 만든 지붕을 이용하여 만들어졌다고 하며 전면에 가설된 처마는 개보수하면서 가설한 것으로 원래는 없었던 구조물이다.

영랑동에서 가장 먼저 지어진 건축물로 한국전쟁 후 속초가 수복된 해인 1954년보다 1년 빨리 지어진 건축물로 당시 속초시의 최대 변화가였던 1구의 중심지로 사합촌이라는 중화 요리집이었다. 1970년 현재의 소유주인 장봉 익 씨가 인수하여 영랑상회라는 간판으로 영업을 시작하였고 주거의 편리를 위해 개보수하기 시작하여 1994년에 전면적인 개보수를 하였다.

내부는 원형이 비교적 잘 유지된 상태이나 1층 바닥은 보일러 시설 설치로 인해 보수가 이루어져 있고, 2층은 당시 모습을 유지하고 있으며 현재 창고로 사용되고 있다. 1970년 전면에 1m정도 내밀기한 처마를 새로이 가설하였으며 한쪽 측면을 목조벽체로 칸막이 시설을 하였다. 1994년 지붕을 보수 아연판제로 덧씌우고 벽면을 시멘트로 마감한 뒤 적색으로 도장했다. 정면

97) 강원문화재연구소, 앞의 책, 78쪽.

우측 부분에 거주의 편의성을 위해 새로이 공간을 증축하였고, 그 외 내부는 보강재를 덧댄 흔적 없이 원형 그대로 벽지만 시기에 따라 교체하였다. 현재는 혈고 신축 건물을 지었다.



<사진 65> 영랑상회(구, 사합촌)

다. 영랑동 시장(永郎洞 市場)⁹⁸⁾

강원도 속초시 영랑동 131-188번지에 1953년 영랑동이 생기고 들어선 첫 장터이자 지붕만 가설된 상가형 시장이다. 1980년대 중반까지도 동네 사람들에 의해 간간이 거래가 있었으나 지금은 전혀 거래가 없어 시장의 기능을 잃고 동네 사람들의 그늘막이 되어 쉬어가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시장의 대부분은 주거지로 변했고, 현재 약 70평의 상가건물이 남아 있다. 목조 트러스 구조로 지붕만 가설한 3m×2.5m 스판의 대공간 구조물로 4방을 개방한 구조이다. 시장으로 사용된 이 건물은 붕괴 위협이 있어 철제 보강재를 기둥에 덧대어 지붕을 보강하고 있다. 수리기록이라고는 목재의 훼손으로 건축물이 붕괴되어 가는 것을 막기 위해 철제 보강재를 받쳐놓은 것이 전부이다. 현재는 혈리고 없는 상태이다.

98) 강원문화재연구소, 앞의 책, 78쪽.



<사진 66> 영랑동 시장

라. 계림관(조사 당시 강덕준 가옥)⁹⁹⁾

계림관은 1955년경 건립된 건물로 수복 이후 속초의 최고 번화가였던 1구 자리에 있던 유흥주점 건물이었다. 당시 앞에 위치한 사합촌과 더불어 1950~60년대 최고의 전성기를 보낸 건축물이다. 당시 군부대 밀집 지역이던 이곳에 장성급들과 속초를 시찰하던 고위급 공무원들의 접대로 유명한 곳이었다고 한다. 1960년대 중반 이후 속초시의 경제권이 중앙시장 중심으로 이동하면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었다.

이 건물은 조사 당시 소유자 강덕준 씨가 1978년 인수하여 주택으로 개조, 증축하면서 예전의 모습과는 다른 형태로 보존되어 왔다. 조적조와 목조의 혼합으로 이루어진 일식풍의 2층 건축물로 원래의 기능인 주점은 가정집으로 개조해 사용하고 있으므로 처음의 형태는 많이 남아 있지 않았다. 2층은 각각 1개의 창호를 지닌 3개의 방으로 구성되어 있고, 우측 개구부는 1층과 계단으로 연결된다. 창호의 형태는 변화되어 원형을 알 수 없다. 측면은 창호의 제거 외에는 큰 개조가 없어 낮은 박공지붕과 벽면은 당시의 공법을 유추할 수 있다. 전면에 목재로 된 퇴보를 덧대고 기둥을 받쳐 박공형태 슬레이트 지붕의 처마 선을 더 내밀 수 있게 하였다.

1978년 전면 보수 및 증축 작업에 들어가 완전히 성격이 다른 주택으로

99) 강원문화재연구소, 앞의 책, 79쪽.

용도변경 되었는데, 다행히 원형을 유지한 상태에 전면부만 덧붙이기한 형태로 증축이 이루어졌다. 예전의 계림관의 형태는 조사당시 잘 보존되고 있었으나, 현재는 헐고 새 건물을 지었다.



<사진 67> 계림관(조사 당시 강덕준 가옥)

마. 새쪽마을 어민 가옥

속초시 영랑동 1-1 속초등대 바위산 아래 있었던 1960년대 초 어민의 가옥이다. 벽체는 판재를 이용 하였으며, 지붕은 루핑을 사용하였고, 지붕 중간 중간 판재로 고정하고 돌을 올려 장풍에 대비한 것으로 보인다.

원래 방과 부엌이 각각 1실 이었으나, 이후 어구의 보관 또는 가족 수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양쪽 1칸씩을 증축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철거되어 없다.



<사진 68> 새쪽마을 어민 가옥¹⁰⁰⁾

5. 주요 기관

가. 속초의료원

속초의료원의 전신인 강원도 속초병원은 1956년 12월 31일 속초시 영랑동 193-3번지에 최초로 설립되었다. 주민의 진료, 질병에 대한 임상 연구, 의료 요원의 훈련을 통하여 주민의 보건 향상에 기여하고 지역의료 발전을 도모 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이 병원은 의료 불모지였던 속초지역의 병원사에서 매우 중요한 기관으로 자리하고 있다. 강원도 속초병원은 이후 1965년 8월 20일 본관 건물을 신축, 1966년 4월 21일 부속건물을 신축, 1972년 6월 21일 제2병동과 숙소를 신축하여 병원의 틀을 마련하였다.

1983년 7월 1일에는 지방공사 강원도 속초의료원으로 재탄생하여 영랑동 591-10번지에 설립되었으며 현재 143병상과 16개 진료과를 운영하고 있다.

속초의료원의 주요사업으로는 지역주민의 진료, 공공보건의료, 의료인·의료기사 및 지역주민의 보건교육, 의료지식과 치료기술의 보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보건의료 시책의 수행, 감염병에 관한 각종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사진 69> 1956년 설립당시 강원도립 속초병원 전경¹⁰¹⁾

100) 속초시립박물관 소장, 죄구현 기증사진 No.B 6×6-242.

101) 속초시·속초문화원, 앞의 책, 81쪽.



〈사진 70〉 영랑동 전경(1966년)

위 사진의 원 안의 건물이 1965년 신축한 강원도립 속초병원이다.¹⁰²⁾ 현재 동현아파트가 있는 자리이다.



〈사진 71〉 지방공사 강원도 속초의료원 신축 이전 전경(1983년)



〈사진 72〉 속초의료원 현재의 모습

102) 속초시·속초문화원, 앞의 책, 42쪽.

노광복, 「내가 겪고, 보고, 느낀 6.25전쟁과 속초의 수복」(광복 70주년 기념 현대사 체험 수기), 2015, 31쪽.

나. 영랑초등학교

속초항의 개발과 함께 속초항을 중심으로 인구가 집중되자 1937년 영랑공립심상소학교가 설립되었다. 영랑국민학교¹⁰³⁾는 1942년 4월 대포국민학교로부터 분리설립 인가를 받아, 1944년 3월 20일 제1회 졸업식을 가졌다.

8·15해방 이후, 영랑동이 이북에 속하였던 관계로 1945년 8월 30일 영랑인민학교로 개교되어 12학급으로 편성 운영하였다. 한국전쟁 당시 1950년 10월 일시 수복되면서 국민학교로 다시 개교하였으나 1·4후퇴 당시 교사가 전소되었다. 그리하여 1951년에 새로 만들어진 속초국민학교에 학생들을 편입시켰다. 그 후 1955년 11월 3일 23학급으로 편성된 영랑국민학교로 설립인가를 받고, 그해 12월 1일 개교하여 이듬해인 1956년 3월 21일 졸업생 106명을 배출하는 제1회 졸업식을 거행하였다.

1989년 강원도 소년체전 야구부 우승을 하는 등 야구로 유명한 학교로 인식되었으며, 2019년 현재까지 73회 졸업식에서 41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여 졸업생 누계 인원은 13,532명에 이른다.



<사진 73> 제1회 영랑공립국민학교 졸업 기념사진(1944년 3월 20일)¹⁰⁴⁾

103) 일제는 1941년에 소학교의 명칭을 황국 신민의 학교라는 뜻을 가진 국민학교로 바꾸었다.

104) 속초시·속초문화원, 앞의 책, 179쪽.



<사진 74> 영랑공립공민학교 학생들(1944년~1950년 사이)105)



<사진 75> 축구대회 우승 기념 촬영(1956년 10월 7일)



<사진 76> 1960년 학교 전경

105) 속초시 · 속초문화원, 앞의 책, 179쪽.



〈사진 77〉 1980년 학교 북편 교사 전경



〈사진 78〉 1980년 교사 서편 전경 모습



〈사진 79〉 1997년 학교 신축 전의 학교 모습



〈사진 80〉 1998 학교 신축 모습



〈사진 81〉 2000년 학교 전경

다. 속초고등학교

속초고등학교는 한국전쟁 중이던 1952년 5월 25일 군정 당국(제1군단장)으로부터 설립 허가를 받아 6월 2일 개교하였다. 설립허가부터 개교까지는 불과 1주일 밖에 걸리지 않았는데, 이는 고등학교 설립을 간절히 원했던 지역 주민들의 염원 때문이었다. 지역 주민들은 대한청년단을 중심으로 봉사단을 구성하고, 현 속초초등학교 서편에 교무실과 교실 각각 한 칸씩을 지어 개교하여 남녀공학으로 50명을 모집하였다. 첫 입학생은 모집 정원 50명을 넘어 62명(남 57명, 여 5명)이나 되었고 이들은 1955년 2월 23일 제1회 졸업생이 되었다.

속초고등학교의 교사(校舍)는 현재 자리한 장사동에 교사를 신축하기까지 5번을 이전하였다. 최초로 이전한 곳은 1955년 6월 6일 국제연합 한국부흥위원회로부터 원조받은 자재로 1군단 공병대가 목조 2층 12개 교실을 신축한 속초리 1구 158번지 현 양우아파트 터이다. 그 후 10년이 지난 1965년 12월 29일 속초리 산199번지 현 설악중학교 교사로 이전하여 1966년 12월 23일 설악중학교 병설 인가를 받아 ‘속초 중고등학교’가 되었다.

1970년 3월 3일 신입생 233명이 입학하면서 속초시 교동 산209-1번지 현 속초교육지원청 터에 교사를 신축 이전하였다. 1971년 9월 1일 병설중학교는 설악중학교로 분리 독립하게 되고, 속초고등학교는 예전 교사를 1973년 설악 중학교 측에 완전 양도하였다. 그 후 1970년 3월부터 18년을 사용한 교사를 뒤로하고 1988년 11월 14일 현 장사동 460번지 교사로 이전하여 2020년 1월 29일 66회 297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여 졸업생 누계 인원은 19,078명에 이른다.



〈사진 82〉 속초고등학교 개교식(1952. 6.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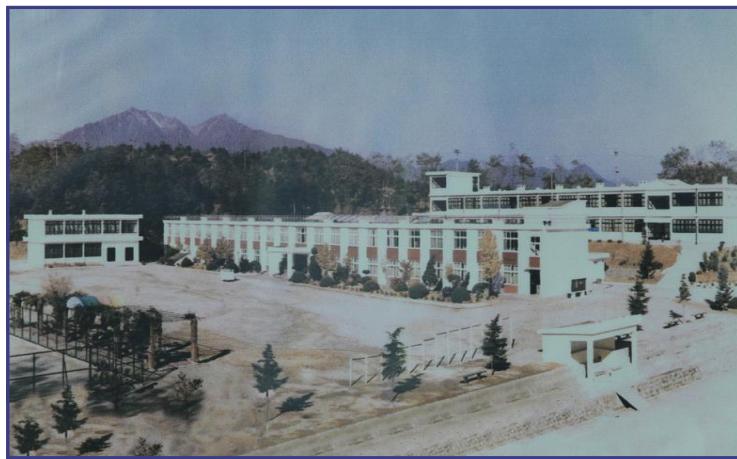
〈사진 83〉 현 속초초등학교 부근 임시건물 (1952~1955)



〈사진 84〉 현 영랑동 양우아파트 터 校舍 (1955~1965)



〈사진 85〉 현 교동 설악중학교 터 校舍 (1965~1970)



〈사진 86〉 현 교동 속초교육지원청 터 校舍 (1970~1988)



〈사진 87〉 현 장사동 교정 (1988~현재)



〈사진 88〉 영랑호반과 속초고등학교

라. 명신 고등 공민학교

속초시 영랑동 592-4번지 현 원각사 자리에 소재한 명신 고등 공민학교(설립자 박성주)는 당초에는 1955년 12월 22일에 동명동 철도부지에 세워졌다가 1956년 4월에는 옛 속초역사(束草驛舍)에 있었다. 1961년 영랑호변으로 이전하여 미8군의 도움으로 교사를 사용하다가 1976년 12월 22일 강원도 교육위원회로부터 1979년 2월 28일자로 폐교가 승인되었다. 개교 21년 만에 폐교하게 된 이 학교는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의 어려움과 유자격 교원 확보의 곤란, 학생모집 정원 미달 등 학교 운영난으로 자신 폐교를 신청하였으며,¹⁰⁶⁾ 그동안 22회 1,50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영세민 자녀들에게 중학 과정을 이수시켰으며, 상업계 고등학교 과정을 이수시켰던 명신 상업 전수 학교를 1972년 병설로 두었다가 1979년 2월 28일 함께 폐교되었다.



<사진 89> 동해북부선 속초역사(속초역사), 1956년 명신고등공민학교 사용¹⁰⁷⁾

106) 속초시, 『시정 50년사』 하권, 2013, 707쪽.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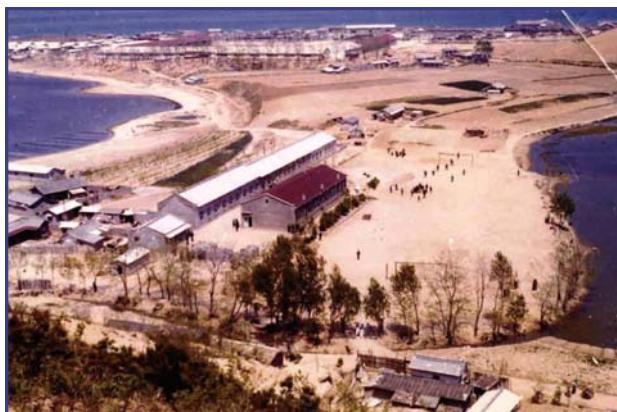
107) 속초시 · 속초문화원, 앞의 책, 72쪽.



〈사진 90〉 1961년 명신고등공민학교 전경¹⁰⁸⁾



〈사진 91〉 명신고등학교 졸업기념 사진(제3회 장롱사진공모전 입상-동상 작품)¹⁰⁹⁾



〈사진 92〉 명신고등공민학교와 주변 전경¹¹⁰⁾

108) 속초시·속초문화원, 앞의 책, 77쪽.

109) 출품인 동생의 명신중학교 입학식을 끝내고 어머니, 누나와 함께 찍은 사진이다. 현재 사라진 당시 명신고등공민학교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는 사진이다. 오른쪽 건물은 공산치하 때 영랑인민학교 자리로 6.25전쟁 중 전소되어 다시 건설한 것이고, 왼쪽 건물은 현재 폐품창고로 이용되고 있다.(속초문화원, 2012, 장롱사진공모전 입상(동상) 작품)

마. 속초문화원¹¹¹⁾

속초가 1963년 속초시로 승격되고 1970년 설악산이 국립공원으로 확정되는 중요한 시기인 1965년 3월 22일 사단법인 속초문화원이 설립 허가를 받고, 그해 7월 10일 개원하면서 속초 문화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속초문화원의 시작은 미국공보원에서 찾을 수 있다. 해방 후 한국에 주둔한 미군은 이질감을 줄이고 미국을 이해시키기 위해 미국공보원을 각 지자체에 설립했다. 속초에도 미국공보원이 있었는데 주로 반공영화와 대한뉴스를 상영하는 활동이 대부분이었다. 한국전쟁 후 새로운 도시건설을 위하여 시민의 문화적 각성이 필요한 상황에서 문화공보관이 탄생하였는데, 이것이 속초문화원의 전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속초문화원의 활동에 대한 기록은 1973년이 되어서야 찾을 수 있다. 초창기의 사업은 문화활동(민속발굴발표회, 문예 음악활동), 영사활동(반공계몽, 한국의 발전상, 새마을사업), 전시활동(반공포스터, 간첩소지품 사진전시), 도서활동(책읽기 조성, 도서관 개방) 등을 들 수 있다.

1974년에는 속초문화원 최초의 문화행사로 자평하는 ‘제1회 향토문화예술제’가 시작된다. 이 행사는 속초문화원이 출범한 지 거의 십 년 만에 대내외적으로 큰 관심과 호응 속에서 처음으로 개최한 문화행사였다. 이후 문화 강좌, 예술단체 초청 공연, 향토전통문화 자료조사, 청소년 대상 교육 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전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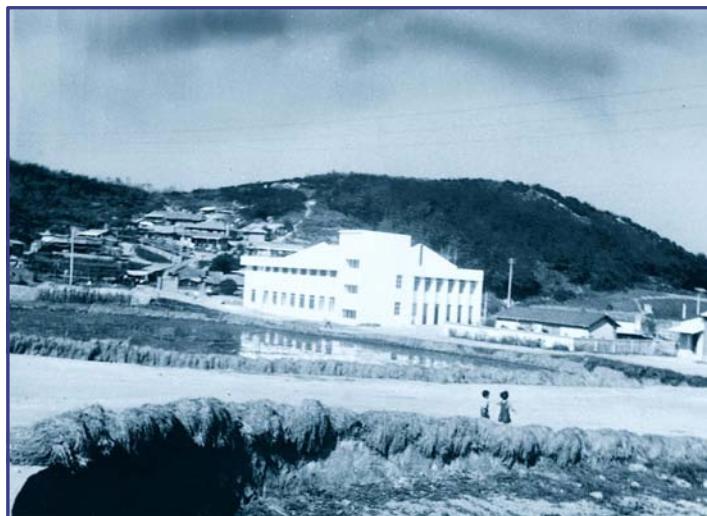
1984년 12월 30일에는 정기간행물인 『束草文化』가 창간이 되었는데, 1986년을 제외하고는 오늘날까지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속초의 문화를 알리는 소식지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1998년 10월에는 설악문화제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속초 도리원 농악이 시연되었고, 그것을 주축으로 속초농악대를 창단 운영하고 있다. 이 밖에도 1998년 속초문화회관 별관 1층에 속초의 역사와 문화를 집대성한 속초향토사료전시관을 건립·개관하였는데, 이는 속초시립박물관 건립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110) 속초시(2013), 앞의 책(하), 677쪽.

111) 속초문화원, 『속초문화원 50년사』, 2015, 17~54쪽 참조.

이외에도 속초도문농요, 속초사자놀이 등 지역의 민속문화 계승 사업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으며, 시민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민의 문화적 소양을 높이는 데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또한 문화원 중점사업 중 하나로 부설기구인 ‘향토사연구소’를 두고, 향토사 연구위원들이 지역의 향토문화연구를 통한 연구결과물을 축적하여 문화 연구기관으로서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



〈사진 93〉 일복문화관¹¹²⁾



〈사진 94〉 제1회 시민연날리기 대회 시상식(1975년 3월 9일)¹¹³⁾

112) 속초시·속초문화원, 앞의 책, 67쪽.

113) 속초시(2013), 앞의 책(하), 140쪽.



<사진 95> 속초문화 창간 출판기념회(1985)



<사진 96> 제3회 강원민속예술경연대회 속초산대소리(1985)



<사진 97> 속초시지 발간기념회(1991)



<사진 98> 속초향토사료전시관 개관식(1998)



<사진 99> 강원민속예술축제 최우수상 수상 기념(2003)



<사진 100> 시민문화예술학교(2015)

비.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속초지회¹¹⁴⁾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속초지회는 속초 예술문화인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옹호하며 속초 사회의 예술문화 발전과 민족예술의 창달에 기여할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약칭 한국예총)의 소속된 전국 130개 지회 중 하나이다.

한국예총은 1962년 민족예술문화창달을 기치로 결성된 이래 50여 년의 역사와 예총 산하 10개 회원 단체(건축가, 국악, 무용, 문인, 미술, 사진작가, 연극, 연예예술, 영화인, 음악협회)의 모임체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국 130개 도연합회와 지회, 미국서부연합회, 미주지부, 일본 관서지부, 중앙의 10개 중앙회원 단체로 구성,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신문화를 선도하는 전국적인 조직체로 실로 방대한 예술가 회원들의 집합체이다.

한국예총 속초지회는 지난 1989년 4월 7일 중앙 인준 아래 꾸준히 발전해 (사)한국문인협회 속초지부, (사)한국미술협회 속초지부, (사)한국연극협회 속초지부, (사)한국연예예술인협회 속초지회, (사)한국음악협회 속초지부, (사)한국국악협회 속초지부,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속초지부, (사)한국무용협회 속초지부 등 8개 회원협회를 두고 2020년 7월 31일 현재 예총의 10개 전문분야 중 건축가, 영화협회의 2개 분야만이 속초예총 회원단체로 가입하지 못한 상태이다.

현재 한국예총 속초지회는 중앙 인준을 받은 1989년부터 단체의 연혁을 이어 오고 있으나, 1963년 4개 협회지부(사진, 미술, 음악, 문인협회)로 구성된 비인증 당시 예총속초지부(초대회장 최구현)로 활동한 예술문화사업도 한국예총 속초지회의 연혁으로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비인증 당시 예총속초지부의 가장 빛나는 실적은 누가 뭐라 해도 1966년 10월 1일 제1회 설악제를 주관한 것을 꼽을 수 있다. 설악산 개발 10주년을 기념하여 개최된 설악제에서 설악산을 홍보하기 위한 예술행사를 개최하였는데 전국 관광사진 공모전, 사진 촬영 대회, 미술 실기대회, 미협 회원전, 취주악 경연대회, 음악의 밤, 횃불놀이, 취주악 경연대회, 미 공보원 영화 상

114) 한국예총 속초지회 홈페이지 참조.

영 등이 있고, 설악산악회가 주관한 등반대회가 제1회 설악제의 행사 내용이다.



〈사진 101〉 제1회 설악제(1966. 10. 1.)¹¹⁵⁾



〈사진 102〉 사진촬영대회(1966년. 신흥사)¹¹⁶⁾

한국예총 속초지회에 두고 있는 회원 협회 현황과 주요 사업은 아래의 <표 20>, <표 21>과 같다.

115) 대한뉴스 제592호, 1966. 10. 15.

116) 대한뉴스 제592호, 1966. 10. 15.

〈표 20〉 한국예총 강원도연합회 속초지회 회원 협회 현황

협회명	인준일자	인준처	비고
사)한국예총 속초지회	1989. 04. 07	사) 한국예총	
사)한국문인협회 속초지부	1974. 11. 04	사) 한국문인협회	
사)한국미술협회 속초지부	1980. 09. 16	사) 한국미술협회	
사)한국연극협회 속초지부	1984. 11. 30	사) 한국연극협회	
사)한국연예예술인협회 속초지회	1987. 12. 01	사) 한국연예예술인협회	
사)한국음악협회 속초지부	1991. 11. 21	사) 한국음악협회	
사)한국국악협회 속초지부	2002. 12. 27	사) 한국국악협회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속초지부	2005. 11. 24	사) 한국사진작가협회	
사)한국무용협회 속초지부	2007. 02. 21	사)한국무용협회	

〈표 21〉 한국예총 강원도연합회 속초지회 회원 협회 주요사업 현황

협회명	주요사업	비고
사)한국문인협회 속초지부	설악청소년백일장, 설악주부백일장, 거리시화전 독자초청 시낭송회, 동인지 발간 및 문학축제	
사)한국미술협회 속초지부	설악학생미술실기대회, 설악주부미술실기대회, 미술협회 속초지부전, 국제아동미술 교류전, 가훈 고사성어 무료휘호, 서예백일장, 송년미술전	
사)한국연극협회 속초지부	강원도청소년연극제, 강원연극제 및 대한민국연극제 참가, 무대지원 사업공연 및 신나는 예술여행, 정기공연, 해외사업	
사)한국연예예술인협회 속초지회	청소년 가요 및 댄스 경연대회, 훈춘시 국제가요제, 우리들의 작은 음악회, 중국훈춘시 예술단 초청공연	
사)한국음악협회 속초지부	설악 청소년 음악콩쿠르, 설악 청소년 음악회, 음악협회 정기공연	
사)한국국악협회 속초지부	훈춘시예술단 간 전통예술교류캠프, 국악협회 정기 공연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속초지부	전국사진 촬영대회 및 공모전, 설악학생사진공모전, 속초지부회원전, 전국사진강좌	
사)한국무용협회 속초지부	국제교류, 교포·외국인 한국문화체험교육, 설악청소년무용제, 우리춤속으로	



〈사진 103〉 문인협회
(갈뫼 출판기념 및 송년문학의 밤)



〈사진 104〉 무용협회(정기연주회)



〈사진 105〉 미술협회(국제아동미술 교류전)



〈사진 106〉 연극협회(연극협회 정기공연)



〈사진 107〉 연예예술인협회(정기공연)



〈사진 108〉 음악협회(정기연주회)



〈사진 109〉 국악협회(정기연주회)



〈사진 110〉 사진가협회(회원전시회)

사.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속초지부

예술문화인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옹호하며 속초사회 의 예술문화 발전과 민족예술의 창달에 기여할 목적으로 1995년 1월 24일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속초지부(초대지부장 엄상빈)를 창립하였다. 1995년 6 월 25일~7월 3일까지 개최한 ‘95 속초민예총 민족예술축제를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1996년 8월 15일을 시작으로 통일문화제를 개최하고 있다. 이밖에도 다양한 장르의 예술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데 극단 파람불의 연극공연, 청소 년 문화교실, 2001년에는 중국 훈춘시와 해외문화교류를 시작하였으며 속초 시 또는 강원도의 문화예술에 동참하면서 회원활동을 이어 오고 있다.

현재 주요사업으로는 속초 8경 페스티벌(속초 8경을 문화예술로 홍보), 속 초사잇길 버스킹(속초 주요 관광지에서 버스킹을 통한 관광 상품 개발), 통일 문화제(통일의 중요성을 시민과 함께 공유하는 프로그램), 갯배문화제(아바이 마을의 갯배를 상징하는 예술 프로그램), 민족예술제(회원들의 1년간 활동을 전시, 공연 및 민족예술인의 밤 개최)가 있다.



<사진 111> 속초 8경 페스티벌



〈사진 112〉 속초 사잇길 버스킹



〈사진 113〉 통일문화제



〈사진 114〉 갓배예술제



〈사진 115〉 민족예술제

아. 영랑동 주민센터¹¹⁷⁾

1942년 10월 1일 속초면이 속초읍으로 승격되면서 속초리를 4개 구로 나누어 지금의 영랑동(법정동) 지역이 속초리 1구가 되었다. 속초시로 승격된 지 3년이 지난 1966년 1월 1일 동제(洞制) 실시에 따라 속초시 1구가 영랑호에 접했다고 하여 이름 지어진 영랑동(법정동)과 본래 간성군 토성면 소속이었으나 1973년 7월 1일 고성군 토성면 사진리와 장천리가 속초시로 편입되면서 두 동리(洞里)의 머리글자를 따서 정하여진 장사동(법정동)이 1998년 10월 17일 시 조례 제1657호로 2개의 법정동이 통합되어 영랑동의 행정동으로 현재에 이르고 있다.

¹¹⁷⁾ 속초시(1991), 앞의 책, 420~425쪽 및 속초시(2013), 앞의 책(상), 235~236쪽, 687쪽 참조.

영랑동(법정동)은 이전에는 속초시의 중심부 역할을 담당해왔으나, 도시발전의 남하(南下) 현상에 따라 지역개발이 침체되어있는 실정이었으나 양우맨션, 동현아파트, 설악비치리조텔, 동진오피스텔이 들어서면서 전형적인 주거용 지역으로 자리 잡고 있다.

장사동(법정동)은 사진리(沙津里)와 장천리(章川里) 2개의 자연마을로 형성되어있다. 사진리는 해안도로 개설로 형성된 횟집타운으로 인해 관광지의 입지를 굳혀가고 있고, 장천리는 속초에서 가장 오래된 농업 자연마을로 청정농산물을 생산하고 있다.



<사진 116> 옛 영랑동(법정동) 사무소(현재 작은도서관)



<사진 117> 장사동(법정동) 사무소 준공식(1978년)



<사진 118> 현 영랑동(행정동) 주민센터 전경

자. 속초등대(束草燈臺)118)

속초등대는 천혜의 양항인 속초항(束草港)이 1905년 연안항로가 처음으로 개설되어 연안 선박의 기항지로서 선박의 출입이 성행하게 되고, 근해의 풍부한 수산자원을 근거로 많은 어선들의 출입과, 양양 철광석의 적출항(積出港)으로 큰 뜻을 차지하게 되면서 현재 속초시 영랑동 1-1 일원에 1956년 12월 22일 등대 건립에 착공하여 1957년 5월 31일(사업비 : 한화 5,570만환, 외화 32,240\$)에 완공하여 그해 1957년 6월 8일 최초로 점등하였다.

속초가 어업을 주산업으로 하여 도시가 급성장하는데 큰 역할을 한 속초등대는 육지초인 표지기능과 속초 부근 및 인근 해역의 선박선위결정 지표기능 그리고 항만유도기능을 원활히 하여 해상교통의 안전을 도모하고 선박운항의 능률증진을 목적으로 건조되었으며, 지상으로부터의 총 높이는 10m이고 백색(白色) 원형(圓形) 콘크리트 건물이다.

속초등대는 다른 등대의 각종 항로표지의 종류를 볼 수 있는데, 속초항 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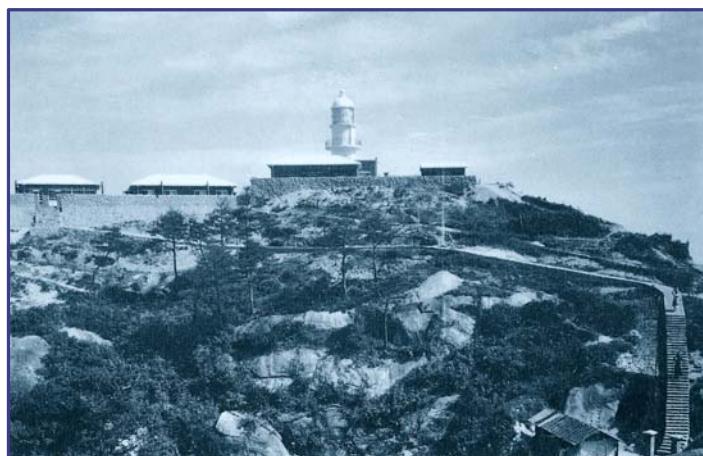
118) 해양수산부 동해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http://donghae.mof.go.kr>), 항로표지시설/항로표지 관리소/속초등대 참조.

속초시(2013), 앞의 책(하), 112~113쪽 및 강원도, 『강원도사』 제14권 건축, 2015. 12월, 524쪽 참조.

파제부터 시작해서 등부표, 조도 무인 등대, 속초항 등표 등이 있다. 이렇게 유인 등대 한 곳에서 다양한 무인표지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곳은 전국에서 이곳 밖에 없다고 할 수 있다. 등명기는 속초등대가 자랑하는 것으로 보전가치가 높고, 오래된 역사를 자랑하는 등명기로서 다른 등대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형식의 “중추식 회전기” 형식을 취하는 등명기를 가지고 있다. 중추를 올리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치차를 회전시켜 올리는 방식으로 우리나라에는 몇 곳 있었으나, 대부분의 등대가 장기 사용으로 인한 고장으로 모터회전 방식으로 대체 사용하고 있으며 현재 유일하게 속초등대만 남아 있어 역사적 가치가 크다.

2006년 12월 20일 속초등대 해양친수문화공간 조성공사를 준공하면서 기존 노후된 시설을 보수하고 홍보 시설 및 편의시설을 갖춰 관람환경을 양호하게 하는 높이 28m의 3층 건물과 등대공원을 새롭게 조성하였다. 1층에는 사무실과 동력실이 위치하고, 2층에는 항로표지업무 홍보 코너, 속초항 디오라마, 한국항만 등을 소개하는 홍보관이 자리 잡고 있으며, 3층에는 수려한 설악산과 해안선을 따라 멀리 금강산 자락까지 볼 수 있는 전망대가 위치해 아름다운 경관을 관람할 수 있다.

속초시에서도 속초등대를 속초의 대표적인 관광명소인 영금정유원지와 연계하여 1999년 속초팔경(東草八景)으로 지정하였으며, 산책로와 전망대를 개설하여 많은 관광객과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사진 119> 속초등대 전경(1960년대 초)119



〈사진 120〉 속초등대 전경(2010년)

차. 속초문화예술회관

현재 속초문화예술회관의 전신은 일복문화관(一福文化館)이라 할 수 있다. 1974년 4월 3일 준공한 일복문화관은 당시 속초시가 벌이고 있는 고향심기 운동의 일환으로 당시 정일권(丁一權) 국회의장과 일본 오사카 거류민단 황칠복 단장의 희사로 영랑동 570-7에 건평 280평의 2층 현대식 건물로 지어졌다. 일복문화관이라는 이름은 정일권 의장의 ‘일’ 자와 황칠복씨의 ‘복’ 자를 딴 것이며 일복문화관은 준공과 동시에 속초시에 기부 채납되었으며 속초문화원에서 운영하였다. 1986년 12월 22일 속초문화회관이 착공하면서 1987년 5월 일복문화관은 철거되고 24억7천만 원을 들여 속초문화회관이 1990년 10월 10일 개관하였다.¹²⁰⁾

개관 당시에 속초시 문화회관은 2,242평에 연건평 1,274평(본관 904평, 부속건물 370평), 지하 1층, 지상 3층의 건물로 세워졌다. 본관에는 객석 743석과 80평의 무대를 갖춘 대공연장을 비롯하여 분장실, 휴게실, 매점, 조명실, 연습실 등이 갖춰졌다. 부속건물에는 67평의 소강당과 45평의 전시실, 식당, 커피숍 등과 문화예술단체 사무실이 자리 잡게 되었다.

119) 속초시·속초문화원, 앞의 책, 63쪽.

120) 속초시(2013), 앞의 책(하), 49~50쪽 참조.

본관의 대강당의 관람석과 무대장치 등이 노후 됨에 따라 관람객의 공연 편의를 위해 2007년 7월 1일부터 9월 14일까지 4억3천만 원을 들여 대강당의 좌석, 화장실, 분장실, 출입문, 바닥과 소강당의 좌석 등이 전면 교체 되었다. 대강당은 기존 743석의 관람석을 595석으로 대폭 줄여 보다 편안한 관람환경을 만들었으며, 소강당도 고정식 좌석 128석이 설치되고 무대 및 음향 조정실 등에 대한 정리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건립한 지 30년이 지난 건물이 노후되어 관람석 등 실내 공연시설에 대한 보수에는 한계가 있어 2017년 12월 속초시 문화회관에 대한 전반적인 리모델링 사업에 착수하여 2018년 11월 쾌적하고 현대적인 공연시설을 갖추게 되었으며, 2019년도에 속초문화예술회관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사진 121〉 속초문화회관 기공식(1986.12.22.)



〈사진 122〉 속초시 문화회관 개관식(1990. 10. 10)



〈사진 123〉 현 속초문화예술회관 전경

카. 설악한화리조트¹²¹⁾

속초에 종합레저시설을 처음 도입한 곳은 명성그룹이다. 1981년 5월 23일 명성종합관광휴양시설 기공식과 함께 속초시에도 본격적인 레저의 개념이 확립되게 되었다. 명성그룹은 장사동 50만 평 부지에 대형 콘도미니엄, 어린이 놀이터, 잔디운동장, 회전목마 등의 휴양시설과 인공호수 등을 개발하기로 계획하고 1981년 12월 29일 국내 최대 규모 콘도미니엄 중 1차로 200실을 완공하여 개관을 하였다. 1985년 4월 15일 등록 시점에는 본관 768실을 완공하여 국내 최대의 숙박시설을 갖추게 되었으며, 속초가 전국적인 휴양도시로의 초석을 다지는 시발점이 되었다. 1983년 1월 24일에는 제2콘도 750구 좌분에 대해 건설 사업을 발주했고, 3월 20일 종합휴양지 위락놀이시설 18종을 착공하여 1984년 5월 5일 설악레저타운의 어린이놀이터 스타월드가 완공 돼 어린이날 개장하면서 바이킹, 회전열차 등 18종의 놀이시설과 토속음식점, 기념품, 판매소 등 부대시설이 조성하였다. 1984년 7월 27일에는 명성설악컨트리클럽(골프장)이 18홀 7,060야드와 티 하우스 1동 등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국제규격의 시설을 갖추고 개장했다. 하지만 1983년 8월 명성그룹 금융부정사건으로 법정관리에 들어갔다가 정아그룹을 거쳐 결국 1985년 9월 7일

121) 속초시(1991), 앞의 책, 530~531쪽 및 속초시(2013), 앞의 책(하), 29~31쪽 참조.

한국화약이 인수하게 되었고, 1988년 7월 26일에는 설악프라자리조텔 신관(766실)을 개관하게 되었다. 1997년 7월 18일에는 설악권 최대 규모인 지하 2층 지상 2층 연면적 1만9천74km² 20여 종의 실내·외 온천욕장과 풀장을 갖춘 종합온천 휴양시설 설악워터피아를 개장하였고, 2004년 7월 15일 워터피아 옥외 스파를 오픈하여 현대인의 관심사인 웰빙에 테마를 맞춰 마사지, 반신욕 등 4개의 이벤트탕을 새롭게 선보였다.

한편 드라마세트장 건립에도 참여하여 18m 높이의 당나라 황궁, 중국 4대 정원인 졸정원을 모델로 한 측천무후 후원, 당나라 전통 주거지인 사합원, 실물 크기의 광개토대왕비, 고구려 판아와 민가 등 1300년 전의 당과 고구려 양식 건물 120동이 빼곡히 자리 잡은 대조영 속초 오픈세트장을 2006년 11월 29일 개장하여, 드라마 ‘대조영’은 물론 ‘쾌도 홍길동’ 등이 촬영되었음은 물론 설악시네라마로 운영되면서 각종 이벤트와 주막거리 등도 운영되었으나, 2019년 4월 4일 속초·고성 산불로 인해 전부 소실되고 말았다.



<사진 124> 명성종합관광휴양시설 기공식(1981. 5. 23)



<사진 125> 청담호텔 건축 모습(원안). 이 건물은 완공되지 못하고 국내 최초로 동시다발 폭파되었다.



〈사진 126〉 설악한화리조트 신관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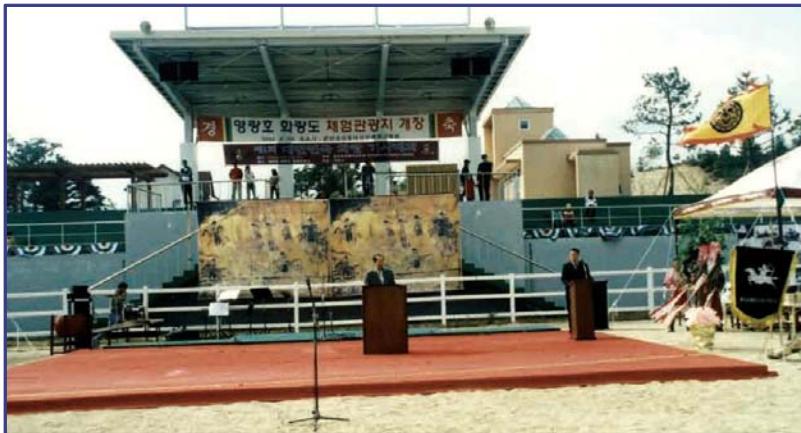
〈사진 127〉 대조영 속초 오픈세트장 조감도



〈사진 128〉 설악한화리조트(쏘라노) 전경

타. 영랑호 화랑도 체험장

신라 시대 청소년으로 조직되었던 수양, 교육 단체인 화랑(花郎)의 정신을 이어나가고, 화랑 영랑이 머물며 수련했다는 영랑호(永郎湖) 전설을 기반으로 영랑호 주변 장사동 415번지 일대 15,913m²의 부지에 총사업비 20억5천만 원을 들여 2001년 착공하여 2004년 6월 30일 개장하였다.¹²²⁾ 마사동과 관리동, 시연장, 기초승마장, 휴게시설 등을 고루 갖추고 있으며, 말타기, 활쏘기, 투석기 등 다양한 마상무예 체험과 함께 실내마장을 갖춰 기초 승마체험에서부터 활쏘기체험, 지상격구 등 다양한 화랑도 체험이 가능하여 영랑호변을 끼고 있는 최상의 휴식공간이라 할 수 있다.



<사진 129> 영랑호 화랑도 체험장 개장식

¹²²⁾ 속초시(2013), 앞의 책(하), 85~86쪽 참조.

6. 지명(地名)

행정동의 영랑동은 기존의 영랑동과 장사동을 합쳐 부르는 말이다. 법정동의 영랑동은 1963년 속초시가 만들어지기 전까지 양양군에 속한 지역이었고, 장사동은 고성군에 속해 있던 것을 1973년 대통령령 제6542호로 속초시에 편입시켜 장천리와 사진리의 앞글자를 따서 장사동이라고 하였다.

가. 영랑동(永郎洞)

1942년 10월 1일 속초면(束草面)이 속초읍(束草邑)으로 승격되면서 속초리(束草里)를 4개 구(區)로 나누어 속초리 1구가 되었다. 속초읍이 1963년 시(市)로 승격된 지 3년이 지나 1966년 1월 1일 동(洞)제 실시에 따라 종래의 속초리 1구를 영랑호(永郎湖)에 인접하였다고 하여 영랑동으로 명명하였다.

이후 1998년 행정동의 통폐합으로 인해 영랑동과 장사동이 합쳐 영랑동으로 통합되었다.

거북바위

영랑동(永郎洞) 바닷가 마을 안에 있는 바위. 생긴 모양이 거북이 같다하여 이름하였다. 등대 아래 새쪽마을 안의 상가 주차장(황가네찜 주차장)에 있다.

개안골

현재 속초문화예술회관이 세워진 지점에서 동진리조텔 건물이 선 앞쪽 일대로, 주택들이 들어선 곳은 둑근 원형의 옛 논밭 자리였던 곳이다. 개안골은 현 속초지방법원 쪽에서 뺀어 내린 산맥이 서북쪽을 둘러 안고 서쪽으로는 현재까지 남아 있는 보광사 뒷산이 감싸고 있어 분지 모양을 띤 골짜기였다.

개안논

개안골 안에 있던 논. 지대가 영랑 호수보다 낮아 가뭄이 심할 때는 영랑 호수를 끌어들여 농사를 지었고, 반대로 장마가 져서 개안 논물이 호수보다 높

으면 호수 쪽으로 빼내곤 하였다.

미역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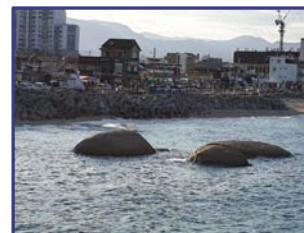
영랑동 바닷가 마을(새쪽마을) 앞의 바다에 있는 바위. 영금정 해안도로에서 새쪽마을의 입구(속초등대 가는 길 앞) 백사장 입새에 큰 바위가 엎어져 있다. 이 바위에서 미역이 잘 자라는 관계로 이렇게 불렀다. 새쪽마을의 고깃 배들이 출입하던 곳이다.



〈사진 130〉 거북바위



〈사진 131〉 개안골



〈사진 132〉 미역바위

벼락바위

영랑동(永郎洞) 바닷가 마을 안에 있는 바위. 새쪽마을 안에 있다. 해변도로에서 마을로 들어가는 샛길이 있는데 그 샛길을 따라 100미터 정도 가면 오른쪽 길옆에 큰 바위가 두 쪽으로 갈라져 있다. 아주 오랜 옛날 옛적에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져 바위가 두 동강으로 갈라졌다고 하는데 전설을 아는 이가 없다.

사진교(沙津橋)

영랑동에서 장사동까지 영랑호 하구의 해안도로를 이은 다리. 영랑교와 나란히 건설되었으며 2014년에 완공되었다. 해안도로의 기능과 동해바다를 조망하며 걸을 수 있는 산책코스로 이용되고 있다.

새쪽마을(삼짜개)

영랑동(永郎洞) 바닷가 마을. 남쪽으로 성황봉(城隍峰) 산등성이를 경계로 동명동(東明洞) 마짜개 마을과 인접해 있다. 바다 사람들의 말로 새쪽은 동쪽,

마쪽은 남쪽을 뜻하는데 이 고장 방언으로 새쪽을 새짝, 마쪽을 마짝이라고도 한다. 새짝마을, 마짝마을의 의미로 삽짜개, 마짜개로 불린다. 일반적으로 새쪽마을이라고 부르나, 마을 주민들은 삽짜개로 통용하고 있다.

오리바위

영랑동 등대 앞의 바다에 있는 바위. 언뜻 보기에는 가까운 것 같지만 해엄쳐서 건너다보면 오리쯤 되는 것처럼 멀다고 하여 그렇게 불렀다. 일명 갈매기 바위라고도 하고, 돌이 많은 영금정 바닷가에 홀로 외롭게 자리하고 있다고 하여 독(獨)바위로 부르기도 한다.

영랑호(永郎湖)

속초시 북쪽에 위치한 큰 석호(鴟湖)로 모래가 퇴적하여 발달한 것이다. 영랑동, 동명동, 금호동, 장사동으로 둘러싸여 있다. 영랑교 밑의 수로를 통해 동해와 연결된다. 호수로 들어오는 물은 장천천이 유일한데 농경지를 지나 흐르면서 호수로 유입된다. 영랑호라는 이름은 『삼국유사』의 기록을 근거로 신라의 화랑인 영랑(永郎)이 이 호수에서 풍류를 즐긴 까닭으로 영랑호라고 이름 지어졌다고 한다.

영랑교(永郎橋)

영랑호(永郎湖)의 바다 쪽 출구에 놓여 영랑동과 장사동을 연결하는 다리이다.

영랑시장(永郎市場)

영랑동에 위치한 시장. 속초의 중심지가 영랑동, 동명동이었을 때는 여기가 제일 크고 먼저 생겼으므로 제일시장(第一市場)이라고 했다. 또 속초가 시(市)로 승격되어 동(洞)제가 실시되기 전에는 영랑동이 속초리 1구였으므로 1구시장(一區市場)이라고도 했다. 점차 속초리 3구에 인구가 증가하고, 1953년에 중앙시장이 생기면서 1960년대 중반부터 규모가 줄다가 1977년에 폐장하였다.

원각사

개안골 안에 있는 신흥사 포교당. 속초의료원 뒤편에 있다. 일제 강점기 시기 설악심상소학교(일본인 자녀들 학교)가 있었던 자리이다.



〈사진 133〉 새쪽마을



〈사진 134〉 벼락바위



〈사진 135〉 오리바위

나. 장사동(章沙洞)

장사동은 과거에 고성군(高城郡) 지역이었다. 조선시대 말까지는 간성군(杆城郡) 토성면에 속하였다. 일제 강점기 시기 간성군(杆城郡)이 고성군(高城郡)과 양양군(襄陽郡)에 분속되면서 양양군으로 편입되기도 하였지만 대체로 영랑호까지가 간성군 영역이었다.

그러던 것이 속초의 발전에 따라 생활 편의상 1973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6542호로 고성군 토성면(土城面) 사진리(沙津里)와 장천리(章川里)가 속초시로 편입되었고, 두 동리가 합쳐져서 두 동리의 첫 글자를 따서 장사동(章沙洞)으로 불리게 되었다.

1998년 행정동의 통폐합으로 인해 영랑동과 장사동이 합쳐 영랑동으로 통합되었다.

1) 사진리(沙津里)

장사동의 중심 지역이다. 원래 고성군 토성면 사진리(沙津里)로 되어있던 것이, 1973년 속초시로 편입되면서 장천리(章川里)와 합쳐져서 장사동(章沙洞)으로 불리게 되었다. 조선시대 읍지에는 사야지진리(沙也只津里)라고 기록되어 있던 것이 조선 후기부터 줄여서 사진리라고 불리었다.¹²³⁾ 속칭으로는

123) 『간성군 읍지』 종보판(1884), 해진조(海津條).

지금도 모래기, 나룻모래기라고 한다.



〈사진 136〉 사진마을

사진리 지역은 본래 육지가 아닌 바다였고 영랑호도 호수가 아니라 바다였다. 그러던 것이 오랜 세월에 걸쳐 모래가 쌓여서 영랑호는 호수로 변하게 되고, 사진리에는 마을이 형성되었다. 모래톱에 형성된 마을이므로 모래기라고 불리었고 이것을 한자로 사야지(沙也只)라고 표기한 것이다. 『간성군 읍지』 해진조에 사진(沙津)을 수록한 것을 보면 마을이 형성된 후 거주민들의 생활은 어업을 기반으로 삶을 영위해 왔음을 알 수 있다.¹²⁴⁾

덧붙여 한 가지 바로잡을 것은 사진(沙津)이라는 이름의 사용 시기이다. 이전 발간물들에서 사야지진(沙也只津)을 사진(沙津)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이 일제 강점기 시기라고 서술했는데, 1884년에 증보된 읍지에 “사야지진리(沙也只津里)는 지금의 사진(沙津)이다”는 기록이 있어 이를 바로잡는다.



〈그림 33〉 『간성군 읍지』
사진리 기록

124) 『간성군 읍지』 海津條에는 “郡지역의 모든 배 대는 곳(方舟) 즉, 어민(漁民)이 사는 어촌에 배(船艤)가 정박할 수 있는 곳을 진(津)이라고 한다.” 라고 설명한 후 沙津을 실었다.

장장군산(姜將軍山)

속초고등학교 뒷편(북쪽) 산. 강장군(姜將軍)이란 장사가 이곳에 묻혔다고 한다. 전설에 의하면 강장군이라는 힘이 무척 센 장사가 용촌리(龍村里) 번개(예전에는 호수였으나 지금은 논으로 변했음)에서 태어났고, 용촌리(龍村里) 용지호(龍池湖, 순개 또는 방축개라고도 한다)에서는 강장군(姜將軍)이 탄 용마(龍馬)가 나왔다고 한다.

고바우

영랑호 동북쪽 가에 있는 바위. 코처럼 생겼다고 하여(고는 코의 古語) 고바우라고 하며, 그 부근 갯가를 고바우에 연유하여 고밧개라고 한다. 다른 말로 신선이 놀던 바위라고 하여 신선바위, 또는 바위 형상이 윤선(輪船) 같다고 하여 윤선바위, 두꺼비 같다고 하여 두꺼비바위라고도 한다.

고밧개(고바웃개)

영랑호 동북쪽 고바우 부근의 갯가. 고바위가 있는 갯가라는 뜻으로 고바웃개라고 하던 것이 고밧개로 변하였다.

노적(露積)바위

영랑호 동북쪽 마을 안에 있는 바위. 바위 형상이 노적(露積)가리를 쌓은 것 같았으나, 지금은 깨어 부서져 없어지고 바닥만 남아 있다.

망주꼬뎅이

성황당이 위치한 지역을 마을 주민들이 부르던 이름. 이곳에서 멸치가 해변가로 몰려드는 것을 망을 보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버리개

흰고개 밑(동남쪽) 갯가. 별판에 위치한 갯가라는 뜻의 별개가 변해서 버리개가 된 것으로 추정된다.

뻘주박(박쥐바위)

영랑호 북쪽 가에 있는 바위. 바위에 박쥐가 서식하므로 박쥐바위라고 하던 것이 뻘주박으로 변했다.

뿍쟁이

영랑호 북쪽 엄달개 서편 골짜기.

서낭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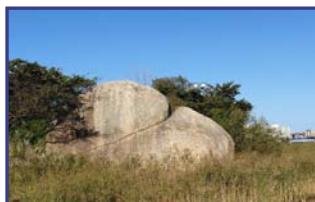
흰고개 동편, 해경 충혼탑(海警忠魂塔)이 위치한 산. 산의 남동쪽에 서낭당이 위치하고 있다.

새마을

현재 영랑호의 동북쪽, 영랑호 하구 옆에 위치한 마을. 1968년 동해안의 해일로 인해 휴전선 인근에 위치한 마차진리가 큰 피해를 당하여 당시 고성군 내의 어촌에서 최남단이었던 이 지역으로 집단이주하여 새로 생긴 마을이다.



〈사진 137〉 강장군산



〈사진 138〉 고바우



〈사진 139〉 새마을

엄달개

현재 속초고등학교가 위치하고 있는 계곡. 엄달개는 엄달이라는 이름의 갯가라는 뜻이다.

용머리바위

영랑호 동북쪽 호숫가에 있는 바위. 현재 바위 뒤쪽에는 아파트가 들어서 있다. 영랑호의 전설과 가장 어울리는 바위로, 용의 머리를 닮은 바위라고 해서 이름하였다.

해경 충혼탑(海警忠魂塔)

우리나라 해안을 지키다 순국한 해양경찰들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하여 세운 탑. 흰고개 동편 서낭산에 위치하고 있다.

형제바위(兄弟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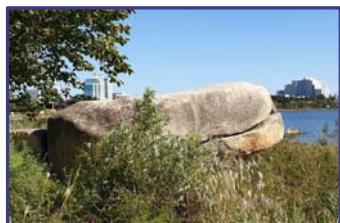
사진마을 앞 바닷가에 위치한 두 개의 바위. 두 개의 바위가 형제처럼 나란히 위치하고 있다.

황새골

영랑호 북쪽, 마을 서쪽에 위치한 골짜기. 전에 황새가 많았다.

흰고개(白峴)

마을 북쪽 고성군 토성면 용촌리와 연결되는 큰 고개. 백토가 산출되므로 흰고개라고 하였다.



<사진 140> 용머리바위



<사진 141> 형제바위



<사진 142> 흰고개

2) 장천리(章川里, 노루내)

장천리(章川里)는 500년 전에 형성된 마을이다. 본래 ‘노루 장(獐)’ 자 장천리(獐川里)였던 것이 조선 후기 마을의 유지였던 엄씨 집안에서 진사가 나자, 진사가 난 마을에서 어떻게 노루 장자를 쓰냐고 해서 ‘글 장(章)’ 자로 이름을 바꿔 지금은 장천리(章川里)로 바뀌었다. 장천(章川)의 ‘노루 장(獐)’ 은 마을 서쪽 원암리(元岩里)로 넘어가는 노루목 고개에서 유래한 것이다. 마을 앞 냇가가 노루목고개에서 시작되어 흐르므로 노루내라고 하던 것을 한자로 장천(獐川)이라고 한 것이다. 후에 장천(章川)으로 변하였다.



〈사진 143〉 장천마을



〈그림 34〉 장천리 이름이 바뀐 자료인 『지지조서』 125)

장천리(章川里)의 이름이 바뀐 내용은 1915년 조사된 『지지조서』에 기록되어 있다. 1915년에는 행정구역 통폐합 작업을 하면서 고성군의 작은 마을들이 인근 마을과 통폐합되어 조정되었다. 이로 인해 마을에 문의를 했을 것이고, 당시 마을의 유지였던 엄진사의 주도로 이름이 바뀐 것으로 당시 상황을 정리할 수 있다.

사실 구전된 이야기에 의한다면 조선 후기에 이미 이름이 바뀌어야 한다. 하지만 마을 이름을 인위적으로 바꾼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장천리 마을의 엄진사는 철종 경술년(1850)에 출생한 엄석모(嚴錫模)이며, 그가 진사시에 합격한 해는 1894년이다. 이 해는 갑오개혁이 단행된 해로서 엄석모 진사

125) 조선총독부, 『지지조서』 고성군편, 1915.

가 합격한 이후 바로 과거제가 폐지되었다. 그 이후 장천마을에서 업진사의 입지가 강화되었고, 마을에서는 암암리에 이름을 바꿔 불렀지만 공식적인 기록으로는 바꾸지 못했다. 그러다가 행정구역 통폐합 작업을 할 때 공식적인 기록으로 남기게 된다. 이를 증명하는 자료가 1894년 증보된 『간성군읍지』와 1911년에 발간된 『조선지지자료』가 있는데, 여기에는 마을 이름을 장천(獐川)이라고 했다.

갯버덩

마을 동쪽 영랑호에 인접한 장천천 하구 옆 버덩. 예전에는 장천천의 하구가 지금보다 이백미터 쯤 위쪽에 위치하였는데, 오른쪽에 넓은 버덩이 있었다. 지금 그 자리에 습지공원을 만들었다.

건녕골

마을 동남쪽 골짜기. 마을 앞을 흐르는 장천천을 사이에 두고 마을의 건너편에 있다고 하여 불려진 이름이다. 미시령로에서 마을로 들어오는 길로 백미터쯤 들어와서 오른쪽 아래에 있다.

고추골

마을 북동쪽 국사봉 바로 서편 골짜기. 청해학교 앞쪽에서 영랑호 사이의 골짜기이다.



〈사진 144〉 갯버덩



〈사진 145〉 건녕골



〈사진 146〉 고추골

골논골

마을 북동쪽 큰바위골과 방축골 사이의 골짜기.

국사봉(國師峰 국수봉, 국시봉, 된봉)

고성군 토성면 용촌리와의 경계에 위치한 산봉우리. 해발 84m로 영랑호에서 보면 호수 바로 북서쪽에 우뚝 솟은 봉우리이다. 예전에는 국사서낭신을 모시는 국사성황당이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없다.

국사봉은 다른 말로 뱀음이 비슷한 국수봉, 국시봉이라고도 하고, 봉우리가 봇같이 수려하다고 하여 문필봉(文筆峰)이라고도 한다. 또한 사진리에서는 된봉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사진리 마을에서 볼 때 마을의 된, 즉 뒤 안쪽의 봉우리라는 뜻이다.

노루목 고개

장천리(章川里)에서 원암리(元岩里)로 넘어가는 고개. 전국적으로 무수히 분포하는 다른 노루목 고개와 마찬가지로 고개가 길게 늘어졌으므로 늘으목, 늘목이라고 하던 것이 노루목으로 변한 것으로 추정된다.

던바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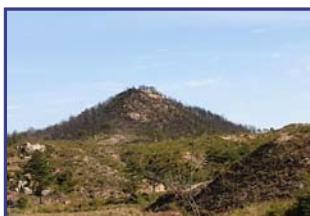
마을 동쪽 던바우골에 있는 바위.

던바우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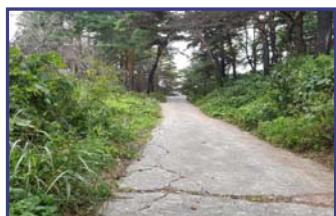
마을 동쪽 샘치골 다음(동쪽)에 있는 골짜기.

도룡골

마을 서쪽에 있는 골짜기. 독골 위쪽에서 왼편으로 갈라지는 골짜기가 하나 더 있는데, 돌아가는 골짜기라는 뜻이다.



〈사진 147〉 국사봉



〈사진 148〉 노루목고개



〈사진 149〉 도룡골

독골

마을 서쪽에 있는 골짜기. 마을 앞에 있는 서낭봉 원쪽 골짜기로, 현재 콘도 연못부터 큰논골 물과 합쳐지는 지점까지의 골짜기를 부르는 이름이다.

독골천

장천천 서쪽에 흐르는 내를 마을에서 부르는 이름. 천(川)이라고 하기에는 규모가 너무 작아 공식적으로 사용되지는 않는다. 위쪽 콘도 근처에서 발원하여 마을에서 장천천과 합쳐진다.



〈사진 150〉 독골(위)



〈사진 151〉 독골(아래)



〈사진 152〉 독골천

뒷골

마을 뒷(북)쪽에 있는 골짜기. 방축골 위쪽에 있다.

망태골

마을 남쪽에 있는 골짜기. 예전에는 마을 진입로가 망태골로 뚫려 있었다. 이 골짜기는 유난히 감자농사가 잘되는 곳이어서 감자를 캐는 속도를 옮기는 사람이 따라가지 못했다고 한다. 이 속도를 맞추기 위해 망태기에 담아 운반하였다고 하여, 망태기를 사용해야 하는 골로 알려졌다.

물안골

마을 서쪽 큰논골(큰령골)에서 오른편(북쪽)으로 갈라진 골짜기. 물레방아가 있어서 물방아골이라고 부르던 것이 물안골로 변한 것으로 추정된다.



<사진 153> 뒷골



<사진 154> 망태골



<사진 155> 물안골

바우배기

큰논골 위쪽 노루목 고개 오르기 전에 바위가 있는 곳. 현재 콘도의 바로 뒤편으로 큰 바위가 산등성이에 박혀 있다.

방축(防築)골

마을 북동쪽 골짜기. 골 위쪽에 맑은 샘물이 나와 마을 사람들이 식수로 사용했다고 하며, 성황제를 지낼 때도 이 샘물로 술을 빚어 제사를 지냈다고 한다. 오래 전에는 샘물의 아래쪽에 방축을 만들어 농사에 이용했다고 하는데 지금은 없다.

벼락바위

장천마을길에서 방축골로 들어가기 전에 있는 바위. 마을에서 영랑호 쪽으로 내려가는 길옆에 있는데 120년 전쯤 벼락을 맞아 갈라진 바위하고 한다.



<사진 156> 바우배기



<사진 157> 방축골



<사진 158> 벼락바위

불매앞

치시골 입구를 가리키는 말. 예전에 이곳에 대장간이 있어서 풀매(풀무의 사투리)를 사용하여 불을 일으켜 쇠를 녹였으므로, 풀매를 사용하는 대장간 앞

이라는 의미로 풀매앞이라고 하던 것이 불매앞으로 변화되었다. 터앞이라고도 한다.

샘치골

마을 남동쪽 건녕골과 던바우골 사이의 골짜기.

서낭봉

마을 앞산으로 큰논골 입구와 독골 입구 사이의 산봉우리. 마을 안의 산이라고 하여 안산이라고도 한다. 이곳에 서낭당이 있었는데 2019년 산불로 전소되어 지금은 없다.

수정재

마을 남동쪽 오래전 폐쇄된 마을 통행로였던 고개. 이 고개 정상 주변에서 수정이 생산되었는데 1965년쯤 광산이 폐쇄되었다.



〈사진 159〉 불매앞



〈사진 160〉 서낭봉



〈사진 161〉 수정재

싱싱골

마을 서쪽에 있는 큰논골 위쪽에서 오른쪽(북쪽)으로 갈라지는 골짜기. 바우배기 옆에 있는 작은 골짜기이다. 마을에서는 바람이 불지 않는데 이 골짜기에만 들어가면 바람이 싱싱 분다고 한다. 이곳의 황토가 좋아 치시골에서 기와를 굴 때 이 곳의 흙을 이용하였다고 한다.

여우바우

마을 남쪽 앞산 위에 있는 바위. 치시골로 올라가는 길 중간쯤 앞쪽 산위에

있다. 바위 밑에 작은 굴이 있는데 예전에 여우가 굴에서 살았다고 한다.

장재골

마을 남쪽에 있는 골짜기. 망태골 옆에 있다.

치시골

마을 남쪽에 있는 골짜기. 헛이 많은 골짜기라서 그렇게 불렸다. 예전에는 이곳에 기와를 굽는 곳이 있었다고 하며, 그런 연유로 장천마을에 유난히 기와집이 많았다고 한다.



〈사진 162〉 싱싱골



〈사진 163〉 여우바위



〈사진 164〉 치시골

큰논골

마을 서쪽으로 뚫린 큰 골짜기. 장천천 주변으로 마을에서 논이 가장 많은 곳이다. 조선시대에는 이 마을을 통해 원암리, 미시령(彌矢嶺) 쪽으로 다녔는데, 큰령(嶺)으로 가는 길에 위치한 골짜기라서 큰령골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 도로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마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큰논골이라고 불렀다.

큰바위

마을 북동쪽 큰바위골에 있는 바위. 청해학교 남쪽으로 국가시설 울타리 안에 있다.

큰바위골

마을 북동쪽에 있는 골짜기. 큰바위가 있다.

터앞

마을 남쪽 망태골 앞쪽 치시골 입구를 가리키는 말. 마을터의 앞이라는 말로, 이전에는 불매앞이라고도 했다.

할미바위

장천천 하구 영랑호수 안에 있는 바위. 할머니의 치아가 없는 모양을 하고 있다.



<사진 165> 큰논골(위)



<사진 166> 큰논골(아래)



<사진 167> 터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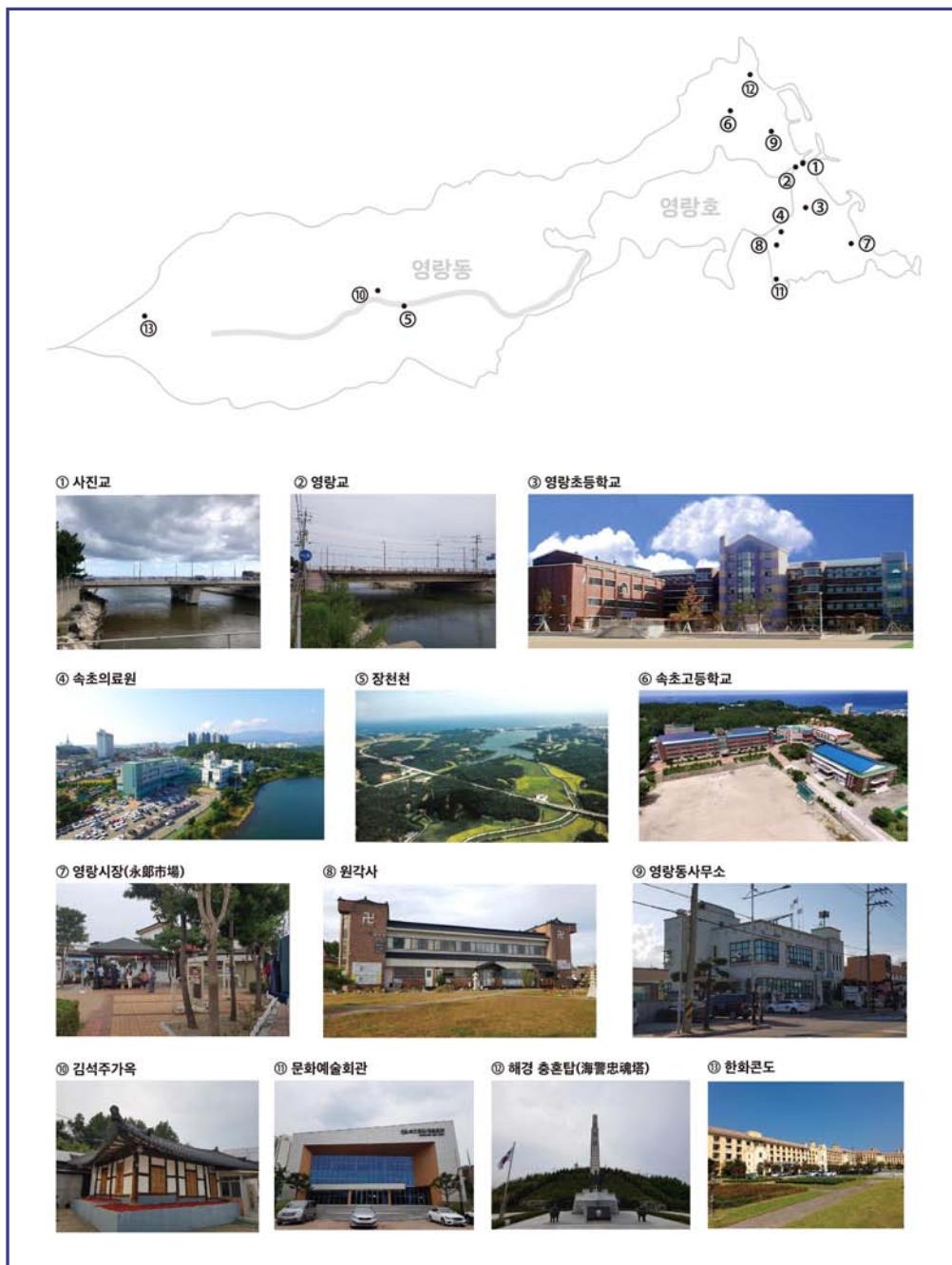


<사진 168> 할미바위

다. 영랑동 · 장사동 마을 지명 위치



<그림 35> 영랑동 · 장사동의 마을 지명 위치



<그림 36> 현재 영랑동의 주요 기관과 시설물 위치

III. 산업



1950년대 시장 모습, 사진제공 속초시립박물관

〈사진 Richard B. Rockwell 기증사진〉

1. 산업구조

가. 산업의 분류와 변화

1) 산업의 분류

산업이란 인간 생활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는 활동이다. 산업은 일반적으로 제1차·제2차·제3차 산업으로 분류된다. 1차 산업은 자원을 채취하거나 생산하는 농·임·수산업을 말한다. 2차 산업은 자원을 제조·가공하는 광업·제조업 등을 말한다. 3차 산업은 생산된 물자를 수송·판매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업·교통·금융·서비스업을 말한다.

오늘날 정보화 사회에서는 3차 산업을 세분하여 개인 서비스업·사무업 등을 3차 산업으로, 통신·금융·정보·교육·연예 등을 4차 산업으로, 고위 전문직 및 연구개발직을 5차 산업으로 분류한다.¹²⁶⁾

2) 소비자 서비스업과 생산자 서비스업

서비스업은 서비스 수요자의 유형에 따라 소비자 서비스업과 생산자 서비스업으로 구분된다.

소비자 서비스업은 재화와 서비스가 소비자에게 직접 제공되는 서비스업으로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관광업, 개인 서비스업 등이 포함되며 일상 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사람들이 자주 이용하는 편의점이나 슈퍼마켓 등이 소비자 서비스업의 대표적인 예이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이동 거리와 비용을 최소화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 서비스업은 소비자가 많은 거주지 지역에 입지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생산자 서비스업은 생산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업이며, 여기에서 생산자는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기업을 가리킨다. 즉, 생산자 서비스업은 다른 산업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는 기능을 담당하게 되며, 구체적으로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및 법률, 회계, 광고, 컨설팅을 포함하는 사업 서비스업 등이 해당한다.

126) 기근도, 『텍스트 한국지리』, 디딤돌, 160쪽 참조.

생산자 서비스업은 정보·통신의 발달과 함께 기업의 규모가 커지고 기업의 생산 활동이 복잡해짐에 따라, 기업의 경영과 생산 활동을 상호 연계해주는 전문 서비스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서 발달하였다. 생산자 서비스업은 주요 고객인 기업이 많이 입지하고 있는 대도시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는데, 교통과 통신이 발달한 대도시가 기업과의 접촉이 쉽고 정보를 얻기에도 유리하기 때문이다. 생산자 서비스업은 제조업이나 소비자 서비스업보다 부가가치가 높아 경제 성장과 고용 창출에도 이바지하며, 오늘날 서비스 산업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¹²⁷⁾

127) 네이버 지식백과 참조.

2. 영랑동 산업구조

가. 영랑동 산업의 분류와 변화

1) 개요

장사동·영랑동의 산업구조는 경제 발달 초기 즉 1960년대 초 이전에는 1차 산업의 비중이 매우 높았다. 장천마을을 중심으로 농업이 발달하고 사진마을과 새쪽마을에서는 영랑호 주변 구릉지와 앞바다를 생업의 터전으로 삼는 반농반어촌의 비중이 높았기 때문이다. 또한 3차 산업에 속하는 상업은 영랑시장을 중심으로 50년대에서 60년대 중반까지 매우 발전하였으나 이후 중앙시장으로 중심 상권이 이전하면서 서서히 쇠퇴하였다.

1960년대 말부터 1990년대 초까지는 장천마을을 제외하고 농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졌으며, 연안 어업의 호황을 맞아 영랑동 해안 도로 인근 컴퓨터에 20~30여 개의 수산물 가공업체가 입주하여 2차 산업에서 제조업의 비중이 매우 높은 시기였다. 또한 시가지의 확산으로 논밭을 비롯한 경지면적은 이전보다 많이 축소되었다. 7번 도로를 중심으로 개인 서비스업 및 사무업 등 3차 산업의 비중은 높아졌다.

1990년대 말부터 2010년대까지는 영랑동에서 논이 통계에서 사라지고 밭의 비중도 매우 낮아졌으며, 어업인구도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장천마을에서도 이촌향도로 인한 노동력 부족과 휴경지의 증가로 경지면적도 감소하게 되었다. 또한 연안 어장의 황폐화로 명태와 오징어의 생산량이 급감하여 영랑동 제조업의 비중은 크게 낮아졌다. 하지만 한화프라자와 영랑호 리조트, 장사동 횟집타운을 기반으로 관광산업이 비약적으로 성장하면서 소비자 서비스업인 음식·숙박업의 비중이 매우 높아졌다.

장사동·영랑동의 포함한 속초시의 산업구조는 1차 산업과 2차 산업의 비중이 매우 낮으며, 부가가치가 높은 생산자 서비스업도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특히 제조업 기반이 취약하여 지역민 중심의 안정된 상권이 형성되지 못하고 외부 관광객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장기적 관점에서 산업구조의 재편이 필요한 시점이다.



<사진 169> 장사횟집타운 야경

2) 상업의 변화

영랑동은 속초 1구로 정기시장 5일장이 열리다가 1951년 수복 이후 국군 1군단과 미 10군단이 주둔하면서 인구가 증가하여 상설시장으로 변모하였다. 초창기 시장은 노점상 수준이었으나 귀향민과 피난민이 몰려들면서 점포수가 크게 증가하였다. 이어 1954년 국군 1군단과 미군의 일부이 이동하면서 잠시 시장 경기가 위축되기도 하였지만 1953년 개장된 중앙시장과 더불어 60년 중반까지 속초 상권의 중심기능 수행하였다. 그러나 속초 시가지가 남서쪽으로 점차 확산되면서 북쪽에 위치한 영랑시장은 70년대 이후 점차 활력을 잃었고 1977년 이후 완전 폐장되었다.

<표 22> 영랑시장 현황

년도	점포수	거래 상품	비고(공식 명칭)
1962	176	곡물, 청과, 농수산물, 잡화, 식료품, 철물, 문방구	제1시장
1976	64	〃	제일시장

출처 : 『1963, 1977년 속초통계연보』



<사진 170> 1950년대 영랑 시장



<사진 171> 2020년 장사동 활어회 센터

장사동 일대의 상권은 70년대~80년대 침체기를 겪다가 1990년을 전후하여 장사횟집이 개업하면서 큰 변화를 맞게 되었다. 이후 30여 개의 횟집이 앞다투어 개업하면서 1990년대 중반 속초에서 가장 번화하고 규모가 큰 횟집타운으로 급성장하였다. 이곳은 장사항과 인접하여 신선한 활어를 공급받을 수 있고 7번 도로와 인접하여 교통이 편리하며, 단체 손님을 받을 수 있는 넉넉한 좌석을 확보하여 속초시민과 외지관광객들이 찾는 먹거리 1번지였다.¹²⁸⁾ 7번 국도가 90년대 후반 이전되었으나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고 위에 언급한 이곳만의 장점을 활용하여 2010년 정도까지 전성기를 구가하였다. 하지만 이후 속초관광수산시장의 활성화, 지하상가 횟집, 대포동 횟집타운, 동명동 오징어 활어회 난전, 영랑 해변 간이 횟집 등으로 수요가 분산되고, 교통 먹거리촌의 등장, 냉면, 닭강정, 생선찜, 대게찜 등 다양한 속초 맛집의 등장과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전성기에 비해 매출액이 급감하고 있다.

3) 제조업의 변화

일제의 어업자원 수탈을 목적으로 시작된 속초 지방의 전반적인 어업 근대화는 1960년대 이후 풍부한 연안 어장에서 잡은 정어리, 명태, 노가리, 오징어, 홍게 등을 가공 판매하는 제조업의 성장으로 이어지게 된다.

1950년대 말부터 60년대 동해 어장 황금기에 동명항과 청초항에서 어획된 수산물들을 가공 처리하기에 동명항 주변과 청초호 인근은 인구가 밀집하여 공장이 들어설 수 있는 공간이 매우 부족하였고, 한국전쟁 휴전 직전 영랑동

128) 한기홍의 증언. 한기홍 씨는 66세로 2020년 9월 22일 장사동어촌계 사무실에서 2차 증언을 청취하였다.

해안에 주둔했던 국군과 미군의 일부가 이동한 공터는 공장 설립에 적합한 부지였다.

1960년대부터 소규모 수산물 가공업체들이 영랑동 해변에 입주하기 시작하였는데, 당시 공장 간판은 없었고 박씨네 공장, 안씨네 공장, 호랭이 덕장이라고 불렀다. 그물에서 고기 떼고, 오징어 할복하여 무거리를 만들고 노가리를 할복하여 기계에 씻고 갈아서 판에 말려 제품으로 만들거나 오징어, 노가리 건어물과 덕장에서는 북어를 생산하였다.¹²⁹⁾

1970년대를 거쳐 80년대에는 공장의 규모가 좀 더 대형화되었고 80년대 말에서 90년대 초에는 영랑동 제조업의 전성기였다. 당시 규모가 큰 공장에서는 70명 내외의 노동자들이 작업하였으며 이곳에서 생산된 최고의 명란, 게맛살, 오징어채 등을 구입하기 위해 일본 수입상들이 수시로 이곳에 상주하기도 했다.¹³⁰⁾

하지만 영랑동 일대의 수산물 가공산업은 90년대부터 노가리 어획이 금지되고, 이후 명태 자원이 속초 연안에서 서서히 자취를 감추었으며, 오징어 생산량도 급감하는 등 전반적인 어획량의 부진으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후 러시아산 동태가 부산항으로 수입되어 물류비 증가로 경영이 악화되고, 3D 업종 기피에 따른 전반적인 인건비 상승으로 많은 공장이 문을 닫았다. 대포농공단지가 조성된 후 시에서는 해수오염 방지를 위해 농공단지로 공장을 이전할 것을 권유하였다. 이로 인해 현재는 단 2개 업체만이 남아 다양한 것갈을 생산하여 영랑동 수산물 제조업의 명맥을 잇고 있다.¹³¹⁾

129) 서덕자·최주연의 증언. 서덕자, 최주연 씨는 현재 80대로서 2020년 7월 15일 영랑동 노인회관에서 증언을 청취하였다.

130) 문은희의 증언.

131) 문은희 증언자는 2020년 속초시 명장심의 위원회에서 식품 가공(명태회) 부문의 명장으로 선정되었으며, 절임 과정과 숙성 과정의 차별성이 높이 평가됐다.



<사진 172> 1950년대 동해 제빙 냉동 공장



<사진 173> 장사동 소재 신화식품 공장

<표 23> 영랑동 장사동 수산물 주요 가공업체 현황

년도	업체명/업체수	공장소재지	대표자	품목	비고
1963	부식공업/4			오징어포, 간장, 명란	속초시 전체 통계
1973	수산물 가공업/9			조미오징어, 염장식품, 통조림	속초시 전체 통계
1984	수산물 가공업/20			조미오징어, 노가리, 명란, 창란	영랑동 통계
1990	풍전실업	영랑동 148-114	이진섭	건포류	영랑동, 장사동 통계
	삼덕식품	영랑동 148-1	송용남	건포류	
	삼일물산	영랑동 149-91	최상길	건포류	
	영진수산	장사동 264-8	유용우	건포류	
	삼해식품	영랑동 148	이영갑	건포류	
	동보식품	영랑동 148-58	이용규	건포류	
	승영식품	장사동 134	이승근	건포류	
	삼우산업	영랑동 148-16	김재욱	건포류	
	우심상사	영랑동 148-45	김진규	건포류	
	우진물산	영랑동 148-14	이영진	건포류	
	이화산업	영랑동 148-41	김복인	건포류	
	한일수산	영랑동 148-43	박재종	건포류	
	한일물산	장사동 637	박홍래	건포류	
	한일식품	영랑동 148-50	김명규	절임식품	
2020	진미식품	장사동 632-3	민형극	절임식품	영랑동, 장사동 통계
	동보상사	영랑동 148-27	임창기	냉동, 냉장	
	신화식품	장사동 사진용촌길23	문은희	절임식품	
	영동식품	영랑동 중앙로 334-5		절임식품	

출처: 『속초통계연보』, 『속초시지』, 속초상공회의



<사진 174> 전 동보식품 공장
(현 장어의 꿈)



<사진 175> 이화산업 공장터
(현, 봉포머구리집 주차장)



<사진 176> 전 동보상사 공장
(현 대창목재)



<사진 177> 전 삼일물산 공장
(현, 해성식품 공장)

4) 농업의 변화

속초시 농업은 1960년대 초까지만 해도 전체 산업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40%에 이를 정도로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 그러나 60~80년대 수 산업의 호황과 90년대 이후 관광산업의 비중이 높아지며 상대적으로 농업의 비중은 급격히 감소하였다. 영랑동·장사동 일대의 농경지도 시가지, 도로포장, 공장, 관광리조트, 골프장 등으로 전환되면서 전체 경지면적이 감소하였다. 또한 도시와의 소득 격차, 생활기반 시설 부족 등으로 급속한 이촌향도가 이루어져 농업 인구의 고령화도 심화되었다. 농촌 인구가 빠르게 감소하면서 농가 1호당 경지면적은 늘어났지만, 노동력이 부족해짐에 따라 휴경지가 증가하고 경지이용률은 줄어들었다.

현재 논농사가 이루어지는 지역은 장천천과 지류인 방축골천을 따라 펼쳐진 소규모의 충적지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밭농사는 하천 인근의 경사지, 영랑호 북부 순환도로 인근의 경사지에 소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다. 60년대~70년대 초까지 영랑호 부근에서 이루어지던 논농사는 영랑동과 장사동의 시가지 확산으로 자취를 감추었고 반농반어촌의 사진리는 관광 어촌으로 완전히 변모하였다.

장천마을은 여전히 논농사 위주의 농촌이지만 이앙기, 콤바인, 트랙터를 이용한 농업의 기계화가 2000년대 이후 완전히 이루어졌고 도시 주민들의 수요에 맞추어 친환경 목초액·키토산쌀을 생산하고, 6차 산업시대를 맞아 친환경 100% 콩을 수확하여 고추장, 간장, 된장, 막장, 청국장 및 상황버섯을 이용한 기능성 장류를 생산하였으며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시행된 ‘강원도 건강·장수 먹을거리 대상 산업’으로 선정되어 농가 소득 증대와 함께 농촌 건강 장수마을의 이미지를 고양 시켰으며 현재는 전통 메주만 생산하고 있다.



〈사진 178〉 1950년대 속초지역 농촌 소 논갈이



〈사진 179〉 1960년대 속초지역 농촌 전통 모심기



〈사진 180〉 장천마을의 트랙터를 이용한 벼베기



〈사진 181〉 장천마을의 이앙기를 이용한 모심기

〈표 24〉 강원도 주요 전통장류 생산업체(년간 생산량 1톤 이상)

속초	장천골 옛날장	영월	두문동 토종된장	고성	전봉 다시마장	평창	우리콩 장사랑
양양	오색옹기장 식품	정선	콩나라, 동트는 농가, 메첼	태백	구문소 전통식품	화천	수향 당미농원
홍천	다온사찰 전통장 우리동네 전통장	양구	해안콩단지 전통장	횡성	구은식품, 횡성콩터 횡성콩마당	인제	백담전통장

출처 : 「강원도민일보」, 2009. 12. 1일자.

〈표 25〉 속초시, 영랑동·장사동 경지 면적 변화

년도	속초시				영랑동/장사동		
	전체면적	합계	논	밭	합계	논	밭
1963	66,000,000 (100.0)	9,414,000 (14.26)	5,869,000 (8.89)	3,545,000 (5.37)	231,000 (0.35)	145,000 (0.21)	86,000 (0.14)
1973	73,854,000 (100.0)	12,334,000 (16.70)	7,223,000 (9.78)	5,111,000 (6.92)	53,000/1,201,000 (0.07)/(1.38)	2,000/673,000 (0.003)/(0.91)	51,000/348,000 (0.067)/(0.47)
1983	104,450,000 (100.0)	10,805,682 (10.34)	6,234,214 (5.97)	4,571,468 (4.37)	66,616/1,190,244 (0.06)/(1.14)	6,440/775,950 (0.006)/(0.74)	60,176/414,294 (0.054)/(0.40)
1993	104,770,000 (100.0)	10,593,555 (10.11)	6,359,088 (6.07)	4,234,467 (4.04)	60,681/979,349 (0.057)/(0.93)	6,440/720,424 (0.006)/(0.69)	54,241/258,925 (0.051)/(0.24)
2003	105,127,000 (100.0)	9,596,810 (9.12)	5,681,746 (5.40)	3,915,064 (3.72)	44,583/962,394 (0.04)/(0.92)	0/709,880 (0.0)/(0.68)	44,583/252,514 (0.04)/(0.24)
2017	105,735,000 (100.0)	8,242,873 (7.79)	4,132,029 (3.91)	4,110,844 (3.88)	27,330/878,570 (0.026)/(0.83)	0/589,998 (0.0)/(0.56)	27,330/288,572 (0.026)/(0.27)

출처 : 『속초통계연보』

5) 수산업의 변화

수산업은 그 내용에 따라 어업·수산양식업·수산제조업 등 크게 3종류로 나누어진다. 그중 어업은 흔히 수산업과 같은 뜻으로 쓰일 정도로 수산업의 근간을 이루는 대표적인 산업이다. 수산양식업은 쓸모 있는 수산동식물을 인공적으로 번식, 증산, 발육시켜 채포하는 육성적 산업을 말하며 양식업은 넓은 의미에서 어업에 포함되기도 한다. 수산제조업은 어업 또는 수산양식업의 생산물을 식료·약품 및 비료 따위의 목적에 이용하기 위하여 가열·살균·염장·냉장 등 간단한 가공처리를 하는 낮은 단계의 제조 산업을 말한다.

우리나라를 강점한 일제는 식민통치 초기부터 본토 어장보다 풍도가 높은 식민지 어장을 개발하는 데 주력하였다. 식민지 수탈정책의 하나로 어업개발 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는데, 그로 인하여 속초를 위시한 동해안 전반의 어업의 질과 양면에서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일제 35년간의 어업자 호구(漁業者戶口)·어선 및 어획고(漁獲高)의 추이는 당시 어업생산의 비약적인 발전상을 잘 나타내고 있다. 이 기간에 어업 호수는 1911년에 5만 8040호이던 것이 1942년에 14만 1883호로 약 2.5배 증가하

였으며, 어업인구는 같은 기간에 18만 2,319명에서 31만 9,628명으로 약 2배 가까이 증대되었다. 또한, 어선은 『조선총독부 통계연보』에 의하면 약 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어업 호수의 증가율에 비해 어선 척수의 증가율이 훨씬 높은 것은 어업 발달의 한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일제 강점기의 속초 연안의 주된 어업은 정어리어업이었으며, 그다음으로는 명태어업·청어어업·대구어업·고등어어업 등이었다.¹³²⁾

이 시기에는 또 일본에서 전래된 어구·어법이 널리 보급되었으며, 조선 시대부터 사용되던 우리나라의 재래식 어구·어법도 개량과정을 거치면서 많이 사용되었다. 당시의 일본식 어구 중에는 수조망·안강망이 특히 많이 보급되고 있었다.¹³³⁾

1910년대 말부터는 어선의 동력화가 시작되어 기선저인망어업(機船低引網漁業)·기선건착망어업(機船巾着網漁業) 등 근대적 대규모 어업이 발달하였다.

기선저인망어업은 명태어업의 주어구이며, 기선건착망어업은 정어리어업의 주어구인데, 이 둘은 당시 근대적 어업의 쌍벽을 이루는 것이었다. 하지만 1970년대까지 무동력선인 전마선(나룻배)과 거룻배(돛단배)가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가까운 연안에서 해조류 채취, 손꽁치잡이¹³⁴⁾, 조개잡이, 양미리 잡이 등 잡어 어획에 큰 역할을 수행하였다.

일제는 근대적 어항 건설에도 주력하여 1921년 대포항, 1929년 외옹치항에 방파제를 갖춘 접안 부두를 건설하였고, 1937년에는 속초항 1기 공사를 완공하여 내항과 외항을 갖춘 현재 모습의 토대를 구축하였다. 이것은 후에 함경도 피란민들이 청호동과 속초항을 기점으로 집단 거주하면서 1963년 시 승격의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였다.¹³⁵⁾

이렇게 속초항을 중심으로 시작된 수산업은 날로 활기를 더해 1955년 속초의 어업인구가 23.9%로, 농업 인구 20.7%를 능가했다. 당시 『속초읍지』 기록에 의하면 어민 가족은 1,146호 5,666명이며, 농민은 895호 4,901명으로 나와 있

132) 네이버 지식백과 참조.

133) 네이버 지식백과 참조.

134) 무동력선을 이용하여 바다풀을 꽁치의 산란장에 띄워 놓았다가 꽁치가 모여들면 열 손가락을 오므려 잡는 원시적 어업

135) 속초문화원, 『속초 수산업의 발전 역사』, 2017, 100쪽 참조.

다.¹³⁶⁾

속초항 제2 방파제는 1978년 착공하여 15년 동안 공사 끝에 1990년대 초반 완공되었고 이어 1998년 장사항 방파제, 2008년 설악항 방파제가 준공되면서, 속초는 6개의 항구를 갖춘 동해안 대표 수산 도시로서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한편 장사동 어촌계는 1993년 연안 목장화 사업의 일환으로 가리비 종폐 197만 개를 살포하여 어촌소득향상에 기여하고 있다.¹³⁷⁾ 1994년에는 가리비, 전복 등 연안 양식업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불가사리 퇴치를 위하여 폐그물을 이용하여 구제틀을 제작하였다.¹³⁸⁾ 또한 연안 어족 자원 증식을 위해 속초수산업협동조합의 지원을 받아 광어(넙치), 조피볼락(우럭), 도루묵, 도치의 치어 방류사업을 지속하고 있다.

2000년부터 사진마을은 장사어촌체험 마을로 명칭을 바꾸고 매년 오징어 맨손 잡기 축제를 개최하여 다양한 체험행사, 어촌계 펜션 운영, 마을 장터에서 홍게 및 가리비 직판으로 전국적 인지도를 넓히고 작지만 아름다운 포구마을로 거듭나고 있다. 청호동 아바이 마을의 변화처럼 속초를 비롯한 동해안의 대부분 어촌은 반농반어촌에서 순수어촌으로 이제는 관광 어촌으로 변모하고 있다.

〈표 26〉 장사동 어선 및 어업인구 현황 비교

년도	어선		어민(어촌계원)	
	동력선	무동력선	남	여
1973	20척	87척	481명	461명
2020	18척	-	50명	20명

출처 : 『속초통계연보』, 장사동 어촌계

136) 속초문화원(2017), 위의 책, 165쪽 참조.

137) 「조선일보」, 1993. 11. 30일자.

138) 「강원도민일보」, 1994. 3. 4일자.



<사진 182> 1950년대 거룻배(무동력선)



<사진 183> 1950년대 전마선(무동력선)

<사진 184> 1967년 대일청구권 자금
어선 진수식<사진 185> 2020년 현대화된 장사항
전경

6) 관광산업의 변화

속초는 예로부터 항·포구를 중심으로 발전한 도시로 어업이 농업과 함께 주요 산업을 이루어 왔다. 오늘날에는 설악산, 동해바다, 영랑호와 청초호, 척산온천 등 천혜의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전국 제1의 관광도시로 우뚝 서게 되었다.

속초가 관광도시로서 성장하게 된 계기는 1970년 설악산 국립공원의 지정, 1980년대 명성콘도(현 한화프라자)를 필두로 차례로 입주한 콘도 건설 뿐, 1986년 척산온천 휴양촌 개장, 1991년 고성 세계잼버리 배후도시로서 교통망 정비, 1998년 교동 먹거리 단지 영업 개시, 1999년 청초호 연안 관광 엑스포 개최, 2006년부터 시작된 중앙시장 현대화 사업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2006년 미시령 터널 완공, 2016년 동해고속도로 속초 연장 개통은 관광객 급증에 기폭제가 되었고, 2021년 동서고속철도와 동해북부선의 착공 확정 등은 속초의 대형 아파트와 관광·숙박 시설의 대규모 확충을 촉발하여 속초시 승격 이래 최대의 건설 붐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편 속초는 전통의 설악문화제를 위시하여 실향민문화축제, 도루묵·양미리 축제, 오징어 맨손잡기축제, 해맞이 축제, 세계기사선수권대회 등 다양한 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다음에서는 장사동·영랑동 관광산업의 중심지 한화리조트, 영랑리조트와 대표적 관광 행사인 ‘오징어 맨손잡기축제’와 ‘세계기사선수권대회’에 대해 간략히 소개한다.

(1) 설악한화 본관(설악 쏘라노)¹³⁹⁾

- (가) 위치 : 속초시 장사동 24-1
- (나) 규모 : 1,900,000m²
- (다) 객실 수 : 768실
- (라) 부대시설 : 워터피아, 대조영세트장, 플라자CC설악
- (마) 등록일자 : 1985년 4월 15일

(2) 설악한화 별관

- (가) 위치 : 속초시 장사동 24-1
- (나) 규모 : 63,681m²
- (다) 객실 수 : 796실
- (라) 부대시설 : 수퍼마켓 등
- (마) 등록일자 : 1989년 7월 24일

(3) 영랑호리조트

- (가) 위치 : 속초시 금호동 600-7번지
- (나) 규모 : 16,416m²
- (다) 객실 수 : 200실
- (라) 부대시설 : 해수사우나, 테니스코트, 별장형 콘도 61동,
영랑호CC 플라자CC설악
- (마) 등록일자 : 1996년 7월 27일

¹³⁹⁾ 속초시사편찬위원회, 『속초시사』(上), 2006, 925쪽 참조.

(4) 오징어 맨손잡기 축제

- (가) 일 시 : 7월 중순~8월 초
- (나) 장 소 : 속초 장사항 일대
- (다) 주 관 : 장사동 청년회, 횟집상가 번영회
- (라) 내 용 : 오징어 맨손잡기, 해조류 표본 만들기, 오징어 요리,
오징어 스토리텔링, 오징어 먹물 글씨 쓰기, 소형통발
채집, 스쿠버 · 스노클링, 바다 속 줄다리기
마을 숙박(어촌계 펜션 등 6곳),
마을 장터(홍게, 가리비 직판)
- (마) 연 혼 : 1998년 제1회 ‘장사항 오징어 맨손잡이 축제’ 개최
2019년 제22회 ‘장사항 오징어 맨손잡이 축제’ 개최
2020년 제23회 축제 – 코로나로 취소



〈사진 186〉 오징어 축제(오징어 맨손 잡기)



〈사진 187〉 오징어 축제(소형통발 채집 체험)

(5) 세계기사선수권대회

(가) 일 시 : 10월

(나) 장 소 : 영랑호 화랑도 체험관광지

(다) 주 관 : 한민족 전통마상무예·격구협회

(라) 내 용 : 궁술 종목(단사, 속사, 연속사), 단체전 - 마사희(馬射戲)와 모구(毛毬), 중동 지역의 전통 기사 경기인 콰바크

(마) 연 혼 : 2004년 ‘제1회 대한민국 화랑 기사대회’로 시작

2005년 ‘국제기사대회’로 변경

2011년 ‘세계기사선수권대회’로 변경

2019년 제15회 ‘세계기사선수권대회’ 개최

2020년 제15회 ‘세계기사선수권대회’ - 코로나로 취소



〈그림 37〉 2019년 제15회 세계기사선수권대회 포스터



〈사진 188〉 세계기사선수권대회 입장식



〈사진 189〉 세계기사선수권대회 마상무예 궁술



〈그림 38〉 산불로 소실된 화랑도 체험장 복구건물 투시도

IV. 문화예술



영랑동 · 동명동과 영랑호

사진제공 전태극

1. 문화의 특징

어느 사회에서나 공통으로 나타나는 생활양식이 있는데, 이것을 문화의 보편성이라고 한다. 인간의 본성에는 공통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이다. 속초 지역은 지역의 범위가 넓지 않기 때문에 대체로 비슷한 문화를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비슷한 문화 속에서도 산촌문화, 농촌문화, 어촌문화가 독특한 형태로 존재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이러한 현상은 속초 지역의 지형적인 영향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영동 지방 지형의 특징이지만 속초 지역 역시 태백산맥으로 인해 동쪽은 절벽과 급경사를 이루고, 서쪽은 완만하고 낮게 형성되는 동고서저 지형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지형적인 특징은 설악산으로부터 동쪽으로 흐르는 하천 주변과 긴 해안선을 따라 취락을 형성하게 했다. 그래서 속초 지역은 설악산을 중심으로 한 산촌문화, 하천을 중심으로 한 농경문화, 해안을 중심으로 한 어촌문화가 나타난다. 이들 지역은 속초 지역의 공통적인 문화 요소뿐만 아니라, 나름대로 각자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을 바탕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영랑동 또한 처한 환경이나 상황은 속초의 다른 지역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이 지역은 농경문화와 어촌문화가 비교적 섞이지 않고 나름대로 발전하여 각 지역의 특별한 문화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영랑동과 관련된 문학이나 예술 작품은 많지는 않다. 눈에 띠는 것은 영랑호와 관련된 문학작품, 특히 한시(漢詩)가 제법 많다는 것이다. 영랑호는 바닷가에 접하고 있고, 금강산 길목에 위치하였기 때문에 금강산을 유람하는 시인묵객들이 영랑호를 보며 노래한 내용들을 남겼다.

또 하나의 특징적인 모습은 속초문화의 중심지라는 것이다. 속초문화예술회관과 문화와 관련된 단체들이 영랑동에 모두 위치하고 있어 문화를 만들 어내고 소비하는 문화 일번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2. 예술 활동

속초시 예술 활동의 중심지는 속초문화예술회관이다. 속초문화예술회관은 1977년 일복문화관으로 개관되어, 1990년 재건축하여 속초문화회관으로 이름을 바꾸었고 2018년 11월에 현대식 시설로 리모델링하여 수준 높은 문화 공연을 선보이는 장소로 자리매김하면서 2019년 속초문화예술회관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종합 공연장의 시초인 일복문화관이 영랑동에 들어서게 되고 관련 문화 단체가 이곳에 함께 자리를 잡게 되면서, 속초지역의 예술 활동이 체계를 갖추게 되고 연구와 공연 문화가 정착하게 되었다.

속초시의 예술 활동은 1963년 시 승격 이전에는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로 대부분 개인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한 지역의 예술 활동은 문화적 인식도가 높은 몇몇 아마추어 동호인들에 의해 이루어지게 되는데 속초지역도 이와 비슷한 과정을 겪었다. 초창기의 지역 예술 활동은 대체로 교사들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이는 교사가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집단이고 동아리 조직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쉽기 때문이었다.

1963년에 ‘예총속초지부’가 구성되었다. 당시 사진작가였던 최구현을 대표로 이 단체는 60년대 속초 예술계를 이끌어간 견인차 역할을 하였다. 이후 1965년 3월에는 속초문화원이 설립되어, 속초의 문화를 본격적으로 연구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을 시작하게 되면서 속초문화의 틀을 갖추기 시작하였다.

또한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속초지부(속초예총)가 1989년 중앙 인준으로 설립되어 속초의 예술문화 활동에 많은 기여를 하게 되었다. 설립 당시 회원협회는 문인, 미술, 연극, 연예의 4개 협회로 구성되었다. 이후 1995년에는 민예총이 창립되어 예술 활동의 다양화에 이바지하였다. 1990년에는 속초문화회관 별관 1층에 전시회장이 마련되었다. 전시회장 마련과 함께 미술, 사진 예술인들의 활동이 전시회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이처럼 속초의 예술 활동은 영랑동에서 만들어지고 소비되고 있다. 예술활동의 불모지였던 속초에서 영랑동에 소재하고 있는 문화 단체와 공연장은 속초문화의 메카로서 지역 문화를 이끌어왔다. 이와 함께 2020년에는 속초문화의 미래를 설계할 속초문화재단이 설립되어, 속초문화 르네상스를 꿈꾸게 하고 있다.

3. 영랑호의 문학

영랑동의 문학(文學)은 영랑호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다. 여기에는 경기체가를 포함하여 한시 61수를 정리하여 실었다.

기존의 번역되어 있던 작품 20여 수도 함께 수록하였으며, 그 외 40여 작품을 번역하여 작자와 함께 소개한다.

김창흡(金昌翕)

屏張萬岫海開門
沙阜成臺衆妙存
漢將廻時三日哭
至今猶記契玄言

험한 봉이 에워싸도 바다 길은 열렸고
모래언덕 누대에는 묘한 이치가 있네
한나라 장군이 돌아갈 때 사흘을 울었다고¹⁴⁰⁾
지금도 전하는 기록이 남아있네

『삼연집(三淵集)』 제11권

永郎湖 <영랑호>

新種萬株松
下夾湖水長
東有皓沙積
瀛海隱其聲
中湖見葢翠
雪岳汎汎光
何以泛輕舟
剗彼海沙棠
湖本有好名
游者是永郎
永郎豈遠人
彼湖在湖傍

새로이 만 그루 소나무 심으니
아래로 호수 끼고서 길도다
동쪽 흰 모래섬 있고
바다 그 소리 감추네
중호가 푸른빛 드러내고
설악이 두둥실 빛나네
어떻게 가벼운 배 띄워서
저 모래톱 해당화 도려낼꼬
호수 본래 좋은 이름 있으니
유랑자가 영랑이라
영랑이 어찌 사람과 멀겠는가
저 호수가 호수 가에 있네

『삼연집습유(三淵集拾遺)』 제1권

140) 김창흡 선생이 이 시를 설명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曾聞玄言. 漢將見此湖. 稱以天下絕境. 留連忘返. 及其解陣去也. 三日沿湖而哭. 일찍이 현언(玄言)을 듣기로 ‘한나라 장군이 이 호수를 보고 천하의 절경이라 일컬고는 연이어 머물며 복귀를 잊었는데 그 군진을 해체하고 떠남에 이르러 사흘 동안 호수를 거닐며 곡하였다’고 한다.>

【작자소개】 김창흡(金昌翕, 1653~1722)

조선 후기의 학자이다. 속초와 깊은 인연을 맺고 있는 인물로, 영의정 수행(壽恒)의 셋째 아들이다. 15세에 이단상의 문하에서 공부하고 19세(1671) 되던 해에는 천태부를 읽다가 갑자기 산수의 흥취가 일어 형 김창협과 금강산의 모든 경관을 두루 관람하고 돌아오기도 했다. 현종 14년(1673) 진사시에 합격하였으나 벼슬을 멀리하고 주로 설악산 등 산수에 노닐었다. 기사환국(1689) 때 아버지가 사사되자 형 창집·창협과 함께 영평에 은거하였다. 후에 관직이 내려졌으나 모두 사양하였다. 성리학에 뛰어나 형 창협과 함께 이이 이후의 대학자로 이름을 떨쳤다. 주요 저서로는 『삼연집』, 『심양일기』가 있다.

안축(安軸)

永郎浦泛舟 <영랑호에서 배놀이>

平湖鏡面澄	평평한 호수는 거울처럼 맑고
滄波凝不流	푸른 물결은 엉기어 흐르지 않네
蘭舟縱所如	아름다운 배는 마음대로 흘러가고
泛泛隨輕鴻	물위에 뜬 기러기 빨리도 따라 오네
浩然發清興	맑은 물결 크게 일어나니
沂洄入深幽	물을 거슬러 깊은 곳으로 들었네
丹崖抱蒼石	붉은 절벽에 푸른 바위 서 있고
玉洞藏瓊洲	아름다운 골에는 고운 모래톱 펼쳐 있네
循山泊松下	산을 돌아 푸른 솔 밑에 머무르고
空翠涼生秋	울창한 푸른 기운 서늘한 가을을 주네
荷葉淨如洗	연꽃잎은 씻은 듯 아름답고
葚絲滑且柔	순채나물은 미끄럽고 부드럽네
向晚欲廻棹	해 저물어 배머리 돌리려 하네
風烟千古愁	좋은 경치 천고의 수심을 내네.
古仙若可作	옛날 영랑의 선도 다시 올 수 있다면
於此從之遊	여기서 그를 따라 놀겠노라

『근재전집(謹齋全集)』

北行泛永郎湖 <8월4일 북으로 가다 영랑호에서 배를 띄우고>

暮雲半卷山如畫	저문 구름 반쯤 걷으니 산은 구름 같고,
秋雨新晴水自波	가을비가 새로 개이니 물결 절로 생기네
此地重來難可必	이곳에 거듭 올 것을 가필할 수 없으니
更聞虹上一聲歌	배 위의 노래 한 곡조 다시 듣노라.

『근재전집(謹齋全集)』

관동별곡

안축

5장 永郎湖 <영랑호>

仙遊潭 永郎湖 神清洞裏	선유담, 영랑호, 신청동 안으로
綠荷洲 靑瑤嶂 風烟十里	푸른 연잎 자라는 모래톱, 푸르게 빛나는 뗏부리, 십 리에 서린 안개
香冉冉 翠森森 琉璃水面	바람향내는 향긋, 눈부시게 파란 유리 물결에
爲 泛舟景 幾何如	아, 배 띄우는 모습 그 어떠합니까
蓴羹鱸膾 銀絲雪縷	순채국과 농어회, 은실처럼 가늘고 눈같이 회개 써네
爲 羊酪 豈勿參爲里古	아, 양락(羊酪)이 맛지단들 이보다 더하리오

『근재전집(謙齋全集)』

【작자소개】 안축(安軸, 1282~1348)

고려 말기의 문신으로 밀직사지사·첨의찬성사 등을 지냈다. 충렬·충선·충숙 3조의 실록 편찬에 참여하였다.

충숙왕 17년(1330) 강릉도존무사로 근무하면서 관동 지방의 뛰어난 경치와 유적을 보고 많은 시와 경기체가인 「관동별곡(關東別曲)」과 「죽계별곡(竹溪別曲)」을 남겼다. 저서로는 『근재집』이 전한다.

문학사에 길이 남을 명작으로 명성이 높은 경기체가 「관동별곡」은 작자가 44세 때 강릉도존무사(江陵道存撫使)로 있다가 돌아가는 길에 관동지방의 뛰어난 경치와 유적 및 명산물에 감흥하여 지었다. 전체 9장으로, 1장 서사, 2장 학성, 3장 총석정, 4장 삼일포, 5장 영랑호, 6장 양양, 7장 임영, 8장은 죽서루, 9장 정선을 노래했다.

이곡(李穀)

영랑호(永郎湖)에서 안근재(安謹齋)의 시에 차운하다

安相清懷黃鶴月	안축은 황학의 달 보고 맑은 회포 풀었는데
李生行止白鷗波	나는 흰 물새 떠 있는 물결보고 가던 길 멈추었네
重來此地誠難必	이곳 다시 오기 참 어려워
空聽關東一曲歌	허전한 마음 안고 한 곡조 관동노래 듣는다.

『가정집(稼亭集)』 제19권

【작자소개】 이곡(李穀, 1298~1351)

고려 시대 문신이다. 목은 이색의 아버지이다. 과거에 합격하여 예문관검열이 되었고, 원나라에서도 과거에 차석으로 급제하였는데 이 때 지은 대책(對策)을 시험관이 보고 감탄하였다.

1334년 본국으로 돌아와 『편년강목』을 증수하고 충렬·충선·충숙 3조의 실록을 편수하였다. 공민왕의 옹립을 주장하였으므로 충정왕이 즉위하자 신변에 불안을 느껴 1348년 관동지방으로 주유하였다. 이곡과 안축은 선후배 사이로 서로 친한 관계였는데, 이곡은 안축의 경로를 되짚어가며 유람하였다.¹⁴¹⁾

『동문선』에는 100여 편에 가까운 이곡의 작품들이 수록되어 있는데, 그 중 「죽부인전(竹夫人傳)」은 가전체문학의 대표적인 작품이다. 저서로는 『가정집』 이 전한다.

이 시에서 작자는 “안 정승[安相 안축을 말함]은 황학(黃鶴)의 달을 보았고, 이생(李生 이곡 자신을 말함)은 흰 갈매기를 보았다.”라는 문구로 안축과 자신을 비교하여 처연하게 느껴지는 자신의 감정을 이렇게 말하였다.

141) 이곡은 1349년(충정왕 1) 52세 가을에 관동지방(關東地方)을 여행하고 기록한 「동유록(東遊錄)」에는 “초이렛날에 주인이 선유담(仙遊潭) 위에서 작은 술자리를 베풀었다. 청간역(淸澗驛)을 지나 만경대(萬景臺)에 올라가서 약간 술을 마시고 인각촌(仁覺村)의 민가에 묵었다. 초여드렛날에 영랑호(永郎湖)에 배를 띠웠다. 날이 기울어서 끝까지 돌아보지 못하고, 낙산사(洛山寺)에 가서 백의대사(白衣大士 관세음보살)를 참알(參謁)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식(李植)

영랑호에서

名區無數海山東
都在群仙管領中
何許永郎專此水
至今游客遡餘風
攢天雪嶽涵波白
隔岸扶桑射暈紅
玉膾金蠶樽蟻綠
未須料理轉丹功

명승지들 무수히 해산 동쪽에 널려 있어
이 모두를 신선들이 손에 넣고 있는 터에
어찌하여 영랑은 이 호수를 독점하여
지금껏 풍류객들 뒤따라 다니게 하였는고
하얀 물빛 머금고 하늘을 찌르는 설악이요
붉은 햇무리 반사되는 저쪽 언덕 부상이라
나물국 생선회에 동동주면 그만이지
구태여 구전단(九轉丹)¹⁴²⁾을 만들 필요 뭐 있으랴

『택당집(澤堂集)』 속집 제4권

【작자소개】 이식(李植, 1584~1647)

조선시대 대사헌, 예조판서 등을 역임한 문신이다. 임금의 종실을 사사로이 기리고 관직을 이유 없이 높이는 일이 법도에 어긋남을 논하다가 인조의 노여움을 사 간성현감(1631~1633)으로 좌천되기도 했다. 그는 신흠 · 이정구 · 장유와 함께 한문사대가로 불린다. 저서로는 『택당집(澤堂集)』 등이 있으며, 고성군의 역사를 기록한 『수성지(水城志)』의 저자이기도 하다.

그는 각 체에 모두 능숙하여 많은 작품을 남겼는데, 대체로 정경의 묘사가 뛰어나고 직서적인 것이 많다.

142) 구전진금단(九轉真金丹)을 말한다. 9번 고와 만든 신선이 되는 약으로, 장생불사(長生不死)하는 약이라 한다. 두보의 시에 등장한다.

구사맹(具思孟)

百頃清湖鏡面平
扁舟載興泛空名
當時只擬遊踪祕
饒舌何人強揭名

백경이나 맑은 호수 거울처럼 고요한데
조각배에 흥취 싣고서 달밤 뱃놀이 하네
당시 놀았던 그런 자취 사라지고 없건만
어찌 구구히 영랑호라고 이름을 지었는가

『간성군읍지(杆城郡邑誌)』

【작자소개】 구사맹(具思孟, 1531~1604)

구사맹은 16세기 말에 활동한 문인. 벼슬은 동부승지, 좌찬성에 이르렀다. 시문에 뛰어났으며, 시문집으로 『팔곡집』이 전한다.

이 작품은 1589년(선조 22) 봄에 작가 나이 59세에 강원도관찰사로 임명을 받아 공무 중 각 고을을 순행하는 길에 간성지역의 승경을 읊은 시이다. 수성팔절(遡城八絕)에는 여덟 개의 간성의 명소를 절창하였는데 제재를 보면 영랑호(永郎湖), 무진대(無盡臺), 만경대(萬景臺), 능파대(凌波臺), 선유담(仙遊潭), 화진포(花津浦), 명사로(鳴沙路), 무송정(茂松亭) 등의 순이다.

허균(許筠)

留贈巫山張玉娘 <무산 장옥랑과 작별하며 짓다.>

天吼山前草正芳 永郎湖畔落花香 畫舫載得春歸去 吹徹鸞簫向帝鄉	천후산 앞에는 풀이 정히 꽂다운데 영랑호 호숫가 지는 꽃이 향기롭네 놀잇배에 봄을 가득 싣고 돌아가니 옥통소 드높아 하늘나라로 향하는 구나
--	--

『성소부부고(惺所覆瓿藁)』

【작자소개】 허균(許筠, 1569 ~ 1618)

조선중기 문신으로 예조참의, 좌참찬 등을 역임하였다. 강릉에서 태어났으며, 시문에 뛰어난 천재 여류시인 허난설현(許蘭雪軒)의 동생이다. 그의 한글 소설 『홍길동전』은 사회모순을 비판한 조선시대 대표적 걸작으로 알려져 있다. 작품으로 『교산시화』, 『성소부부고』 등이 있다.

이 시는 천후산(울산바위)의 풀과 영랑호의 꽃이 어우러진 봄날에 호수에 배를 띄워 유희를 즐기는 여유가 돋보이는 작품이다. 여기에 옥 같은 통소 소리가 하늘로 날아오르는 광경이 금상첨화를 이룬다.

김시보(金時保)

永朗湖 和淵翁韻 <영랑호에서 연옹(淵翁)의 운자에 화운하다>

不見羽衣徒	우의(羽衣)의 무리 보이지 않아서
還尋永朗湖	영랑호를 찾았네
澄鮮開別界	징선(澄鮮)이 별세계 열고
紫翠幻新圖	자취(紫翠)가 경치 그림 현란케 하네
風氣羣游鯉	풍기(風氣)는 노니는 잉어 떼요
波紋幾點鳧	파문(波紋)은 다니는 오리 몇이라
流暉生雪巘	흐르는 세월에 눈 봉우리 생기니
恍惚在冰壺	황홀히 빙호(冰壺)에 있구려.

『모주집(茅洲集)』 제5권

영랑호에서 <永朗湖>

神嶽千重雪	신산 천겹 눈
滄溟一帶沙	창해 한줄기 모래섬
明湖上下穩	맑은 호수 위아래 평온하고
隱瀑半邊斜	숨은 폭포 반쯤 기우뚱
仙子遊成號	신선 유람 호칭 이루니
將軍哭忘家	장군 통곡 집안 잊었네
高臺我亦愛	높은 누대 나도 아끼니
行見數椽加	장차 몇 칸 집 더하리라

『모주집(茅洲集)』 제5권

【작자소개】 김시보(金時保, 1635~1716)

조선 후기의 문신. 공조좌랑·무주부사·고성군수 등을 역임했다. 풍류를 좋아하고 진경시에 뛰어났다. 문집에 『모주집』이 있다.

저자의 행적을 살펴보면 1711년(숙종 38) 8월에, 김창흡, 정동후, 정선 등과 금강산을 한차례 유람하였다. 이듬해 7월 양구현감으로 부임하면서 9월에는 설악산을 유람하였다. 11월에 간성군수(杆城郡守)로 임명을 받았으나, 임소에는 12월 18일에 도임되었다. 1713년 봄에는 간성지역의 영랑호, 화암사 등지에서 막역한 사이로 지내는 김창흡과 수창(酬唱)¹⁴³⁾하면서 금강산 유람에 동행 하였다. 김창흡은 저자의 시에 대하여 평하기를 “그의 시는 성령(性靈)에서 발하는 것이 충담(沖淡)하고 광원(曠遠)하여 왕왕 대아(大雅)와도 같다.”라고 하였다. 이 세 개의 작품 또한 간성군수로 재직할 때 쓴 것이다.

143) 시가(詩歌)를 서로 불러 주고 받음.

이민구(李敏求)

영랑호에서

名湖據坤軸	이름난 호수 지축에 자리 잡아
萬頃浸空曲	만경창파 빈 골짜에 파고들었네
西剗大嶺蟠	서쪽으로는 서린 대관령을 깎아 먹고
旁占滄溟蹙	옆에는 푸른 바다 가깝구나
天地所委鑿	천지가 처음 만들었을 적에
未始分清濁	처음부터 청탁이 나뉘지 않았으니
環泓浩涯涘	둥근 못이 드넓게 펼쳐져
百物俱含蓄	만물을 모두 함축하였네
關東富淵澤	관동에는 호수 많아
氾濫日在目	넘실대는 물결 날마다 보지만
及此獲漾淼	여기 와서 까마득히 넓은 물 보니
茫然喪前矚	앞서 본 것들 아련히 잊게 된다
冥濛秋靄集	자욱하게 가을 안개 깔려
水與空色緣	물과 하늘 어우러져 푸르다
隱見洲階多	숨었다 나타났다 모래섬 많아
沿溯迷隈隩	오르내리려니 물굽이 알 길 없다
嘗聞古仙人	일찍이 듣자니 옛 선인이
遊戲茲區僻	여기 외진 곳에서 놀았다지
永郎不重來	영랑이 다시 오지 않으니
孰睹飄車迹	누가 신선 마치 보았으랴
未暇寄遐想	아득히 상상할 겨를도 없이
感歎造化績	조화옹 솜씨에 감탄하네
崇深鍾自然	높은 산 깊은 물 자연스레 만들어져
禹功謝疏闢	우 임금 공로에도 열리기를 마다했네
四海受群流	사해가 모든 강물을 받아 주니

實惟宇宙橐
奈何巨壑外
別開龍龜域
限以方丈間
鹹淡性分易
我欲決堤防
渾淪使不隔

실로 우주의 주머니이거늘
어찌 이 거대한 골짜 밖에
따로 용과 맹꽁이 사는 영역 열었나
방장산 사이를 한계로 삼아
염수와 담수로 성질 나뉘네
나는 제방을 터서
모두 섞어 막히지 않게 하고파라

『동주집(東州集)』 제7권 / 「관동록(關東錄)」

【작자소개】 이민구(李敏求, 1589~1670)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문장이 뛰어나고 사부(詞賦)에 능했다. 도승지, 예조 참판 등을 역임하고, 마지막 관직으로 병자년(1636년, 인조 14)에 관동 절도사(關東節度使)를 지냈다. 저술을 좋아해서 평생 쓴 책이 4,000권이 되었으나 병화에 거의 타버렸다 한다. 저서로는 『동주집(東州集)』, 『독사수필』 등이 있다.

이 작품은 1635년(인조 13) 7월에 강원도관찰사(江原道觀察使)로 임명받고 관동지역을 순행하면서 남긴 것으로, 작가는 금강산을 유람한 후에 「관동록(關東錄)」을 남겼다.

채제공(蔡濟恭)

竝海雲屏曲曲奇
練痕翻動夕陽時
仙輶漠漠來何日
煙雨春波到處疑

바다 덮은 구름 병풍 굽이굽이 기이하니
석양에 하얀 명주 나부끼는 것만 같네
아득해진 신선 수레 언제 다시 오려는가
안개비와 봄 물결에 곳곳마다 나타날 듯

『번암집(樊巖集)』 제5권

【작자소개】 채제공(蔡濟恭, 1720~1799)

18세기에 활동한 문인이자 정치가로서 벼슬은 영의정을 지냈다. 재능 있는 문필가로서 『영조실록』, 『국조보감』 등을 편찬하는데 참가하였으며, 시문집으로는 『번암집(樊巖集)』이 전한다. 조선시대 기인 화가로 알려진 최옥 등 벗들과 함께 금강산을 유람할 때 영랑호에 들른 것으로 추정된다.

정두경(鄭斗卿)

영랑호

風高葉落鴈相呼
 爲訪仙人東海隅
 千載帝鄉消息斷
 白雲猶在永郎湖

바람 불어 잎새 지자 기러기 서로 부르는데
 신선들을 찾아보러 동해 바닷가에 왔네
 천년토록 제향에선 소식이 다 끊겼는데
 흰 구름은 아직까지 영랑호에 남아 있네

『동명집(東溟集)』 제2권

【작자소개】 정두경(鄭斗卿, 1597~1673)

조선 중기의 문인·학자·시인이다. 부수찬·정언 등을 역임하였으며, 이 조판서, 대제학을 추증하였다. 저서로는 『동명집(東溟集)』 26권이 있다.

영랑호를 노래한 이 시는 가을철 낙엽이 지고 기러기가 우는 분위기에 신선을 찾는 작가의 모습은 다소 쓸쓸하기까지 하다. 하지만 영랑호 수면에 구름이 남아 있으니 나그네 마음에 다소 위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성현(成僕)

영랑호

平海隱隱傍東溟
到處翻疑地有靈
浪湧桃花風裏白
山橫螺影水邊清
胸中八九吞雲夢
眼底微茫隘洞庭
千載仙蹤尋不得
野棠如錦滿回汀

넓은 바다 아스라이 동해 곁에 자리했는데
간 곳마다 문득 지령이 있는가 의심케 하네¹⁴⁴⁾
도화수 물결은 솟구쳐 바람 속에 하얗고
소라 모양 비낀 산 그림자는 물가에 맑아라
가슴 속엔 운몽택 여덟아홉을 집어삼키고¹⁴⁵⁾
눈 밑은 아스라하여 동정호도 좁아 보이네
천년 전 신선의 자취는 찾을 길이 없는데
비단 같은 해당화만 물가에 가득 피었구나

『허백당집(虛白堂集)』 제10권

【작자소개】 성현(成僕, 1439~1504)

조선 전기의 정치가·학자이다. 형조참판, 강원도관찰사 등을 역임하였다. 그는 음률에 정통하여 유자광 등과 당시의 음악을 집대성하여 『악학궤범』을 편찬하였다. 저서로는 『허백당집(虛白堂集)』이 있다.

작자의 강원도 행력은 대체로 두 시기에 걸쳐 이루어졌다. 첫 번째는 1481년(성종 12) 4월에 일로서 함께 파직된 채수와 함께 관동 일대를 유람하였으며, 두 번째는 1483년(성종 14) 11월에 강원도관찰사가 되었는데 이 작품은 첫 번째 시기에 쓰여진 것이다.

144) 간 하네 : 지령(地靈)은 토지 산천의 영수(靈秀)한 기운을 말한 것으로, 즉 가는 곳마다 영수한 기운이 있어 보인다는 뜻으로 한 말이다.

145) 가슴속엔 집어삼키고: 운몽택(雲夢澤)은 옛날 초(楚)나라에 있었다고 전하는 일곱 군데의 거대한 소택(沼澤) 중의 하나이다. 사마상여(司馬相如)의 〈상림부(上林賦)〉에 “초나라에는 일곱 군데의 늪이 있어, 그중에 하나인 운몽택은 사방이 구백 리인데, 운몽택 같은 것 여덟아홉 개를 삼키어도 가슴속에 조금도 거리낌이 없다.〔楚有七澤 其一曰雲夢 方九百里 吞若雲夢者八九 其於胸中曾不帶芥〕”라고 한 데서 온 말로, 전하여 포부가 아주 웅대함을 의미한다. 《漢書 卷57上 司馬相如傳》

이상질(李尙質)

영랑호를 보고 〈觀永郎湖〉

羽衣初綰白雲邊	흰 구름 가에 신선의 옷을 엮고
匹馬東來意渺然	동쪽 땅에 홀로오니 뜻은 묘연하구나
日落沙明湖水闊	해진 뒤 밝은 모래벌의 호수는 넓고
不知何處問神仙	어디서 신선을 물어야 할지 알 수 없구려

『가주집(家州集)』 제1권

【작자소개】 이상질(李尙質, 1597~1635)

조선 중기 인조 때의 문신이다. 1616년(광해군 8) 진사가 되었으나, 광해군의 실정에 세상을 버리고 강원도에 은거하였다. 인조반정 이후 성균관에 입학했고, 성균관 교리 등을 역임하고, 암행어사로 북관(北關)에 다녀왔다. 인조가 사친을 추숭하고자 하는 것을 극간하다가 유배되었다. 문집 『가주집(家洲集)』이 있다.

작자는 1618년(광해군 10) 22세 때인 여름, 장인인 양양부사(襄陽 府使) 정엽(鄭暉)을 따라 금강산을 유람하였다. 이 시는 그때 지은 것으로 생각되며 화랑 영랑의 이야기를 빗대어 해질 무렵 흰 구름은 신선의 옷과 같이 아름다운데 홀로 당도하니 생각이 묘연하다고 노래했다.

이세구(李世龜)

行盡長松沙岸東
澄清瀟洒竟無風
明湖一曲眞如畫
雪嶽千峰倒鏡中
歷遍金剛萬二岫
海棠千里踏鳴沙
永郎湖畔初開眼
手拍瓊壺浩浩歌

모래사장 동쪽 솔밭을 지나면
깨끗하고 맑은 곳에 바람도 없네
호수는 맑아서 한 폭의 그림 같고
설악의 천봉이 거울 속에 잠겼네
금강산의 만이천봉을 두루 돌아서
명사 천리 해당화 길 밟고서 왔네
영랑 호반에 서니 시계가 열려
술동이 장단 치며 호호가를 부른다.

『양와집(養窩集)』

영랑호(永郎湖)

行盡長松沙岸東
澄清蕭洒更無風
明湖一曲眞如畫
雪岳千峰倒鏡中
歷遍金剛萬二岫
海棠千里踏鳴沙
永郎湖畔初開眼
手拍瓊壺浩浩歌

높은 솔 모래 언덕 동쪽까지 다 오고 보니
깨끗하고 쓸쓸하게 다시는 바람 없도다
맑은 호수 한 굽이 참으로 그림 같고
설악(雪岳) 천 봉우리 거울 속 거꾸로 비치네

『양와집(養窩集)』

또又

歷遍金剛万二岫
海棠千里踏鳴沙
永郎湖畔初開眼
手拍瓊壺浩浩歌

금강산 만이천봉 두루 돌아보고
해당화 천리 길 백사장 밟는구려
영랑호 가에서 비로소 눈 뜨니
손으로 경호(瓊壺)¹⁴⁶⁾ 치며 크게 노래하네

『양와집(養窩集)』

146) 경호(瓊壺) 술호리병을 말한다.

【작자소개】 이세구 (李世龜, 1646~1700)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 이항복(李恒福)의 증손이다. 예산현감, 홍주목사 등을 역임하였다. 저서로는 『양와집(養窩集)』 13책이 있다.

1691년(숙종 17) 46세 때인 가을에 금강산과 동해안을 유람하였고, 유람기와 시 모음집을 지어 각각 「동유록(東遊錄)」이라고 했다.

이 시들은 한 폭의 그림 같은 영랑호에 설악산이 물속 그림자로 담겨있는 모습을 아름답게 표현하였다. 금강산을 돌아보고 동해안 명사십리를 밟고 왔기 때문에 어지간한 경치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영랑호에 당도하니 눈이 열렸다고 하였다. 이는 영랑호의 아름다움이 금강산 경치에 뒤지지 않는다는 극찬의 표현이다.

이몽규(李夢奎)

영랑호에서 <永郎湖>

平湖淨色明如鏡	잔잔한 호수 깨끗해 거울처럼 맑은데
雪岳晴峰擁作屏	설악산 맑은 봉우리 병풍처럼 둘러있네
笙鶴千年消息斷	신선 불던 피리 소리 천년토록 소식없거늘
空留片日照滄濤	조각달만 허공에 남아 맑은 물 비친다.

『노재집(魯齋集)』 제1권

【작자소개】 이몽규(李夢奎, 1510~1563)

조선전기 사인이다. 생원 3등으로 합격하여 성균관(成均館)에 들어갔으나, 얼마 있지 않아 나왔다. 1547년(명종 2) 처가의 별장이 있는 보령으로 이주하였다. 그곳에 서실을 짓고 오직 독서와 시 짓기에 전념하였다.

이 시는 영랑호 수면과 설악산 봉우리가 조화를 이룬 가운데 신선의 자취는 오래 되어 희미하다. 단지 하늘의 조각달과 푸른 바다만 조용하고 있는 광경이다.

홍유손(洪裕孫)

生先檀帝戊辰歲
眼及箕王號馬韓
曾與永郎遊水府
又牽春酒滯人間

단군이 나라 세운 무진년보다 먼저 나서
기왕이 마한이라 일컬음을 직접 보았네
영랑과 함께 머물며 바다에 노닐다가
또 봄술에 끌려 인간 세상에 머물도다

남효원, 「유금강산기(遊金剛山記)」

【작자소개】 홍유손(洪裕孫, 1431~1529)

조선 전기의 학자이며 김종직의 문인이다. 남양(南陽)의 아전 집안이나, 문장에 능해 남양 부사로부터 이역(吏役)을 면제받았다. 세조의 찬위 후 세속적 영화를 버리고 남효온, 이총, 이정은, 조자지 등과 모임을 갖고 죽림칠현을 자처하여 청담파(淸談派)로 일컬어졌다.

도보로 영남까지 가서 김종직 선생에게 두시(杜詩)를 배웠는데, 선생이 이르기를, “이 사람에게는 벌써 안자(顏子)가 도(道)를 즐기던 곳이 보인다.”고 하였으므로, 학자들이 모두 그를 높이었다.

홍유손의 친구인 남효원이 영동에 놀러온다는 말을 듣고 미리 이 시를 써놓고 그를 기다렸다고 한다. 영랑과 노닐었다는 말 속에는 자신이 신선의 신분이라는 것을 은근히 드러낸다. 오랜 세월 신선과 노닐다가, 이즈막에 봄술에 끌려 인간 세상에 머무른다는 것이다. 홍유손은 설악산 바위에 이 시를 써놓고 남효온과 함께 신선이 된 것처럼 세상을 관조하였다.

허난설헌(許蘭雪軒)

채련곡(採蓮曲)

秋淨長湖碧玉流
 蓮花深處繫蘭舟
 逢郎隔水投蓮子
 或被人知半日羞

가을에 맑은 호수를 옥돌처럼 흘러가고,
 연꽃 피는 깊은 곳에 난초 배를 매놓고서,
 당신보고 물 건너 연꽃을 던졌는데,
 혹시 남이 알까봐 반나절 부끄럽네.

허균(許筠), 『성소부부고(惺所覆瓿藁)』

【작자소개】 허난설헌(許蘭雪軒, 1563~1589)

조선 중기 선조 때의 시인. 강원도 강릉에서 출생하였으며, 허균(許筠)의 누나이다. 불행한 자신의 처지를 시작으로 달래어 섬세한 필치와 독특한 감상을 노래했다.

이 시는 가을날 맑은 호수에 배를 띄워 풍류를 즐기며 임을 향한 애정을 조심스럽게 표출하고 있다. 여류시인의 작품답게 애틋하고 섬세한 감정 표현이 시의 맛을 더한다.

배삼익(裴三益)

永朗湖 <영랑호>

天吼山頭雲漠漠
永郎湖上雨絲絲
一聲長笛蘭舟晚
自在中流任所之

천후산 정상에 구름 아득하고
영랑호 가에 비 가늘어라
긴 피리 소리 하나 저녁에 배 띄우니
중류에 떠서 멋대로 간다

湖上奇巖矗作峯
峯頭何處覓仙蹤
海天雲盡三更月
松桂林中欲往從

호수가 기암 봉우리마냥 솟았는데
봉우리 어디서 신선 종적 찾나
바다 위 구름 걷힘에 삼경의 달이라
소나무 계수나무 숲속에서 따라 가 보고 싶어라

飄飄無定爾沙鷗
南渚驚飛北渚遊
誰識使君機事斷
十年湖海一虛舟

정처 없이 떠도는 이 모래 갈매기
남쪽 모래서 놀라 날고 북쪽 모래서 노니네
누가 알랴 사군(使君)께 기사(機事) 끊겨
10년의 호해 생활 일개 빈 배임을

『임연재집(臨淵齋集)』 제2권

【작자소개】 배삼익(裴三益, 1534~1588)

조선 전기 양양부사, 사헌부장령 등을 역임한 문신. 저서로는 시문집인 『임연재문집(臨淵齋文集)』 6권이 있다.

작가는 1581년(선조 14) 48세 때인 5월에 양양부사(襄陽府使)로 나갔다가 재직 시에 임소인 양양을 비롯하여 간성의 선유담, 청간정, 영랑호 등지에서 지은 시가 있고 금강산을 유람하고 「관동록(關東錄)」을 지었다.

오윤환(吳潤煥)

遊永郎湖 <영랑호에서 노닐다>

有是永郎有是湖	영랑도 있고 호수도 그렇게 있으니
宜將勝載輿圖	좋은 경치 지도에 실림이 마땅하네
綠波心靜開菱鏡	푸른파도 마음 고요 능형 거울 열리고
皓月光生映玉壺	흰 달빛 빛나서 술병을 비추는구나
能令遊子詩相和	나그네 시 지어 화답할 수 있으니
每到良辰酒以娛	언제나 좋은시절 술마시며 즐기네
巖下茶煙清欲歇	바위아래 차 끓는 연기 맑음 다하고
悠然坐聽櫂歌呼	유연히 앉아서 뱃노래를 듣고 있네

『매곡유고(梅谷遺稿)』

遊永郎湖韻 <영랑호에서 노닐며 시를 쓰다>

探勝何必上高樓	좋은 경치 구경함이 어찌 높은 누각이라
近海游觀興不收	바다에 놀며 구경해도 흥취 다하지 않네
山光凝紫烟其暮	산 빛은 붉게 물들고 저녁연기 오르나니
湖色含清月亦秋	호수빛 맑은 달 품어 또한 가을의 경치네
八景應添輿誌美	팔경을 더함은 동국여지도 아름다움이니
四仙已著道家流	네 명 신선이 나타남은 도가의 사람이라
醉後禪房詩寫訖	취한 후에 선방에서 시 짓기가 끝났는데
更閒向芳洲	다시 한가롭게 나막신 끌고 방주 향하네

『매곡유고(梅谷遺稿)』

영랑호에서 놀며 3월 일

有是永郎有是湖 영랑이 있고 호수도 있으니
 宜將勝槩載輿圖 훌륭한 경치 지도에 실림 마땅하구나!
 緑波心靜開菱鏡 푸른 파도의 마음 고요하니 능형(菱形)의 거울 열려고
 照月光生映玉壺 흰 달 빛나니 구슬 병에 비취네
 能令遊子詩相和 나그네 시 지어 화답할 수 있고
 每到良辰酒以娛 언제나 좋은 시절에 찾아와 술 마시며 즐기네
 巖下茶煙清欲歇 바위 아래 차 끓이는 연기에 맑음이 다하여 하는데
 悠然坐聽櫂歌呼 유연히 앉아서 배노래 소리 듣는다네

『매곡유고(梅谷遺稿)』

영랑호에서 노는 운에 차운하다. 같은 해 8월 일

探勝何必上高樓 좋은 경치 구경함에 어찌 꼭 높은 누각에 오르겠는가
 近海游觀興不收 바닷가에서 놀며 구경해도 흥취 다 겉우지 못한다네
 山光凝紫烟其暮 산 빛은 붉은 색으로 물든 데다 연기 저물녘에 피어오르고
 八景應添輿誌美 여덟 경치 응당 더함은 동국여지도의 아름다움 이고
 四仙已著道家類 네 명의 신선 이미 나타나니 도가의 그 사람이라네
 醉後禪房詩寫訖 취한 뒤라 선방에선 시 짓기 마쳤는데
 更拖閒屐向芳洲 다시 한가로이 나막신 신고 방주로 향하네

『매곡유고(梅谷遺稿)』

영랑호(永郎湖) 보광암(普光庵)의 유도회(儒道會) 운에 차운하다.

을유년 4월 일

煥然斯道復長春	환연한 유교의 도 긴 봄 돌아오니
闡發潛光日益新	잠겼던 광채 드러나 날로 더욱 새롭네
壯志誰環天下轍	장한 뜻으로 누가 천하를 돌아다니며 백성 취할까
窮陰不剝果中仁	궁한 음은 과일 속의 씨는 없애지 못한다네
幽谷喚來鶯是友	깊은 골짜기서 부름은 꾀꼬리 벗 찾음이고
平沙抑立鷺如人	평평한 모래톱에 우뚝 선 갈매기 사람 같구나
團欒此會誠非偶	단란한 이 모임 진실로 우연이 아니니
猶勝追尋野老隣	들 늙은이 이웃 찾는 것 보다 낫다네

『매곡유고(梅谷遺稿)』

【작자소개】 오윤환(吳潤煥, 1872~1946)

오윤환 선생은 조선 후기 속초 출신의 한학자이다. 평생 동안 효행을 실천하고, 교육자·항일운동가로 지냈으며 율곡 이이의 사상을 계승하였다. 1891년부터 1946년까지 55년 동안 매일같이 일기를 썼으며, 서당을 열어 후학들을 지성으로 가르치며 영동지역 문사(文士)들을 만나는 등 학문적 연찬과 가르침을 계속하였다. 1934년에는 마을 앞 계곡에 학무정을 직접 짓고 학자들과 교류하였다. 해주 오씨 선조 중 훌륭한 분들의 위인전기인 『수양가전』 이외에도 『건연침비』, 『학정산고(鶴亭散稿)』, 『도문수록(道門蒐錄)』 등을 남겼다.

속초시에서는 매곡선생 고택 서당을 복원하여 문화재로 등록하고 학무정을 수리하였으며, 매곡 선생의 유물들을 속초시립박물관 특별전시실에 전시하고 지역 인물로 선양하고 있다.

이춘원(李春元)

永郎湖 又贈楓浦 <영랑호. 또 풍포(楓浦)에게 주다>

已得休心法	휴심(休心)의 법 이미 얻어
看公鶴骨清	공을 보니 학 골격이라 맑구려
仙區皆勝迹	신선 세계 다 승적(勝迹)이요
人世摠浮名	인간 세상 다 부명(浮名)이라
浪涌鷗廻渚	물결 솟음에 갈매기 모래톱 돌고
沙鳴馬去程	모래 울림에 말 길 떠나네
永郎湖日暝	영랑호 해 저물어
留醉敍餘情	머물러 취하며 남은 회포 펴노라

『구원집(九畹集)』 제1권

【작자소개】 이춘원(李春元, 1571~1634)

조선 시대 좌승지, 병조참의 등을 역임한 문신. 인목대비를 서궁에 유폐시키려 하자 이를 반대하다가 파직되었다. 인조반정 후 기용되었으나 사양하고 은퇴하였다. 저서로는 『구원집(九畹集)』이 있다.

1608년(선조 41) 38세에 강원도관찰사가 되어 영랑호를 방문하였다. 훌륭한 묘령 감사(妙齡 監司)라는 칭송을 받았지만, 1609년 모친의 병환으로 사직하고 돌아갔다.

이인로(李仁老)

영랑호 <永郎湖>

紫淵深深紅日浴
 萬丈光焰浮暘谷
 晨霞爍石虹貫岩
 蒸作丹砂知幾斛
 娟娟秋水出芙蓉
 皎皎玉牀垂箭鏃
 碧波窮處洞門開
 一徑繚繞三茅腹
 天遙陸斷鸞鶴袁
 悠悠仙樂闡琴筑
 憶昔劉安玉骨輕
 雲間鷄犬相追逐
 仙蹤却恐世人知
 故向枕中寶籞藏
 我生早讀紫霞篇
 恥將白柄尋黃獨
 爐中已試鎔銖火
 鼎裏直教龍虎伏
 不用忽忽騎馬去
 山中邂逅幾人覲

깊고 깊은 자주 빛 영랑호 붉은 해 여기서 목욕함이런가.
 만리 창공에 햇살 뿌리며 동쪽 계곡에 솟아올랐구나.
 돌을 녹이려나 새벽노을 무지개 되어 바위를 뚫었거니
 단사로 변한 붉은 모래 많고 많아 그 몇 섬인가
 잔잔한 가을 물에 연꽃송이 곱게 피어나고
 맑고 맑은 구슬평상에 화살촉 드리웠나
 푸른 물결 끝난 곳에 골문이 열렸는데
 초가 세 채 앞을 지나 오솔길 구불구불
 하늘가 아득히 지평선 너머 난새와 학이 날아가고
 멀리 신선음악 가야금에 실려 들려오네.
 그 옛날 류안은 귀한 풍채 가벼워서
 구름 속에 날아올라 닭과 개를 쫓았는데
 신선이 되는 길을 세상사람 알가 두려워
 배개 속 깊숙이 비기책 감추었다네.
 내가 그 중 자하 편을 남 먼저 몰래 읽었으나
 맨손으로 토란 깨는 격 장차 어찌될까 두렵구나.
 화로에 시험 삼아 불씨를 일구었거니
 솥에 약을 끓여 용과 범도 길들이리.
 총총히 말을 달려 어찌 떠나 버릴손가.
 산중에서 어찌하면 신선 만날 수도 있으리라

『쌍명재집(雙明齋集)』

【작자소개】 이인로(李仁老, 1152~1220)

고려 시대 시인이며 학자. 벼슬은 우간의대부에 이르렀다. 문벌귀족의 가문 출신이지만, 일찍이 부모를 여의고 우여곡절 끝에 관직에 들어섰다. 문학적 역량이 컸음에도 현실에서 크게 쓰이지 못하자, 임춘 등과 ‘죽림고회’를 만들어 시와 술을 즐겼다. 시문집으로 『은대집』, 『쌍명재집』이 있었다고 하나 전하지 않는다. 최초의 시화집인 『파한집(破閑集)』을 저술하여 한국 문학사에 본격적인 비평문학의 길을 열었다.

채수(蔡壽)

영랑포 〈永郎浦〉

奇峯面面畫屏橫
湖水澄澄鏡面平
試問仙眞何處是
青山依舊白沙明

기이한 봉우리 온통 수놓은 병풍처럼 펼쳐있고
호수가 맑고 맑아 거울인 양 평평하도다
한 번 물건대 선진(仙眞) 어디에 있나
청산은 여전하고 백사(白沙) 밟구나.

『나재집(懶齋集)』 제2권

【작자소개】 채수(蔡壽, 1449~1515)

조선 전기 충청도관찰사, 호조참판 등을 역임한 문신. 1477년 응교가 되어 임사홍(任士洪)의 비행을 탄핵했으며, 승지를 거쳐 대사헌으로 있을 때 폐비 윤씨(연산군 생모)를 받들어 훌양할 것을 청하다가 왕의 노여움을 사서 벼슬에서 물러났다.

1481년(성종 12) 33세 때인 4월에 파직되어 강원도 관찰사 성현(成俔)과 함께 금강산을 유람하면서 이 시를 남겼다.

주세봉(周世鵬)

永郎湖次安文貞公韻 <영랑호에서 안문정공¹⁴⁷⁾의 운자에 차운하다>

曲渚回汀瑤草多	모래톱 휘감아 요초(瑤草)가 많고
古亭埋沒水生波	옛 정자에 매몰된 채 물결 일어나네
仙人一去無消息	신선 한 번 떠나 소식 없거늘
雲裏空聞欸乃歌	구름 속 애내가(欸乃歌) 괜히 들리네 (애내곡(欸乃曲) ¹⁴⁸⁾ 소리 들리네)

『무릉잡고(武陵雜稿)』 제2권

【작자소개】 주세봉(周世鵬, 1495~1554)

조선 중기의 문신·학자. 사림 자제들의 교육기관으로 백운동서원을 세워 서원의 시초를 이루었다. 저서에 『무릉잡고(武陵雜稿)』 등이 있다. 이 작품은 1529년(중종24) 3월에 강원도도사로 외직에 부임되었다가 공무 중에 잠시 틈을 내어 관동 지역을 유람하며 남긴 시이다.

147) 안축(安軸)을 말한다.

148) 애내곡(欸乃曲) : 시가(詩歌)의 이름. 애내는 뱃사공들이 노를 적으면서 부르는 노래인데, 당(唐)나라 원결(元結)이 이 곡을 지었다.

홍인우(洪仁祐)

영랑호 <永郎湖>

沙明水碧匯寒流	모래 맑고 물 푸르러 찬 강물 모이고
草軟風輕十里周	풀 연하고 바람 가벼워 십리 에워싸네
羅代永郎何似者	신라 시대 영랑 어떤 자인가
水雲陳迹一鳴鷗	행운유수(行雲流水) 묵은 자취 한 갈매기 울음소리

『치재유고(恥齋遺稿)』 제1권

【작자소개】 홍인우(洪仁祐, 1515~1554)

조선 중기의 문신 · 학자. 1537년에 부친의 권유로 사마시에 응시하여 합격하였으나, 벼슬에 뜻이 없어 대과를 단념하고 학문에 전심했다. 만년에 부친이 병들자 의서를 연구하여 약의 처방을 손수 하였으며, 결국 부친의상을 치르다가 몸을 상해 죽었다고 한다. 이 작품은 1553년(명종 8) 39세 때인 4월에 질부(妹夫) 남언경등과 함께 금강산을 유람하고 「관동록(關東錄)」을 지었다.

유사규(柳思規)

永郎湖逢雨永 <영랑호에서 비를 만나다.>

鏡面澄澄麗景肥	거울면(처럼) 맑디맑아 경치 넉넉한데
客邊行色一簾衣	객지 행색 도롱이 차림이라
纖歌勸盡杯中物	가녀린 노래로 권하여 남은 술잔 다 기울이고
醉領風烟信馬歸	취한 채 풍연 다스려 말 가는 대로 가노라

『상유집上(桑榆集上)』

【작자소개】 유사규(柳思規), 1534~1607)

조선 중기의 문신. 1562년(명종 17)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고, 해주목사 등을 역임하였다. 문집에 『상유집(桑榆集)』이 있다.

작가는 1588년(선조 21) 55세 때인 강릉부사(江陵府使)로 나갔는데, 재직 시에 임소인 강릉을 비롯하여 인근 양양, 간성 지역의 시를 남겼다.

송남수(宋柟壽)

永郎湖 <영랑호>

絶境仙蹤在	절경에 신선 자취 남았으니
誰能繼雅遊	누가 능히 멋진 유람 이을 수 있겠는가.
鶴歸雲萬里	학 돌아감에 구름 만리요
松老月千秋	솔 늙음에 달 천년이라
迥榭臨無地	아득한 정자 무지(無地)에 임하고
平湖澹不流	평평한 호수 고요해 흐르지 않아라
依俙雪岳上	설악산 가로 여전히 아련하니
芝駕至今留	지가(芝駕) 지금도 남아 있네

『송담집(松潭集)』 제1권

【작자소개】 송남수(宋柟壽, 1537~1626)

조선 중기의 문신, 통천군수, 임천군수 등을 역임하였다. 옛 선인의 언행을 초록하여 『검신요결(檢身要訣)』을 저술하였고, 1593년(선조 26) 통천군수(通川郡守)가 되어 관동지역을 유람하면서 시를 남겼다.

안덕린(安德麟)

永郎湖 〈영랑호〉

遙想四仙遊此地
 玉簫吹作紫鸞音
 有懷獨倚三株樹
 湖月涼涼照我心

사선(四仙)이 이곳에 노님을 멀리 상상하니
 옥소(玉簫) 불어 자란(紫鸞) 소리 나네
 감회 있어 삼주수(三株樹)¹⁴⁹⁾ 훌로 기대니
 호수의 달 처량히 내 마음 비추네

『사촌집(沙村集)』 제1권

【작자소개】 안덕린(安德麟, 1563~1609)

조선 시대 유성룡의 문하에서 수학한 학자. 어릴 때부터 총명하여 신동이라는 말을 들었고, 8세 때 시부(詩賦)를 지었다. 1603년 진사가 되었으나 벼슬을 단념하고, 풍기에 낙향하여 학문을 연구하며 제자들을 가르쳤다. 동해 안과 금강산을 유람하고 「영랑호(永郎湖)」, 「청간정간일출(淸澗亭看日出)」 등을 지었다.

149) 삼주수(三株樹)는 신선이 사는 곳에 자란다는 신령한 나무이다. 『史記』 卷28 封禪書.

정엽(鄭暉)

又次永郎湖韻 <영랑호 운애 또 차운하다>

依舊奇巖臥水邊	여전히(예전대로) 기암(奇巖) 물가에 누워있거늘
永郎蹤跡已茫然	영랑의 종적 이미 묘연하네
蒼顏白髮松陰下	창안과 백발 솔 그늘 아래 있으니
太守風流亦是仙	태수의 풍류 또한 신선이네

『수몽집(守夢集)』 제1권

【작자소개】 정엽(鄭暉, 1563~1625)

조선 중기의 문신. 대사헌, 우참찬 등을 지냈다. 저서로 『수몽집』이 있다. 앞에서 소개된 이상질의 사위로서 1618년 장인을 모시고 금강산을 유람하면서 이 시를 남겼다.

이경석(李景奭)

登萬景臺後 與襄高兩使君 同泛永郎湖 <만경대(萬景臺)에 오른 후 양(襄)·고(高) 두 사군(使君)과 함께 영랑호에 배를 띄우다>

萬景登臨罷	만경대에 등림(登臨) 다하니
松沙入畫圖	소나무 모랫길 화폭에 들어서네
斜陽一聲笛	석양빛 한 피리 소리
又泛永郎湖	또 영랑호에 뜨네

『백현집(白軒集)』 제11권

【작자소개】 이경석(李景奭, 1595~1671)

조선 후기 영의정을 역임한 문신. 정묘호란이 발발하자 체찰사 장면(張晚)의 종사관(從事官)이 되어 강원도 군사 모집과 군량미 조달에 힘썼다. 이 때에 쓴 「격강원도사부부로서(檄江原道士夫父老書)」는 특히 명문으로 칭송되었다. 필력이 뛰어나 「삼전도비문」 등을 찬술하기도 하였지만, 사후에 심한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저서로는 『백현집』 등 유집 50여 권이 간행되었다.

이 시는 1651년(효종 2) 9월 23일에 금강산을 유람하고 「해상록(海上錄)」을 남겼는데, 돌아오는 길에 간성에 이르러 열산호(烈山湖), 간성객관(杆城客館), 청간정(淸澗亭)을 소재로 한 시를 남겼다. 작가의 작품 「해상록(海上錄)」 말미에서 “금강산으로부터 돌아오는 길에 해상에서 놀며 짓다.”고 기록하고 있다. (“自金剛歸路 仍作海上之遊”)

윤순거(尹舜擧)

永郎湖 用古韻 <영랑호에서 옛날 운을 사용하다.>

欖松平地小團沙	솔숲 평지 작은 백사장서
未見奇峯插入波	기이한 봉우리 수중에 들어감을 보지 못했지
玉洞丹崖都謾說	옥동(玉洞)의 단애(丹崖) 실없는 말이니
滄浪一曲不須歌	창랑의 한 곡이 노래할 필요 없다네

『동토문집(童土文集)』 속집 제1권

【작자소개】 윤순거(尹舜擧, 1596~1668)

조선 후기 의령현감, 공조정랑 등을 역임한 문신이며 학자. 1633년(인조 11) 사마시에 합격해 내시교관(內侍敎官)에 임명되었으나 직책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나가지 않았다. 1636년 병자호란 때에 아버지가 척화죄로 귀양 가고, 작은아버지 윤헌이 강화도에서 순절하자 고향에서 학문에 전념하였다. 1645년 대군사부(大君師傅)가 되어 벼슬길에 올랐다. 1660년(현종 1) 영월군 수가 되었다. 저서로는 『동토집(童土集)』 · 『노릉지(魯陵志)』가 있다.

조석윤(趙錫胤)

永郎湖 <영랑호에서>

到處逢佳境	도처마다 좋은 경치 만나니
征驥又一停	가다가 또 한 번 머무네
湖平開寶鏡	호수 평탄히 보배 거울 열고
山削繞長屏	산 깎아 긴 병풍 두르네
鳥勝沙光白	새 뛰어나 모래빛 희고
松迷水色青	소나무 희미해 물빛 푸르네
飛仙去已久	신선 떠난 지 오래라
笙鶴杳難聽	생학 아득해 듣기 어렵네

『낙정집(樂靜集)』 제2권

【작자소개】 조석윤(趙錫胤, 1606~1655)

조선후기 대사헌, 이조참판 등을 역임한 문신. 저서로 『낙정집』이 있다. 1642년(인조 20) 37세 여름, 안변 부사(安邊 府使)로 외직에 나왔다가 관동 지방을 유람하였다.

유계(兪槩)

永郎湖 <영랑호에서>

汗漫仙遊不記年 세상을 벗어난 신선 놀이 어느 때인지 기억나지 않는데
平湖十里碧於天 십 리나 되는 평평한 호수 하늘보다 푸르네
松汀白雪行吟客 흰 눈 내리는 솔 모래톱 거닐며 시 읊는 나그네
誰識清都謫降仙 하늘에서 귀양 내려온 신선인 줄 그 뉘 알랴

『시남문집(市南文集)』 제1권

【작자소개】 유계(兪槩, 1607~1664)

조선 후기의 문신 · 학자. 1633년 식년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여 승문원의 관리로 벼슬을 시작하였다. 대사간, 부승지 등을 지냈다. 저서로는 문집인 『시남집(市南集)』 이 있다.

남천호(南天祐)

次永郎湖 <영랑호에서 차운하다>

Who謂永郎湖	누가 영랑호라 하였나
湖邊人已去	호숫가 사람 이미 떠났는데
夜聞步虛聲	밤새 보허(步虛) ¹⁵⁰ 의 소리 들으니
莫是回仙馭	신선 수레 돌아온 건 아닌지

『하유당유고(何有堂遺稿)』

【작자소개】 남천호(南天祐, 1635~1716)

조선 중기 학자. 과거에 응시하였으나 합격하지 못하자 뜻을 접고 고향에서 학문에 정진하는 한편, 후학을 양성하는 데 힘썼다. 문집으로 『하유당유고(何有堂遺稿)』가 있다.

150) 보허곡(步虛曲) : 악부잡곡가사(樂府雜曲歌辭)의 이름. 중선(衆仙)의 표묘 경거(縹渺輕舉)의 미(美)를 읊은 것으로, 도관(道觀)에서 창(唱)한다.

정범조(丁範祖)

永郎湖 <영랑호>

水城春雨暗菰蒲
 雲海濛濛淡墨圖
 青草踏來山簡馬
 白鷗飛在永郎湖
 千年笙鶴歸何處
 三島帆檣去欲無
 但使使君無物役
 此身隨地是蓬壺

수성(水城)에 봄비 물풀 어둡고
 구름바다 자욱이 담묵화라
 푸른 풀 밟아 산간마 오고
 흰 갈매기 날아 영랑호 있네
 천년 생학(笙鶴) 어디로 돌아갔나
 삼도 뚫대 떠나 없어지려 하네
 그저 사군께서 물역(物役) 없다면
 이 봄 가는 곳마다 선계(仙界)이라

『해좌문집(海左文集)』 제8권

【작자소개】 정범조(丁範祖, 1723~1801)

조선 후기 문신. 이조참판, 형조참판을 거쳐 99년 예문관제학이 되고 『정조실록』의 편찬에 참여했다. 문집에 『해좌집(海左集)』이 있다.

1778(정조 2)에 양양 부사(襄陽 府使)가 되어, 1779년(정조 3)에 설악산을 유람하고 유산록「유산록(遊山錄)」을 남겼고, 그해 금강산을 유람하였다.

이해조(李海朝)

永郎湖 <영랑호에서>

滄溟只隔一沙洲
澈灔平湖靜不流
揔爲波恬風色好
永郎仙子穩乘舟

푸른 바다 단 모래섬 하나와 떨어져 있고
일렁이는 평탄한 호수 고요해 흐르지 않네
온통 파도 잠잠해 풍색 좋아
영랑신선 편안히 배 탔지

『명암집(鳴巖集)』 제1권

永郎湖 <영랑호에서>

巖臺超忽撫松孤
鏡面平臨汎漭湖
列嶂環鋪短屏障
團沙限隔大瀛壺
雲藏石上仙郎字
船壓波心雪岳圖
鰲擲鵬搏太闊咽
穩眠篷底逐輕鳧

암대(巖臺) 초연히 외로운 솔 어루만지고
경면(鏡面) 평평히 넓은 호수 임하네
연이은 산 작은 병풍(屏障)인양 둘러 치고
등근 모래톱 큰 영호(瀛壺)인양 가로 막네
구름 바위의 ‘선랑(仙郎)’ 자 갑추고
배 수중의 ‘설악도(雪岳圖)’ 누르네
자라 치닫고 봉새 치솟아 몹시 소란한데
쓱대 아래 편안히 잠들며 가벼운 오리 뒤쫓네

【작자소개】 이해조(李海朝, 1660~1711)

조선 후기의 학자. 대제학, 전라도관찰사 등을 역임하였다. 1709년(숙종 35) 양양부사(襄陽 府使)가 되었으며, 김창흡, 김창협, 이관명 등과 교유하였다. 저서로는 『명암집(鳴巖集)』이 있다.

『명암집권지사(鳴巖集卷之四)』에 “湖邊石上 刻永郎湖三字 尤翁筆也 雪嶽 羣峯 倒影波心, 영랑호 가의 바위 걸면에 ‘영랑호’ 세 자를 새긴 것은 우옹(尤翁)의 필체이다. 설악산 여러 봉우리가 영랑호 수심에 거꾸로 비추어진다.”라는 글을 남겼다.

강진(姜潛)

永郎湖 <영랑호>

寥寥千載四仙遊	적막한 천년 사선(四仙)의 유람
鸞不飛回鶴不留	난새 돌아오지 않고 학 머물지 않네
蘋白蓼紅湖一曲	홍백의 수초 호수 한 곱이
月明依舊永郎秋	달빛 여전히 영랑의 가을이라

『대산집(對山集)』 제1권

【작자소개】 강진(姜潛, 1807~1858)

조선 후기의 학자. 규장각검서관, 안협현감(安峽縣監)을 지냈다. 조선 후기에 이름 높은 서화가로서 명성을 떨친 증조부 강세황의 서화기법을 본받아 산수화에 뛰어났으며, 동시에 시와 글씨에도 뛰어나 사람들은 시·서·화의 삼절(三絕)이라 칭송하였다. 그의 문집으로 『대산집(對山集)』이 있다. 문집에는 주로 전국의 명승고적을 읊은 것이 많으며, 특히 관동지방 및 금강산의 고적에 대한 시가 많다. 그는 1842년(현종 8) 오대산 사고의 포쇄(曝曬) 임무를 띠고 가는 조만영을 수행하여 금강산 일대를 유람하고, 함께 지은 시를 4권으로 정리하였다. 1852년(철종 3)에도 강원도 관찰사 이겸재를 수행하여 세 번째로 금강산 일대를 유람하였는데 이 시는 그 때 지은 것이다.

남한조(南漢朝)

永郎湖 <영랑호>

石峯高迥立湖心
十里烟波罨夕陰
水合扁舟供泛翫
巖宜小閣備登臨
風流不減丹書浦
淪落無端碧海濤
物理由來多不偶
騷人遺恨豈徒今

봉우리 높고 멀되 호수 한복판에 서 있고
십리길 연파 석양 그늘 감싸네
물 편주에 부합하니 뱃놀이 제공하고
바위 누각에 마땅하니 등림 대비하네
풍류가 단서포 못지않고
윤락이 바닷가 끝 없어라
사물의 이치 원래 불우함 많으니
시인의 여한 어찌 지금 뿐이리

『손재문집(損齋文集)』 제1권

【작자소개】 남한조(南漢朝, 1744~1809)

조선 후기의 학자. 벼슬에 뜻이 없었고, 오직 초야에 은둔하여 문경의 선유동(仙遊洞)에 옥하정(玉霞亭)을 지어놓고 후진 교육에 힘쳤다. 여러 번 도백(道伯)과 암행어사의 천거를 받았지만 끝내 벼슬에 나가지 않았다. 저서로는 『손재문집(損齋文集)』 15권이 있다.

이 시는 1796년(정조 20) 류희문과 관동팔경, 금강산 유람을 할 때 쓴 것이다.

최성대(崔成大)

永郎湖二篇 <영랑호 2수>

1.

彩雲去無蹤	채색 구름 떠나 자취 없고
仙桃結不再	선도(仙桃) 맷되 다시 보지 못해라
空餘舊湖水	옛 호수만 부질없이 남았으니
千古綠長在	천고의 푸름 길이 있네

2.

新羅四郎徒	신라 네 낭도
遊戲偶此地	유희하다 이곳을 대하였지
却疑好事人	호사가인가 의심하니
流傳是仙子	이들이 신선이라 전해져서라

『두기시집(杜機詩集)』 제4권

【작자소개】 최성대(崔成大, 1691~미상)

조선 후기 대사간 등을 역임한 문신. 시문에 뛰어나 김창흡 이후의 제일인 자라 칭하여졌다. 그의 시 11수를 모아 엮은 『두기시집(杜機詩集)』이 남아 있으며, 이 시는 1750년(영조 26) 양양부사(襄陽 府使)로 부임하여 남긴 것이다.

김유(金樸)

用前韵次子東 <영랑호-이전 운으로 자동의 시에 차운하다->

雨後平湖逸興長

비간 뒤 평호 일흥(逸興) 긴데

雪山山色送微涼

설산의 산빛 서늘함 보내네

蘭舟晚繫巖邊樹

난주(蘭舟) 늦도록 바위 곁 나무에 매여 있는데

水滿芳洲杜若香

물가 모래톱 두약 향내 가득해라

『검재집(儉齋集)』 제3권

【작자소개】 김유(金樸, 1653~1719)

조선 후기의 문신 · 학자. 이조참판 겸 양관대제학 등을 지냈다. 문집에 『검재집(儉齋集)』이 있다.

정필달(鄭必達)

永郎湖 在清澗南 <영랑호-청간(淸澗) 남쪽에 있음>

十里松陰十里沙 십리길 솔그늘 십리길 백사장
海山春色醉芳華 해산(海山)의 춘색(春色) 향풀에 취했거늘
飛仙遺躅尋無處 비선(飛仙)의 유축(遺躅) 찾을 곳 없구려
惟見湖心一片霞 호수 한복판 노을 한 조각만 보이지

『팔송집(八松集)』 제3권

【작자소개】 정필달(鄭必達, 1611~1693)

조선 후기 문신. 단양군수, 중추부첨지사를 지냈다. 문집으로 『팔송집(八松集)』 이 있다. 1669년(현종 10) 금강산을 유람하였고, 1673년(현종 14) 체직되고 나서 양양(襄陽)의 금곡(金谷)에 집을 지어 만년을 보낼 터전으로 삼았다. 이 시는 금강산 유람길에 썼다.

이만영(李晚榮)

過永朗湖 <영랑호를 지나며>

鸞鏡佳人玉匣開	난경 미인 옥갑 열고
淡粧妍抹繡屏回	담장 놓말 수놓은 병풍 휘감네
無情最是仙家客	가장 무정한 이는 선가의 객이라
一別西湖不再來	한 번 서호 작별하니 두 번 다시 오지 않네

『설해유고(雪海遺稿)』 제2권

【작자소개】 이만영(李晚榮, 1604~1672)

조선 후기의 문신. 1662년(현종 3) 원주 목사가 되었다가 1664년(현종 5) 강원도관찰사가 되어, 공무중 이 시를 남겼다. 주요 저서로 문집 『설해집(雪海集)』이 있다.

신집(申楫)

永郎湖 <영랑호>

永郎仙去後	영랑 신선 떠난 후로
千載復何人	천년토록 또 누가 있었나
空餘湖水在	호수만 속절없이 남았으니
如待後來申	후대 기다려 알리려는 듯

『하음문집(河陰文集)』 제2권

【작자소개】 신집(申楫, 1580~1639)

조선 중기의 문신 겸 학자. 성균관 전적 등을 지냈으나 광해군대 대북의 독주가 심해지자 벼슬을 버리고 명승지를 유람하였다. 1627년 정묘호란이 일어나자 강원도 도사에 임명되어 군사를 모았고, 1636년 병자호란 때에는 의병을 일으켰다. 주요 저서로 문집 『하음문집(河陰文集)』이 있다.

조문명(趙文命)

영랑호(永朗湖)

瑩徹潭容闊	형철(瑩徹)한 연못 면적 넓고
紆回岸勢長	우회(紆回)한 기슭 형세 길다
勝遊還我輩	멋진 유람 우리에게 돌아오니
舊跡想仙郎	옛 자취에 선랑 떠올리네
鳥向空中度	새 창공을 지나니
人疑鏡裡行	사람 거울 속 다니나 의아해라
天山與雪嶽	천산이 설악과 함께 하니
百里倒晴光	백리 길에 맑은 빛 거꾸로 비치네

『학암집(鶴巖集)冊一』

【작자소개】 조문명(趙文命, 1680~1732)

조선 후기의 문신, 병조판서, 좌의정을 지냈다. 주요 저서로 『학암집』 4책이 남아 있다. 1713년(숙종 39) 금강산을 유람하면서 이 시를 지었다.

심우(沈鎬)

永郎湖 <영랑호>

尋真不見永郎徒
舊迹千年尚有湖
湖上夜寒明月色
洞賓橫篋倘來無

진적을 찾으나 영랑의 무리 보지 못하고
옛 유적 천년토록 호수 아직 남았어라
호수가 밤 추위 달빛 밝으니
동빈(洞賓)의 피리 소리 혹 올 듯 안 올 듯

『저촌유고(樗村遺稿)』 제5권/「관동록(關東錄)」

永郎湖留待家庭行次 <영랑호 유대(留待)-가정(家庭) 행차(行次)->

松間繫馬候雙旌
望眼悠悠十里平
邑吏杯盤看已具
漁人鷁首但虛橫
晴湖澈灔磨新鏡
滄海依微混太清
不恨岩頭凝佇久
晚天留待洛山行

솔 사이 말 매어두고 쌍정(雙旌) 문후하니
시야가 유유하여 십리나 평탄하네
읍리(邑吏)의 술상 이미 갖추어 졌거늘
어부의 선박 그저 허횡(虛橫)하구려
맑은 호수 넘실거려 새 거울 같아내되
푸른 바라 희미하여 태청(太清) 흐리는구려
바위 머리서 오래 머문다고 한하지 마라
저녁 하늘 머물러 낙산 기다려 가려는 결세

『저촌유고(樗村遺稿)』 제5권/「관동록(關東錄)」

【작자소개】 심육(沈鎧, 1685~1753)

조선 중기의 문신. 저자는 평생 몇 번의 소명(召命)에 나아갔다가 돌아온 것 이외에는 벼슬에 나아가지 않고 대부분을 강학(講學)과 유람(遊覽)으로 보냈다. 영조 대에 영의정까지 올랐던 부친 심수현이 1713년(숙종 39) 양양부사(襄陽府使)로 부임하자, 부친을 따라가 금강산을 유람하고 일기로 「풍악록(楓嶽錄)」을 남겼다.

따라서 이때 지은 시작(詩作)이나 일기(日記) 등이 유고(遺稿)로 남게 되었다. 특히 한시는 「관동록(關東錄)」에 수록되어 있는데 간성의 명소인 청간정(淸澗亭), 화진포(花津浦), 운근정(雲根亭) 등의 시가 9수가 전해지고 있다.

조위한(趙緯韓)

永郎湖 <영랑호>

鳴沙如雪海棠紅
 百里蒼松一路通
 草沒臺堪眠白鳥
 雲開潭自拭青銅
 湖山有待郎何去
 笙鶴無蹤月滿空
 搖蕩蘭舟久延佇
 汀洲颯颯起悲風

백사장 눈 같고 해당화 붉은데
 백리길 푸른 솔 일로에 통하네
 잡풀 다함에 누대 백조(白鳥) 재워 주고
 구름 열림에 연못 청동(靑銅) 닦아 내내
 호산(湖山) 기다림 있거늘 영랑 어디 갔나
 생학(笙鶴) 종적 없거늘 달 하늘에 가득하네
 목란배 혼翳에 한참 우두커니 있으니
 모래톱서 훨훨 비풍(悲風) 일어나네

『현곡집(玄谷集)』 제7권

【작자소개】 조위한(趙緯韓, 1567~1649)

조선 중기의 문신. 정묘호란 때 관군과 의병을 이끌고 항전했으며, 동부승지·공조참판을 지냈다. 명필이었으며, 저서로는 『현곡집(玄谷集)』 등이 있다.

1623년(인조 1) 시관(試官)의 일을 잘못 수행한 국구(國舅) 한준겸(韓浚謙)의 사위 정백창(鄭百昌)을 논박하였는데, 이 일로 윤10월 양양부사(襄陽府使)로 나갔다.

이인엽(李寅燁)

永郎湖 <영랑호>

湖上長歌意渺茫
松林繫馬石臺荒
三秋物色須吾輩
千古奇遊說永郎
返照入波金碧動
微風過岸杜蘭香
鸞笙悅惚蓬山迴
日暮夷猶更洗觴

호수가 긴 노래 생각 아득한데
솔숲 말 매어둠에 석대 황량하네
삼추(三秋)의 물색(物色) 내 동지 되고
천고의 선유(仙遊) 영랑을 말하네
반조 물결 들어 금벽(金碧) 동하고
미풍 언덕 지나 두란(杜蘭) 향내 나네
난생(鸞笙)에 황홀하고 봉산(蓬山)에 아득하니
해 저물어도 이를 위해 거듭 술잔 셋노라

「회와시고(晦窓詩稿)」 / 「동유록(東游錄)」

【작자소개】 이인엽(李寅燁, 1656~1710)

조선 후기의 문신, 이조판서, 홍문관대제학 등을 지냈다. 「동유록(東游錄)」의 기록에는 “辛未秋 作觀行於杆城 仍遊楓岳 崔兄孝伯亦從往”이라 하여 “신미년 가을 간성에 도착하여 만령 간성군수 이인소(李寅燁)을 찾아 뵙고, 지역의 명소와 금강산을 두루 유람할 때 외조카 최창대(崔昌大)와 동행하였다”고 했는데, 신미년은 1691년(숙종 17)으로 이 때 36세였다. 행력에 의하면 이 해 가을에 금강산을 유람하고 12월에 전라우도 암행어사를 제수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채팽윤(蔡彭胤)

永郎湖途中 督郵索詩戲答 有石自湖心轉出沙渚云

<영랑호로 가는 길에 독우(督郵)가 시를 찾기에 장난삼아 답하다. -어떤 바위가
호수 수심에서 모래톱으로 굴러 나왔다고 한다.->

鳴沙歸路海雲湄
今古仙遊亦一時
地爽易忘前日病
秋晴難負故人期
舊經野燒松猶短
新擘湖波石自移
爲向同來督郵道
此心陶寫不須詩

명사(鳴沙)의 귀로(歸路)가 해운(海雲) 가에 있는데
고금의 신선 유람 또한 한 때라
지대 시원하여 예전의 병통 잊기 쉽고
가을 해맑아 벗과의 기약 저버리기 어렵네
예전에 들판 불길 겪어 소나무 여전히 짚고
새로이 호수 물결 가름에 바위 절로 옮겨가네
함께 온 독우에게 말하노니
이 마음 풀면 되지 시 지을 필요 없다네

永郎湖 <영랑호>

地窮唯見海
山擁忽爲湖
絕境自今古
仙人真有無
松踈斜日晶
巖迥片雲孤
駐馬瞻空闊
笙鸞若可呼

땅 다하더니 바다만 보이고
산 감싸더니 홀연 호수 되네
절경이 자고로 그대로니
신선이 참으로 있는지 모르겠네
소나무 성글어 기우는 해 밝고
바위 멀어 조각 구름 외로워라
며무는 말 허공 바라보고
생란 마치 부를 듯 하네

『희암집(希菴集)』 제16권/현산록(峴山錄)[上]

【작자소개】 채팽윤(蔡彭胤, 1669~1731)

조선 후기 동지의금부사, 부제학 등을 역임한 문신. 숙종의 명에 따라 오칠언(五七言)·십운율시(十韻律詩)를 지어 후일 나라를 빛낼 인재라는 찬사를 받았다. 저서로 『희암집』 29권이 있다. 1721년(경종 1) 양양부사(襄陽府使)가 되었고, 현산록(峴山錄)을 남겼다. 1722(경종 2) 동해묘(東海廟)에 제사지내러 영랑호에 다녀왔다. 다음 해에 금강산(金剛山)을 유람하며 남긴 「풍악록(楓岳錄)」에는 간성 지역의 시가 7수가 남아있다.

이최중(李最中)

永郎湖 <영랑호>

永郎遺跡在蓬壺

영랑의 유적 봉호(蓬壺)에 있는데

天喉山前又一湖

천후산 앞에 또 한 호수라

多怪世人題品誤

너무나 괴이해라, 세인의 품평이 어긋나서

不將鏡浦與同呼

경포대와 더불어 일컫지 않음이

『환법옹만록(換凡翁漫錄)』

【작자소개】 이최중(李最中, 1715~1784)

조선 후기 영조 때의 문신, 대사간, 부제학 등을 지냈다. 1782년 이유백 사건에 연좌되어 귀양을 갔다. 주요 저서로는 문집 『위암집』이 있다.

화접사

최명길

나는 나비가 되오리
 그대는 꽃이 되오시라
 내가 벼랑을 날아
 그대에게 다가가오리
 알 수 없는 그대 비밀 옛들으러
 내 속 마음빼끔 내어 보이고
 如是因 如是果…

이렇게 읊조리면
 그대 닫힌 입술 조금만
 병글러 주오시라
 첫새벽 바다와 하늘
 빙긋 열리듯이
 그렇게 병글러 주오시라

한 즈믄 해 지난
 다음쯤에야
 그대가 나비 되오시라
 나는 꽃이 되오리

【작자소개】 최명길(1940~2014)

강원도 강릉에서 태어났다. 1959년 강릉사범학교 졸업 후 속초지역에서 교직 생활을 하며 후학양성에 힘썼다. 1975년 『현대문학』에 ‘해역에 서서’, ‘은유의 숲’ 등으로 등단하였으며, 이성선, 고형렬 시인 등과 함께 물소리시낭송회를 창립하였다. 속초지역에서 활동한 대표적인 시인이며 영랑호 둘레길에 있는 그의 시비에는 ‘화접사’라는 작품이 새겨져 있다.

설악은 춤추고 있는가

황금찬

신라의 빛나는 정성의 시대

여기에서 四仙이 놀았는가

영랑이여!

그리고 안상, 남랑,

술랑이며 바다물결에 춤추는가.

신기로운 구름이 학의 무리를 타고

영랑이 호수에 내리면

하늘의 선녀들이

무지개 빛 악기 울리며 내려오고

동해의 풀각씨

요정처럼 옷깃 날리여

불멸하는 합창 합창

울리어라. 울리였어라.

영봉을 타고 내리는 바람과

골과 골을 메운 전설이며

바다같은 인심은

열녀각이며

효도의 비문을 날리고

철새들도

한번 오면 다시 찾는

정드는 땅

동해의 얼굴이여라.

문화는 가꾸는 꽃이요.

지키는 성문이여라.
 산천에 정이 어린
 고향의 문화꽃을 가꾸고 지키려는
 마음들이 모여
 작은 햇불을 올리나니
 동해의 목탁이 되라.
 시작은 이미 반이 넘는 것이다.
 그 마음으로 일관 하시라.
 일관 하시라.

* 이 시는 황금찬 시인이 1984. 8. 『속초문화』 창간을 축하하며 발표한 작품으로 창간호에 실려 있다.

【작자소개】 황금찬(黃錦燦, 1918~2017)

강원도 속초 출생의 시인이다. 강릉농업학교, 추계예술대 등에서 교직 생활을 하며 여러 문인들을 배출시켰다. 『문예』에 시 ‘경주를 지나며’ (1953년), 『현대문학』에 ‘접동새’, ‘여운’ (1955년) 등이 추천되어 문단에 데뷔했다.

평생 총 40권의 시집을 평냈으며, 생활 속 문학과 다작(多作)을 강조하며 시 2,000여 편을 비롯한 8,000여 편의 작품을 남기며 문학계 원로의 반열에 올랐다.

사진리 대설

고형렬

하이얀 눈이 마당에 여드레 내리고 나니
 눈이 정말 무서워졌다. 아흐례 만에 날이 드니
 눈물이 나는 오후였다.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는 산처럼
 해도 우물우물 빨리 서산으로 지려하고
 마을은 오랜만에 빨간 불빛들을 서로 볼 수 있었다.
 죽지 않고 살아 있는 친구들의 말소리도 들려왔다.
 언제나 어둡고 높고 촌스럽기만 하던 설악산이
 사진리하고는 바닷가하고는 아무런 상관없는 산이
 그날 처음 야산이 되는 것을 보았다.
 산이 순하다 순해져서 고요하기 이를 데 없었던 것이다.
 육백 미터 팔백 미터 산과 수백 미터 낭떠러지가
 눈으로 평지가 된 것처럼 산지붕이 야트막하였다.
 몇 개의 봉우리만이 흐릿한 윤곽을 드러내고
 산은 정말 별 볼일 없는 어촌일지라도 인가 쪽으로
 다가왔다.
 뾰야니 떡가루를 뒤집어쓰고 잡든 눈 속에 내려앉아서
 눈주목 눈측백 눈잣나무가 아주 눈에서 사라져버렸다.
 모든 형상과 색이 파묻혀 어떤 움직임도 소리도 없었다.
 세상은 사진리에서 그 끝까지가 고요, 고요였다.
 공룡 청봉이라는 것들이 눈앞에서 잡힐 듯 하였다.
 후우 세계 입김을 불면 날아가 버릴 듯이 작아져서
 마치 산은 사진리에서 멀리로 내려다보이는 것 같았다.
 나는 그날 오후 이때까지 설악이
 그처럼 낮아지고 아름다운 적을 본 적이 없었는데
 해가 지고도 한참을 설광 때문에 새벽 같았다.
 발간 등불과 후레쉬 불빛이 흔들리기 시작하던 마을

사진리는 그제서야 사람 사는 마을이 되었다.
아흐례 동안 산이 눈 속에 파묻혔던 것이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날 내다본 동해는
무슨 일인지 물속에 다니는 고기 소리가 날 듯이
맑게 개인 하늘 아래 호수처럼 잔잔히 흐르고 있었다.
눈도 한 송이 쌓이지 않고, 그 만으로 흐르고 있었다.

【작자소개】 고형렬(1954~)

강원도 속초에서 태어나 1979년 『현대문학』에 시를 발표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시집 『대청봉 수박밭』, 『사진리 대설』, 『성에꽃 눈부처』, 『밤 미시령』 장시 ‘리를 보이’, ‘봉(鵬)새’, 장편산문 ‘은빛 물고기’ 『고형렬 에세이 장자』(전7권) 등이 있다. 백석문학상, 대한민국문화예술상, 현대문학상, 유심작품상 등을 수상했다.

哀歌

장호강

청초호의 잔잔한 물결은
아가씨의 心情
푸르러 맑어 오붓한 품은
부서진 넛을 감싸주는
나의 久遠한 防波堤

永郎湖의 늠늠한 바위는
사나이의 意志
밀물 썰물 소용도리쳐도
億萬年 슬은 신화를 간직할
그대의 無窮한 伴侶

그대는
青草湖
나는
永郎湖

南과北 마주 넘어다 보는

그대와
나와
낮이면 구름에 이야기 실려 오가고
밤이면 별을 안고 사랑을 속사진들
바람 걷고 비 개이는 날
五色 무지개의 烏鵲橋 놓여져도
아예 牽牛 織女처럼
얼싸 안고 부질없이 눈물 뿌리지는 말자

【작자소개】 장호강(張虎崗, 1916~2009)

평안북도 철산군에서 태어났다. 1949년 국군에 입대하여 육군사관학교에서 군사교육을 이수했고, 그해 ‘또 한번 다름박질 할거나’라는 시를 『국방(國防)』 일간지에 기고하면서 시인으로서의 활동을 개시했다. 이 시는 군정기 속초에서 1군단 참모부장(대령)으로 근무하던 시절 동해안에서 지은 시를 엮어 간행한 시집 『항전의 조국』에 실려 있다. 이외 시집 『화랑영가』 등이 있으며, 수복기념탑의 ‘모자상부’의 작자이다.

관동별곡

정철

고성(高城)을란 데만 두고 삼일포(三日浦)를 차자가니,

고성은 저만치 두고 삼일포를 찾아가니

단서(丹書)는 완연(宛然)하되 사선(四仙)은 어데 가니.

(신라의 국선이었던 영랑의무리가 남석으로 갔다는) 붉은 글씨는 뚜렷한데,

(이글을 쓴) 사선은 어디 갔는가

예 사흘 머문 후의 어디가 또 머문고.

여기에서 사흘 동안 머무른 뒤에 어디 가서 또 머물렀던고?

선유담(仙遊潭) 영낭호(永郎湖) 거기나 가 잇난가.

선유담, 영랑호 거기에 가 있는가?

청간정(清間亭) 만경대(萬景臺) 몇 고데 안듯던고.

청간정, 만경대 몇 곳에 앉았던가?

니화(梨花)는 발셔 디고 접동새 슬피 울 제,

배꽃은 벌써 지고, 접동새가 슬피 울 때에,

낙산(洛山) 동반(東畔)으로 의상대(義相臺)예 올라 앉자,

낙산사 동쪽 언덕으로 의상대에 올라 앉아

일출(日出)을 보리라 밤둥만 니러하니,

해돋이를 보려고 한밤중에 일어나니

상운(祥雲)이 집피는 동 늑동(六龍)이 바퇴는 동,

상서로운 구름이 뭉게뭉게 피어나는 듯, 여섯 마리 용이 해를 떠받치는 듯,

바다해 떠날 제는 만국(萬國)이 일위더니,

바다에서 솟아오를 때에는 온 세상이 일렁이는 듯하더니

현등(天中)의 티뜨니 모발(毛髮)을 혜리로다.

하늘에 치솟아 뜨니 가는 터럭도 헤아릴 만큼 밝도다.

아마도 널구름 근처의 머물세라.

혹시나 지나가는 구름이 해 근처에 머무를까 두렵구나

(이하 생략)

【작자소개】 정철(鄭澈, 1536~1593)

조선 선조 때의 문신이며 시인이다. 작자가 45세 때 강원도 관찰사로 부임하여 금강산과 관동팔경 등의 경치를 두루 유람한 후 지은 가사(歌辭) 문학 작품이다. 아름다운 경치에 감탄하고 올바른 정치를 할 것이라 다짐하는 내용을 매우 아름다운 한국어 문체로 풀어서 문학의 정수를 보여줬다는 평을 받는다.

4. 구비전승

가. 영랑호 용 이야기

옛날에 영랑호에 용 한 마리가 살고 있었다. 그 용은 승천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었는데, 밤이 되면 아가리에서 여의주를 빼내 들어 달빛을 비추어야 했다.

그런데 그곳에는 여의주를 노리는 이무기가 한 마리 살고 있었다. 어느 날 용이 잠시 한눈을 판 사이에 이무기가 나타나 눈 깜짝할 새에 여의주를 삼켜 버렸다. 그리하여 이무기는 용이 되어 승천하였고, 남은 용은 자신의 여의주를 훔쳐 간 이무기를 한탄하며 눈물을 흘렸다. 그때 흘린 눈물이 고여서 영랑호가 되었다.

“옛날에 용이 하나 있었어. 그 용은 승천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용이었어. 그 용은 여의주를 달밤에 아가리에서 빼내 가지고 달빛을 비추어야 했지.

그런데 그곳에는 여의주를 노리는 이무기가 한 마리 있었거든. 어느 날 용이 잠시 한눈을 판 사이에 이무기가 여의주를 눈 깜짝할 새에 삼켜 버렸지. 그래 가지고 용이 된 이무기는 승천을 하고 남은 용은 자신의 여의주를 빼앗아간 이무기를 한탄하며 눈물을 흘렸지. 그때 흘린 눈물이 고여 생긴 것이 영랑호였어.”

<이상기, 남·41, 금호동, 1999. 12. 17.>

나. 영랑호 전설

영랑호는 영랑이라는 화랑이 수련을 하며 놀다 갔다고 하여 이름으로 부른 것이다. 사실 영랑, 술랑, 남랑 등은 한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화랑도 짐

단의 이름이다.

조선 숙종 때 삼연 선생¹⁵¹⁾이 있었다. 그의 부친은 높은 관직에 있었는데 율곡 선생하고 같은 시대에 활동을 한 분이었다. 그러나 기사환국 때 부친이 사사를 당하자 삼연 선생은 세상과 인연을 끊기로 결심하였다.

양반의 자손으로서 절개를 지켜 온 선생이었기에, 신념을 따라 세상에 나가지 않기로 하고 암자를 짓고 기거했다. 백담사에서 동쪽으로 조금 들어간 곳에 암자를 지었는데 이름은 영시암이라고 했다. 영시암이라는 이름은 ‘화살을 한 번 쏴 놓으면 영원히 못 돌아온다’는 의미의 이름이다. 그곳에서 죽을 때까지 영원히 안 돌아간다는 맹세를 하여 이름 지었다고 한다.

선생은 산천유람 중에 영랑호에 와서 놀았는데, 돌아갈 시간이 되자 빼어난 경치를 두고 가는 것이 슬퍼서 사흘을 통곡하고 갔다는 내용의 글이 전한다.

<※ 구술내용이 정리가 안되어 있어 영랑호 부분만 끊어진 부분을 채워서 정리하였음. >

“영랑이라는 화랑이 와서 수도를 하고 놀다 갔다해서 영랑호라 하지요. 사실은 이 영랑이라든가 술랑이라든가 남랑이라든가, 이건 한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또는 화랑도 한 팀의 이름이다.

근데 숙종 때 김삼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자기 아버지 때 높은 관직에 계셨는데 율곡 선생하고 같은 시대야.

양반의 자손으로써 지켜왔기 때문에 백담사에서 조금 가다보면 그게 왜 영시암이라 했느냐하면 화살을 한번 쏴 노면 영원히 못 돌아온다 해. 나는 여기 앉아 있으면 안돌아 간다 그래서 영시암이라 한다.

그 양반이 영랑호에 와서 글을 썼는데 경치가 좋아 놀다 가려니 경치가 너무 좋아서 사흘을 통곡하고 갔다는 글이 있지.

그렇게 영랑호의 경치가 좋아서 나도 맨 처음엔 깜짝 놀랬어. 또 요즘도 처음와서 영랑호를 처음보는 사람은 탄복하는 사람이 없소. 내가 예전에 영랑호를 자주 댕겼거든요.

151) 앞에서 소개한 삼연 김창흡 선생을 말한다.

근데 어떤 청년 한 명이 가며 한다는 말이

“아저씨 이 호가 뭐래요? 이야 이렇게 좋은 호수에 왜 사람이 없소?”

“외진 곳이라 사람이 안와서 그렇지.”

그렇게 처음 보는 사람은 탄복을 하지.

근데 여기 청초호는 쌍성호라 했어. 『동국여지승람』에 쌍둥이로 이루었다, 왜 그러냐 하며 내가 생각해 볼 때 영랑호는 화랑이 왔다갔다해서 영랑호라는 이름을 받았거든. 근데 저게 이름을 못 받았다 이거야.

근데 호수가 쌍둥이처럼 생겼거든. 쌍성호라고 불였겠느냐. 근데 청초호도 『동국여지승람』에 뭐라 써있느냐 하면 경치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영랑호보다 났다 그래서 『택리지』를 쓴 이중환이가 관동팔경에 낙산사를 안 넣고 청초호를 넣어서 유명해 졌다고.

청초호에는 옛날에 용암이라는 속초 교동 앞에 가면 바위가 큰 게 있었어요. 그 바위가 이름이 난 것은 한말에 남궁억 선생이 양양군수와 있었거든요. 우리나라가 한일합방 직전에 그때 와 있었어요. 애국자니까 이 양반이 사월 초파일에 화전놀이를 해서 더욱 이름이 났다이거여.

그때 이 대포동이 아주 이 부근에서 중심지였는데 왜냐하면 그 항구가 이 부근에서 제일 수심이 깊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 부두에 하까다라는 배가 우편물을 싣고 사람도 태우는 그런 배가 있는데 거기를 떠나 대포를 들러서 원산까지 댕겼지.

그래서 교통이 편리해서 대포가 중심지였어요.

대포를 중심으로 해서 미시령으로 넘어가는 육로가 있고 배가 수로를 그렇게 댕기고 육로는 거기서 인제 회암산을 타고 원산으로 통하고, 그렇게 인제 교통이 편리하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영랑호는 영랑이란 화랑도가 지나갔다. 그런데 그걸 자세히 보면 영랑도이니까 영랑도가 한 개인이 아니라 단체로 해석되고, 결국 화랑이 수도했다는 역사에 의해 영랑호라고 지었다고 볼 수 있지.”

〈박의훈, 남·84, 교동, 1999. 12. 1.〉

다. 장천 유래

장천리(章川里)는 500년 전쯤부터 마을이 있었다고 한다. 원래 마을 이름이었던 장천(獐川)의 ‘노루 장(獐)’은 마을 서쪽 원암리로 넘어가는 노루목 고개에서 유래되었다.

마을 앞의 냇가가 노루목 고개에서 발원하여 흐르기 때문에 이름을 ‘노루내’라고 하던 것을 한자로 표기하여 장천(獐川)이라고 하였다. 그 후에 지금부터 70~80년 전에 여기에 터를 잡고 살던 엄씨 가문에 진사가 나자 마을 이름에 노루가 있으면 재수가 없다고 해서 ‘노루 장(獐)’을 ‘글 장(章)’으로 바꿨다고 한다.

“장천리(章川里)는 500년 전쯤부터 있었다고 한다. ‘노루 장(獐)은 마을 서쪽 원암리로 넘어가는 노루목 고개에서 유래되었다.

마을 앞 냇가에 노루목 고개에서 시작되어 흐름으로 노루내라고 하던 것을 한자로 표기하여 장천이라고 한 것 같다. 그 후에 지금부터 70~80년 전에 엄씨 가문에 진사가 나자 마을 이름에 ‘노루장’ 자가 있는 것이 노루가 있으면 재수가 없다고 해서 ‘노루 장’ 을 ‘글 장’ 으로 바꿨다고 한다.”

〈어재동, 남·58, 장천마을, 1999. 12. 1.〉

라. 장천마을의 음양수

장천 마을의 뒷 산에는 우물이 두 곳에 있다. 두 곳의 물은 남자물과 여자물이라고 불렸다. 여자물은 맑고 깨끗했으며, 남자물은 뿌옇고 탁했다. 맑은 우물은 맑은 여자와 같다고 하여 여자샘이라 하였고, 탁한 우물은 남자샘이라고 했다. 우리나라 전통 사상에는 모든 사물이 음과 양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물에도 이와 같은 이치가 적용된 것이었다.

“장천마을의 뒷 산에는 우물이 두 곳이 있다. 물에도 남자와 여자가 있다. 여자물은 맑고 남자물은 뿌옇다. 맑은 우물은 맑은 여자와 같아 여자샘이

라 불리며, 또 하나는 남자샘이라고 한다. 우리나라 전통 사상에는 모든 사물이 음과 양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물에도 이와 같은 이치가 적용되었다.”

〈어재동, 남·58, 장천마을, 1999. 12. 1.〉

마. 장천마을의 인심

장천마을에 아홉 해 동안 흉년이 들던 시절이 있었다. 마을 사람들 대부분은 거지나 다름없이 유리걸식 할 수 밖에 없었다. 소작농들에게는 한 해만 흉년이 들어도 살아가기 어려운데 9년 동안이나 흉년이 이어졌으니 궁핍함이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당시 마을에 큰 부잣집이 있었다. 어느 해 그 집의 며느리가 친정에 가게 되었다. 그런데 그때가 보릿고개로 모두가 힘들어하던 봄철이었다. 부잣집에서는 아무리 흉년이라 해도 사돈댁에 떡은 보내는 것이 도리일 것 같아서 두세 가마니나 들여 떡을 만들었다.

그때 산에서 아기를 낳은 미친 거지가 있었다. 그 거지는 허기가 쳐서 아기가 강아지로 보이고, 요강이 가마솥으로 보여 아기를 삶아 먹었다는 소문이 돌았다. 마침 이 거지가 부잣집 앞을 지나다가 떡 치는 것을 보았다. 이 광경을 본 거지는 다짜고짜 달려가 떡판 위에 넙쭉 엎드려 버렸다. 그 거지 몸에는 이가 많았는데, 붙어 있던 이가 떡에 들어가 버렸다. 떡을 사돈집에 보낼 수 없게 된 부자는 할 수 없이 두세 가마니를 들여 다시 떡을 만들었다. 그래서 새 떡은 사돈집에 보내고 더러워진 떡은 원수 같은 그 거지에게 모두 주었다.

그 어려운 시절에도 자기보다도 사람을 중히 여겼다는 이 마을의 구수한 민담이 마을에 전해 내려온다.

“장천 마을에 아홉해 동안 흉년이 들던 시절 마을 사람들 대부분이 거지나 다름없이 유리 걸식을 할 수 밖에 없었다. 1년만 흉년이 들어도 소작농

들에겐 어렵디 어려운 한해가 될 수 밖에 없는데 9년 동안이나 이어졌다고 한다 마을에 큰 부자집이 있었다. 아무리 흥년이라해도 며느리가 친정에 가는데 떡은 해가야 하므로 두 세 가마나 들여 떡을 만들고 있었다. 그것도 가을이 아닌 봄(보릿고개) 이었다고 해요.

그 때 산에서 아기를 낳고 허기가 져 야기가 강아지로 보이고 요강이 가마로 보여 아기를 삶아 먹었다고 하는 미친 거지가 그 부잣집을 지나다가 떡을 치는 것을 보고 그 떡에 달려가 넙쭉 엎드려 버렸다고 해요. 그 거지 몸에는 이가 많았는데 그래도 그 떡을 사돈집에 보낼 수 없게 되었다. 또 다시 두 세 가마를 들여 떡을 만든 후 사돈집에 보내고 더러워져 버린 떡은 모두 그 거지에게 주었다고 한다. 때려죽여도 마땅한 그 거지에게 말이죠.

그 어려운 시절에도 자기보다도 사람을 중히 여겼다는 이 마을의 구수한 민담이 마을에 전해내려 온다.”

〈어재동, 남·58, 장천마을, 1999. 12. 1.〉

바. 영랑호에서 다시 만난 친구

어느 시기인지 알 수는 없으나 아득한 옛날에 있었던 일이다. 한 동네에서 두 친구가 서로 친하게 지내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별을 하게 되었다. 다정하게 지내던 두 친구는 헤어지는 것이 서러워서 서로 부둥켜안고 울어 눈물이 옷을 적셨다. 그렇게 이별을 하고 10년이 지나도록 서로 소식을 알 수가 없었다. 그런데 이별하던 그 때, 그 곳에는 한 구절의 글귀가 있었는데, ‘그 때에는 청운에 돌아갈 것이며, 나는 청유산을 바라보고 돌아간다’라고 쓰여 있었다고 한다.

두 친구 중에 남아있던 이의 이름은 오옥령이었다. 그는 대나무 같은 기개로 살아온 사람이었다. 친구와 헤어진 지 10년이 지난 어느 날, 오옥령은 관동당력이 되어 해상을 순회하게 되었다. 그런데 영랑호에서 헤어진 친구가 작은 배를 타고서 즐기고 있는 것을 우연히 목격하게 되었다.

오공이 너무 놀라 “군은 그동안 어디에 있었는가?” 하고 물었는데, “나는 미시령 아래 화암사 동굴에서 살고 있었다.” 고도 하고 “회령군에도 있

었다.”라고 했다. 그래서 오공이 그곳을 한 번 찾아서 친구가 말하던 동굴에 들어가 보았는데 일월이 명랑하고, 주택이 화려하며 또 춤추는 아이들도 있었다. 그래서 오공은 그 광경을 참으로 기이하게 여겨 그 친구를 보고 “군은 어떻게 하여 이곳을 알고 찾아 왔는가?” 하고 물어 보았는데, “이런 곳이 수십여 곳이 있다.”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그 후 다시 찾아갔으나 어디인지 알 길이 없었다.

아무리 찾아보아도 알 수가 없고 삼천봉의 산봉우리에 관한 기록을 상세히 살펴보아도 그곳이 어디인지 전혀 알 길이 없었다. 다른 설에 의하면 그 곳은 잠시 본 무릉도원이라고 했다고 한다.

“어느 때인지 알 수는 없으나 그 아득한 옛날 일리라 합니다. 한 동령 다정한 두 친구가 서로 살고 있었는데, 하루는 그 우연히 이별을 하게 되었다 합니다. 다정히 지내던 그 친구와 갑자기 이별을 하게 된 것이 서러워서 서로 부둥켜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의복을 적셨지요. 적시면서 이별하고 퉁 그 소식을 모르고 한 10년이 지나도록 서로 종무소식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 하루는 이별하던 그 때 그 곳에 당시 한 구절이 있었는데 그 구절이 ‘그 때에는 청운에 돌아갈 것이며, 나는 청유산을 바라보고 돌아간다’라고 쓰여 있었다고 한다.

그 때 친구 중의 한 사람의 이름은 만수 만취 오옥령이라는 사람이었다고 하는데 서로 헤어진 지 10년이 지난 그 어느 날 오옥령은 관동당력이 되어 해상을 순회할 제에 10년 전에 이별했던 친구를 영랑호에서 작은 배를 타고서 즐기고 있는 것을 우연히 만나게 되었다. 이래서 그 때 그 오공이 말하기를

“군은 그 동안 어디에 있었는가?”

하고 물은 즉 나는 미시령 아래 화암사 동굴에서, 동굴에서 살고 있었다고 하고 또는 회령군에도 있었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이 하루는 그 곳을 한 번 찾아서 친구가 말하던 굴에 들어가 본 즉은 일월이 명랑하고, 주택이 화려하며 또 춤추는 아이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오공은 참으로 가여히 여겨서 그 친구를 보고,

“군은 어떻게 하여 이 곳을 알고 찾아 왔는가?” 하고 물어본 즉
“이런 곳이 수십여 처가 있다고 말하므로 그 후 재차 찾아갔으나 알 길
이 없었다.” 고 합니다.

아무리 찾아도 알 길이 없고 삼천봉이 돈봉 학산 잡록에 상세히 찾아보아
도 그곳이 어디인지 전연 할 수 없다고 하여 이 설에 의하면 그 곳은 잠시
본 무릉도원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장현영, 남·54, 중앙동, 1981. 4. 27.〉

사. 강장군과 용바위

아주 먼 옛날 번개 안에서 강씨 총각이 살고 있었다. 그는 힘이 세어 강장
군이라고 불렸는데 누나와 같이 살고 있었다.

동네 사람들이 작은 배로 열심히 고기를 잡아오면 나루에 강장군이 나타났다.

“야 강장군이다. 아이구 어떡하누.”

강장군은 사람들이 잡아온 고기를 빼앗아 돌려주지 않았다.

“에이 강장군은 재수없다.”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강장군에게 술(밀주)을 주어 달랬다.

“강장군, 참 내일부터 고기 드릴게, 잡수시우.”

그 다음날이 되자 바닷가에 있던 배가 바다로 나가고 있었다. 그 날 한 밤
중이 되었는데 저 산중에서 오리가 이리 번쩍, 저리 번쩍 날라다녔다. 그래서 가보니까 강장군이 이리 저리 왔다 갔다 하고 있었고 배가 거기에 있었
다.

사람들은 강장군이 언제 또 횡파를 부릴까 두려움에 떨었다. 하지만 ‘이
거 안되겠다. 참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하였지만, 가만히 놔뒀다가는 다
시 횡파를 부릴 것 같아서 술을 잔뜩 먹여놓았다. 그러나 사람들은 후환을
두려워했다.

사람들이 술에 취한 강장군을 들여다 보았는데 한 쪽에 무엇인가 나와 있

었다. 그것은 양쪽으로 나와 있는 날개였다. 사람들은 강장군의 후환이 두려워 숯불에다가 송곳을 달궈 양쪽 날개를 꾹 찔러 죽였다.¹⁵²⁾

그래서 사람들이 시체를 땅에 묻는데, ‘난 죽지 않았는데, 난 죽지 않았는데’ 하고 들썩 들썩 하였다. 그리고 강장군이 죽은지 3일 만에 이 바위에서 용마가 서쪽으로 날아갔다. 그 후부터 이 바위를 용바위라고 불렀다고 한다.

“강장군 이야기가 여기 있지. 강장군은 7대여, 나는 11대구. 내 자랑 같아서. 그게 강 장군이 어떻게 된 고 하니. 두 오누이가 살았다 이기여. 뉘두 힘 좋고 강장은 총각이지. 여기 나루에 갔다가 그때 배가 크겠수? 고기 잡아오면 “야 강장군이다. 아이구 어떡하누.”

그래 강장군이 고기를 빼앗아 안 주거든.

“에이 강장군은 재수없다.”

그래 그때는 밀 주야.

“강장군, 참 내일부터 고기 드릴게, 잡수시우.”

하룻밤 그리구 내일 배가 나가드래. 그때 한 밤종이 되니까, 저 산중에 오리가 이리 번쩍, 저리 번쩍, 그래 가니까 강장군이 다니드라 이기야. 아 치멩떡 보니까 배가 거기 있드라 이기야.

강 장군이 언제 한 줄 모른다 이기야. 그래 가만히 있더니 이거 가만히 놔뒀다가는 언제 또 횡패를 부릴까봐 부리까봐 ‘이거 안되겠다. 참아야 되겠다.’ 하고 술을 잔뜩 먹여놓고 보니까 이쪽에 뭐가 이 만큼 나왔드라 아기야. 날개가. 그래 가만히 보니까. 이 놈이 행짜 부릴까봐 술을 잔뜩 먹여 놓고는 숯불에다가 송곳을 달궈 꾹 찔러 죽였다 이기야. 양쪽 날개에다.

그래 사람들이 묻는데, ‘난 죽지 않았는데, 난 죽지 않았는데’ 하고 들썩들썩 하드라 이기야. 그래 사흘 있다가 용마가 서쪽으로 날아갔어, 그게 전설이지.”

< 강양수, 남·70, 장사동, 1994. 11. 2.>

152) 고성군, 『고성군지(下)』, 2020. 307쪽에는 다른 기록이 있다. 강장군이 너무 힘이 세어 해가 될까봐 누나가 동생을 죽였다고 한다.

아. 영랑호

지금으로부터 1,500년 전 신라시대에 화랑인 영랑(永郎), 술랑, 안상, 남석 등이 금강산에서 고성 삼일포로 내려와서 3일 동안 수련을 하고 헤어졌다. 영랑만이 이 호수에 와서 뱃놀이를 하며 선유하였다고 하여 이 호수의 이름을 영랑호라 불리게 되었다.

영랑호 남쪽 기슭에 송림이 울창한 복판에 자그마한 사찰이 하나 있다. 서기 637년에 정혁담이라는 승려가 절을 지어 53불의 보광부처를 봉안하였다고 해서 보광사(普光寺)라고 이름 지어 불려왔다.

그리고 영랑호는 물결이 맑고 잔잔하여 언제나 어족이 풍부하며 낚시를 즐기는 태공(太公)들과 뱃놀이를 즐길 수 있는 속초 시민의 좋은 휴식처가 바로 영랑호이다.

“지금으로부터 1500년 전에 신라시대 화랑인 영랑(永郎), 술랑, 안상, 남석 등이 금강산으로부터 고성 삼일포에 와서 3일동안 수련을 하고 각각 분산했습니다. 영랑만이 이 호수에 와서, 뱃놀이를 하며 선유하던 곳이라 해서 이 호수의 이름이 영랑호라 불리어 왔습니다.

영랑호 남쪽 기슭에 송림이 울창한 복판에 자그마한 사찰이 하나 있는데, 지금으로부터 서기 637년전에 정혁담이라는 승려가 사지를 건립하고 53불의 보광부처를 보완하였다고 해서 보광사(普光寺)라고 이름이 불려왔습니다.

그리고 영랑호는 아주 물결이 맑고 잔잔해서 언제나 어족이 풍부하며 낚시를 즐기는 태공(太公)들과 뱃놀이를 즐길 수 있는 좋은 속초 시민의 휴식처가 바로 영랑호입니다.”

<유만석, 남·50, 설악동, 1981. 4. 17>

자. 이 부잣집 구렁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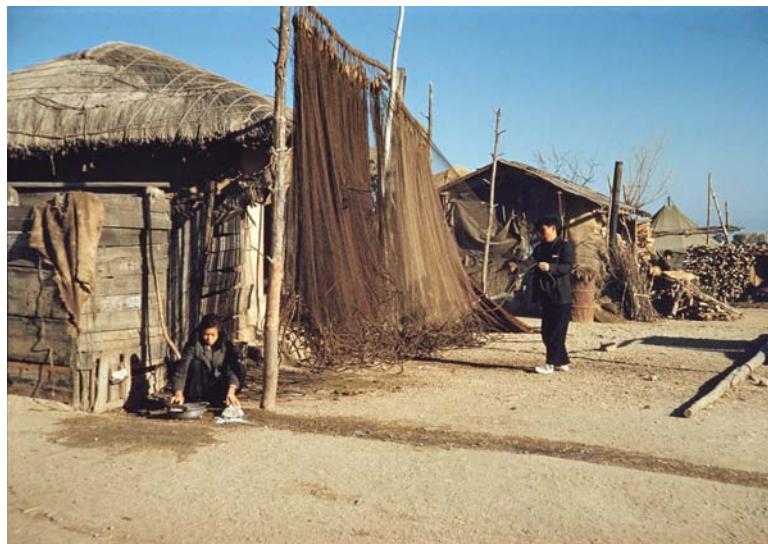
옛날 영랑동에 장사를 하여 부자가 된 이부자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가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집에 사는 구렁이 때문이었다. 구렁이는 이부자가 장사를 나가면 꼭 따라다니면서 지켜주었다. 어느 날 이부자가 장사 때문에 배를 타게 되었다. 물론 구렁이도 함께 갔다.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세차게 불어대는 것이었다. 장사는 가야 하는데 바람이 심하게 불자 이부자는 고민에 빠졌다. 하지만 결국 장사를 나가기로 결심하고 배에 올랐다. 그런데 갑자기 배를 뜯어두었던 줄이 풀어지는 것이었다. 이부자는 이제 죽었구나하고 생각을 했는데, 한참을 지나도 줄이 끊어지지 않는 것이었다. 지켜보던 사람들도 모두 신기하게 생각했다. 바람이 잦아지고 줄을 확인해보니 구렁이가 자기 몸을 칭칭 감아 줄을 연결시켜 놓고 죽어 있었다. 구렁이가 죽은 후 이부자의 재산도 봇물 터진 것처럼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결국 구렁이와 이부자는 전생에 무슨 인연이 있었던 것이라고 모두 생각했다.

“옛날 영랑동에 이부자가 살았어. 이부자가 어떻게 부자됐냐면 구렁이 때문이야. 그 구렁이가 이부자가 장사 나가면 꼭 따라다니면서 지켜주는 거야. 어느 날 이부자가 장사 때문에 배를 타게 됐어.”

물론 구렁이도 함께.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크게 부는 거야. 그래 장사는 가야 하는데 바람이 부니 이부자가 고민이 되지. 그래 결심한 끝에 배를 탔지. 근데 말이야 배를 탔는데 갑자기 배를 뜯어둔 줄이 풀어지는 거야. 이부자는 이제 죽었구나 생각했는데 줄이 끊어지지 않는 거야. 지켜보던 사람들이 신기하다고 생각했지. 바람이 잦고 줄을 보니 구렁이가 자기 몸을 칭칭 매 줄을 연결시켜 놓은 거야. 결국 구렁이는 죽었지. 구렁이가 죽으니까 이부장의 재산도 봇물 터진 물처럼 빠져나갔지. 결국 구렁이오 이부자는 전생에 무슨 인연이 있었던 거야.”

〈이성철, 남·82, 영랑동, 1999. 12. 17.〉

V. 삶과 민족



1950년대 생활상(그물 손질), 사진제공 속초시립박물관

〈사진 Richard B. Rockwell 기증사진〉

1. 세시풍속(歲時風俗)

세시풍속은 한 해와 4계절의 풍속이다. 따라서 사람들이 제 때에 철을 인식하는 철갈이 민속이라고 할 수 있다. 한 철이 오면 그 철에 맞도록 계절의 바뀜에 따라 주기적으로 때맞추어 살아가려는 삶의 다양한 적응이다.

세시풍속은 오랜 전승 의례적 성격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어 보편성을 가지고 행해지는 특징이 있다. 영랑동의 세시풍속 역시 전국적인 양상을 보이는 보편성을 지닌 것이 많다. 반면에 영랑동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 즉, 지역성을 반영한 것도 있다. 새쪽마을에서 행해지던 어민들의 안전을 위한 제사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하지만 영랑동의 경우 바닷가에 형성된 어촌 마을과 농업을 주산업으로 삶을 영위하는 농촌 마을이 공존하고 있어 특수성이 영랑동 지역 전체의 공통된 문화라고 할 수도 없다.

여기에서는 여러 형태로 최근까지 행해지고 있거나, 다시 재현되어 보존되고 있는 풍속의 사례를 소개한다.

가. 지역의 중요한 풍속

1) 정월달 세배와 뱃고사

한 해를 시작하는 1월 1일을 설날이라고 한다. ‘설’이라고도 하며 떡국 차례를 올리고 나서 세배를 한다.

정월 초에 어촌의 선주들은 뱃고사를 지낸다. 무엇보다 정성을 기울이는 뱃고사는 배안에 모신 성주신에게 한 해의 무사고와 풍어를 기원하는 제사이다. 대체로 무당에게 부탁하여 날을 받거나 택일을 하는데, 정월보름 전에 고사를 지내는 집안이 많다.

2) 횃불싸움

횃불싸움은 보름날 밤에 주로 이웃동네와 한다. 두 동네청년들이 싸리와 삼대로 만든 횃불을 가지고 서로 빼앗기도 하고 싸우는데, 영랑동과 조양동 간의 청년들이 고함을 지르고 빼앗으며 놀았다.

3) 귀신날

음력으로 정월 16일은 귀신날이라고 한다. 이날은 귀신에게 훌린다고 하여 배를 띄우지 않는다. 따라서 어부들은 출어를 하지 않고 그물을 손질하거나 집에서 쉰다. 머리카락이나 고추씨를 태워 잡귀를 막기도 한다.

4) 용왕제 · 배서낭제

배가 있는 집은 ‘용왕 위한다’며 바닷가에 나가서 풍어와 안전을 축원하고, 배안에 모셔둔 배성주 또는 배서낭이라는 신체에서 빈다. 배성주는 실과 한지를 매달아 놓았으며 문을 만들어 따로 벽 쪽으로 상자를 달아놓는 경우가 많다. 속초에는 배성주가 여성인 경우가 많아 금기가 많고 풍어시나 위험한 일이 있을 때 현몽하기도 한다고들 말한다.

5) 바람님날

2월 초하룻날을 주부들은 ‘바람님날’ 또는 ‘영등할머니날’이라 하여 ‘영등신’ 또는 ‘바람님’을 잘 모신다. 어민들은 비바람에 따라 출어가 정해지므로, 바람에 특히 신경을 쓴다. 70년대 초까지는 영등날에 바람님을 잘 모셨는데, 근래 들어 이 신을 모시는 가정이 드물다.

나. 일반적인 풍속

1) 까치 보름날

정월 14일을 ‘까치보름날’이라 부른다. 이날 아침에는 오곡밥을 해서 먹는 집안도 있는데 보름날에는 오곡밥으로 제사를 지낸다.

2) 대보름날

대보름날은 가장 많은 민속행사가 전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세시풍속이 집중되고 있다. 대보름날 행사는 다음과 같다.

(가) 약밥·오곡밥먹기

- (나) 부럼깨풀기
- (다) 더위풀기
- (라) 귀밝이술
- (마) 김치·찬물 안 먹기
- (바) 연 날리기

3) 입춘날

24절기의 첫째인 입춘날에는 아침밥을 먹을 때에 취나물을 싸서 먹는데 풍년을 바라는 뜻이라 한다.

4) 무 물먹기

2월 7일 날 아침에 무채를 썰어 놓고 이것을 짠 물을 동쪽으로 향해서 마시면 1년 동안 건강하다고 한다. 이것은 무가 한자로 ‘無’ 이므로 무병의 의미가 포함된 것으로 생각된다.

5) 한식날

동지(冬至) 후 105일째 되는 날인 한식(寒食)은 ‘찬밥 먹는 날’이라고도 부른다. 이 날은 귀신도 꼴깍 않는다고 하여 무덤을 손질해도 탈이 없다고 한다.

6) 동짓날과 팔죽

동지를 ‘작은설’이라 한다. 집집마다 팔죽을 쑤어서 먹는다. 팔죽에는 ‘옹생이’, ‘옹심이’라 하여 새알심을 넣는데 나이 수대로 넣기도 한다.

2. 민속신앙

가. 민속신앙 개요

민속신앙은 민간신앙, 민속종교, 민중신앙라고도 하며 민간에 전해 오는 여러 가지 민간의 신앙을 한데 묶어서 이르는 말이다.

민속신앙은 집안신앙, 마을신앙, 무속신앙, 점복신앙, 풍수신앙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들 민속신앙은 시대의 추세와 외래종교의 유입과 부흥으로 점차 쇠퇴하여 가는 실정이다.

나. 집안신앙

집안신앙은 거의 사라져 원형을 찾아보기 힘들지만, 개인적으로 성주제나 터고사를 지내고 선주들은 배성주제를 지내기도 한다.

다. 마을신앙

마을신앙의 대표적인 형태는 성황제(城隍祭)이다. 속초 지방도 예외는 아니어서 동리마다 성황당(서낭당)이 존속되고 있다. 마을의 무사태평과 풍년, 풍어를 기원하는 뜻에서 성황제를 지내는데 마을마다 제사일은 차이가 난다. 이번 조사를 통해 영랑동 주민들의 성황제는 3곳에서 행해졌음을 확인하였다.

1) 영랑동 새쪽마을

영랑동에는 성황당이 없다. 현재 영금정 뒷산 동명동에 위치한 성황당에서 마을제사를 지낸다. 제사는 단오나 동짓달에 두 번 지내고 3년에 한번 궂을 한다.

2) 장사동 사진리

장사동 사진리의 성황당은 횟집타운 끝 쪽 산중턱(모래기 바닷가 야산 중턱)에 위치하여 있다.¹⁵³⁾ 성황당 내부에는 성황신을 상징하는 화상이 걸려

있는데, 이 마을은 성황신으로 여 성신을 모시고 있다. 사진리에서는 어촌계가 주관이 되어 음력 10월 2일에 풍어제를 지내어 풍년과 만선, 제액소멸 등을 기원한다. 제사를 지낸 후에는 돼지를 잡아 동네잔치를 한다.¹⁵⁴⁾



〈사진 190〉 사진리 성황당

3) 장사동 장천리

장천리는 마을에 서낭봉이라는 지명이 있을 정도로 오래전부터 성황제가 행해졌다. 풍년과 제액소멸을 비는 성황제는 매년 정월에 행해졌다. 하지만 2019년 속초·고성산불로 성황당이 전소되어 마을 회의 끝에 2020년부터 제사를 지내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4) 모래기(사진리) 수살 굿

속초 앞바다는 난류와 한류가 교차되는 지점인 만큼 다른 지역과 상이한 해양민속이 발달되었다. 어업에서는 한난류의 어업방식 및 풍습, 민간신앙이 복합적으로 얹혀지고 융화되어 속초지역의 특이한 어촌민속을 만들었다. 어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이 많으므로 조업 도중 해난사고가 많아 태평안일을 기원하고, 사고를 당한 영혼을 비는 굿을 ‘수살굿’이라고 한다. 영랑동에서는 사진리에서 행해지는 수살굿이 있는데, 원형이 사라지는 것을 고증하여 민속경연대회에 출연하여 그 기록을 보존하고 있다.

‘모래기(용왕)수살굿’은 1989년 9월 9일 동해시에서 개최된 제7회 강원민속경연대회에 출연하였다. 이후 1995년 제13회 강원도민속경연대회에도 같은 내용으로 출연하였다.

153) 마을에서는 성황당이 위치한 지역을 ‘망주꼬뎅이’라고 한다. 이곳에서 멀치가 해변가로 몰려드는 것을 망보던 곳이라는 뜻이다.

154) 박영화의 증언. 박영화 씨는 85세로 1967년부터 장사동 사진리에 거주하신 분으로 2020년 10월 9일 자택에서 증언을 청취하였다.

이곳 수살(水殺)굿은 일종의 해원형(解冤形)에는 오구굿인데 죽은 사람의 혼이 씌어 고생하는 산 사람의 고통을 덜어 주기 위해 죽은 혼을 위로하는 굿이다. 이 굿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무녀 2명, 화랭이 2명, 사공 1명이 상주를 배에 태우고 바다로 나간다. 산 닭의 다리와 밥을 담은 그릇을 끈으로 함께 묶어 바다에 던진다. 화랭이가 대나무로 만든 ‘인혼대’에 죽은 사람의 마른 속옷과 한지를 달아 돌리면서 망자의 혼을 3번 부른다. 상주가 “예”라고 대답을 한다. 그러면 화랭이는 “젖은 옷을 벗어놓고 마른 옷을 갈아입고 육지 환생하옵소서.”라고 말한다. 이어 닭과 밥 그릇을 끌어 올리면서 죽은 닭은 망자의 육신이라고 여긴다.

바다에서 건져낸 혼백을 담은 뜯자리와 위폐를 육지의 굿당으로 모신다. 미망인이 뜯자리를 보고 쓰러지면 무녀가 뜯자리로 덮어준다. 그리고 무녀는 복승아나무로 뜯자리를 때리면서 수살잡귀를 쫓는다. 이어지는 길가름은 혼백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굿이다. 이어서 무녀가 극락춤을 추고나면 제삿밥을 함께 나누고 태평안일을 기원한다.¹⁵⁵⁾

무녀의 인도로 극락왕생을 한 망자의 고혼은 다시 미망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와 같은 의식은 빈번한 해난사고로 심적 충격을 받은 미망인들을 위로하고 억울한 망자의 영혼은 좋은 곳으로 보낸다는 생각으로 행한다.

155) 속초시립박물관, 『초·중등교사를 위한 전통문화자료집』, 2008, 21쪽.

3. 민속놀이

민속놀이는 예부터 즐겨오던 놀이로서 어린이나 어른, 남녀를 불문하고 다양하게 전승되어 오고 있다. 현대 문명의 이기로 점차 사라져 가는 형편이지만, 아직도 농·어촌 마을에서는 행사나 특별한 절기에 행해지거나 전승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영랑동 지역 역시 대부분은 사라지거나 명맥만 유지해 가고 있다. 마을 축제나 명절을 통해서 일부는 계승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놀이 문화는 다른 지역과 별반 다르지 않다. 하지만 영랑동의 경우 어촌과 자연마을의 특성을 잘 살린 놀이 문화가 발달했던 곳이었다는 점을 생각할 때, 보존과 전승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민속놀이 중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내용을 개인놀이와 집단놀이로 나누어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가. 개인놀이

개인놀이는 속초 지방의 다른 곳과 같이 아이들 놀이가 대부분이다. 자치기, 말타기, 땅뺏기, 비사치기(비석차기), 팽이치기, 연날리기, 윷놀이, 풀각시 놀이, 공기놀이, 제기차기, 바람개비 돌리기, 고무줄놀이, 그네뛰기, 숨바꼭질, 줄넘기, 짱치기, 횃불싸움, 망우리 돌리기 등이 있다.

이러한 놀이들은 속초 지역의 공통적인 놀이이다. 그러나 그 중에서 영랑동에서 특별하게 행해지던 놀이가 있어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1) 대보름 달맞이

대보름날 영금정 뒷산 정상(현 등대가 있는 산)에 온 동네 사람이 올라가 선다. 정상이 비좁아 서기 힘들면 달이 떠오르는 쪽으로 산허리 언덕까지 모여 선다. 사람들은 보름달을 보기 위해서 해가 넘어가기도 전부터 올라가 보름달을 발견하기 위한 경쟁을 벌인다.

달을 먼저 발견한 사람은 큰 목소리로 “만월이야” 하고 소리치면 산에

올랐던 모든 사람이 다같이 “만월이야” 하고 따라 한다. 소리는 치면서도 자기 눈에 잡히지 않는 달을 찾기에 혼신의 노력을 다한다. 이날에 가장 먼저 달을 보는 처녀 총각은 시집 장가를 가고, 부녀자들은 득남을 하며, 어른들이 발견 할 때에는 그 집안에 행운이 비친다고 한다.

달이 떠오르기 시작하면 모두 달을 향해 큰절을 하고 그때부터 횃불 놀이를 시작한다. 높은 산허리에서 횃불을 휘두르며 만월이란 소리를 지르는데 참으로 그 광경이 장관이다. 횃불은 대나무 또는 싸리나무 옆은 마당 빗자루에 솔 검불이나 솔 뭉치를 넣고 싸매 노끈으로 꼭 조여 매고, 거기에 불을 붙인 다음 소리치며 휘두르는 것이다.

2) 횃불싸움

횃불싸움은 보름날 밤에 주로 이웃 동네와 하였다. 두 동네 청년들이 싸리와 삼대로 만든 횃불을 서로 휘둘러 고함을 지르며 상대방을 공략하는 싸움을 한다. 싸움 도중 쫓기는 쪽이 패하는 것으로 승부를 맺는다. 싸움에 진쪽 편에서 술과 음식을 대접하였다.

모래기마을이 형성되기 전에는 조양동 쪽의 청년들과 만나서 싸움을 하였다. 모래기 쪽에 마을이 생긴 이후 새쪽 사람들과 모래기 사람들이 횃불싸움을 하였다.

나. 집단놀이

영랑동의 집단놀이는 현재 전승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속초문화원의 노력으로 이 지역의 집단놀이가 재현되었다. 대표적인 것이 장사동의 ‘사진리 들판대질 놀이’, 영랑동의 ‘지정다지기’ 등이 있다. 이러한 놀이 문화는 사라져가는 속초 지역의 중요 민속으로서 보존 가치가 충분한 민속문화이다.

1) 사진리 들판대질놀이

가) 개요

드대질놀이는 사진리(장사동) 날바리땅¹⁵⁶⁾에서 행한 어촌민속으로 1987년

6월 27일 홍천에서 개최된 제5회 강원도 민속예술경연대회에 출연하였다. 든대질놀이는 전응암, 박인성, 김형준, 김동성 씨 등 사진리 주민들의 고증으로 연출되었다.

나) 내용

속초에서는 유일하게 사진리가 대표적인 날바리땅으로 든대질로 배를 진수하고 끌어올린다. 날바리땅에서는 폭풍이 친다든지 해일이 일어나면 초를 다투어 배를 끌어올려야지 그렇지 않으면 거친 파도에 휩쓸려 파손되기 때문에 빠른 동작으로 든대질을 해야 한다. 그러나 평상시에는 여유있게 ‘허리도리’라는 선소리꾼의 유창하고 구성진 소리에 맞추어 흥겹게 뒷소리를 하면서 ‘든대’라는 막대를 가지고 든대질을 한다.

든대질소리는 속초의 뱃소리인 ‘지어소리’, ‘다리어소리’, ‘베끼소리’, ‘산대소리(가래소리)’와 같이 몇 소절을 제외하고는 정형적 내용은 없고, 상황에 따라 가변적 사설들이 삽입된다. 배를 처음 만들어 물에 띄우는 진수(進水) 때에 사람들은 “배 내린다”고 하고 무사고를 비는 기원제를 올린다. 기원제는 배에 술가지를 끝에 꽂은 대나무에 오색 만선기를 달고 뱃머리 즉, 이물에 제물을 차린다. 제물은 술, 과일, 포, 돼지머리나 소머리를 장만하여 진설하고 제사를 지낸다.

첫 출어를 하게 되면 선주가 풍어와 무사고를 비는 고사를 하는데, 동해안에서는 첫 출어를 ‘설망’이라 부른다. 설망하는 날은 택일을 하여 좋은 날을 고르는데 고사를 지낸 후 배성주신을 모실 돈은 선주한테 받는다. ‘배성주’는 배를 지켜주는 신령으로 집안의 성주신과 같다. 배성주신의 표상은 한지를 한쪽 변이 약 10cm 되도록 모나게 여러 겹으로 접어서 왕돈 한 푼과 청홍실을 그 속에 넣어서 어부들이 잡자는 ‘방장’이나 ‘큰대명’ 즉 고기를 잡은 것을 담아두는 가장 큰 곳에 모신다. 배성주를 모실 때는 제물은 어물을 쓰기도 하고 육류를 쓰는데 함께 놓지는 않는다고 한다.

선주가 제사를 진행하며 도사공인 선장은 제관이 된다. 성주기를 꽂고 드

156) 동해안은 해안선이 완만하므로 몇 개의 항구가 있는 ‘개안’과 항구가 없는 ‘날바리땅’을 주축으로 어로작업을 한다. 속초에서 남쪽으로 양양 오산, 수산, 인구와 북쪽으로 고성군 봉포, 공현진, 문암, 가진 등에서는 날바리땅으로 이루어진 어촌이다.

리는 고사가 끝나면 모든 선원은 도사공의 선소리에 맞추어 든대질을 하여 배가 물에 닿으면 선원이 노를 저어 떠나고 ‘따리(키)’를 잡은 도사공이 방향을 잡는다.

노를 저어 항포구를 떠나 바람을 만나면 빽을 올려 노젓기를 중단하고 짚단에 불을 붙여 뱃전을 돌고 뒷고물을 휘두른 뒤 바다에 던져버린다. 이것은 ‘액막이’ 하는 것으로 벽사(辟邪)의 뜻이 있으며 삼재(三災:수재, 화재, 풍재)를 예방하기 위함이라 한다. 이렇게 한 후 목적지에 도착하면 본격적인 어로 작업에 들어가게 된다.

이처럼 사진리에서는 배를 바다로 옮기는 재래식 이동방식으로 든대질을 하는데, 든대는 참나무나 소나무로 만들어 배를 들어 올릴 수 있는 지렛대와 같은 긴 막대기를 말한다. ‘든대’는 ‘드는 대’라는 뜻으로 볼 수 있고, ‘질’은 행위를 뜻하는 ‘짓’과 같다고 하겠다. 든대를 받쳐주는 받침대를 ‘게’라 하는데 ‘고인다’는 뜻이다.

2) 영랑호 지정다지기

가) 개요

지금부터 수십 년 전에 속초리 1구 마을은 조선시대 말기부터 농악을 치면서 지정다지기를 했던 민속이 전한다. 이 마을은 아름다운 설악산의 정기와 천혜의 항구, 그리고 영랑호수에 인접한 전형적인 농촌 마을로서 많은 주민들이 집을 지을 때 이와같이 집터를 다지는 지정다지기를 하였다.

나) 내용

이 지역은 지질 여건이 견고하지 못한 관계로 집터를 굳게하기 위해서 지정다지기를 하였다. 지정다지기는 주로 낮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저녁부터 자정까지 횃불을 켜들고 집터를 다지기 시작한다.

집사가 “오늘 저녁에는 영랑동 홍길동 씨 집을 짓기 위해 마을 이웃 모두 모여 지정다지기를 하겠다”고 고하면서 각종 제물을 차려놓고 축문을 외고 절을 한다. 이것은 토지신에게 고하는 제사라고 한다.

제사가 끝나면 집사와 집주인이 음복을 하고 집주인이 지정다지러 온 주

민들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술을 대접한다. 술을 마시고 나서 지정다지는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 서서 집사의 매기는 소리에 맞추어 집터를 다진다.

집사가 쉬었다가 할 것을 지시하면 마을 사람들은 “어이차 어이차 어이차” 매기는 선소리에 맞추어 후렴을 합창한다. 모두 지정석을 동시에 높이쳐들어 신호를 하고 휴식에 들어간다. 이때 술과 안주를 대접하는데, 농악대가 나와서 흥겹게 논다. 어느 정도 쉰 다음에는 다시 지정다지기를 하는데 날이 어두워지면 여자들과 아이들이 솜방망이에 불을 붙여 햇불을 들고 집터를 밝힌다.

지정다지기가 끝나면 집주인은 지정을 아주 잘 다져주어서 고맙다는 인사를 한다. 영랑동의 지정다지기는 동작의 통일성을 강조한 노동요를 부르면서, 주민 상호 간에 서로 협동하는 정신을 반영한 민속노동유희라고 할 수 있다.

3) 속초 지역의 수산노동요

영랑동을 비롯한 속초 지역은 일찍이 어로 문화가 전승된 곳이다. 생계 경제와 노동 형태, 의례와 식생활, 놀이 문화, 주거 양식 등 속초 지역만의 독특한 어촌문화를 형성하고 있고 어업요도 다양하게 전승되는 편이다.

민요의 특징으로 가장 대표적인 소리는 수산노동요인 뱃소리다. 속초의 어로 민요는 노젓는 소리인 ‘지어소리’, 그물을 당기는 소리인 ‘다리어소리’, 고기를 퍼올리는 소리인 ‘가래소리’와 ‘산대소리’, 고기를 그물에서 벗기는 소리인 ‘배끼소리’, 배를 바다에 내리는 ‘든대소리’, 해녀의 ‘물질소리’ 등이 있다.

4. 의식주

가. 의생활

현대화의 급격한 진행으로 비교적 많은 변화를 겪고 있는 의생활은 불과 20~30년 전과 비교할 때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우리나라의 급격한 경제적 발전과 함께 가져온 의복의 변화는 멋, 편의성 등을 중시하면서 짧은 기간 내에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영랑동 지역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다.

영랑동 지역의 전통적인 의생활은 기후와 생활양식 등에 의하여 제약을 받았다. 동해바다와 설악산을 끼고 있는 지역의 특성상 겨울과 여름의 기온 차가 심하였는데, 복식도 기온을 고려하여 추위와 더위를 막을 수 있도록 만들었다.

변화의 속도에서는 마을별로 차이가 있다. 영랑동은 농촌과 어촌이 공존하는 지역이다. 일상생활에서의 복식은 농촌과 어촌이 크게 다르지 않지만, 변화 속도에서는 마을별로 차이를 보였다. 장천마을의 경우는 내륙 쪽에 치우쳐 있고, 엄씨 집안에서 진사가 나다보니 전통을 지키려는 노력이 강해 전통적인 복식이 비교적 오랫동안 유지되었다. 그러나 해안에 위치한 마을은 이를 시기에 일본과 미국 문화의 영향을 받으면서 의복의 간편성이 좀 더 빨리 진행되었다.

나. 식생활

1) 농촌지역(장천마을, 개안골)의 식생활

식생활은 의생활에 비하여 전통적인 모습이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장천마을과 영랑호 주변 내륙 쪽의 경우 비교적 농경 생활을 해온 역사가 길고 곡류가 일찍이 생산되어왔다. 특히, 장천마을은 장천천 주변에 논이 있고 산중 곳곳에 밭이 있어 비교적 많은 곡식을 생산할 수 있었다.¹⁵⁷⁾

157) 김석주의 증언. 김석주 씨는 75세로 2020년 9월 5일 자택에서 증언을 청취하였다.

내륙 쪽에 위치한 영랑호 주변 마을로는 개안골이 있다. 이 마을은 개안논 주변으로 만들어진 마을이다. 개안논이 있는 지역은 분지 형태의 지형을 이루는 곳으로, 개안논의 앞뒤로 야산이 있었다. 사람들은 이 야산에 터를 잡고 생활을 하였다. 이곳은 농지가 될 만한 땅이 많지 않은 곳이었으나, 그래도 농산물에 의존해서 생활을 하던 지역이다. 지형, 기후 등의 영향으로 많은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풍부한 생활을 할 수는 없었다. 따라서 식생활도 김치류·떡류·장류 등이 주요 식품으로 소박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장천마을이나 개안골은 새쪽마을과 사진마을 사람들과 빈번한 물물교환이 이루어졌다. 이곳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과 해안지역의 해산물이 필요에 의해 교환되어 식재료로 쓰이기도 했다.

문) 장사동 어르신들이 물고기 잡으면 장천마을에서 바꿔갔다고 하시더라고요.
답) 장천은 농사를 짓는 마을이고 거기는 어업을 하니까 곡식이랑 바꿔갔지. 돈 거래가 아니고 거의 물물교환이었지. 보통 사진항, 동명항 분들이 올라와서 사가셨지. 미역, 지누아리, 파래 이런 거 가지고 와서.

〈어재동, 78세·남, 2020.7.30.〉

농촌지역의 음식

□ 농작물 요리

감자부침, 감자옹심이, 감자시루떡, 감자송편, 감자수제비, 순두부, 순두부찌개, 메밀전병(총떡), 호박범벅, 옥수수설기, 옥수수보리개떡, 무 송편

□ 도토리 요리

도토리묵 무침, 도토리 송편

2) 어촌 지역(새쪽마을, 시장마을, 사진마을)의 식생활

한류와 난류가 교차하는 긴 동해안에서는 각종 해산물이 생산되어 식생활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 등대 북쪽의 새쪽마을과 사진마을, 1950년대 이후

형성된 시장마을은 해물을 이용한 찬거리를 주로 쓰고 있다. 대부분 지져먹는 조리법으로 만드는데, 물 좋은 생선으로 얼간생선을 만들어서 양념하여찌는 조리법도 많다. 또한 신선한 어물은 회감으로 많이 이용하고 탕류로 매운탕이 발달하였다. 이 마을에서는 어업으로만 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반농반어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러나 주변 마을에도 농토로 쓸 만한 땅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농산물과 물물교환으로 곡식을 얻기도 했다.

어촌지역의 음식

□ 젓갈 및 식해류

명란젓, 명란젓국·찌개, 창란젓, 창란젓깍두기, 오징어젓, 오징어식해, 서거리식해, 서거리 김치, 밥식해

□ 생선 요리

회국수, 물곰탕(곰치국), 오징어물회, 오징어불고기, 도루묵찌개, 도루묵구이, 도루묵(명태) 칼국수, 삼숙이탕(삼세기탕), 양미리구이, 바다게장

□ 해초류 요리

미역나물, 쇠미역쌈, 쇠미역튀각, 지누아리 장아찌

3) 이주민의 식생활

영랑동의 해안은 오래 전부터 내려온 전통적인 음식이 주류를 이루지만, 전쟁으로 인해 새로 유입된 이주민들의 음식도 함께 전승되고 있다. 영랑동은 속초의 다른 지역에 비해 전쟁 이주민이 많이 유입되지는 않았다. 속초시 자료에 의하면 영랑동 주민 구성의 10% 정도가 이주민이다. 하지만 한국전쟁 이후 발달한 영랑시장에서는 전쟁 이주민 중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장사를 하거나 직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함경도의 음식이 혼재되어 있다.

함경도 이주민 음식

□ 주식류

닭비빔밥, 잡곡밥, 찐조밥, 강냉이밥, 옥수수죽, 얼린콩죽, 감자국수, 감자 막가리만두, 회냉면, 물냉면

□ 찬류

가릿국, 다시마냉국, 세천어국(천엽국), 동태매운탕, 비웃구이(청어구이), 영계찜, 닭섭산적, 가자미식해, 도루묵식해, 고등어회, 콩나물김치, 원산해물잡채, 채칼김치, 함경도 대구 깍두기, 봄김치, 동태순대, 태석¹⁵⁸⁾, 섭죽, 되비지찌개, 순대,

□ 병과류

오그랑떡, 함경도인절미, 달떡, 찹쌀구비, 괴명떡, 꼬장떡, 언감자떡, 가랍떡¹⁵⁹⁾

□ 조과류(다식, 산자, 약과)

산자, 강정, 과줄, 만두과, 약과, 들깨엿강정, 콩엿강정

4) 전승되지 않는 지역의 음식

대부분의 음식들이 전통을 지켜 원형대로 전승되는 경우가 많지만, 시대의 변화에 따라 변형된 것도 많다. 어떤 음식은 식재료의 고갈로 인해서 사라져버린 것도 있다.

영랑동에서 사라져 버린 음식 중 하나가 ‘순채국’이다. 고성지역에는 크고 작은 석호가 많이 분포하고 있는데, 특이하게도 이 지역의 호수에서는 순

158) 옥수수조청에 볶아서 빻은 쫌쌀가루를 반죽하여 한 주걱씩 떼어 쫌쌀가루 고물을 묻힌 옛. 조선시대 양반가의 며느리가 친정에 다녀오면서 만들어 와서 동네 사람들과 나눠 먹던 음식이 전해진 것이라고 한다.

159) 수수가루 반죽을 가랍나무 잎으로 싸서 쪘낸 함경도 지방의 떡. 가랍떡은 가랍나무 잎사귀로 떡을 싸서 쪘다고 붙여진 이름이다.

채¹⁶⁰⁾가 잘 자랐다. 순채가 얼마나 많은지 지명에서 조차 그 흔적을 볼 수 있다. 고성군 죽왕면 삼포(三浦)의 경우 자연마을로 존속되던 포월, 황포, 순포 등 세 마을을 합친 지명인데, 그 중 하나인 순포마을에는 못에 순채가 많다고 하여 순채 ‘순(蓆)’ 자에 호수 ‘포(浦)’ 자를 써서 순포(蓆浦)라고 불렀다.¹⁶¹⁾ 그 외에도 선유담을 비롯한 많은 호수에 순채에 관한 기록이 남아 있다. 그래서 예부터 고성지역에는 순채국이라는 음식이 유명하였다.



<사진 191> 순채

영랑호수도 예전엔 민물 호수였기 때문에 순채가 많이 자랐다. 영랑호에서 순채에 관한 기록으로는 앞의 4장에서 소개한 문학작품에서 찾을 수 있다. 고려 말 문신 안축(安軸)은 영랑호를 노래하는 시에서 순채를 언급하였다.

“蓆絲滑且柔(순채나물은 미끄럽고 부드럽네)”

詩 ‘영랑호에서 뱃놀이’ 中

“蓆羹鱸膾 銀絲雪縷(순채국과 농어회, 은실처럼 가늘고 눈같이 희게 써네)”

‘관동별곡’ 中

160) 순채는 수련과의 수생식물이다. 연꽃과 달리 꽃과 잎이 소형이며, 어린 쪽은 나물로 해먹기도 한다. 제주도 등 남부 지방에 많이 분포하고 중부 지방에는 특이하게 고성에 많다.

161) 고성군, 『고성군지(下)』, 2020, 284쪽.

안축의 시나 고성의 지명에서 보듯 순채는 이 지역을 대표하는 음식재료였다. 그러나 이 순채로 만든 음식은 사라져버려 그 원형을 알 수가 없다. 옛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순채는 된장국에 넣어 끓여먹거나 나물로 무침을 하기도 했던 음식이며, 특별한 음식으로 ‘순채화채’를 만들기도 하였다고 한다. 『주방』과 『규합총서』¹⁶²⁾에는 순채를 생(生)으로 꿀에 재어 두었다가 쓰는 순정과가 기록되어 있다.

다. 주생활

1) 촌락입지

영랑동은 청동기 시대부터 사람들이 살았던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속초고등학교 앞쪽의 낮은 야산에서 간돌검, 돌화살촉 등 청동기 시대와 철기 시대의 유물이 수습되어 당시 사람들의 거주지로 추정되고 있다.

청동기 시대 이후의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농업을 생업으로 생활하였다. 하지만 유물이 발견된 장사동은 주변의 땅이 농지로서 적합한 곳은 아니다. 당시 사람들은 농사와 함께 호수와 바다에 의지하여 삶을 영위하였다. 반농반어의 생활을 하면서 점차 사람들이 바닷가로 모이게 되고, 바닷가 주변에 취락이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영랑동·장사동 지역의 취락은 새쪽마을, 사진마을, 장천마을, 개안골, 시장마을이 대표적이다. 지역의 취락 형성은 자연적으로 이루어진 것인데, 다음과 같은 요인들의 영향을 받았다.

첫째, 기후적인 요인이다. 영랑동의 새쪽마을과 사진마을은 겨울철 한랭 건조한 북서계절풍을 피하거나 여름철 해풍을 시원하게 맞을 수 있는 여건을 고려하여 취락이 입지하였다.

둘째, 생활적인 요인이다. 새쪽마을과 사진마을의 일부 주택은 동향으로, 바다를 향해 일렬로 배치되어 있다. 이것은 주민들의 생업이 어업으로 앞바

162) 1809년 빙허각이씨가 일상생활에서 요긴한 생활의 슬기를 적어 모은 책으로, 「주사의」에는 장담그기, 술빚기, 밥·떡·과줄·반찬 만들기가 수록되어 있다.

다의 상황을 살피기 위함이다. 이는 마을 뒤쪽에 농경지를 두고 앞쪽의 바다를 바라보는 우리나라 반농반어촌의 전형적인 입지 유형이다.

셋째, 전통적인 입지 요인이다. 뒤로는 산이 있으며 앞에는 물이 흐르는 남향(南向)의 배산임수(背山臨水)가 이곳의 취락 입지에도 영향을 주었다. 속초에서는 주봉산과 청대산을 등지고 쌍천을 바라보는 도문마을과, 청초천을 앞에 두고 입지한 도리원마을이 대표적인 남향의 배산임수 취락이다. 장천마을은 구릉성 산지 경사면에 장천천을 앞에 두고 남향으로 입지하였으며, 새쪽마을에도 남향으로 자리 잡은 가옥이 많다.

2) 취락의 형태

영랑동·장사동의 주요 마을인 새쪽마을, 사진마을, 장천마을을 평면 형태에서 촌락 형태를 구분해보면 새쪽마을과 장천마을의 경우 괴촌(塊村)¹⁶³⁾의 형태를 띠고 있다. 산이 많으며, 산기슭에 자리 잡은 장천마을은 남향을 하고 오랜 세월에 걸쳐 땅의 생김새에 따라 집이 한 채씩 들어선 곳이다. 새쪽마을의 경우는 처음에는 바다를 향해 가옥들이 들어섰는데 점차 인구가 늘면서 괴촌의 형태로 변화하였다.

사진마을은 새쪽마을과는 또 다른 형태를 띠고 있다. 인구의 영향도 있겠지만 어업으로 생활을 해왔던 마을의 특성상 전형적인 열촌(列村)¹⁶⁴⁾의 형태로, 기능적으로 구분하면 80년대 이전에는 생업이 도로와 밀접하지 않는 노촌(路村)¹⁶⁵⁾이었지만 90년대 이후 관광어촌이 형성되면서 도로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가촌(街村)¹⁶⁶⁾으로 변모하였다.

3) 가옥의 형태

가) 전통 가옥

(1) 전통 가옥의 분류

163) 가옥, 도로, 경지 등이 무질서하고 불규칙하게 군집된 자연발생적 촌락

164) 도로나 수로 등을 따라 가옥이 일렬로 늘어서 있는 형태의 촌락

165) 도로를 따라 양쪽 또는 한쪽에 열을 지어 늘어선 집들로 형성된 마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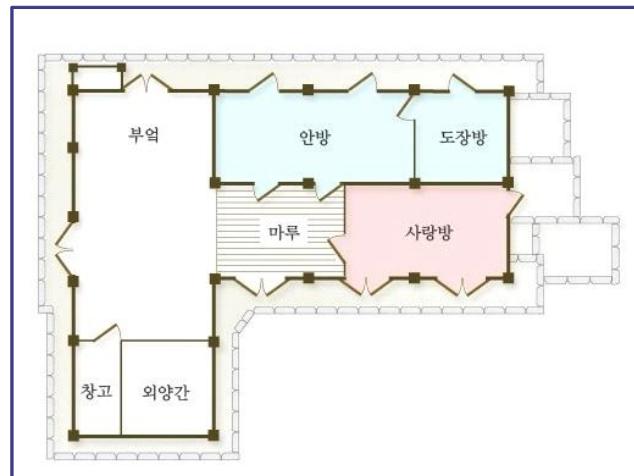
166) 큰길가를 따라 집들이 길게 줄지어 있는 마을이다.

우리나라의 전통 가옥은 평면형식으로 보아 훌집과 겹집으로 나눌 수 있다. 이것은 다시 배치 형태에 따라 일(一)자, 이(二)자, 기역(ㄱ)자, 디귿(ㄷ)자, 미음(ㅁ)자 형태로 분류된다. 이러한 평면형식과 형태는 그 지역의 자연적 조건과 풍습에 따라 이루어지는 각 지방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것을 분류하면 함경도지방형, 평안도지방형, 중부지방형, 남부지방형, 제주지방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분류는 그 지방의 지형, 기후, 기상 등 자연조건에 따른 요소와 민속신앙, 풍수 및 음양오행사상 등의 사회적 관습과 거주자의 전통적 지식과 관습에 의한 건축문화의 전파 요소와 경제적 능력과 신분, 계급에 의한 요소에 의해 구분된다.

(2) 영랑동 전통 가옥(기와집)의 특징

일반적으로 가옥의 형태는 산지에는 평행평과 기역(ㄱ)자 형이 많고, 해변에는 평행형이 많다. 장천마을의 경우 지금은 다른 모습을 보이지만 대체로 산지형의 특성을 나타내며 관동형 기역(ㄱ)자 형이 많았다. 사진마을과 새쪽 마을은 일(一)자형이 대부분이다.

장천마을을 비롯한 영북 지방 내륙의 가옥 형태는 고성의 삼포마을, 왕곡마을에서 그 원형이 보존되고 있으며 분류상 관동형 가옥 구조라 한다. 왕곡마을의 한옥은 안방, 도장방, 사랑방, 마루, 부엌이 한 건물 내에 수용되어 있으며, 부엌에 외양간이 붙어 있는 전형적인 양통(兩通)집 구조이다. 용마루 아래에는 앞뒤로 방을 꾸미고 부엌에 외양간이 붙어 있는 ‘ㄱ’ 자형 겹집 구조이다. 이는 주로 조선 시대 함경도 지방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가옥 구조의 변형된 형태로 볼 수 있다. 함경도 지방의 특징은 대륙성 기후의 영향으로 겨울철의 추위가 심하므로 방한과 보온을 위해 한 용마루 아래 모든 방들을 배열하는 겹집구조, 특히 방들을 앞뒤로 배치하는 밭전(田)자 형태를 취한다. 영북 내륙 지방도 해안에 비해 겨울이 춥고 길었던 관계로 이러한 형태로 집을 지었다.



<그림 39> 관동형(영북내륙지방) 가옥 형태

영랑동의 전통 가옥은 기와집과 초가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보존되어 있는 가옥은 거의 없다. 다만 기와집의 경우 장천마을에 김석주 씨 가옥이 유일하게 남아있지만, 그 집마저도 수리를 하여 완전한 옛 모습을 볼 수 없다.

(3) 영랑동 전통 가옥(초가집)의 특징

영랑동·장사동 지역은 새마을 운동으로 지붕개량사업이 전개되기 전까지 소수의 기와집 외에는 대부분 초가집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초가는 짚(볏짚, 조짚)이나 새(억새, 새풀), 떡풀 등으로 만든 이엉 또는 그 재료로 지붕을 한집을 말한다. 초가는 기와집에 비해 규모에 있어서 작지만 최소한의 주거공간을 확보하였다. 우리나라는 산간벽지 및 화전민촌을 제외하고 대부분 벼농사 지대였다. 따라서 초가의 대부분이 벗짚을 사용하고 있는데, 장천마을과 개안골도 논이 많은 관계로 초가집의 대다수 지붕 재료는 벗짚이었다. 사진 마을, 새쪽마을 역시 반농반어촌으로 초가집이 많았다.

초가는 평면 형태에 따라 일자형, 그자형, 모자형, 까치 구멍집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영랑동의 초가는 일자형 형태로 3칸 초가로서 대청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3칸 초가는 부엌 1칸, 방 1칸의 기본적인 생활공간 형태에서 방 1칸을 덧붙여 확대한 것이다.

(4) 장천마을의 전통가옥

영랑동에서 한옥의 원형을 보존하고 있는 가옥으로는 약 100년 전에 지어진 장천리의 김석주 가옥이 있다. 가옥이 위치한 장천마을은 장천천을 끼고 형성된 자연마을이다. 원래는 고성군 토성면 지역이었는데 1973년 속초시에 편입되어 사진리와 합쳐 장사동이 되었다.

김석주 씨의 증언에 의하면 고성군 토성면이었을 때 고성군에서 장천리와 백촌리가 가장 부촌으로 알려져 있었다. 또한, 마을에 기와를 굽는 곳이 있어 과거에는 마을에 기와집이 많았다고 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현대식으로 변해 갔고 그나마 보존되던 개량된 소수의 기와집도 2019년 속초·고성산불로 모두 전소되어 현재 마을에 남아 있는 유일한 기와집이 되었다.¹⁶⁷⁾

김석주 가옥은 약 100년 전에 건축된 관동형 가옥으로 온돌 난방이다. 집의 형태는 겹집구조¹⁶⁸⁾이고 안방 앞에 봉당마루가 배치되어 있다. 전면은 4칸, 측면은 2칸의 크기이며 기와를 얹은 팔작지붕¹⁶⁹⁾으로 되어있다.

이 집은 특이하게도 대패를 이용하지 않고 자귀로 깍은 각기둥을 자연석 초석 위에 세웠다. 흙기단에 시멘트 몰탈 마감을 하였고, 마루방, 사잇방, 사랑방을 전열에 안방, 도방, 뒷사랑을 후열에 배치하였다.¹⁷⁰⁾ 전면에는 땃방을 두고 세 살 창호를 달았다.

이 집에서 특이한 것은 아래 인방(引枋)¹⁷¹⁾의 높이가 사랑채에서부터 마루 방향으로 인방 높이만큼씩 점차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사랑방이 서당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방안의 모습을 들여다보는 것을 방지한 점과 여성의 생활을 고려한 것으로 치마를 입은 여인들이 높은 문턱을 넘는 것을 생각하여 건축에 반영한 것이라고 한다.¹⁷²⁾

167) 김석주의 증언.

168) 우리 지역 대부분의 집은 겹집 구조(양통집)이다. 양통집은 방을 2줄로 배치하기 때문에 기둥을 3열로 배열하였다. 여기에 덧달아 그자형으로 만들고 외양간, 다락 등을 배치하였다.

169) 팔작지붕이란 여덟팔자(八) 모양을 한 지붕이다. 궁궐, 사찰, 관아, 향교, 중상류 주택의 봄채 전물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지붕 형태이다.

170) 강릉대학교 박물관, 『속초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1997, 210쪽 참조.

171) 인방이란 한국건축용어로서 기둥과 기둥 사이 또는 출입문이나 창 따위의 아래위에 가로놓여 벽을 지탱해 주는 나무를 말한다.

172) 김석주의 증언.

김석주 가옥도 마루, 사잇방, 사랑방이 전열에 안방, 도방, 뒷사랑이 후열에 배치하고 부엌과 외양간이 붙어 있는 전형적인 관동형 ‘ㄱ’ 자형 겹집 구조의 형태이며, 현재 사랑방, 안방을 확장하고 외양간은 화장실로 개조되었다.

이 집은 영북 내륙 지역의 전형적인 가옥으로 일제 강점기에 건축되어 100년의 역사를 지닌 보존 가치가 높은 근대문화유산이라 할 수 있다. 아쉬운 점은 온돌을 보일러로 바꾸고, 흙벽에 시멘트를 덧칠하여 바르고, 방을 확장하고 용도를 변경하여 원래의 모습이 많이 변형되었다는 점이다.



<사진 192> 장천마을 김석주 가옥 전경(가옥 수리 전)



<사진 193> 가옥 수리 후

장천마을의 전통 한옥은 봉당¹⁷³⁾이 있는 양통집으로 정주간이 없으며, 함

173) 가옥 내부에 있으면서 마루나 온돌을 놓지 않는 실내 작업 공간으로 지역에 따라 마루를 깔기도 함.

경도 가옥은 봉당이 없는 대신 정주간이 있다는 특징이 있다. 봉당에는 마루를 깔기도 하는데 이를 흔히 봉당마루라고 한다. 주택의 평면구성에서 부엌과 봉당은 아무런 간벽도 없이 ‘ㄴ’ 형의 공간으로 형성되었다. 부엌에는 정주가 있는데 그 규모는 한 사람이 누울 수 있는 정도의 것이며 함경도 지방의 정주간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다.

정주는 함경도 지방의 정주간과 같은 완전한 방이라기보다는 넓은 부뚜막에 가마를 걸고 가마가 걸린 곳으로부터 아랫방 벽 사이에 폭이 좁은 공간을 형성한 것이다. 이 정주는 그 명칭으로 보아 함경도 지방의 정주간의 변화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 정주를 강원도지방에서는 가마목¹⁷⁴⁾이라고도 부른다. 그러나 이 가마목은 서북부 일대의 주택의 가마목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 규모가 크며 함경도 지방의 정주간보다는 훨씬 작다.

(5) 새쪽마을의 전통 가옥

현재의 시점에서 과거의 모습을 정확히 알 수는 없다. 다만 남아있는 사진을 통해 지난 시절의 모습을 유추해 볼 수는 있다. 한국전쟁 이후 1960년대 초의 모습을 담은 사진을 보면 새쪽마을은 대부분이 초가집이다. 군데군데 작은 기와집이 보이기도 하고, 창고 같은 스트리트집과 함석지붕이 보인다. 모래밭에는 덕장들이 빼곡히 자리하고 있으며, 바다 앞에는 작은 초가집들이 바다를 향해 자리하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 194> 1960년대 초반 영랑동 새쪽마을 사진

174) 가마솔이 걸려 있는 부뚜막이나 그 둘레

(6) 사진마을의 전통 가옥

사진마을은 1970년대 이후 지어진 스퀘트집이 군데군데 보이기는 하지만 전통 가옥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빠르게 상권이 형성되어 지금은 거의 현대식 건물로 채워지고 있다.

나) 근·현대의 가옥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이르러 근대 건축이 도입되었다. 이 시기는 서양이나 일본식 건축물이 도입되기도 하였으며, 건축물이 평면의 변화를 가져와 주생활의 변화를 초래하였다. 또한 도로의 신설, 교통기관의 발달, 신학문의 도입으로 전통문화에 대한 변혁이 시작되었다.

영랑시장 뒤편으로는 신작로가 만들어지고 그 길을 중심으로 상가가 들어서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미 많은 집들이 자연적으로 형성된 도로를 중심으로, 계획되어 있지 않은 형태로 집이 들어서 있는 형태로 마을을 형성하고 있었다.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진 2층 건물을 모방하여, 전쟁 후에도 2층 건물이 만들어져 그 숫자가 12개나 되었다.

한국전쟁 이후에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여 공장지대가 형성되고 시장이 만들어지면서 건물도 양철지붕과 시멘트벽돌 또는 블럭으로 건축하고 현대식 기와를 엿은 집들이 많아졌다.

이와 같은 건축물을 통해 영랑동의 건축물의 대략적인 모습을 살펴보면, 변화가인 만큼 상업용 건축물이 많이 세워졌다. 한옥보다는 서양식, 일본식 건축물들이었고 건축 재료도 시멘트, 함석, 슬레이트 등이 사용되었다.

시간이 지난 뒤의 1970년대를 항공사진을 통해 살펴보면, 당시 영랑동에는 공장형 건물이 많이 세워져 있다. 이러한 공장들은 대체로 어류를 가공하는 업종이었기 때문에 환경문제로 점차 사라지게 되었다. 그 건물은 개조되어 창고로 사용되거나, 흔적을 없애고 그 자리에 현대식 건물로 채워졌다. 근대문화유산으로 조사된 건물조차도 사라지거나 형태가 바뀌어 정확한 내용을 알 수가 없다는 점은 안타까운 일이다.

5. 구전민요

가. 사진리 든대질 소리¹⁷⁵⁾

속초 든대질 놀이의 구성은 성주기(만선기)달기, 고사, 액막이, 비나리 등 넷으로 나뉜다. 비나리의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동무 열한명, 상고로 위엄하여, 조수타고 경세경년에, 포남서남 다니더니, 오늘날 속초시, 각성받이 어부들이, 소원성취 비나이다.

동해신 아명이여, 남해신 축용이며, 서해신 거승이며, 북해신 웅강이며, 강한 지종과 일체동감 하옵신후, 비렴으로 바람주고, 해약으로 인도하여, 백천금 되로내게, 소망이뤄주옵소서”

“자-자-자-자, 이럴적에 기운을 내고, 이럴적에 용기를 써라,
 자지항이 황금출이요, 개문항이 만복래라, 우리배를 내리다보니, 모진강풍이
 불어온다, 이리저리 하다보니, 이내손발이 다얼었구나,
 사공님은 배를내려, 정라진앞바다에 당도되니, 여보 사공님 가까운 곳으로,
 어서 빨리 들어갑시다,
 그것이 좋은 말이다, 정라진 들어가니, 막걸리장사가 지나치며, 나를 보고 손
 을 치네, 손을 치는데는 밤에 나가구, 동네술집은 낮에 나가자,
 자-자- 이왕지사 왔던 걸음에, 죽서루나 구경가자, 삼척하면 죽서루요, 삼척
 바다를 떠나보니, 강릉앞바다가 나서는구나,
 강릉하면 경포대요, 강릉 앞바다를 떠나가보니, 양양 앞바다가 나서는구나,
 양양하면 낙산사요, 양양바다를 떠나가보니, 간성 앞바다가 나서는구나,
 간성하면 청간정이요, 청간정을 지내고 보니, 장전 앞바다가 나서는구나, 장
 전 바다에 들어가보니, 금강산 구경이나 가보세,
 금강산이 좋을시고, 동해끼고 솟은 산이, 일만이천 봉우리를, 구름같이 몰렸
 으니, 천하명산 그 아니냐,
 장안사를 구경하고, 만경대를 올라가니, 마의태자 어디갔나, 장전 바다를 떠

175) 장정룡, 『속초의 향토민속』, 속초문화원, 1992, 82~85쪽 참조.

나보니, 원산바다가 나서는구나,
 원산 앞바다에 들어가서, 이리저리 땅기다보니, 명사십리 나서는구나,
 명사십리 해당화야, 꽃이 진다고 설워마라,
 명년 춘삼월 호시절에, 잎이 피고 꽃이 핀다, 보고보고 암만봐도 보배이들
 배이어라, 자-자-자-자-”



<사진 195> 사진리 들판에서 재현 모습

나. 영랑호 지정다지기¹⁷⁶⁾

집사가 “오늘 저녁에는 영랑동 홍길동 씨 집을 짓기 위해 마을 이웃 모두 모여 지정다지기를 하겠다.”고 고하면서 각종 제물을 차려놓고 축문을 외고 절을 한다.

“가을철이 얼른되니, 어이차(후렴)
 저농부 거둥보소
 낫자루 꽁무니차고
 검정소 앞세우고
 이리툭쳐 썩나가니
 나갈 적엔 빈말이요

176) 장정룡, 앞의 책, 86~87쪽 참조.

돌아올 적엔 친말이라
 말마같은 상노놈은
 질방을 걸어 저들이고
 비오리같은 종년들은
 따발이 받쳐여들이고
 앞마당 노적이요
 바깥마당 노적이라
 노적가리 좋은시고”

다. 속초 지역 수산노동요

- ① 니가내가 어찌하든 다리어
 힘을쓰고 용을써라 다리어 < 다리어소리 >
- ② 앞발은 버티고 어야 뒤로 자빠져 어야
 눕지말고 어야 부쩍부쩍 어야
 당겨주게 어야
 어야어야 어야어야 < 다리어소리 >
- ③ 우리먹고 살라고 에라솔 가래라솔
 고기디리 밀어줬다 에라솔 가래라솔 < 가래소리 >
- ④ 저손질이 저리구 에라 벗기고 보자
 소년고생을 안하겠나 에라 벗기고 보자 < 베끼소리 >
- ⑤ 이번산대는 용왕님 산대 에라소 가래로구나
 이번산대는 선주님 산대요 에라소 가래로구나
 이번산대는 망주님 산대요 에라소 가래로구나
 다음산대는 사공님 산대요 에라소 가래로구나 < 산대소리 >

- ⑥ 강릉앞바다를 떠나고보니 양양앞바다가 나서는구나
 양양하면 낙산사요 양양바다를 떠나가보니
 간성앞바다가 나서는구나 간성하면 청간정이요
 청간정을 지내고보니 장전앞바다가 나서는구나 < 든대소리 >
- ⑦ 이럴적에 기운을 내고 베끼어라 보자
 이럴적에 용기를 써라 베끼어라 보자
 원산내기 찬바람은 베끼어라 보자
 취한 술이 절로 깐다 베끼어라 보자
 설악산 내기 찬바람은 베끼어라 보자
 손발 시려서 못살겠네 베끼어라 보자 < 베끼소리 >
- ⑧ 세월아 네월아 가지를 말아라 지어라보구지 지어라내자
 알뜰한 청춘이 다 늙어간다 지어라보구지 지어라내자 < 지어소리 >
- ⑨ 삼수갑산 딱다구리는 에라소 가래로다
 참나무 구멍을 뚫는데 에라소 가래로다
 우리 저 명텅구리는 에라소 가래로다
 뚫린 지 구멍도 못 뚫는다 에라소 가래로다 < 산대소리 >
- ⑩ 명사십리 해당화야 지어라보구지 지어라내자
 꽃이진다 설워마라 지어라보구지 지어라내자
 명년 춘삼월 호시절에 지어라보구지 지어라내자
 잎이 피고 꽃이 핀다 지어라보구지 지어라내자 < 지어소리 >
- ⑪ 간다간다 나는간다 다리어라 내자
 임을두고 나는가네 다리어라 내자
 내가가면 아주가나 다리어라 내자
 아주간다고 잊을쏘냐 다리어라 내자 < 다리어소리 >

⑫ 아들을나면 효자나고 베끼어라 보자
 딸이나면 열녀나고 베끼어라 보자
 소가나면 특소나고 베끼어라 보자
 닭이나면 봉황나고 베끼어라 보자
 개가나면 삽살개고 베끼어라 보자
 말이나면 용마로다 베끼어라 보자 < 베끼소리 >

장사동에서는 고기그물 당길 때 ‘에이산자’라는 후렴도 사용을 한다. 든대질소리¹⁷⁷⁾는 ‘자- 자-’ 하고 소리한다. 단순한 가사이지만 힘을 써야 할 때를 잘 알려준다.

177) 속초지방에서는 배를 바다로 옮기는 재래식 이동방식으로 든대질을 하는데, 든대는 참나무나 소나무로 만들어 배를 들어올릴 수 있는 지렛대와 같은 긴 막대기를 말한다.

VII. 인 물



1. 김복남(金福男 : 1933~1995)

속초시 장사동 출신, 아프리카 가나 공화국에 AFKO를 설립하여 가나국에서 제일가는 수산업을 경영한 사업가였다. 가나국 올림픽 위원, 교민회 회장, 유럽지구 교민회 부회장 등을 역임하면서 민간 외교관으로 국익에 크게 이바지했다. 뿐만 아니라, 모교인 영랑초등학교에 약 15년간에 걸쳐 많은 액수의 장학금을 기부하였고, 속초시를 통해서도 불우한 후학들의 양성을 위해 거금을 출연하기도 하였다.

2. 김환기(金奐基 : 1889~1955)

함흥 한의원 강습소를 수료하고 주로 속초시 조양동, 영랑동 지역에서 한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며 지역의 많은 주민에게 큰 혜택을 주었다. 3·1 만세운동에 참여, 일경에 체포되어 옥고를 치른 후에 반일 의지는 더욱 굳어졌고, 광복 후 소련군이 진주하면서 공산당 무리가 날뛰자 항일 의지를 반공으로 방향 전환하여 1946년 3월의 이른바 속초 90인 사건의 주역이었다. 공은 당시 반공 인사 강래승 등과 동지 90인을 규합하여 북한 주요 기관을 점거하여 치안 행정권을 탈취, 이 지역만이라도 우익세력의 기반을 구축하려는 의지를 계획하고 행동을 개시하려던 중 사전 발각 검거되어 소련 콘트라지데크 철원 본부에 구속되었다. 그 후 무수한 고문을 받고 풀려났으나 같은 해 9월 반동 음모를 하였다 하여 양양보안서에 연행 구금되어 3개월간 심한 고문과 형벌로 박해를 받고 석방되었으나 이 지역이 좌익기반이 굳어지자 할 수 없이 가족을 이끌고 1947년 12월 월남하였다. 6·25 동란 시 월남 피난 동향인들과 함께 반공의 선두에 서서 서북청년회 영동지구 본부 고문으로 활약하다가 수복과 동시에 속초로 돌아와 속초읍 자치회 고문으로 전후 수습과 지역개발에 짐혈을 기울이다. 1955년 향년 66세로 별세하였다.

3. 박상희(朴祥喜 : 1890~1948)

속초시 장사동(장천리) 출신, 호는 초은(樵隱). 공은 한학에 조예가 깊을 뿐 아니라 신문학에도 해박하였으며, 성품 또한 온후 인자하여 지역 주민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다. 1925년 일본 관리는 공을 회유하기 위하여 도 평의원을 위촉하였으나 참여하지 않고 지역 주민 복지 행정 시행에 힘써 달라는 구실을 붙여 1928년 도천면장으로 천거하였다.

공은 협소한 대포리가 당시로서는 지역발전에 중심이 되지 못한다는 판단 아래 속초의 지형지세를 면밀히 관찰하고 어업을 중심으로 한 항구 도시의 설계를 성안하여 당시 총독부로 하여금 1930년 속초축항공사를 착수케 하였다. 이러한 대규모 공사가 발주되자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게 되고 고용이 증대되니 이 지역에 신문물 유입이 가속되었다.

또한 속초를 내륙과 가깝게 연결하기 위해 1933년 미시령 차도 개설을 주민 부담만으로 시행하고 대관령사업을 연이어 발주하였다. 1937년 면사무소를 속초로 이전 단행하는 등 지역대개발 사업을 전개하였고 이어 주재소, 우체국, 금융조합, 어업조합과 심지어 일본인 심상소학교마저 속초로 이전하게 하였다.

공은 당시 인구가 불과 1만여 명임에도 불구하고 10~15만 인구수용의 도시계획을 성안하여 추진하였고 1942년 면을 읍으로 승격시켰다.

8·15해방이 되어 속초가 38선 이북으로 공산 치하에 있을 때도 이곳 우익진영의 상징으로 많은 모임에 참여하고 다른 인사는 구속 문초하였으나 유독 공만은 소환도 못 하고 미행 전담 내무서원으로 하여금 동정만을 살피게 하였으니 혹독한 공산당도 당시로서는 공의 인품과 행적에 위압을 느꼈다 하겠다.

공은 인공치하에서 이와 같이 사실상 모든 활동을 억제와 감시당한 채 1948년 향년 59세로 별세하였다.

공의 사후 1958년에 당시 읍장이던 전성우가 동명동 로타리에 송덕비를 건립하였고 이후 1992년 8월에 대포파출소 옆 비석 공원에 구비(舊碑)와 함께 신비(新碑)가 세워져 있다.

4. 서창하(徐昌河 : 1904~1976)

함경남도 고원군 출신, 공은 함흥 도립사범학교를 졸업하고 8·15해방 전 까지 함남지방에서 초등학교 교편을 잡았다. 일제 강점기 말 청년들을 강제 징병으로 끌어갈 때 그의 장남과 같이 함흥고보의 동기 동창생이었던 박동명(전 농수산부장관, 성균관대 총장)을 자신이 근무하던 학교에 임시교사로 채용 징병을 면하게도 하였다. 1·4 후퇴시 월남하였으며, 동해안 수복지구 인 이곳에도 중등교육 기관의 존립이 대두됨에 따라 6·25전쟁 와중인 1952년 3월 고성군 동광중학교 설립인가를 받고 이 학교 개교시 교장으로 부임하였다. 당시 이 학교는 수복지구에서 최초의 중학교이면서 최북단의 학교였으며 대한민국에서 공식인가에 의한 중학교가 된 것이다. 공은 교육을 향한 정열과 노력으로 같은 해 5월 25일 제1군단장으로부터 속초고등학교 설립인가를 받아 6월 2일 개교의 타종을 이곳에 울림으로서 수복지구에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처음으로 설립한 창설자가 되었다. 속초고등학교 초대 교장으로 취임하면서 많은 업적을 남겼는데 그 첫째는 전란으로 황폐화된 이 땅에 새로운 학교를 세우고 교육환경을 조성한 일이고, 둘째는 개교 초기부터 면학 풍토를 조성하여 많은 제자를 명문대학에 합격시킨 일이며, 셋째는 개교 초부터 배구부를 창설하여 재임 기간 고교배구에서 수년간 전국 준우승을 석권케 하여 배구 명문 고교로서 자리를 굳힌 일이라 할 것이다.

그 후 신철원의 갈말중학교, 신철원농업고등학교 교장을 거쳐 말년에는 다시 속초여자중고등학교에서 근무하였다.

5. 엄석모(嚴錫模)

속초시 장사동(장천리) 출신, 본관은 영월(寧越)이며 자(字)는 춘경(春卿)이다. 철종 경술년(1850)에 출생하여 을축 8월 9일 76세에 돌아가셨다. 유년 시절 주경야독으로 면학한 끝에 과거에 응시하여 고종 갑오년(1894)에 진사에 합격하였다.

逸話 : 주경야독으로 강독하다 보니 시간의 여유를 얻지 못하여 학문이 깊은 경지에 이르지는 못하였는데 지성이 감천이라 어느 날 길몽을 얻어 마침 과거의 기회가 되어 장질 엄모와 수학 동문 장공인과 함께 3인이 합작 같은 글을 올렸는데 춘경공의 명주장은 중간에 귀인이 개입하여 시관에게 정통으로 전달되어 진사에 급제되었고 여타 2인의 시서는 시관의 무릎 밑에도 이르지 못한 채 낙방되었다 하니 관운도 관운이려니와 당시의 관기(官紀)를 가지(可知)할 수 있다.



부 록

1. 영랑동 연표
2. 증언 기록
3. 영랑동 사진 기록
4. 추억을 기억하는 거리

부록 1. 영랑동 연표

년 월 일	일 자	비고
1330년	강원도(江原道) 존무사(存撫使) 안축(安軸)이 영랑호를 유람하고 영랑포범주(永郎浦泛舟)란 시를 남김.	
1349년	이곡(李穀)이 쓴 동유기(東遊記)에 영랑호 명칭이 기록.	
1757년	여지도서(輿地圖書)에서 속진리(束津里), 장천리(獐川里), 사야지진리(社也只津里) 호수(戶數)와 인구수(人口數) 기록.	
1788년	단원(檀園) 김홍도(金弘道) 영랑호를 그림.	
1914.03.01	장천리(章川里)와 사진리(沙津里)가 속해 있던 고성군(高城郡)이 간성군(杆城郡)에 흡수 통합. (전국의 부(府)-군(郡)-면(面) 통폐합 조치)	
1918년	<최신조선지리(最新朝鮮地理)>에서 속진리(束津里) 언급.	藤戶計太
1919.05.15	장천리와 사진리가 속해 있는 토성면을 양양군에 넘김. (간성군을 고성군으로 이름 변경)	
1925년	속초리(束草里)가 기항지(寄港地)로 각광을 받으면서 속초면의 중심지가 됨.	
1937.07.01	도천면을 속초면으로 개칭하고 면사무소를 속초리로 이동. (현, 영랑동작은도서관 자리)	
1941.11.01	속초공설운동장(束草公設運動場) 설치. [市場(永郎市場) 뒤]	毎日新報
1942.10.01	속초면이 속초읍으로 승격, 되면서 속초리 1구(區)가 됨. (府令 제104호)	
1944.03.20	영랑공립국민학교(永郎公立國民學校) 제1회 졸업식.	
1945.08.15	속초면으로 북한에 편입.	
1945.08.15	해방과 함께 두 개의 강원도 시대가 개막. 이남(以南) : 10개 군, 이북(以北) : 11개 군	
1945.08.30	영랑인민학교 개교(12학급).	
1951.01.04	영랑국민학교 교사(校舍) 전소되어 속초국민학교에 편입.	
1951.08.18	수복과 동시 군정(軍政) 실시, 속초읍으로 환원.	
1951.10월	고성군 토성면 사진리, 장천리 속초읍으로 편입.	
1952.04.23	군·관·민 친선체육대회 개최.	

년 월 일	일 지	비 고
1952.05.25	속초고등학교 설립 허가(제1군단장).	
1952.06.02	속초고등학교 개교(속초국민학교 서편). - 남녀공학 62명(남 57명, 여 5명) 첫 입학 초대교장 서창하, 교감 김치운	
1952.08.17	이형근 장군 덕정비(李亨根 將軍 德政碑) 제막식. - 위치 : 장사동 산313-1번지	
1953년	영랑동 시장 건립(영랑동 131-188).	
1953.07.27	휴전협정 체결. 이날 밤 10시를 기해 155마일 휴전선에서 포성이 몇음.	
1953.08.18	속초읍 청사 준공. 읍사무소 동명동으로 이전	
1953.09.06	밀림극장에서 제1차 권투시합.	
1954.11.17	사진리, 장천리 고성군으로 복귀. 군정에서 민정(民政)이양(법률 제350호 1962.11.21.)	
1954년	사합촌 건물 건립(영랑동 131-20).	1970년대 영랑상회
1955년	해동약방 건물 건립(영랑동 131-96, 김동석 가옥).	
1955.02.23	속초고등학교 제1회 졸업식.	속초면사무 소자리에서 졸업식 거행
1955.06.06	속초고등학교 교사 1차 이전. - 속초리 1구 158(현 양우아파트 터)	
1955.11.03	영랑국민학교 설립인가(23학급).	
1955.12.01	영랑국민학교 개교. 초대교장 고연재	
1955.12.22	명신고등공민학교 설립(동명동 철도부지).	
1956.03.21	영랑국민학교 제1회 졸업식 거행(졸업생 106명 배출).	
1956.04월	명신고등공민학교 옛 속초역사(東草驛舍) 사용.	
1956.10.07	‘양양군교육장배’ 축구대회 영랑국민학교 우승.	
1956.12.31	강원도립 속초병원 최초 설립(영랑동 193-3).	
1957.06.08	속초등대(東草燈臺) 점등(點燈).	
1960.12.16	청동기시대 유물 발견(간돌검 1점, 돌화살촉 6점). - 위치 : 장사동 산268-2번지	

년 월 일	일 지	비 고
1961년	명신고등공민학교 이전. - 영랑동 592-4(현 원각사 자리)	
1961.08.15	영랑호 순국 5용사 추모비 건립(8. 26 묘비 제막식)	
1962.07.24	속초시제 실시 추진위원회 구성	
1963.01.01	속초읍에서 속초시로 승격. 16개 법정리, 22개 부락과 312개 반으로 구성, 55,619명. 김치룡(함남출신) 시장서리 장천리와 사진리가 속해 있던 토성면 고성군으로 환원.	
1964.03.28	속초고교생 5백여명 한일회담 반대 데모. 「평화선을 사수 하라」는 플래카드 들고 시청앞 광장까지 거리행진.	
1964.06.06	속초시 1구 등대 뒷산에 충혼탑, 건립 제막식.	
1965.02.09	속초고등학교 낡은 교실 사용중지 명령, 도교육청으로부터 시달.	
1965.03.01	예총 속초지부 창립. 초대회장 최구현	
1965.03.22	사단법인 속초문화원 설립 허가.	
1965.06.09	속초 1구~6구 가로등 가설.	
1965.07.10	사단법인 속초문화원 개원.	
1965.08.18	강원도립 속초병원 본관 건물 신축.	
1965.09.02	속초고등학교 교사 신축 기공식. 2층 콘크리트 건물로 14개 교실 마련.	
1965.12.29	속초고등학교 교사 2차 이전. - 속초리 산199(현 설악중학교)	
1966.01.01	동(洞)제 실시에 따라 속초리 1구가 영랑동(永郎洞)으로 명명(命名). (조례 제95호 1966. 1. 11)	
1966.04.21	강원도 속초병원 부속 건물 신축.	
1966.05.23	영랑동 가로화장 120m 및 도로포장 620m 공사 착수.	
1966.10.01	비인준(非認准) 속초예총 제1회 설악제(雪嶽祭) 주관.	
1966.12.23	속초중고등학교 병설(竝設) 인가.	
1967.04.06	영랑동 공설시장 개축공사 착공.	
1967.04.17	영랑교 기공식 거행.	
1967.07.18	영랑동 공설시장 개축공사 준공(4동 : 점포 25칸, 어시장 1칸).	

년 월 일	일 지	비 고
1968.02.03	제5회 영북지구 빙상경기대회 영랑호 특설링크에서 개최.	2일간
1968.09.30	영랑동 가로확장 정비공사 500m 완공.	
1969.07.01	동해안 해일로 피해를 입은 휴전선 최남단 어촌 마차진리(麻次津里) 주민을 현 장사동으로 집단 이주 주택 건립 기공.	해일 68.10.24
1969.09.18	정일권(丁一權) 국무총리 마차진 이주 어민 정착 주택 신축 공사장 방문.	
1969.10.15	영랑호주변 통천군순국동지 충혼비 제막식	
1969.12.26	마차진 이주 어민 어선 진수식(어선 50척).	
1970.03.03	속초고등학교 교사 3차 이전. - 속초시 교동 산209-1(현 속초교육지원청 터)	
1971.07.05	단천군민회 망향비 영랑호에 건립.	
1972년	명신고등공민학교 병설로 명신상업전수학교 설치.	
1972.06.21	강원도 속초병원 제2병동과 숙소 신축.	
1973.07.01	고성군 토성면의 장천리와 사진리가 속초시 편입 장사동으로. (대통령령 제6542호 1973. 3. 12.)	
1973.08.01	속초문화원 '제1회 항토문화예술제' 시작.	
1974.08.03	동방원양(주) 영랑호개발 착수.	
1974.11.04	속초예총 사)한국문인협회 속초지부 인준.	
1975.01.29	영랑동 만나식품 속초시 새마을공장으로 지정.	
1975.03.09	속초문화원 '제1회 연날리기대회' 개최(공설운동장).	
1975.05.10	영랑교 확장공사 착공.	
1975.06.30	영랑교 확장공사 완공.	
1975.08.01	속초문화원 신축 사옥 기공식.	
1976.07.30	영랑동 노인회관 준공.	
1976.08.08	영랑교 쌍교가설공사 완공.	
1976.09.21	영랑호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유원지시설지구로 고시.	
1976.12.22	명신고등공민학교 폐교 승인(1979. 2. 28일자.)	

년 월 일	일 지	비 고
1977.02.08	영랑호 민자유치 종합 레저센터로 개발계획 확정.	
1977.04.03	일복문화관(一福文化館) 준공식 속초문화원 입주.	
1977.05.20	영랑호 철새보호구역으로 지정.	
1977.07.05	영랑(永郎) 새마을금고 설립.	
1978.06.07	장사동사무소 청사 준공식 거행.	
1979.02.28	명신고등공민학교 폐교(22회 1,500여명 졸업생 배출).	
1979.04.09	장사동 해송마을금고 설립.	
1980.09.16	속초예총 사)한국미술협회 속초지부 인준.	
1981.01.26	장천천 제방 연장공사 540m 착공.	
1981.05.23	명성그룹 설악종합레저타운 기공식 거행.	
1981.06.22	시내~장천리 시내버스 운행 시작.	
1981.12.17	장사동 어촌계에서 3.5t 관리선 건조 진수식 거행.	
1981.12.29	명성그룹 국내최대규모 콘도미니엄 200실 완공 준공식 거행.	
1982.07.20	동방원양개발(주) 영랑호레저타운 방갈로 60채 건립 기공식 거행.	
1982.08.22	명성그룹 종합휴양지 진입로 완공, 시에 기부채납.	
1983년	속초문화원 '정월대보름행사' 개최.	
1983.01.24	명성그룹 제2콘도 750구좌분 건설발주.	
1983.03.20	명성 종합휴양지 위락놀이시설 18종 착공.	
1983.04.18	명성그룹 도내 첫 수영실업팀 창단.	
1983.07.01	지방공사 강원도 속초의료원 설립(영랑동 591-10).	
1984.12.30	속초문화원 정기간행물 '속초문화' 창간.	
1984.07.27	명성설악컨트리클럽(골프장) 개장.	
1984.11.30	속초예총 사)한국연극협회 속초지부 인준.	

년 월 일	일 지	비 고
1985.12.	속초문화원 첫 향토사료집(영랑과 영랑호 조사 완료)	
1985.02.05	장사국도 확포장공사 착공.	
1985.09.09	영랑동 파제벽 기공식.	
1986.12.22	속초문화회관 착공.	
1987.05.28	해양경찰대 충혼탑 제막식. - 위치 : 장사동 사진리 흰고개 동편 서낭산	
1987.08.01	속초의료원 신축청사 준공.	
1987.12.01	속초예총 사)한국연예예술인협회 속초지부 인준.	
1988.07.26	설악프라자리조텔 신관 개관(766실).	
1988.09.18	신흥사 속초포교당(월각사) 준공 볍회.	
1988.11.14	속초고등학교 교사 4차 이전. - 현 속초시 장사동 460	
1989.04.07	속초예총 중앙(中央) 인준.	
1989.11.08	심한 격랑으로 영랑동 해안도로 160m 유실.	
1990.10.10	속초문화회관 준공 개관(총공사비 24억 7천만원). 속초문화원 별관 3층 이전.	
1991.11.21	속초예총 사)한국음악협회 속초지부 인준.	
1991.12.20	장사동 사진항 개발사업 기공식.	
1992.06.17	설악프라자 골프장에서 온천맥 발견	
1992.11월	속초문화회관 별관 3층 증축(속초문화원 문화사랑방 개설).	
1994.06.13	시민현장탑 제막식.	
1995.01.24	속초민예총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속초지부 창립.	
1995.06.25	속초민예총 속초민예총 민족예술축제 개최.	
1996.08.15	속초민예총 통일문학제 개최.	
1997.09.04	제7회 아시아카누선수권대회 개최.	
1997.11.28	장사동사무소 신축 이전.	

년 월 일	일 지	비 고
1998.04.29	속초향토사료전시관 개관식 거행. (속초문화원 위탁 운영 : 2005년 까지)	
1998.10.17	영랑동과 장사동이 행정동의 통폐합으로 영랑동으로 통합.	
1998.12.03	장천마을 경로당 준공.	
1999.07.10	안축시비 건립[영랑포범주(永郎浦泛舟)], 문화연구회 풀묶음	
1999.12.01	영랑초등학교 준공식.	
2000.08.05	제1회 속초오징어맨손잡기 축제 개최.	
2000.10.01	속초민예총 영화위원회 다큐멘터리 '갯배' 시사회	
2001년	속초민예총 중국 훈춘시와 해외문화교류 시작.	
2001.08.30	영랑동 주민자치센터 개관식.	
2002.12.27	속초예총 사)한국국악협회 속초지부 인준.	
2002.12.23	영랑호 화랑도체험관광지 1차 조성공사 준공.	
2003.06.17	속초문화원 <제20회 강원도 민속예술축제> 참가 - 속초도문메나리농요 최우수상 수상	
2003.10.17	속초문화원 <제44회 한국민속예술축제> 강원도 대표로 참가. - 속초도문메나리농요 금상(문화관광부장관상) 수상	
2003.11.17	영동극동방송 신사옥 개청 기념식.	
2004.03.26	영랑초등학교 야구관 개관(야구부 전용 실내연습장).	
2004.06.30	영랑호 화랑도체험관광지 개장식.	
2005.04.16	제1회 화랑 영랑축제 개막.	
2005.11.24	속초예총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속초지부 인준.	
2006.11.29	대조영 속초 오픈세트장 개장식.	
2006.12.20	속초등대 3층 건물로 새 단장.	
2007.02.23	속초문화원 '속초도문농요' 강원도 무형문화재 제20호 지정.	
2007.02.21	속초예총 사)한국무용협회 속초지부 인준.	

년 월 일	일 자	비 고
2007.10.20	속초문화원 어르신문화학교 ‘실버악극’ 전국대회 대상 수상.	
2010.05.03	속초문화원 ‘사회문화예술교육 거점기관 사업’ 선정. - 문화관광부 공모사업	
2010.09.01	속초문화원 ‘제1회 장롱사진공모전’ 개최.	
2016.09.03	영랑호(永朗湖) 각자(刻字) 발견(장사동 647-49).	
2019.03.31	속초문화원 ‘속초사자놀이’ 강원도 무형문화재 제31호 지정.	
2020.02.10	재단법인 속초문화재단 출범 속초문화예술회관 별관 2층 사무실 개소	
2020. 현재	속초8경 페스티벌, 속초사잇길 버스킹, 통일문화제, 갯배문화제, 민족예술제 개최	

부록 2. 증언 기록

본 구술자료는 채록에 의미를 두어 그대로 서술함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조사일자 순으로 정리하여 게재합니다.

<구술 표기 원칙>

- 구술자가 발음하는 그대로 표기
※ 단, 비표준어 표기 시 명확하지 않은 단어는 표준어로 교체
- 구술의 의미가 없는 단어 또는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단어는 일부 생략

조사연구원 김예빈, 정다은

한기홍 장사동 어촌계장 66세(1955년생)

장사동 어촌계 / 2020년 7월 7일

장사항 개발 목적이 시기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사실 딱히 목적이랄 건 없어요. 동네가 발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뿐이에요. 예전에는 항이 없었는데, 김정일 때(35년 전쯤) 수해가 한 번 나서 이북에서 시멘트가 내려온 적이 있어요. 그 시멘트로 방파제를 만들기 시작한 게 지금의 장사항이죠.

영랑호에서도 어업활동이 행해졌나요?

청초호처럼 배를 정박하고 출항하는 일은 없었어요. 그리고 영랑호에 물고기는 많았지만 어업활동은 하지 않았어요. 바닷가 사람들은 민물고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또 옛날에 전어가 많았어요. 겨울에 물이 얼면 전어가 하얗게 뜨기도 했어요.

혹시 파도로 인한 피해가 있었나요?

그럼요. 영랑호 사진골 밑을 파도가 치면 영랑호 물이 빠져나가지를 못했어요. 파도가 한 번 치면 모래가 쌓이고, 비만 오면 수위가 높아졌어요. 영랑호 근처에는 사람은 안 살고 논농사가 좀 있었죠. 근데 수위가 높아져서 범람하게 되면 논농사를 망치는 경우도 있었다네요.

영랑호가 풍풍 열었던 것을 본적이 있으신가요?

예전엔 많이 얼었죠. 마지막으로 얼었던 건 7-8년 전쯤에 일부가 살짝 언 정도? 아주 옛날에는 구루마를 끌고, 그 위로 걸어 다녔어요. 근데 언제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박동열 영랑동 노인회장 81세

영랑동 / 2020년 7월 7일

(사진자료를 보여주며) 혹시 여기가 영랑시장이 맞나요?

여긴 영랑시장이 아니에요. 내가 여기서 6·25도 겪고, 인민학교도 다녀서 이 지역을 잘 아는데 영랑시장은 아니지. 아마 교동 쪽 같긴 하네. 영랑시장에 이런 건물은 없었지. 왜냐면 그때는 루핑집이 없었거든. 루핑집이 수복되고서 미군에서 나온 기름종이를 가지고 폐허가 된 건물에 씌운건데, 그때 당시에 이런 건물은 없었어. 여기는 초가집하고 시장통에 양철집만 있었지 이런 집은 없었어. 그리고 영랑시장은 그렇게 넓은 광장은 아니었고, 좁게 있었어. 농포머구리집 위에서부터(장사동과 영랑동 경계의 다리에서부터) 약 200m가 거의 솔밭이었지. 그리고 영랑인민학교(영랑초등학교)가 수복되고 나서 2번 신축됐어.



영랑호에서도 어업활동이 있었나요?

있었지 그럼. 근데 지금처럼 그물로 잡는 건 없었고, 그냥 낚시로 했어. 그리고 내가 어렸을 때는 영랑동이랑 장사동 사이에 다리를 파괴하려고 함포사격을 했는데, 다리뿐만 아니라 영랑호에도 폭탄이 많이 떨어졌거든? 그래서 고기가 엄청 죽어 나왔는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막 주워왔던 기억이 나네.

그게 언제쯤 일인지, 어떤 고기가 있었는지 궁금해요.

1952년 정도지. 전쟁통에 장사동에 보면 국사봉이라는 산이 있지 않나, 그쪽으로 우리가 피난을 많이 갔지. 피난을 갔다가 오면서 보면 영랑호에 고기가 밀려나온 걸 주워오곤 했어.

고기는 보통 잉어가 많았지. 낚시로도 잡기도 했는데, 지금 같은 그런 낚시가

아니라 그냥 대나무 낚시대로 조금 잡는 정도였어. 그때는 영랑호에 재첩도 많고, 해초도 많이 나고 했는데 이젠 없지 뭐.

영랑호에도 청초호처럼 배가 들어왔는지, 겨울에 물이 얼었는지 알려주세요.
 영랑호는 막혀있어서 배가 들어오질 못하지. 지금 영랑호 다리 앞 위치에 예전엔 모래사장이 있어서 비가 많이 오는 우기에는 물이 바다로 나가질 못했어. 그럴 땐 장사동에서 농사짓는 사람들이 모래를 파서 물이 빠지게 하고 그랬지. 그럼 또 자연적으로 파도가 쳐서 모래가 분포되고, 지금처럼 영랑호가 형성된 거지. 20년 전까지만 해도 영랑호 물이 얼었어. 우리가 어렸을 때는 거의 50cm는 얼었지. 6·25 전후로 군 트럭이 얼음 위로 다닐 정도로 아주 꽝꽝 얼었어. 또 어렸을 때 국사봉이라는 산으로 나무를 하러 다녔는데, 지게에 나무를 가득 실으면 영랑호가 얼어있는 위로 땔깜을 끌고서 지금 영랑학교 뒤쪽으로 왔지. 거기 서부터는 다시 집까지 지게를 지고 가곤 했어. 마지막으로 꽝꽝 얼었던 건 1970년대 정도인 것 같네.

농사지을 때 부르던 노동요 같은 게 있었나요?

여기는 농경지가 별로 없어서 거의 수산업을 했지. 수산물을 농촌에 갖고 가서 물물교환을 하고 그랬어. 그리고 여기 일주일에 한 번씩 장이 서기도 했지. 5일 장인지 7일장인지는 기억이 잘 안 나네. 수복되고 나서는 잡화장사하는 사람이랑 상인들이 시장에 많이 모였어.

삽짜개 마을에 대해서 아시나요?

여기가(영랑동) 삽짜개 마을(새쪽) 동명항 있는 쪽을 마쪽이라고 했지. 북쪽에서 샛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샛바람이라 그리고, 남쪽에서 마파람이 들어오는 것을 마쪽이라 그랬어. 여기 등대 건너편에 산이 있는데 그 산을 기준으로 새쪽, 마쪽이라 부르지.

영랑동에서도 밭농사를 지었나요?

수산업을 주로 하면서도 밭농사, 논농사를 지었지. 주로 감자, 옥수수, 콩 같은 걸 지었어. 그렇게 크게 하는 건 아니라서 어디에 갖다 파는 게 아니라 자기가 먹을 정도였지 뭐. 장천마을 같은 곳은 농사를 꽤 크게 지었기 때문에 여기서 수산물 채취한 걸 가지고 가서 물물교환을 하고 그랬어.

이형근 60대

장천마을 / 2020년 7월 7일

인공제방에 대해 알려주세요.

루사 나고 공사가 거의 다 이뤄졌죠. 그 전에도 했지만, 루사로 고립되고, 집로 끊기고 전기, 상수도도 다 끊겨서 고립됐어요. 그래서 그때 제방 공사를 다 다시 했어요.

장천마을에는 엄씨, 죄씨, 어씨 성을 가진 분들이 많은가요?

그 당시(마을 형성 초기)에는 엄씨가 많았죠. 그리고 어씨도 꽤 많았고. 현재는 엄씨나 어씨나 이씨, 죄씨 다 비슷해요.

방축골이 어디인가요?

마을 언덕 넘어가서 우측 밑으로 내려가면 방축골, 위로 올라가면 뒷골, 바로 넘어가면 성천이죠. 방축골은 옛날부터 농사 지으면 많이 빠지는 자리예요. 질퍽하거든요. 소가 겨우 다닐 정도로 빠진다고 해서 방축골이라고 불렀어요.

치식골에 대장간이 있었나요?

대장간은 없어요. 치식골 쪽 가면 전부 한화콘도 연못이에요.

서덕자 80대 / 최주연 80대

영랑동 / 2020년 7월 15일

영랑호에서 어업활동이 있었나요?

전에는 물고기를 잡았지. 배가 들어가서 잡는 건 아니고 낚시질을 해서 잡았어. 까만 조개(조가지) 같은 것도 있었는데 이제는 없어. 지금은 영랑호와 바다가 연결되는 부분을 파놓아서 바닷물이 영랑호에 늘 있는데, 옛날에는 파도가 치면 바닷물이 들어가고 파도가 치지 않으면 안 들어갔었지. 그때 영랑호 물은 민물이었어.

옛날에 영랑호에서 장천 쪽으로 거슬러 올라간 물고기 같은 것도 있었나요?
그럼 당연히 있었지. 지금도 있을 거야. 항어(황어의 방언) 같은 게 많았었고, 몇
년 전까지 장천 다리 있는 곳에 물고기가 매우 많았어. 예전엔 항어 엄청 큰 고
기가 나오기도 했었고.

바다에서 잡은 것들을 장천마을에 가서 물물교환 했었다는데 맞나요?

장천이 아니라 중앙시장에 가져갔어. 장천은 시장이 없고 이 언덕에 집 한 채,
저쪽 언덕에 집 한 채 있었기 때문에 장천마을에 팔진 않았지. 옛날엔 여기도
집이 별로 없었고.

혹시 영랑동에서 어떤 일을 하셨나요?

공장에서 일했지. 여기 올라가다 보면 큰 건물들 있는 자리에 공장들이 있었어.
뭐 고기 떼고, 오징어 째고 이런 일이지. 노가리랑 오징어를 주로 작업 했었지.
노가리가 들어오면 할복하면 기계에 씻고 갈아서 판에 말려 과자로 만들었어.
오징어도 말려서 무거리를 만드는 것도 했고. 근데 공장에서 더러운 물이 나오
니까 시에서 철거하라고 해서 30년 전쯤(1990년대) 그 공장이 다 없어져 버렸어.
공장 간판은 없었고 박씨네공장, 안씨네 공장, 호랭이덕장이라고 불렸어.

한부금 93세

영랑동 / 2020년 7월 30일

속초(영랑동)에 어떻게 정착하게 되셨나요?

나는 여기 본토배기지 뭐, 피난 나와 가지고 여기 여태 있었어, 원산에서 피난
나왔거든. 원산에서 6·25 때 나오고, 포항까지 피난 갔다가 그 이듬해 여기 온
게 여태까지 있어.

그런데 왜 속초로 오신 거예요?

고향 간다고 그때 아군이 또 북진에서 들이댔거든? 그래서 쫓아 들어와서 고향
간다는 게 여 들어온 게 여기 주저앉았지.

어업, 물고기 잡는 일도 많이 했죠?

물고기 잡으면 이고 촌에 가서 바꿔왔어. 감자도 받아오고 먹고 살았어. 그땐 고기 많이 낫어, 별난 고기 많이 낫어. 가자미, 명태, 망챙이(아귀) 그런 거 고기가 많이 나니까 웬만한 거 다 먹었지. 도치는 안 먹어서 바다로 다시 돌려보내고. 요즘은 도치 얼마나 비싸. 물곰 같은 거도 하나도 안 먹고 바다로 보냈어. 근데 요즘은 그게 금값이야.

어재동 79세(1942년생) / 김종호 72세(1949년생) / 어두훈 63세(1958년생)

장천마을 / 2020년 7월 30일

예전에 여기 영랑호에서 장천천으로 물고기가 거슬러 올라오는 게 있었나요?
응 잉어, 붕어, 뱡어. 여기선 뱡어라 그래. 민물 어종은 다 있었어. 뭐 가물치..
다 있었어.

장천 마을이 언제 처음 생겼는지 아세요?

교도소 자리에 묻힌 조상님께서 족보상 돌아가신지 462년 됐지. 그러니까 지금 500년이 됐다고 봐야지. 어머니께서(어재동님 본인과 40살 차이) 13살 때 누가 진사가 됐다더라고. 사실 예전에는 노루목 고개부터 하천이 훌러서 (獐)노루 장자를 썼는데, 엄진사가 진사가 난 마을에서 어떻게 노루 장자를 쓰냐고 해서 글 장자, 내천자로 바꿔서 장천(章川)이 됐대.

장사동 어르신들이 물고기 잡으면 장천마을에서 바꿔갔다고 하시더라고요.
장천은 농사를 짓는 마을이고 거기는 어업을 하니까 곡식이랑 바꿔갔지. 돈 거래가 아니고 거의 물물교환이었지.

보통 사진항 동명항 분들이 올라와서 사가셨지. 미역, 지누아리, 파래 이런 거

장사동이나 영랑동에 대해 아는 전설이 있으신가요?

회랑도 운동장이 말 키우는 쪽이 회랑도 관련인 줄 아는데, 골프장 쪽이 맞는 거야.

옛날에 비가 오면 숨을 데가 없으니까 굴에 들어가서 피했는데, 어른들이 천장
을 보라고 해서 보니, 사람 발자국이 크게 있어서 장사바위라고 하더라고.
영랑호 이쪽에서 내려가다 보면 할미바위라고 있어. (할머니 치아가 빠진 딱 그
모양이야)

박동열 영랑동 노인회장

추가 인터뷰 2020년 7월 30일

6.25 당시 기억나는 게 있으신가요?

여기가 UN군들이 다 주둔하고 있었지 미군, 영국군. 내가 여기 1946년도에 여기
왔거든, 여기 있다가 5년 있다가 6·25가 났거든. 영랑 인민학교 다닐 때 간판
이 영랑인민학교였고, 외정 때는 일본말로 뭐라 했는지는 잘 모르겠네. 그리고
지금 의료원 자리에 영랑 인민학교 분교가 있었어. 재적인원이 너무 많으니까
다 못 들어가서 분교를 지어서 들어가기도 했지.

지금 현재 봉포머구리횟집 그 뒤로 인공 때는 그게 솔밭이었어. 그 사이로 숨바
꼭질하고 숨으면 모를 정도로 소나무가 울창했는데 6·25 전쟁 때 그걸 다 밀고
미군이 주둔하고 있었어. 그리고 폭탄이 막 여기저기 떨어지니까 폐허가 됐지.

김학철 66세(1955년생)

장사동 / 2020년 8월 6일

옛날에 뱃사람들이 부른 노동요가 있었나요?

노동요 불렀죠. 노 저으면서 힘을 안 들이기 위해 불렀죠. 옛날에 이 동네에 큰
통신(목선)이 다섯집 정도 있었는데 명태잡이를 하는 배 (옛날 말로 망선배)였
지. 닻을 단 배였는데 “어이여차 어이야 노를 저어라” 이런 노랫가락을 노 젓
는 박자에 맞춰 불렀어. 양쪽에 노가 2개씩 5개가 있었고 한배에 7-8명씩 타서
작업을 했고. 또 그물을 당길 때도 노래를 불렀죠. 양미리나 멀치를 잡으면 고

기들을 털기 위해서 노래를 불렀는데 가락은 기억이 나지 않네.

사진리/ 모래기 마을에 대해 아는 게 있으신가요?

이 동네 주택 땅 전부 다 모래 땅이에요. 옛날에는 영랑호도 다 바다였는데 모래가 퇴적구에 쌓이면서 석호가 되었듯이 이 일대는 다 모래지. 이 주택 안쪽이 새마을 주택인데, 새마을 주택이 들어서기 전에 우리 어렸을 때는 거기서 축구 시합을 많이 했었죠. 그때 땅이 전부 모래였던 기억이 나네. 저 새마을주택은 다 모래 위에 지어진 거예요. 1964년도 해일 때 생겼지. 이 안동네는 농어촌 활동을 하면서 사람이 원래도 있었는데, 64년도 해일 때 이곳과 조양동에 피해복구주택을 짓고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다 이주시키면서 주민이 늘었지. 또 그때는 남북한 대립이 심할 때라 전방에 있던 마차진 주민들을 마차진 이주주택으로 이주시켰고.

장사항을 개발하면서 모래도 많이 깎여나갔나요?

아무래도 그렇죠. 옛날에 여기 주민들은 바닷가에 집 짓는 것을 원치 않았고, 모두 7번 국도 안쪽으로 집 짓기는 게 소원이었지. 지금은 관광 때문에 바닷가 쪽이 더 비싸고 좋지만 옛날에는 반대였죠. 지금처럼 시설이 잘되어있기 전에는 해일이 나면 바닷가 동네가 초토화되니까.

옛날에 모여서 놀이를 하셨나요?

놀이라고 하면 정월대보름날 귀신물이 한다고 했죠. 친구들이랑 얼굴에 (천 같은 걸)뒤집어 쓰고 얼굴 가리고 밥 얻으러 다니고, 예를 들어서 누구 집에 누가 있는지까지 다 알잖아. 다 친구들이니까. 내 집 물건 내가 가져올 수 없으니까 친구들 시켜서 가지고 오라 했어, 반찬 해 먹으려고.

그리고 목선은 겨울 되면 작업을 못 다니니까 배가 마르지 말라고 육지에 올려다 놔서 뒤집어놔요. 옛날에 눈이 1m씩 오면 그 안에 들어가서 놀기도 했고.

영랑시장에 대해 알려주세요.

주한미군들이 우리 동네 바로 위에서 근무했죠. (용촌, 딱사바리(자활촌)) 미군이 있다 보니 연예인들이 와서 공연도 하고 갔고, 영랑시장에 과거에 다방이 2~3개 있었지. 영랑시장은 과거 문화의 거리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고, 외세, 외풍이 있었죠.

손대성 65세

영랑동 / 2020년 8월 22일

옛날에 영랑호에서도 물고기가 많이 잡혔나요?

많이 잡혔지. 겨울이 되면 영랑호 물이 얼어 전어가 얼음에 붙어 있어서, 삽으로 캐서 잡기도 했고, 잉어나 장어, 재첩도 잡혔어.

옛날에는 영랑호에서 낚시를 할 수 있어서 동네 주민들이 낚시로 잡았고, 전어는 호미나 삽으로 얼음을 캐서 잡았어.

옛날에 영랑동에 공장도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공장이었는지 기억나시나요?

71~74년도 경에 맛나과자, 라면땅 같은 걸 만드는 공장, 노가리 건조장 등이 있었어. 80년도 초부터 점차적으로 없어졌지. 옛날에는 여기가(영랑동/장사동)이 속초 1번지(중심지)였어 68-72년도까지도 중앙시장 쪽은 전부 논밭이었고, 영랑동에 시장이 있었지. 지금 영주분식 뒤쪽으로 놀이터가 옛날 영랑시장 자리야.

영랑호가 꽝꽝 언 모습을 언제 마지막으로 보셨나요?

1969~1971년에는 꽝꽝 얼었었지. 1975-1976년에 영랑호에 방파제를 만들기 전 모래톱이 있을 때는 영랑호에 바닷물이 들어오지 않아 물이 얼었어. 옛날에 비가 많이 와서 영랑호에 물이 차면 사람들이 모래사장을 뚫어서 물이 바다로 빠지게끔 하기도 했지.

이주희 51세

장사동 / 2020년 8월 22일

15년 전이랑 현재 잡히는 어종이 달라졌나요?

동해에서 나오던 게 안 나오고, 서해에서 나오는 물고기가 나오기 시작했지. 줄가자미는 남해에서 나는건데 나오고, 서대는 서해랑 남해 따뜻한 곳에서 나오는 건데 서대도 나오고, 장대, 성대 이런 게 어쩌다 한 마리 나와야 하는데 무더기로 나와. 그리고 지금 시기가 원래 고기가 없는 편이긴 하지만 고기가 아예

없다시피 하더라고. 자연산 광어가 안 잡혀. 작년 후반부터 올 한해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 우럭은 원래 잘 안 나오는 어종이긴 한데 우럭도 안 잡히고... 문어도 잘 안 나지. 오징어도 잘 안 나와. 올여름 중간에 꽤 나오긴 했지만 이젠 또 없더라고. 지구온난화 때문인지, 조류가 안 맞아서인지 잘 모르겠어. 동해는 물이 차서 녹조도 잘 안 생기는데 왜 안 잡히는지 모르겠네

서의달 90세 / 백선옥 83세

영랑동 / 2020년 8월 31일

영랑동에서 어떤 일을 하셨나요?

지금은 사라졌지만 어업장 뒤에 있는 극동제빙이라는 얼음공장을 다녔어. 요 얼음공장을 그만두고 나서는 말마다 짐을 싣고 다니는 마차 일을 했고. 영랑동에 마차가 많았지.

옛날에 영랑동에 공장들이 많았나요?

대성제과라는 빵/과자 공장도 있어서 얼음을 팔지 않는 겨울에는 거기서 일했지.

영랑동 사람들이 밭농사도 지었었나요?

밭농사는 조그마하게 지었고 큰 농사는 없었지. 그리고 철도길 옆에 양조장도 있었던 게 기억나네.

영랑동에서는 어떤 고기가 잡혔었나요?

바다로 나가서는 명태, 오징어가 많이 잡혔었고, 근방 등대 뒤에서 낚시질 할 때는 배대미같은거나 조금씩 잡았지. 명태나 오징어가 판장으로 들어왔는데, 그 때는 냉동시설이 없어서 비가 오면 오징어가 썩어서 내다 버리고 그랬어. 판장에서 오징어를 사다가 연탄불에 오징어를 말리기도 했었고.

김석주 75세

장천마을 / 2020년 9월 5일

가옥에 대해 설명부탁드려요.

집이 오래된 집이에요. 100년 넘었어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가 달라요. 옛날에 할아버지가 어르신들이 아낙네들에게 옷자락을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 문지방이 올라가면서 점점 높아져요. 집에 나무가 대파가 아니라 자귀예요. 뒤에 가서 보시면 자귀 자리가 있어요. 나무 깎은.

이 동네(장천마을)에 이런 집이 꽤 많았나요?

옛날에는 산 밑으로 전부 다 우리 집처럼 한옥이었지. 근데 산불 났을 때 다 탔어요. 이제 딱 2집 남았어요. 더 오래된 집은 우리 집이고요.

이 마을에서는 거의 다 농사 지내시죠?

네 다 농사지어요. 옛날에는 토성면이었잖아요. 73년도인가?에 넘어왔는데. 그 당시에는 백촌이랑 장천이 제일 부촌이었지. 곁에서 보이기엔(논밭이) 별로 없어 보이지만 구석구석에 논밭이 엄청 많아.

여기도 마을 제사를 지내나요?

지내다가 저기 서낭이 있는데, 작년에 불타서 회의를 했어. 없애자 해서 작년까지 불탄 데서 그냥 지내고, 땅이 원래 사유지인데(한화에서 샀다고 하더라고), 음력 설 쇠고 초삼일에. 예전에는 날을 받아서 초이튿날 초삼일날 하다가. 누가 돌아가시면 못 지내니까 정월 초삼일날 했어.

마을공원(구. 영랑시장) 마을주민 7명

2020년 9월 11일

영랑시장 범위가 현재 공원 자리만인지 혹은 더 넓었는지 궁금해요.

더 넓었지 다 시장터였어. 지금 집 있는 곳들 다 시장이었고 바닷가 쪽은 아니었어. 시장이 언제 생겼는진 모르겠고, 없어진 것도 정확하게 몇 년도인지는 기억을 못 하겠네. 72년도에 이 동네로 시집을 왔는데 그때는 여기에 골목골목으로장을 섰어. 골목에 리어카가 다니고, 생선 팔고 그랬어. 장씨네 쌀집, 구씨네 쌀집, 고깃집, 부식집, 꽃집이 있었지.

시장에서 어떤 물건을 팔았는지 기억나세요?

생선 팔고, 야채 팔고, 신발 가게도 있었지. 신발가게에 간판은 없었어.

그리고 가게들 간판 다 있었어요. 함녕상회(함씨네) 천집, 럭키 상회(쌀가게)가 기억나네. 저기는 포목점이고, 저런데는 다 쌀 가게고. 할머니들이 다라이 가지고 나와서 쌀 팔고 그랬죠. 솜 트는 가게도 있었고.

(사진 자료를 보여드리며) 김동석씨 가옥, 링키오락실 그리고 여기가 어딘지 아시나요?

링키오락실은 우리 남편, 우리 집이에요. 예전에 해동약방이었는데, 사서 오락실로 운영했어요. 그다음에는 창고로 썼어요. 지금은 싹 수리해서 바꿨어요.

(옛 영랑 시장 사진 보고하신 말씀) 이건 시장 천장이에요. 옛날 어시장 이렇게 해놨죠. 안에서 할머니들 쪽 앉아서 편 하나씩 맡아서 생선 파시고 그랬지.

영랑상점은 장씨네 집이고, 저쪽 물곰탕 집(사돈집) 자리고요.



구, 김동석가옥(링키오락실)



구, 영랑시장



구, 영랑상회

옛날에 2층 집이 18개 밖에 없었다던데, 그곳들은 장사하는 집이었나요?

이 집들이 다 일본 집들이라 아래가 다다미 방이었어요. 풀로 둋자리식으로 다다미, 스폰지처럼 해놨어요. 아래에서 장사 하고, 위에서는 잠자고 했죠.

영광동이 과거에 부자동네, 번화가였나요?

그럼 여기가 1등 시장이었고, 제일 번화했었지. 길 모퉁이에 동해 카바레가 있었지. 그 전에 녹거리 집 오빠가 했지(지금은 사돈이 하는 거고)

옛날엔 기와집 초가집 중 뭐가 더 많았나요?

거의 다 초가집 아니면 스레뜨집이었지. 경사가 아주 나지막하게. 지금 있는 건 슬라브집이고.

속초 최초의 우물이 있었다는데 아시나요?

우물 여기 시장 안에 (현재 공원에 빨래 걸려있는 자리 아래) 펌프로 하는 게 있었어.

6·25 전쟁 끝나고 실향민들 많이 들어왔나요?

여기는 실향민들 거의 없었지. 다 청호동 쪽에 가서 살았지.

명태 덕장, 공장 등이 있었나요?

명태덕장은 여기 위에 있었지. (현재 W 건물 있는 곳). 그리고 공장은 명태 공장, 동부상사(계 공장), 삼해식품(계 공장), 삼덕식품 등이 있었죠. 동부상사는 일본으로 수출도 하고 그랬어요.

정어리나 청어도 많이 잡혔나요?

30년 전쯤에 파도만 쳐도 고기가 잡힐 정도로 많이 잡혔지. 정어리를 잡아서 냉동해서 반씩 뚝뚝 잘라서 고기 미끼로 많이 나갔지. 보통 문어 잡을 때 쓰는 미끼였어.

옛날에 이곳에서 기억나는 일이 있으신가요?

옛날에 물이 안 나와서 여자들은 공동 수도 앞에 바케스 쪽 줄 세워서 받았지. 물이 없어서 차들이 주면 받아가고 그랬지. 시간이 좀 지나서 수도 놔줘서 너무 편하고 좋더라고요.

김동석 부인(밍키오락실운영)

영랑동 / 2020년 9월 20일
인터뷰 진행 김정환, 한정규

이 골목은 옛날 모습 그대로 인가요?

그대로죠. 광산철물은 우리집이에요.

밍키오락실 건물은 어땠나요?

밍키오락실 건물은 우리가 팔았어요. 일본집이니까 사진은 많이 찍어 갔어요. 다다미방이에요.

일본식 다다미방이 많았나요?

이 옆에 집도 일본식이에요. 일본인들이 많았는지는 모르겠고.

이북에서 나오신 분들이 많나요?

이 동네는 별로 없어요.

이 동네 다방이 많았나요?

저 앞에 미군들 때문에 카바레가 있었어요. 디방은 이모네 식당 자리에 있었어요.

시집오니까 어떻게 살고 있었나요?

고기도 잡았지만, 나무 팔아서 살았대요. 진부령에 아침에 일찍 가서 종일 내려왔대요. 밤중에 가기도 했어요. 우차도 끌고 가고 리어카도 끌고 오고, 메고 오기도 했대요. 그 전에 고기 잡는 배가 들어왔었어요. 모래 위에다 올려서 배를 정박했어요.

우물은 어디 있었나요?

하나는 속초모텔 자리, 하나는 삽짜개 마을에 있어요. 시장 안에 나중에 펌프가 있었어요. 펌프는 몇 군데 있었어요.

영랑동 1호 우물집 아저씨

영랑동 / 2020년 9월 20일
인터뷰 진행 김정환, 한정규

우물은 언제 없어졌나요. (골목길 포장도로 위에 우물터가 있음)
이 도로가 2001년도에 생겼어요.

마쪽마을 사람들과는 교류가 있었나요?

길이 두 개가 있는데 등대 아래에 있는 길은 왜정 때부터 있어서 그 길로 넘어다녔어요. 오른쪽 길은 60년대 지나서 생겼어요.

해안도로는 언제 생겼나요?

75년도에 생겼어요. 75년도 전에는 그냥 바닷가였어요. 지금 해안도로 있는 자리가 전부 바다였어요. 백사장이었어요. 거기서부터 장사동까지 전부 백사장이었어요.

68해일 때 집들이 부서지고 그랬어요. 옛날에 연탄 땔 때는 전부 바닷가에 버렸어요. 파도가 치면 다 쓸려가고 없어요. 해안도로가 전부 모래물이에요. 장사동까지. 해당화 따 먹으려고 장사동까지 걸어 올라갔어요.

시장은 언제 생겼나요?

시장은 50년대 생기고 시장 바깥 쪽은 집에 세 채 있었어요. 장사동까지 해당화, 소나무밭이었어요. 그냥 백사장이었어요.

왜정때 일본인들이 있었나요?

일본인들은 없었어요.

공장은 언제 생겼나요?

70년도 80년대에 생겼어요. 자연적으로 없어졌어요.

미군부대가 있었나요?

딱사발에 있었지. 카바레가 동현아파트 자리에 있었고, 그 위 백마사진관 앞이

사창가였어요. 동현아파트 팔고 터미널 뒤로 갔지.

읍사무소 자리는 어디인가요?

옛날, 지금 동명동 사무소 자리는 극장이었어요. 노란 건물 자리가 밀림극장이 있었어요. 왜정 때부터 있던 극장이름은 몰라요. 밀림극장도 왜정 때부터 있었어요. 읍사무소 자리는 마을금고 뒤에 옛날 동사무소 자리, 읍사무소 비슷하게 있으면서. 영랑초등학교 1회 졸업생들이 거기서 공부했어. 김종규 형님이 왜정 때 1회였고. 나는 속초초등학교 다니다가 3구까지 이쪽으로 4학년 때 와서 여기서 졸업했어요. 읍사무소는 처음에는 여기 있다가 시청 쪽 원불교자리로 갔어요.

김 정 92세

영랑동 / 2020년 9월 21일
인터뷰 진행 김정환, 한정규, 박명선

그 때 이 동네에 집이 얼마나 있었나요?

여기 신작로가 있고 신작로 주변에 하꼬방 집들이 쭉 있었어. 철도 부지에 하꼬방 집을 짓고 살았어. 신작로는 일정 때 만들어졌지. 70년대에 너무 복잡해서 뒷길을 냈지

언제 속초에 오셨나요? 여기 오셔서 어떻게 사셨나요?

전쟁이 끝나고 이곳으로 왔어. 영랑시장에서 쌀장사를 했지. 이 앞에는 덕장이 있었어, 여기 앞에는 공설운동장처럼 커다란 운동장이 있어서 속초시 체육대회를 했어. 그런데 중앙시장이 생기면서 앞으로 항구가 발전된다고 해서 모두 그 리로 몰려가기 시작하고 여기가 죽었지.

시장상황은 어땠나요?

여기가 장이 커서 여기로 다 장 보러 왔어. 도로 쪽 방향으로는 쌀가게가 쭉 있었는데 거기 한 칸을 맙아서 했어. 천 가게도 있었는데 서너 집이 있었어. 그 때는 먹는 게 기본이니까 쌀가게가 컸어.

중석상회를 아시나요?

중석상회는 우리하고 친한데 교회를 다니니까 저하고 언니동생 하면서 지냈어. 문화방앗간 자리가 중석상회야. 그릇 파는 집은 바닷가 쪽으로 두 집 있었어. 영랑시장은 전쟁 끝나고 서기 시작했어.

카바레는 어디 있었나요?

카바레는 신현철이가 했어. 동현아파트에 있었어. 카바레가 나가고 도립병원이 되고 도립병원이 나가고 동현아파트가 썼어.

64년도 해일 났을 때 집들이 해일피해를 냈을 때 어디로 옮겼나요?

영랑초등학교 뒤쪽으로 제비뽑아서 나눠줬대요. 시장 뒤 바닷가 쪽 사람들이 갔어요. 많이 갔어. 길가에만 집이 있었고 영랑시장 쪽 새쪽만 집이 있었고, 아래 쪽은 없었어. 새마을 터는 공동묘지 터였어.

개안골은 집들이 있었나요?

거기는 집들이 없고 논밭이었어. 나중에 명신학교가 있었어. 언덕배기에 집들이 있었어. 법원 쪽에도 언덕배기에 몇 채 있었어. 보광사 쪽에도 집은 없었어.

의료원 쪽은 어땠나요?

의료원 쪽은 벌판이었어. 명신학교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었어.

보광사로 가는 길은 있었나요?

영랑호 주변으로는 못가고 산 쪽으로 샛길이 있었어. 범바위도 조그만 오솔길이 있었어. 산을 넘어가는 길이 있었어.

어물공장은 언제 생겼나요?

70년도에 생긴 것 같아. 운동장이었다가 사람들이 삼구시장으로 이동하면서 있었어.

한기홍 장사동 어촌계장

추가 인터뷰 2020년 9월 22일

어업에 종사하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제가 한 40년 됐죠.

그동안 주로 잡은 어종은 어떻게 되나요?

어종을 특별하게 한 가지만 잡진 않고, 횟감 위주로 그때그때 나는 대로 잡기 때문에 다양하죠.

장사항이 준공되기 전에 모래사장에 배를 어떻게 정박하셨나요?

그때 당시에는 다 뱀마들이죠. 뱀마는 다 나무 목선인데, 0.3톤에서 0.5톤 정도 되는 건데 나무 토막을 레일식으로 깔고 인력으로 굴리듯이 끌어올렸죠.

무동력선은 어디 바다에서 어떤 물고기 잡았나요?

옛날에는 다 무동력선이었죠. 차츰차츰 기계를 얹어서 동력선이 됐죠. 요즘은 좋아져서 동력인데, 옛날에는 육지에서 쓰던 양수기를 얹어서 쓰기도 했고요. 지금 다 횟감 위주로 잡기 때문에 먼바다로 나가진 않습니다.

무동력선은 노를 저어서 다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고, 동력선은 조금 더 멀리 나갈 수 있다는 차이는 좀 나지만. 어종에는 큰 차이가 없어요.

뱀마와 뚝단배의 특징이 무엇인가요?

무동력선이 다 똑같은데 하나 (뚝) 세우면 뚝단배고 아니면 뱀마고 하죠.

어선 감척사업이 언제 어떻게 진행되었나요?

정부 차원에서 허가가 남발되다 보니 어선 척수가 너무 늘어나서 어족자원을 보호해야겠다 싶어 해수부에서 10여 년 전에 시행했는데, 그때 당시 사업을 안 하는 사람은 가격을 조금 더 낮게 받고 사업을 아예 접고 그랬어요. 계속 사업 하던 사람들은 계속 했고요.

장사항 준공 이후 항만에 모래가 퇴적되어 입출항에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

으신가요?

모래 때문에 입출항이 안 된 적은 없었어요.

방파제 건설 전 모래사장 폭은 몇m 정도였나요?

한 70m 정도? 여기도(어촌체험마을 사무실) 다 모래였었으니까. 지금은 한 50m 될까? 항구가 생겼으니까 근데 항구가 되다 보니 메워서 육지가 된 거라 그렇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현재 장사동 어촌계에서 시행하는 양식업 사업이나 추후 계획하는 사업이 있나요?

어촌계에서 하는 건 없고 어촌계원이 하는 양식은 있죠. 가리비 양식을 해요. 앞으로도 어촌계 차원에서 계획은 없고요.

귀어하는 청년이 있나요?

어촌계에서 자격을 많이 낳쳤는데, 하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귀어한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종사하는 사람 중에 그나마 제일 젊은 사람은 40대 1명, 50대 1명이고 나머지는 다 60-70대죠.

해수 온도 상승으로 어종이 변화했나요?

크게 변동사항은 없어요. 철 따라 지나다니는 고기는 달라질 순 있어도. 연안에서 잡히는 고기는 큰 차이는 없어요. 쉽게 말해서 요즘 같은 경우 제주도에서 많이 나는 방어가 해수 상승으로 여기가 더 많이 납니다. 근데 연안에서 잡는 고기는 차이가 없어요. (먼 바다에 고기가 난다고 하면 나가서 잡긴 하는데 물고기가 없으니까 안 나감)

현재 외국인 노동자의 어업 종사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외국인이 5분 정도 계시죠.

현재 장사동 어촌계원의 남녀 인원은?

실질적으로 종사하는 사람은 70명 정도. 보통 한 배에 두 명씩 타는데 부부가 타는 배가 대부분이고. 남녀 비율은 여자가 남자의 1/3정도 됩니다.

어촌계에 등록되어있는 선박이 총 몇 척인가요?

18척이요.

<오징어 맨손잡이 축제>가 여러 곳에서 개최되어 엇비슷하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이에 대한 장사동만의 차별화 전략이 있나요?

잡는 방식은 다 똑같고, 여기는 주로 자기가 잡아 와서 시식까지 한다는 점, 날 것을 못 먹는 사람들에게는 꽁치구이를 제공한다는 점이 다른 것 같아요.

꽁치구이는 따로 돈을 받나요?

아뇨. 체험비에 다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그냥 제공해요.

한 마리도 못 잡으면 어떻게 하나요?

잡아 왔다고 다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공동으로 똑같이 썰어서 다 시식 할 수 있게끔 해요. 그리고 우리는 개인이 오는 게 아니라 단체, 학생단체에서 오기 때문에...

다른 곳은 잡아서 다른 곳에 가서 써는데 우리는 다 손질과 시식이 포함되어 있어요.

어민소득증대와 생계안정을 위해 시당국과 정부에 희망하는 사항이 있나요?

정부에서 지원한다고 하면 좋긴 하지만, 말한다고 해서 금방 되는 것도 아니라... 정부에서 지금도 많이 지원해줍니다.

그럼 지금 장사항에 제일 필요한 지원은 어떤 건가요?

이제는 어느 정도 새로운 걸 개발을 해야 하는데, 타지역에서도 다 비슷한 걸 하다 보니까 더이상 개발할 것이 없어요. 이제 점점 오징어맨손잡이축제도 침체 돼가고, 새로운 걸 개발해야 하는데 다른지역에서 다 하니까 따라 할 수도 없는 거고... 고민이에요.

장사동 횟집타운에 가장 먼저 개장한 횟집과 개장 연도는 언제인가요?

장사횟집이 30-35년 정도 됐어요.

장사동 횟집타운이 본격적으로 규모를 갖추기 시작한 대략적인 연도는 언제

부터인가요?

장사횟집이 시작을 하면서부터예요. 그때부터 쭉 성장을 한거죠.

장사동 횟집타운 조성시 속초시 당국의 정책적 지원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개인이 먹고 살기 위해서 장사로 시작한 게 장사횟집이고, 그게 잘 되니까 그 옆에 자꾸 생긴 거고요.

90년대 후반 이후 7번 도로가 이전되고, 대포항 중심으로 새로운 회타운이 형성되면서 어떤 영향을 받았나요?

크게 달라진 건 없고 횟집이 늘어났어요.

대포항에 횟집이 많은데도 오히려 늘어났나요?

대포항을 보고서 여기서 횟집을 하면 잘 되겠다고 생각해서 늘어났다고 봐요.

장사항 오징어 맨손잡이 축제 개최 시 인근 횟집들은 어떠한 형태로 동참하고 있나요?

횟집에서는 전혀 참여하지 않아요. 어촌계 휴무 인력이 나와서 일하고 일당도 조금씩 받고, 연말에 어촌계 남은 돈 배당도 하고 그래요. 1년에 열흘 정도 동네 청년회에서 시에서 보조를 받아 운영하기도 하고요.

어촌계원분들이 오징어를 잡아 오는 건가요?

아니에요. 오징어 수급은 여기는 오징어 배가 없어서 다른 지역에서 가지고 와요. 속초항이라던가 고성 부근 오징어배에서 가지고 오죠. 여기서 직접 잡을 수는 없다. 오징어 배는 이런 소형선박으로는 안돼요. 여기 배는 주로 3톤인데, 오징어배들은 보통 30-40톤 되니까. 그리고 여기 항구가 작아서 그런 배들이 들어올 수도 없고요.

장사동 횟집타운 전성기는 언제였으며, 과거와 비교해볼 때 매출액의 차이는 어떠한가요?(코로나 변수 제외)

2000년~2010년 정도. 2000년도에는 속초 오면 횟집하면 장사동이었죠. 한 번씩은 다 거쳐 갔어요. 매출액은 직접 운영을 한 게 아니라 모르겠지만 예전과 차이가 많이 난다고 알고 있어요. 회 장사가 잘 안되니까 대개집으로 바꿨다가 요즘은 대개도 잘 안 되고 있어요.

현재 장사동 횟집타운에 위치한 횟집 수는 몇 개인가요?
자세히는 모르지만 30~40집 정도 돼요.

속초 여러 곳에 회타운이 조성되어 있는데 다른 곳과의 차별화 전략이 있을까요?

딱히 없어요. 동명항은 자연산만 판다는 특징이 있지만 이런 변두리에는 자연산이 비싸고, 손님도 별로 없어서 자연산만 가지고는 장사를 할 수 없어요. 양식 좀 쌉 고기를 받아 파니까 그나마 유지가 되는 거죠.

김종규 83세(1938년생)

동명동 거주 / 2020년 10월 7일
인터뷰 진행 김정환, 한정규, 정다은

1915년 지도에 영금정에 섬이 두 개가 있는데 설명해 주세요.

큰섬은 정자가 있는 섬이에요. 산위의 정자말이에요. 우리가 육지에서 이 섬을 갈라면은 바지를 걷어갖고 가야해요. 거기가 전부 둘이예요. 알아요. 그때 이 섬에는 소나무도 있었어요.

내가 인공시대에 중학교가 이마트자리에 있었어요.(속초중학교자리) 그때도 갯배가 있었어요. 여기서 갯배를 타고 건너가면 그다음부터 집이 없어요. 일본아들 마르시치공장이라고, 정어리공장. 하나 딱있고 전부 솔밭이었어요. 중학교 다닐 때는 혼자서는 못가 겁이나서. 쉬었다가 모이면 같이가고 했어. 그래서 도로가 있을 수가 없지. 우리 부친이 배사업을 하고 그랬는데, 그때 말씀하시기를 중앙동으로 항구쪽으로 들어가는 그 길은 옛날에는 외지에서 오는 배가 항구안에 없었대요. 들어갈수가 없었대요. 왜냐하면 말뚝을 박아 놨었대요. 그래서 파도가 너무 치면 배가 파손될 위험이 있으니 말뚝을 모두 뽑아 배를 그 안으로 피신 시켰다고 하드라구요. 이건 육지하고 별개지.

양쪽에 길은 하난데 거긴 자동차도 안다녔어요. 그런데 소나무가 꽉 찼거던, 해송이. 집이 없어요. 학교까지는. 마르시치공장이라고. 일본말로 시치가 7이잖아. 동그랗게 해서 7자로해놔서 그렇게 불렀어요. 정어리공장 하던 사람이 정어리가 안나서 폐쇄시켰어요. 그래서 빈공장인에 고거 하나 있고 전부 솔밭이었어요. 갯배 건너 오른편에 공장이 있었어요. 그러고는 민가가 없었어요. 그러니 무섭지.

그래서 혼자 안다녔어요. 겁이나서.
왼쪽은 집이 약간 있었고 오른쪽은 없었어요.

속새

마을이 바닷가를 끈 지역은 항구를 끈 동네예요. 바다쪽에 있는 마을은 진자를 썼어요. 옛날에는 속초를 속진이라 했거던. 속진이란 말을 많이 썼어. 속새라는 말은 별로 안썼어요.

대포

대포가 왜 면소재지가 됐나면. 거기 해군이 주둔했거던. 대포초등학교에서 조금 더 내려오면서 뒷산 올라가면 훤한 버덩이 있는데 거기를 ‘만주벌’이라고 했거던. 거기에 해군이 주둔했어요. 그래가꾸 대포가 갑자기 는거예요. 군인들이니까 가족들도 왔을거구. 그러니까 번창하게 된거지. (일본해군이 주둔했다는 말씀인가요?) 아니 우리나라. 조선시대. 그래서 대포가 원래 이름이 독재예요. 지금 외옹치를 뱃독재라 그러거던. 밖에 있다 그래서.

영금정이라는 지명은 언제부터 사용되었나요?
영금정이라고 한건 문헌에 나온건 없어요.

축항 쌓을 때 해양경찰서 쪽은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영금정 들어오는 길이 4차선 도로인데 거기가 전부 바다예요. 후에 항만 개발하면서 메꿔진거예요.

선생님께서 영랑인민학교 졸업생이라고 하던데 당시 이야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4회예요. 해방되던해 4학년이었어요. 그해 4년전에 영랑초등학교가 생긴거예요. 처음 이름은 영랑심상소학교. 처음엔 그렇게 불렀어요. 명신학교 자리에는 일본학교 설악심상소학교가 있었어요. 거기는 옛날 일본 애들만 다니는 학교예요.

학교 학생수는 얼마나 됐었나요?
한학년에 30명 이상은 돼요.

교사수는 얼마나 됐었나요?

한국교사는 별로 없어요. 전부 일본사람이예요. 교장, 교감도 다 일본사람이였어요. 평교사는 더러 있었죠.

어떤 과목을 배우셨나요?

국어, 산수, 지리, 그런걸 배웠죠, 일본인들이 우리나라말을 말살시키기 위해 요만한 표쓰가리를 만들었어요. 그걸 학생들에게 전부 줘요. 학생들에게 10장씩. 한국말을 하면 “후다 다세” 하거던. 그게 다세하면 쪼가리를 줘야해. 이게 다 없어지면 벌받아야 해. 우리나라말을 말살 시키는 제도를 학교에서 그렇게 했거든. 수업 시간에는 다 일본어로 수업받았어요.

4학년때부터 인민학교에서는 어떤 교육을 받으셨나요?

우리 때부터 5년제가 실시됐어요. 우리보다 1년 선배는 6학년에 졸업하고 우리는 5학년에 졸업을 했어요. 중학교를 갈 때 우린 1학년에 입학하고, 우리 선배는 2학년에 편입이 됐어요. 영랑사무소 자리에서 중학교를 배웠어요 해방되구 인공때 거기서 중학교 다녔어요. 속초중학교예요. 이북아덜은 군단위는 고등학교가 있고, 고급중학교라 그랬거던. 읍면 단위는 중학교, 속여중, 속중 이렇게 있었어요.

속초에 인민학교는 몇 개가 있었나요?

영랑인민학교, 대포인민학교 두 개 있었어요. .아군 올라오고 51년도 속초국민학교가 있었지.

속초초등학교 체육관 하던 자리가 속초고등학교. 우리는 2학년은 양우아파트 자리로 옮겼고. 처음 속고가 옮긴 자리예요.

선생님은 속고 몇회신가요?

속고 1회예요. 우리가 졸업을 하고. 바로 아래 후배가 3학년 때 이리로 온거지. 처음서부터 거기 있다가 졸업을 했어요. 2회 때부터 여기.

설악심상초학교는 언제부터 있었나요?

영랑초등학교 생기고 그 다음 핸가 그래요. 분교가 있었는데 속초에 일본아들 다케나까 공장이라고 잊어요. 소고기 공장. 군수품이지. 그거를 여기서 가공했어요. 그러다보니 일본아덜이 많이 왔지. 그 자제분들이 배울데가 없잖아. 그러니

까 거기다 학교를 세웠지. 다케나까 공장은 청학동에 있었어요.

속초역사에도 학교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어떤 학교가 있었나요?

정식 학교는 아니고, 야간 학교를 임시로 가설해서 있었어요.

영랑시장에 대해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세요.

전쟁 전에도 오일장이 있었나요?

그건 없었어요. 67년 4월 6일날 공동시장이 준공이 됐어요. 엄청나게 번창되던 곳이예요. 고복수씨가 운영하던 망향다방이라고 있어요. 바로 공동시장 옆에 있었어요.

시장이 매일 매일 섰나요?

매일 섰죠. 워낙 인구가 많으니까 생필품이 다 있었어요.

미군부대에서 나온 물건을 파는 가게가 많다고 들었는데 혹시 기억하는 것 있습니까?

지금 해경 부두 있는데가 그 때 LST가 속초에 오면은 거기에 들어와요. 거기가 모래사장이거던. 왜 거기다 했냐면. 속초에 미군부대가 다섯군데가 있어요. LST가 하나, 철길 쪽에 하나, 고성식당 일대가 전부다. 거기가 젤 많았고, 그리고 조양동 솔밭에 전 동사무소 자리, 딱사발은 낙하산 부대가 있었어요. 미8군이 운영하던 곳인데, 특수부대예요. 거기 비행장이 있었어요. 조그만 MRT 이착륙이 가능했어요.

고복수, 황금심씨가 해변에서 커피를 팔았다고 하던데 어느정도 기간이었나요?

그게 다방이었지. 한 3년 됐지. 이 분들도 고향이 이북이거던,

밀림극장은 언제 있었나요? 주로 공연은 어떤 것으로 했나요? 밀림극장 자리는?

길건너편에 극장이 또하나 있었다고 들었는데 혹시 아시나요?

영화두 하고, 가수들 와서 공연도 하고— 고복수씨가 가수니까 그분 지인들이 와서 유명한 가수들도 와서 공연했지.

신작로의 위치가 광산철물점 옆 도로라고 하는데 맞나요? 신작로에 차가 다

녔을텐데 지금 보면 도로가 너무 좁은데 예전 도로하고 지금 남아있는 풀목하고 차이가 있나요?

지금 도로는 없었고, 그 옆에 조그만 도로가 옛날 국도예요, 신도로가 만들어지면서 사는 사람들이 집을 내어서 지었어요. 이 도로는 일제 강점기때 만들어졌어요.

현재의 도로는 언제 개설이 된 것입니까?

의료원 생기면서 그때 생겼어요, 병원이 65년 8월 18일날 도립병원이 있었어요. 그 이전에 작은 건물이 있었던 거 같아요. 저쪽으로 옮겨가면서 68년 8월 22일 날 준공이 됐어요. 오래 안 있었어요.

(65년쯤 큰도로가 생겼다는 얘기네요)

의료원 들어오구니까 65년도 맞아요.

시장 주변은 전쟁 후 바로 집들이 들어섰나요? 아니면 일제 강점기때 집들이 세워졌나요?

시장 북쪽은 처음에는 집이 없었어요. 시장이 만들어지고 나서 하나씩 생겼어요. 옛날에는 영랑초등학교 일대가 전부다 모래사장이니까 거기다 공동묘지 쓰고, 주인도 없는 땅이니까. 영랑초등학교 생기고 그 주변이 발전하고 이런 거예요. 새쪽 사람들은 거기에다 배를 뜯대니까 동명항 쪽에 갖다댔죠. 여기 어촌계도 영랑동명어촌계예요. 그래서 영랑동은 배 한척도 없어요. 다 동명동에 있지. 전쟁 전에는 미역바위 쪽으로 조그만 배들은 들어와서 모래사장에 엎어 놓았어요.

시장에 일본풍의 집들이 꽤 있었다고 하던데, 일본인들이 많이 살았나요?

동명동사무소 자리가 한성관이라는 술집이 있었어요. 요정이예요. 그러다보니까 큰길 쪽으로 일본 사람들이 많이 살았어요. 그리고 다께나가 공장이 있는 그 쪽에 좀 있었고. 그리고 영랑동에 일본집 없었는데... 영랑시장 쪽엔 일본인들이 안살았어요. 중앙동 쪽에 많이 살았을거예요.

해동약방은 언제부터 있었나요?

6·25 이후에 있었어요. 그 사람들 집이 원산인가. 피난내려와 갖구. 10년 정도 하구, 서울 갔지.

일제 강점기때 여기에 정어리 공장이 많았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정어리 어로 작업을 많이 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우후죽순 식으로 자가공장을 만든거예요. 그러니까 기름을 짜기 위해서. 어데 파냐. 지금 해수욕장 있잖아. 그 일대에 큰 일본배가 와서 정박을 해갖고 있다가 여기서 쪼그만 배들로 날라서 기름을 거기다 파는 거예요.

정어리 기름은 어디에 사용했나요?

비행기에 쓰고 그런데 썼겠죠. 마르시치 공장이 있었을 라고요. 영랑동 거긴 전부다 정어리공장이었대요. 자가공장이지.

정어리공장은 일본인들이 운영했나요?

아니요. 우리 나라 사람들이. 어민들이 고기 잡아와서 채려갖구 기름을 짜서팔구 그랬죠.

동해캬바레는 언제 있었나요?

전쟁후 민정이양되고 그쯤 생겼을 거예요.

시장에 쌀집은 어는 쪽에 있었나요?

오른쪽 편으로 있었어요. 바닷가 쪽으로는 좌판이 있었을거예요.

계림관은 무엇을 파는 가게였나요.

술집이예요.

현 원각사 자리는 1960년대 항공 사진을 보니까 물이 가득 쌌는데 논이 아니었나요?

여긴 논이예요. 이 사진은 비가 왔을 때 찍은 사진 같아요. 논이 호하구 (높이 가) 별로 차이가 없었어요. 배수가 안되니까 이렇게 된거예요. 비만오면 이렇게 돼요. 농사짓는 사람들이 갈구 그랬어요. 문화원 질 때 내가 시청 노정계에 있었어요. 그때 도자를 빌려갖구 영랑동에 조그만 산이 있어요. 그걸 헐어갖구 여기를 메웠어요.

보광사는 어떻게 갔나요? 그리고 그 일대 장사하는 사람이 있었나요?
 해병대 자리만(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땐마 같은거 장사했어요. 코굴바위로 다녔어요. 범바위막국수 앞에 옹벽을 쳐놨어요. 낮에 놀다가 잠자고 했어요. 쉼터예요. 그 쪽으로는 잘 안가고 문화원 옆에 사찰하나 있잖아요. 사찰 좌측으로 길이 있었어요. 글루 많이 다녔어요.

예전 영랑호 상태는 어땠었나요?

거기 재첩이 많이 났어요. 그걸 많이 팔죠. 거기서 수영은 못했어요. 풀이 많아서, 옛날에 한사람씩 꼭 죽었어요. 수영하다가. 여기서 옛날 전국 스케이트 대회도 했어요. 그때는 오른편 길이 났었어요. 그래서 돌아서 갔지.

기차길이 어디에 있었나요.

영랑초등학교 앞으로 철길이 있었어요. 법원 앞으로 해가지고. 양우아파트 앞으로 해서. 영랑교에도 철길이 있었어요.

기차는 양양에서 원산만 다녔나요?

경원선이 통천에서 연결되어 양양에서 출발하여 원산까지 갔어요. 일정때부터 계속 그랬어요. 그때 이미 원산에는 아스팔트가 있었어요. 내가 원산가서 보구 와서 친구들에게 말했더니 친구들이 거짓말이라고 말했어요. 속초중학교 교사 중에 여기에 내려와 있다가 밤에 조그만 배타고 탈출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전문적으로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인공때.

어재동 42년생

장천마을 / 추가인터뷰 2020년 10월 10일
 인터뷰 진행 김정환, 한정규

장천마을 큰논골과 독골의 위치를 알려 주세요.

마을 앞의 골짜기가 깊다해서 큰논골, 그담에 독골은 올라가다가 두 갈래가 째겨졌어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큰논골 맨위에 저수지, 고배가 노루목고개예요. 지금 연못이 있던 곳이 32배미가 나오는 논이었거든요, 그 논에 넘어가면 원암이예요.

장천마을 ‘장’ 자가 ‘노루장’에서 ‘글장’으로 바뀌었는데 아시는데로 말씀해 주세요.

한말에 엄진사라는 태어났어요. 그 사람묘가 교도소 청해학교 들어가는 그 곳에 묘가 있었는데, 교도소 들어오는 조건하에 저작으로 읊겼어요. 근데 엄씨하고 장씨하고 둘이 공부를 했는데 장씨는 공부를 잘했는데 엄씨는 장씨를 못따라 갔대요. 근데 “야 친구야 이거 가지구 가서 시험 봐라. 나는 안될거 같다. 엄씨가 그걸 가지구 시험을 보러가서 그대로 적었단 말이예요. 그런데 엄씨가 장씨가 준 그 가지구 진사가 됐어요. 진사라는 거는 얼만큼 내 몸에 글이 있느냐를 파악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엄씨예요. 지금 살아계시면 119살, 나보다 40년 위에요. 그런데 엄진사가 어떻게 진사가 난 마을에서 노루장자를 쓰겠냐, 글장자를 쓰자 그래서 글장자, 내천자가 됐다는 얘깁니다. 그 고개에서 부터 물이 흘러서 노루장자 내천자를 썼다. 근데 우리 어머니께서 16살 때 엄진사가 났다고 구경을 나갔대요. 나갔는데 행상들에다 태워갖구 막 북치고 들어오더래요.

영랑호 주변 바위 이름을 말씀해 주세요.

장사바위가 있죠? 굴은 사람하나 기들어가면 기들어가. 근데 후라쉬로 비쳐야 볼 수가 있어요. 영랑호를 물이 빠졌다 올라갔다 했는데 지금은 포장을 해놔선 높아지다 보니까 굴이 작아졌어요. 거기 화장실이 있어요. 그런데 장사들은 비가 오면 숨을 데가 없어 굴속에 들어가서 살았어. 천장에 보면 사람발자국 자리가 크게 나있어. 그래서 이게 장사바위다.

장천서 내려가다 보믄 할미바위가 있어요. 그걸 왜 할미바위라고 하냐. 할미 바위가 치아없는 바위여. 그 바위가 물 속에 할머니 바위가 있고 작은 바위가 세 개가 더 있어요. 할머니가 애들 델구 아들을 면회왔다가 못나가서 거기서 슬퍼서 울었다. 화랑들 훈련장이 장사바위 그 위에 있었어요. 장수들이 놀다가 너무 좁으니까 들어서 올렸다. 그런 얘기예여.

장사바위에서 조금 내려가면 모자바위가 있어요. 사람 모자 창처럼 생겼다해서 모자바위에요. 모자창은 지금 도로 밑에 있어요.

그리구 범바위 뒤 논메운데가 훈련장에서 훈련학교 목욕시켜주던 곳이라고 중이 말해줬어요.

독골이름의 유래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독골이라는게 거기 다 올라가서 두 골짜기로 째겨졌어요. 그런데 골짜기에 지금 한화리조트에서 바위가 풍 깨어요. 그게 독골바위예요. 큰 골짜기가 독골이고, 그 옆이 도룡골이에요. 도로 갔다 해서 도룡골. 그래서 독골이라고 핸거구. 그리구 앞산 너머 거기는 이름이 두 가지로 불려요. 불매앞, 또 터앞, 마을앞의 터 앞이라는 얘기여. 마을터 앞. 불매앞이 먼저 이름이예요. 거기 조금 올라가면 치시골이 있어요. 치시골이란거는 옛날에 흙이 많았어. 흙을 파먹구 옛날에 우리가 동네에서 화전놀이를 여자건 남자건 그 골짜기에 가서 화전놀이를 해요. 그래서 거기가 치시골이고. 흙이 많아서. 흙이 많은 골짜기

망태골 이름의 유래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망태골이란 데는 여는데는 감자를 숨겨도 안되는데 거기다가 감자를 숨구으는 밭은 얼마 안되는데 감자농사 지는 영감이 그래. 할멈은 감자를 캐고 자기는 솔지게로 져나르는데 할멈이 더 빠르대. 그 거리가 얼마 안되는데두. 그래서 감자를 망태기다 넣어 가지구 지구 댕겼다해서 망태골이예요.

여우바우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옛날에 우리들 클제 어른들이 열을 나서 다섯을 키우면 잘 키웠다고 했어요. 질병에 다 죽었거든요. 그러면 그 애기들을 포대기다해서 땅에다 묻어버려. 그러면 여우가 얘기를 파다가 굴 앞에서 먹었던 해골바가지가 선산에 일하러가든 겁이나서 어른들 안따라가믄 못가. 망태골 조금 더 올라가면 있어요. 길에서 보여요.

방축골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방축골에 가면 샘이 그렇게 좋았대요. 그래서 샘을 파다 먹다보니까 그 옆이 방축이 됐단 얘기래요. 그 샘은 물이 좋아 성황제때 그 물을 떠다가 술을 빚었어요.

싱싱골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거기 바깥에는 바람이 안 부는기 거기만 가면 바람이 분대요 그래서 싱싱하게 바람불고 이 동네가 한옥 기와가 한 70%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어른이 구성리를 갔다오다 보니까 진흙으로 기와를 만들더래요. 그래서 우리 동네 이거보다 더 좋은 흙이 있다고 했더니 따라 오더래. 그래서 싱싱골 골짜기에서 기와를 만

들었어요. 한화콘도 거기서 만들었어요. 우리동네 기와를 보면 승자가 있는 기와가 있어요.

기와점은 언제부터 있었나요?

내가 태어나기 전에. 80년전에. 구성리가 처가 동네인데. 진흙이 우리 동네 진흙보다 못한거를 가지고 기와를 만들고 있어서 그래서 우리 동네와서 얘기하니까 그 사람 한번 델구 오너라 그래서 싱싱골 골짜기 가면은 새빨간 진흙이 나와. 그래서 그 사람이 여기와서 돈 벌었다는 얘기예요.

수정고개가 어디인지 아시나요?

지금도 파면 수정이 나와요. 옛날에 수정재라고 했어요. 수정은 내가 64년도에 제대하고 왔는데 그때 원암이구 장천이구 수정파내느 일이 수정이 자수정이 아니래요. 나두 수정파리 두 번 갔다왔는데 원암리사람이 수정파리 들어갔다가 죽었잖아요, 그 후부터 수정을 안깼어요. 65년도에 끝물이었어요. 지금도 수정재가 게되면 돌쪼가리들이 볼 수가 있어요.

벼락바우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호랑이가 자기 엄마를 물고 가는거를 그 어른이 힘이 장사래요. 이용범이라고. 지 엄마를 물고 가는 거를 마누라보구 홍두깨 좀 가져오라고. 그러니까 할멈이 홍두깨를 가지고 겁이나서 못가져왔어요. 그래서 가서 가지고 쫓아오니까 여기 까지 물고와서 엄마를 버리는데 홍두깨 가지구 쫓아가니까 하늘에서 천둥번개가 치면서 돌이 벌어졌데요. 벼락이 쳤다해서 벼락바우. 그분이 작은어머니 오빠거든요. 그러니까 100년이 넘었죠. 어머니는 못구했대요. 죽었죠. 그러니까 주먹으로 못죽이니까 홍두깨 가져오라 했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벼락을 치면서 떡 벌어지드래요.

서형원 85세(1936년생)

영랑동(금강낚시점) / 2020년 10월 10일

인터뷰 진행 김정환, 한정규

망향다방, 희망다방을 아시나요?

망향다방 맞아요, 고복수하고 황금심하고 하던거. 지금 집 짓는데 있어요. 길가 다보면 새로 집짓는데 바로 뒤로. 다방이 컸어요. 그 후로 고복수가 그거 하다가 가버리고 거기 아마 양계장을 했지. 넓었어요. 희망다방은 지금 그 이모네식당 여기 큰집있죠. 그 앞에 처녀가 장사하고 있어요. 텐트치고. 거기가 희망다방이었어요.

장사할 때 손님이 많았나요?

그럼요. 고복수하고 황금심이 했으니까요.

중석상회 자리는 어디인가요?

문화방앗간 자리 있죠. 거기가 중석상회 자리예요.

시장안에는 무슨 가게가 있었나요?

함녕상회는 원산사람들이 했던건데 다 없어졌어요.

지금 공원 만들어놓은 시장자리에는 무엇이 있었나요.

거기는 어시장 자리예요. 그전에는 돌아가며 집이 있었고 어시장이 만들어진 것은 67년. 전쟁 끝나고 나서

미군 물건은 어디서 팔았나요.

여기가 길(금강낚시점 바닥)이거든요. 올라가면서 상점이 있었어요. 앞에 해동약방이 있었어요. 미군부대 물건은 잘모르겠어요. 길바닥에 놓구선 치약 이딴거 파는게 있구. 쵸꼬루 파는게 있구, 그리곤 없어요.

당시 기억나는 가게가 있나요,

삼영공사 자리가 이모네식당 건너편에 마트같은게 있어요. 식자재 팔았어요. 삼영공사 없어지고 대진연탄 공장을 했었죠. 삼영공사는 수복당시 있었어요. 당시

는 가게 이름이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었어요.

해동약방만 알고, 광산철물자는 예전에 모란이발관이 있었어요. 이것도 50년 대 있었어요. 그담에 광산철물 건너편 그 집에 철물점이 있었는데 여승인씨가 철물점을 오래했어요. 50년대는 철물점이 그 집 뿐이었어요. 그리고 저 아래 은행자리가 박태희씨가 하던 철물점이었고요.

영랑초등학교 앞에 운동장이 있었나요?

양우아파트 뒤에가 원래 영랑초등학교 운동장이었어요. 솔밭이 있었고 교장 사택이 그 안에 있었어요. 일본새끼니까 솔밭 가운데 신전이 있었어요. 지금 양우아파트 자리가 속고 자리예요. 원래는 속초초등학교 체육관있는데가 속초고등학교 1회 졸업생, 2회 졸업생이 거기서, 1회는 거기서 졸업을 했고 2회는 양우아파트 그 자리에 와서 졸업을 했어요. 3회까지 거기에 있었고 7, 8회까지도 여기서 졸업했어요. 그 다음에 교동쪽으로 넘어갔죠.

공장들이 들어온 것은 수산물 가공 공장인가요?

그거는 바닷가로. 그게 원래가 시유지였었는데 조명상회 윤영원이가 그걸 3원주고 샀다던가 30원주고 샀다던가 시에서 불하받아 가지구 있다가 조명상회가 망하는 바람에 다 없어지고, 8·15 경축대회를 거기서 배구도 하고 육상도 하고 볼도 차고, 기념식도 거기서 했어요. 그 후로 공장이 쪽 들어섰어요.

예전 도로는 어떻게 되어 있었나요?

갯배 탈적에는 갯배 있는 쪽으로는 원래가 갯배가 없었고 청호동에 원래 집이 없었고 지금 많이 지은데 있잖아요. 거기에 그전에 1군단 군단 사무소가 있었고, 이쪽으로 집이 하나도 없고 그땐 배가 없었어요. 지금 물류(어판장)한데 있잖아요. 그 밑으로도 집이 하나도 없었고, 그게 왜 사구가 생겼나하니까 바닥에 암석이 있거든요. 거기에 모래가 불어서 만들어졌어요. 그게 수로였었죠. 그래서 지금 뚫어가지구 이렇게 뚫었지만 옛날에 그 이(도로)가 하나뿐이었어요.

옛날에 청호동 쪽으로 차가 다녔나요?

차는 안다녔어요. 일제 강점기 때도 차는 조양동, 교동 쪽으로 다녔어요. 이쪽으로는 차가 댕길 수가 없어요. 강물이 흐르기 때문에, 청호동 물이 흐르기 때문에, 지금 신라예식장 자리 있잖아요. 거기가 갈대밭에 수렁이예요. 다 메꾼거예요.

신작로는 언제 만들어진 것인가요?

일제 강점기때 만들어졌죠. 길이 이길하구 저짝 길이 둘 있구 가운데 집들이 있었고 영랑동에서 동명동에서 올라오면서 길이 두갈래로 갈라졌어요. 그러다가 시에서 저쪽 도로를 만들면서 불하를 했어요. 여기가 도로 위에 올라와 앉은거예요. 이 집이. 여기 하수도가 있어요. 여기 벽 뒤가 옛날 하수도예요. 도로는 2차선 밖에 안되었어요.

전쟁 전에 여기 일본인들이 많이 살았나요?

일본 사람들이 많이는 안 살았을 거예요. 지금 낙천있잖아요. 그 앞에 소고기 공장이 있었어요. 군수물자. 낙천양조장 그 아래 큰 우물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군속으로 있던 양반이 신현철이라고. 그 사람이 거기서 근무했다고 하더라고요.

미군부대는 어디 있었나요?

양놈아덜 부대는 속초여자중학교 저 밑으로 미군아덜 쓰레기장이 있었어요. 그 쓰레기에서 깡통 이런걸 가지고 모두 물건 팔아먹구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구 영랑교 있잖아요. 저쪽으로 중국관이라고 돼있는 거기두 쓰레기터 였었어요. 양놈아덜 수송부대가 거기 있었어요. 저 고개 있는 그 밑에 지금 버스정류소에 폐품 수집소가 있었어요. 별게 다 있었어요. 어떤때는 멀쩡한 살코기도 나오고. 또 미군부대가 철둑거리, 역사 있는 뒤쪽으로 ATC숙소가 있었어요. 거기 미군부대가 있었구, 가들이 LSTA를 관장했죠. 수송부대가 양우아파트 너머에도 있었어요. 수송부대가 다 연결이 되어 있었어요. 영랑초등학교 뒤 쪽으로 해서. 그 당시 거기가 다 논이었어요. 그때 부대가 주둔하고 있었어요.

미군들은 영랑시장에 자주 왔나요?

그이들은 영랑시장에 안왔어요. 주말에 시장이 부식밖에 없어서 안왔어요.

여기 동현아파트 자리에 카바레가 있었다고 하는데 미군이 오지 않았나요?

동현아파트가 아니라 마을금고 자리가 카바레 자리예요. 카바레는 그 후에 생긴 거예요. 미군들이 이동한 후에. 신현철씨가 카바레 만들었죠.

의료원은 어디 있었나요?

의료원은 동현아파트 자리인데 이화백씨가 끌어들였죠. 기관이 있어야 된다고.

동보극장은 어느 극장이 옮긴 건가요?

동보극장은 그냥 지었어요. 주차장 하는 쪽에 제일극장을 짓고, 시장 안에 중앙극장, 그때는 손님이 꽤 있었어요.

고복수씨가 밀림극장에서 공연을 했나요?

예, 왜냐면 장교들이 전부 나오니까요. 고복수도 죽다 살아났어요. 피난 오다가 밤에 기나오다가 보초병이 암호하니까 암호를 알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나 고복수요, 고복수요.” 그 놈(보초병)이 음악을 했던 모양이야. 그래서 끌어들여가지고 살아 나온거예요. 자기가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고복수라고 해서 살았다고 말하더라고요. 북한에서 내려올때요.

다른 건물들은 무엇이 있었나요?

시장 안에는 군정 당시에 칼멘다방이 있었어요.

부록 3. 영랑동 사진 기록

기관
도로
등대
생활상
영랑호
마을전경
기타
기증사진

본 사진자료는 『속초시지』, 『속초시정50년사』, 『속초시사』, 『옛 사진으로 보는 속초의 발자취』, 속초시립박물관, 장사동어촌계, 속초문화원, 전태극, 박경심, 기증사진(폴펜쳐, 락웰, 디킨슨, 레버렛), 개인 소장 등에서 영랑동과 관련된 사진을 재구성 하였습니다.

기 관



1950년대 영랑초등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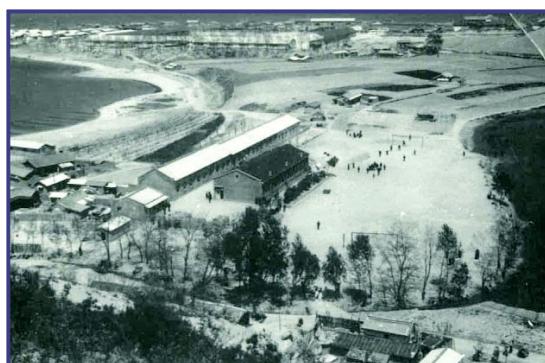
1952년 6월 2일 속초고등학교 개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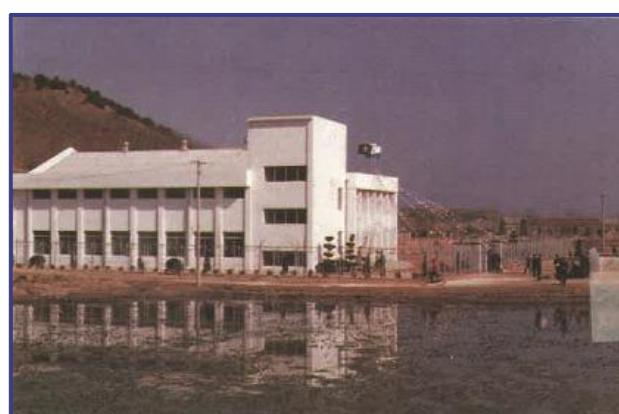
1955년 속초고등학교 영랑동에 개교



1961년 명신고등공민학교 전경



1970년 명신중학교



1977년 4월 일복문화관 준공



1990년 10월 속초시 문화회관 개관



1991년 속초시지 발간기념



1978년 장사동사무소 개관



1987년 8월 속초의료원 이전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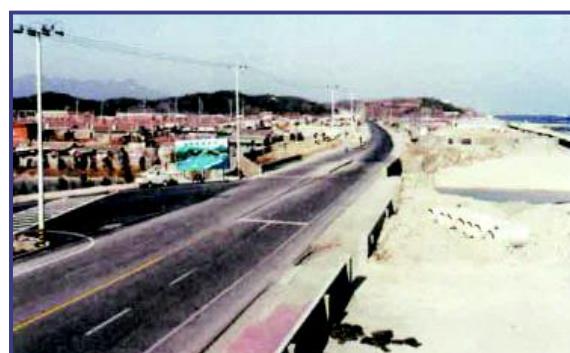
도로



1975년 2월 영랑동 국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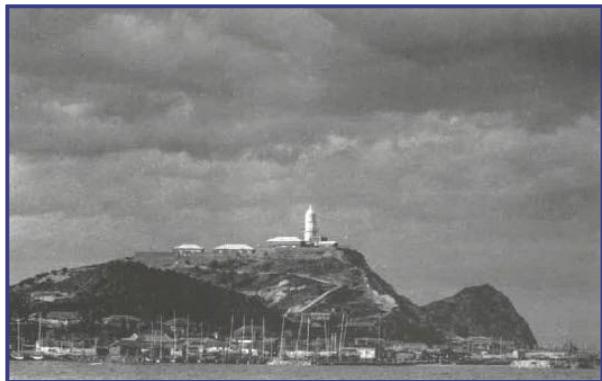


1981년 영랑동 국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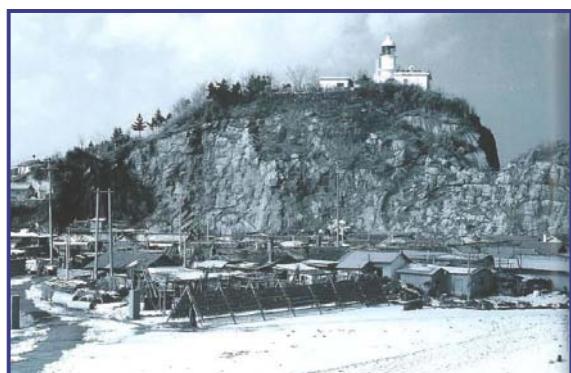


1980년 장사동 국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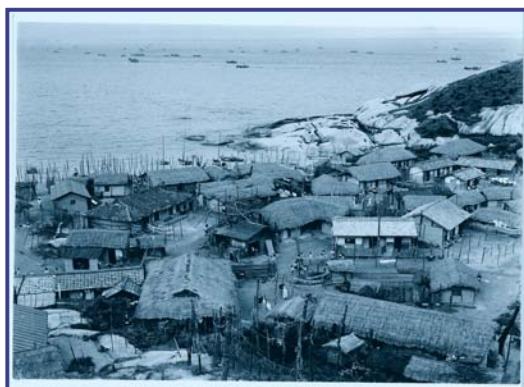
등대



1950년대 등대



1960년대 등대



1960년대 등대아래 새쪽마을 전경

생활상



영랑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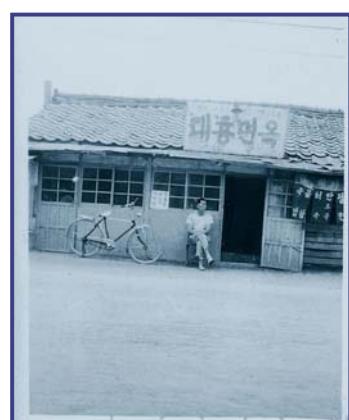
영랑시장



물지게



백마사진



대홍면옥



동해제빙



1944~1950년 사이 영랑초등학교 학생들



1973년 4월 영랑국교 학생들 보광사 옆산 식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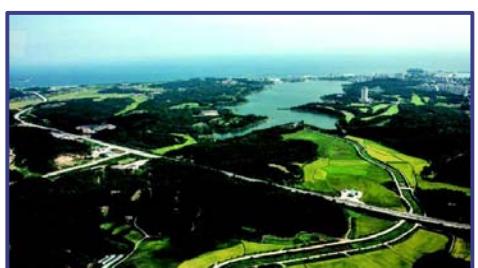
영랑호



50~60년대 영랑호 겨울



1950년대 영랑호



장천천과 영랑호



영랑호 전경과 설악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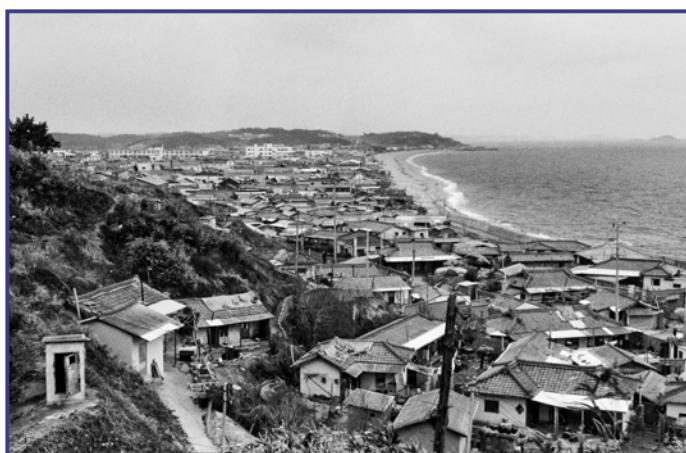
마을 전경



1960년대 영랑동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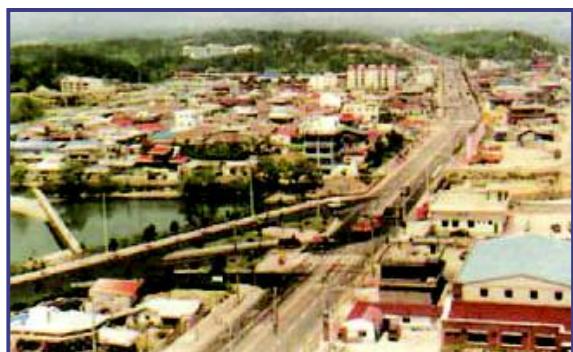
1966년 영랑동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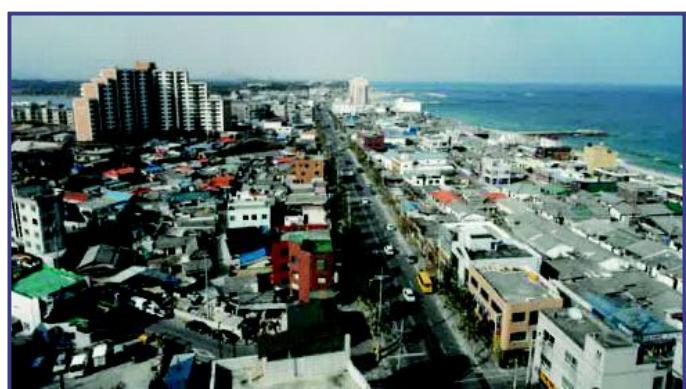
1982년 영랑동 전경



1960년대 영금정 및 영랑동 일대 항공사진



1990년대 장사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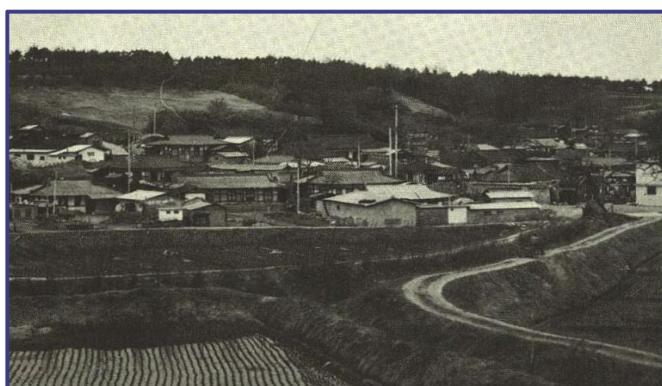
2005년 영랑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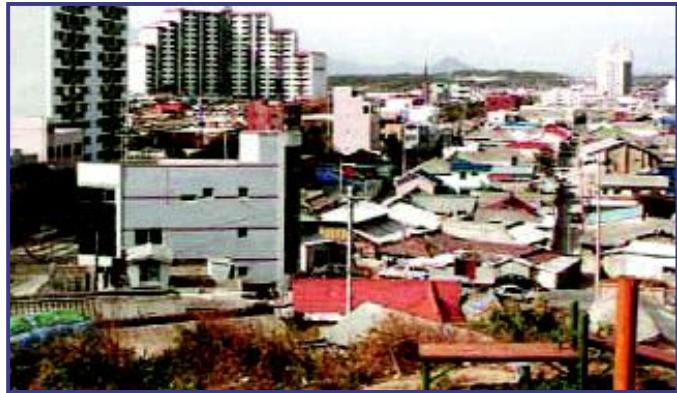
2006년 장사동



2007년 6월 장사동



2010년 장천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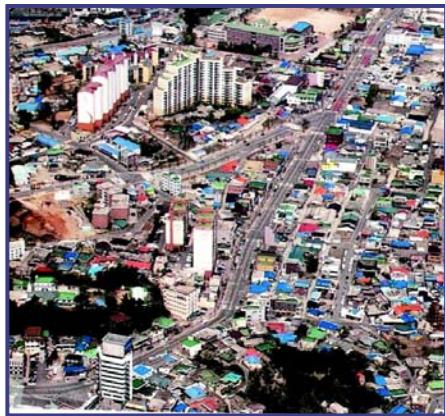
2010년 영랑동



2010년대 장사동 횟집타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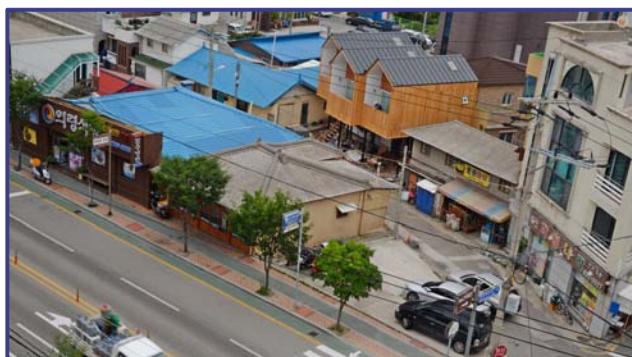
2010년대 장사항



2011년 영랑동 도로



2017년 영랑동



2017년 영랑동(위 사진에서 동원야식 좌측집 변화)



2017년 영랑동



2018년 영랑동



현, 영랑동



현, 장천마을



현, 영랑동 새쪽마을



현, 영랑동



현, 영랑동



현, 영랑동



현, 영랑동



현, 영랑동



현, 영랑동

기 타



1980년 9월 장사동 앞바다 폐타이어 어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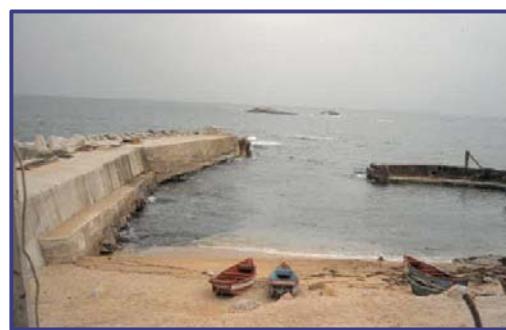


1985년 9월 영랑동 파제벽시설 공사 기공식



1992년 장사동 항만축조

장사동 어촌계 사진제공(1990년대)





1977년 영랑초등학교 뒤편 영랑호



1960년대 영랑호 스케이트대회에 출전한 선수



1960년대 영랑호 스케이트대회 전경



써커스단 홍보



장례식 행렬



1992년 설악제 참가

기증사진 / 사진제공(속초시립박물관) 1950년대, 1953~1954년

Paul Buford Fancher, Richard B. Rockwell 기증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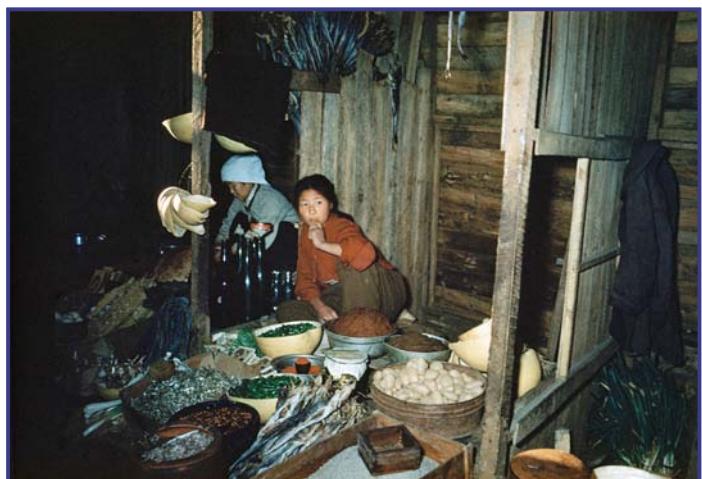


새쪽(삼짜개) 마을



시/장/풍/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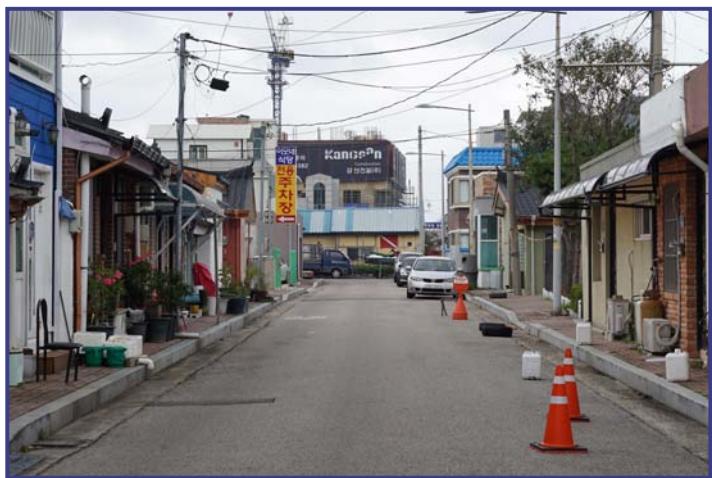


부록 4. 추억을 간직한 거리 / 영랑동 중심지역 위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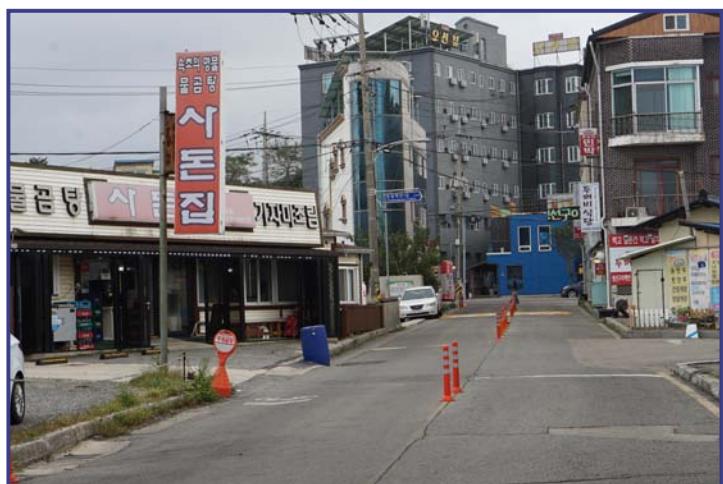
이곳의 사진은 영랑동의 아름다운 골목길을 남기고자 하였습니다.

그 길을 걷다 보면 우리들의 어린 시절을 간직한 곳도 많습니다. 세월이
가도 이 거리가 추억할 수 있는 장소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진은 박경심 사진작가가 촬영하여 제공해 주신 것을 알려드리며,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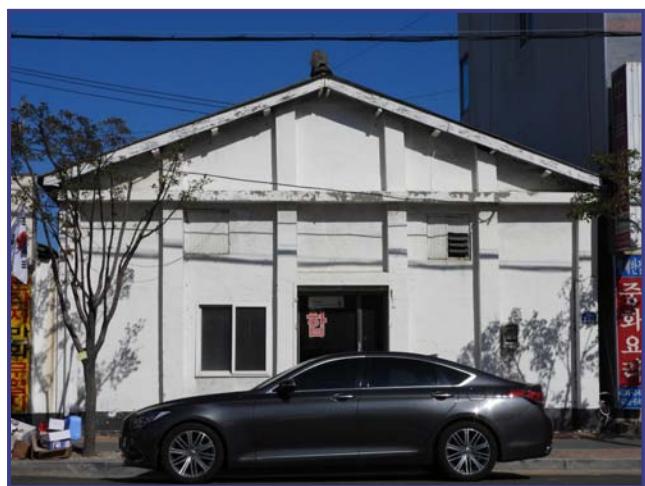












374 속초 도시변천사





376 속초 도시변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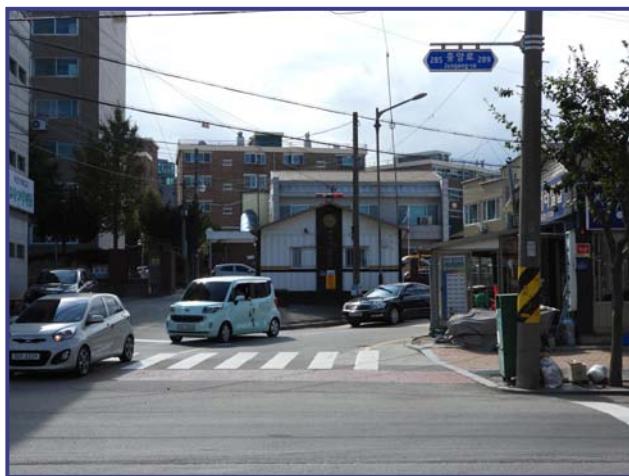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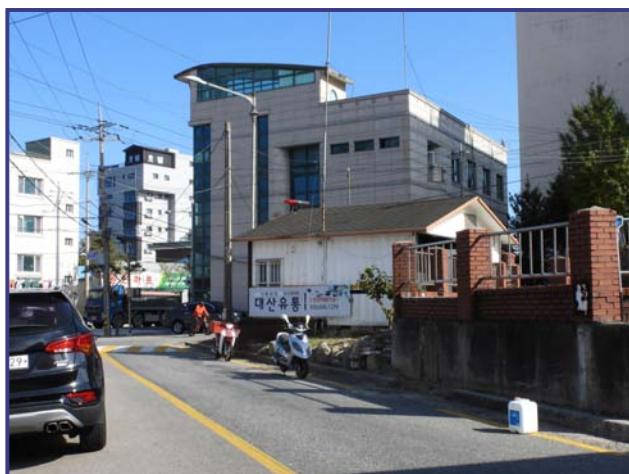
378 속초 도시변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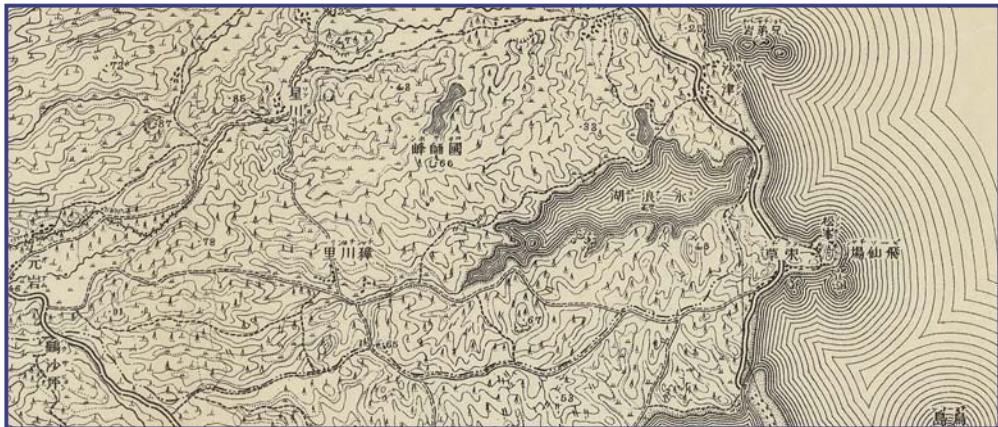








부록 4-1. 지도로 보는 영랑동



1911년, 조선총독부 제작(5만분의 1)

이 지도에는 장천리(章川里)의 지명이 변하기 전인 ‘노루 장(獐)’으로 표기되어 장천리(獐川里)로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역사편 지명 142쪽 참조.>



1915년, 조선총독부 제작(5만분의 1)

이 지도에는 영랑호(永郎湖)의 지명이 영랑호(永朗湖)로 기록되어 있다. 옛 문헌에는 ‘사내 랑(郎)’으로 기록한 것이 대부분이지만, 간혹 ‘밝을 랑(朗)’으로 기재된 것도 있다. 영랑의 전설과 관련하여 보면 ‘郎(사내랑)’으로 쓰는 것이 맞다.



1930년 양양군 관내도, 『강원도양양군세일반』, 국사편찬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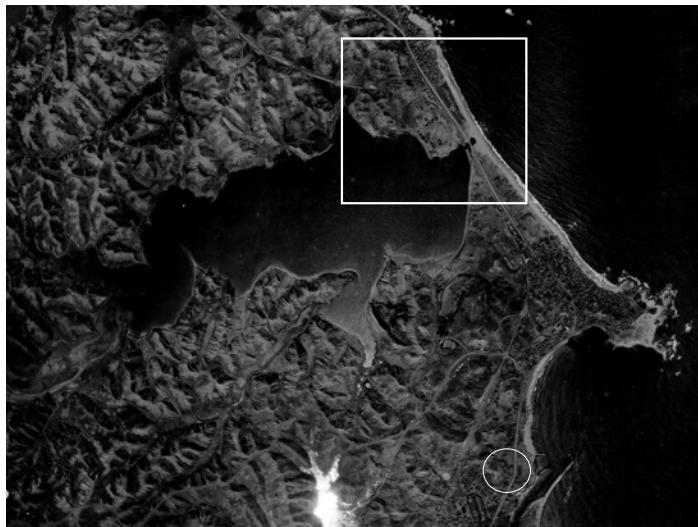
1930년대 지도로 속초면이 생기기 전의 지도이다. 사진리, 장천리(章川里), 속초리, 노리 등이 보인다.



2006년 지도, 국토지리정보원

현재 지도는 도로의 위치, 장천천의 하구, 산지의 형태 등이 과거와 비교해 보면 많은 변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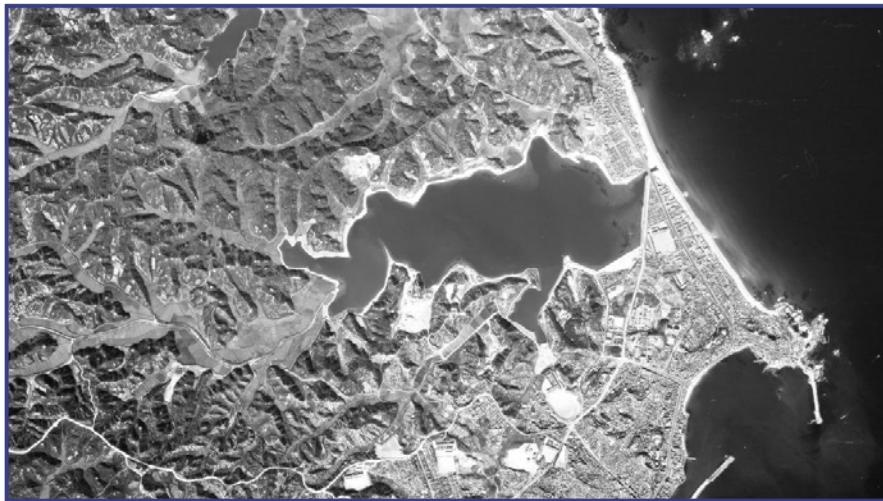
부록 4-2. 항공사진으로 보는 영랑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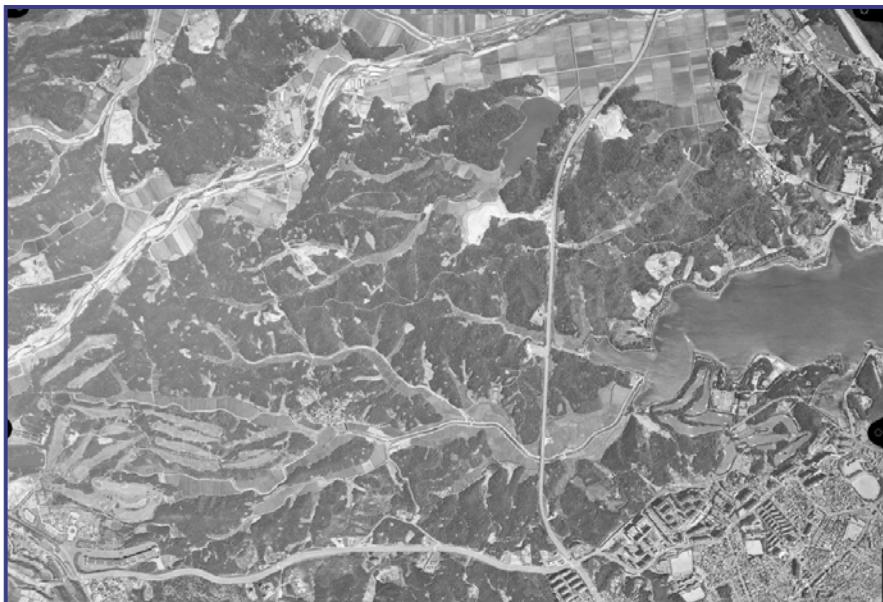
1955년 4월 4일 항공지도 출처 : 국토지리정보원



이 항공사진은 1955년 4월 4일 야간에 촬영한 사진이다. 상단의 지도 아래 ○는 현 시청사 앞쪽으로 1년 전까지 미군 LST가 들어오던 곳으로 병참물자의 하역과 보관하던 곳이었다. 이 사진에는 이곳의 미군은 이동한 상태이다. 위쪽 □를 확대한 하단 사진을 보면 미군 수송대가 남아있는 모습이다. 하단 사진의 ○ 바닷가 쪽에 군용트럭이 줄지어 서 있는 모습이 보인다.



1979년 항공사진 출처 : 국토지리정보원



2005년 항공사진 출처 : 국토지리정보원

참/고/문/현



【기본사료】

김부식(金富軾), 『삼국사기(三國史記)』
김유(金柔), 『검재집(儉齋集)』
안축(安軸), 『근재집(謹齋集)』
이곡(李穀), 『동유기(東遊記)』
이해조(李海朝), 『명암집(鳴巖集)』
일연(一然), 『삼국유사(三國遺事)』
『간성군 읍지』
『여지도서(輿地圖書)』
『조선지지자료(朝鮮地誌資料)』
「지지조서」

【단행본】

강릉대학교 박물관, 『속초시의 역사와 문화유적』, 1997.
강원도, 『강원도사』, 2015.
강원도, 『근대 문화유산 목록화 및 조사보고서』, 2003.
강원문화재연구소, 『문화유적분포지도(속초시)』, 2004.
고성군, 『고성군지』, 2020.
기근도, 『텍스트 한국지리』, 디딤돌, 1996.
김광섭, 『청간정』, 고성문화원, 2012.
김정우, 『내 고향』, 강원일보사, 1997.
藤戶計太, 『최신 조선지리』, 경성일보사대리부, 1918.
문화공보부·문화재관리국, 『중요발견매장문화재도록』, 1989.
속초문화원, 『속초의 옛 땅이름』, 2002.
속초문화원, 『속초 수산업의 발전 역사』, 2017.
속초문화원, 『속초문화원 50년사』, 2015.
속초문화원, 『속초시 거주 피난민 정착사』, 2000.
속초문화원, 『속초의 근현대사』, 2004.
속초시, 『속초시지』, 1991.
속초시, 『시정 30년사』, 1994.
속초시, 『시정 40년사』, 2004.
속초시, 『시정 50년사』, 2013.
속초시·속초문화원, 『옛 사진으로 엮은 속초의 발자취』, 2001.
속초시립박물관, 『초·중등교사를 위한 전통문화자료집』, 2008.
속초시사편집위원회, 『속초시사』, 2005.
속초읍, 『읍세일람』, 1959.
양재인, 『강원도비사』, 강원일보사, 1974.
엄경선, 『시간여행 속초음식생활사』, 속초문화원·강원도문화원연합회, 2018.
이전, 『촌락지리학』, 푸른길, 2011.
장정룡 외 『강원도민 이북도민 정착사』, 속초시립박물관, 2009
장정룡, 『속초의 향토민속』, 속초문화원, 1992.

정상철, 『속초의 역사와 이해』, 속초문화원, 2018.
 주상훈, 『속초의 지명』, 속초문화원, 1990.

【논문】

- 노광복, 「내가 겪고, 보고, 느낀 6·25전쟁과 속초의 수복」
 (광복 70주년 기념 현대사 체험수기), 2015.
- 노광복, 「전쟁의 상흔과 새로운 희망의 공존 - 1950년대 속초리의 풍경-」,
 『1950년대 속초리 속으로』, 속초시박물관, 2011.
- 속초문화 편집부, 「영산도지 영랑호」, 『속초문화』 4, 속초문화원, 1988.
- 이수영, 「사진으로 바라 본 1950년대 속초의 모습」, 『속초문화』 26, 속초문화원, 2010.

【시청각자료】

- 대한뉴스 제592호
 속초시립박물관 소장, 디킨슨, 럭웰, 폴펜쳐 기증 사진
 속초시립박물관 소장, 최구현 기증 사진
 속초문화원, 2010, 장롱사진공모전
 속초문화원, 2012, 장롱사진공모전

【웹사이트】

- 강원도민일보 홈페이지(<http://www.kado.net/>)
 강원일보 홈페이지(<http://www.knews.co.kr/>)
 고성문화원 홈페이지(<http://www.goseongcul.com/main/index.html>)
 국사편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history.go.kr>)
 국토지리정보원 홈페이지(<https://www.ngii.go.kr>)
 기상청 홈페이지(<https://www.kma.go.kr>)
 나무위키 웹사이트(<https://namu.wiki/>)
 네이버 지식백과(<https://terms.naver.com/>)
 다음 홈페이지(<https://www.daum.net/>)
 두산백과(<https://www.doopedia.co.kr>)
 문화재청 홈페이지(<http://www.cha.go.kr/main.html>)
 물환경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water.nier.go.kr>)
 설악신문 홈페이지(<http://www.soraknews.co.kr>)
 속초문화원 홈페이지(<http://www.sokcho-culture.com>)
 속초시청 홈페이지(<http://www.sokcho.go.kr/portal>)
 원주지방환경청 홈페이지(<http://www.me.go.kr/wonju/web/main.do>)
 한국고전종합DB(<http://db.itkc.or.kr>)
 한국예총 속초지회 홈페이지(<http://www.artssokcho.com>)
 해양수산부 동해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http://donghae.mof.go.kr>)
 행정안전부 도로명주소 홈페이지(<https://www.juso.go.kr>)

속초 도시변천사 I

영 랑동·장사동

발행인 / 김계남

편집인 / 한정규

펴낸곳 / 속초문화원

집필인 / 속초문화원 향토사연구소 연구위원 외

김정환 강원대학교 사범대학 역사교육과 및 동 대학원 졸업

대진고등학교 교사

한정규 속초문화재단 사무국장

전,국사편찬위원회 지역사료조사위원

정종천 강원대학교 사범대학 역사교육과 및 동 대학원 졸업

속초시립박물관 학예담당

최영택 강원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졸업

고성고등학교 교사

연구보조원

김예빈 상명대학교 디자인대학 시각디자인전공 4학년

정다은 공주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4학년

기획 / 속초문화원 사무국

출판 /

발행일 / 2020. 11.

강원도 속초시 번영로 155

전화 (033) 632-1231 / 전송 (033) 632-1241

전자우편 sc2439@kccf.or.kr

홈페이지 <http://sokcho-culture.com>

[비]매품]

ISBN 979-11-965930-6-3

- ◇ 이 책의 저작권은 속초문화원 및 집필 저자에게 있으니 무단으로 전재를 할 수 없으며, 반드시 문의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책은 속초시보조금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속초 도시변천사



속초문화원

